

軍

Military History

史

2022. 9. 제124호

- 6·25전쟁 직후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창설과 운영
- 1812년 평안도 정주성 전투의 경과 및 관군과 반군의 역량 비교
- 고려·몽골 전쟁기 처인성 전투의 발발 요인과 승전의 반향
- 唐太宗 高句麗 親征과 唐軍의 병력
- 군량으로 추산한 唐軍의 수와 그 함의 -
- 광양 마로산성을 통해 본 9세기대 지방 거점성 운영
- 북한의 '독자적' 군사 사상의 역사적 기원과 변화

[서 평]

- 조선과 명은 임진전쟁을 함께 극복했는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김경록 지음),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 -
- 냉전시대 북한과 베트남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도미엔 지음, 『붉은 혈맹 :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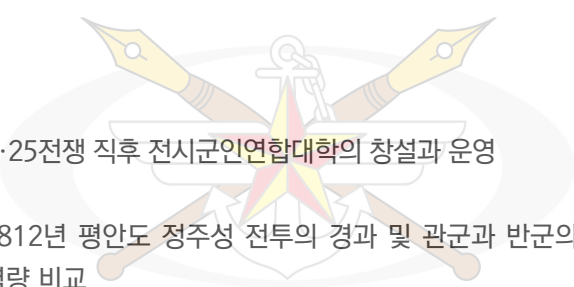
軍史

第124號
2022. 9.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Contents | 2022. 9. 제124호

- 
- 1 ▶ 6·25전쟁 직후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창설과 운영 이상호
- 33 ▶ 1812년 평안도 정주성 전투의 경과 및 관군과 반군의
역량 비교 강석화
- 89 ▶ 고려·몽골 전쟁기 처인성 전투의 발발 요인과 승전의 반향 홍민호
- 133 ▶ 唐太宗 高句麗 親征과 唐軍의 병력 崔珍烈
- 군량으로 추산한 唐軍의 수와 그 함의 -
- 167 ▶ 광양 마로산성을 통해 본 9세기대 지방 거점성 운영 최권호
- 215 ▶ 북한의 ‘독자적’ 군사 사상의 역사적 기원과 변화 김태현



軍史



Contents | 2022. 9. 제124호

[서 평]

263

- ▶ 조선과 명은 임진전쟁을 함께 극복했는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김경록 지음),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 -

金康植

277

- ▶ 냉전시대 북한과 베트남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도미엔 지음, 『붉은 혈맹 :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

이신재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4, pp.1-32
<https://doi.org/10.29212/mh.2022..124.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25전쟁 직후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창설과 운영

이상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 선임연구원



목 차

1. 서론
2. 전시연합대학과 군인교육의 양상
3.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창설
4.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운영
5. 결론

초 록 6·25전쟁기 고등교육의 일환으로 군인들에 대한 교육은 1951년 2월 전시연합대학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반인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이었고 현역 군인의 경우에는 후방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전시연합대학을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교육제도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1930년대 후반 중국의 국립서남연합대학을 차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전시연합대학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대학의 설치 근거에서 1954년 1월에 설립되는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초기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53년에 한국군에서는 미군교육원(USAFI) 제도를 모방하여 공민교육의 내실화를 기도하면서 군내 일반교육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문맹교육, 초·중등교육과 함께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을 전시군인연합대학이라는 기구를 통해 실시하였다.

전시군인연합대학은 1954년부터 1956년 1월까지 만 2년 동안 실시되어 3천 2백 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교육했다. 당시 열악한 교육 환경 하 대학생 수가 3만 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에서 군내의 대학교육 제도의 운영과 실시는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즉 고등교육을 이끌어가는 군의 근대화 정책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흔히 후발국의 근대화 정책의 선도는 군의 규율주의와 선진 기술주의의 습득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경우도 교육받은 장교들이 국가 경제에 유익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했다. 바로 전시연합대학이 고등교육의 운영과 성취에 있어 일부나마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전시연합대학, 전시군인연합대학, 정훈국, 국립서남연합대학, 심리전, 군 통신교육, 미군교육원, 6·25전쟁

(원고투고일 : 2022. 7. 8, 심사수정일 : 2022. 8. 15, 게재확정일 : 2022. 8. 30.)

1. 서론

전쟁기 교육은 상당한 어려움을 동반한 채 이루어진다. 특히 6·25전쟁은 38선을 중심으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4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돌파하였기에 더욱 전선이 불안정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기구를 중심으로 한 통치기구 및 행정기구의 이동이 빈번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란의 시기에도 미래를 향한 투자는 계속되었다. 제대로 된 건물과 교육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것은 바로 전시 교육이었다.¹⁾

본 논문에서는 6·25전쟁 발발과 함께 고등교육의 전개과정 특히 ‘전시연합대학’을 일별하고, 전쟁직후 운용되었던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창설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비슷한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전시연합대학’과 ‘전시군인연합대학’은 별개의 기구이다. 특히 ‘전시연합대학’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나²⁾, ‘전시군인연합대학’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가 부족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료의 미비도 원인이지만, ‘전시연합대학’과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유사성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시연합대학’은 1951년 2월에 설치되어 1952년 5월에 해체된 임시방편적인 전시 고등교육기관이었고, ‘전시군인연합대학’은

1) 전시 교육의 한 특징으로 미군의 공산포로 ‘미국화’ 교육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상호, 『한국전쟁』 (섬앤섬, 2000), 265~266쪽.

2) 오정렬, 「사다함의 후예들-전시연합대학을 전후한 학생운동」, 『세대』 제7권 통권 69호, 1969; 손인수, 「한국동란중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29호, 1995; 최해교,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전종휘, 「전시연합대학에서의 활동」, 『의사학』 제9권 제2호, 2000; 연정은, 「전시연합대학과 학원통제」, 『사람』 제24호, 2005. 박선영·김희웅, 「한국전쟁기 대학상황의 이해」, 『한국학논집』 제37집, 2008.

1954년 1월에 창설되어 1956년 2월에 폐교된 군내 고등교육기관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쟁기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일별하고,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창설 및 운영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시군인연합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위상에 대해 평가해 보자.

본 연구를 위해 활용한 자료로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당시 국방부 인사복지국과 정훈국이 작성한 1차 자료와 국내신문 그리고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공간사 등이다. 제한적인 것은 당시 ‘전시군인연합대학’에 대한 충분한 1차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2. 전시연합대학과 군인교육의 양상

‘전시연합대학’은 1951년 2월에 부산에 설치되어 광주, 대구, 전주, 등으로 확대된 고등교육기관이었다. 이 연합대학은 1년여 동안 운영되다가 1952년 5월 31일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전시연합대학의 설치와 운영을 둘러싸고 학계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첫째는 전쟁기에 일시적으로 설립된 임시방편적 전시교육체제의 하나였다는 주장이다.³⁾ 더 나아가 손인수는 세계적인 교육제도 연구의 한 자료이자, 미래 한국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⁴⁾ 둘째는 당시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교육자원의 부재, 그리고 교육에 대한 국가통제의 필

3) 박선영·김희용, 「한국전쟁기 대학상황의 이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37집, 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원, 2008.

4) 손인수, 「한국동란중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제29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5, 54쪽.

요성 때문이라는 주장이다.⁵⁾ 전시연합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의 운용이 교육에 대한 국가통제와 사상통일을 위한 계기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당시 전쟁이라는 시기적 특성과 각종 제도의 정비, 지방 국립대학의 설치 등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전시 교육정책을 통해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이를 통해 예비전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국방부의 군사적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⁶⁾ 이 외에도 연구사적으로는 미비하지만 전시연합대학에서 활동한 개인의 회고가 간략히 소개되고 있다.⁷⁾

일반적으로 6·25전쟁기 전시연합대학이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교육제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⁸⁾ 그러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는 1차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시연합대학은 중일전쟁기 중국의 ‘국립서남연합대학(國立西南聯合大學)’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서남연합대학’은 1938년 중일전쟁 시기 청화대학(淸華大學)과 북경대학(北京大學) 및 남개대학(南開大學) 등 세 학교가 연합하여 운남성 곤명(昆明)에서 개교한 전시 임시학교이다.⁹⁾ 세 학교는 국민당 교육부의 명령에 따라 호남성 장사(長沙)로 내려가 장사임시대학을 세우고 한 학기를 보냈다. 1938년 4월 다시 학교를 곤명으로 옮겨 서남대학이라 명명했다. 이 대학은 중일전쟁 종료 시점인

5) 최해교,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5쪽; 연정은, 「전시연합대학과 학원통제」, 『사림』 제24호, 수선사학회, 2005, 276쪽.

6) 최해교, 위의 논문, 15쪽.

7) 오정렬, 「사다함의 후예들-전시연합대학을 전후한 학생운동」, 『세대』 제7권 통권 69호, 세대사, 1969; 전중휘, 「전시연합대학에서의 활동」, 『의사학』 제9권 제2호, 대한의사학회, 2000.

8) 손인수는 이를 세계 교육사상 전례없는 전시상의 대학운영에 관한 사례로 평가했다. 손인수, 앞의 논문, 51쪽.

9) “서남연합대학-전시에 8년간 문 연 중국 최고 학부,” 《중앙선데이》 2008년 3월 1일; “대학은 큰 스승이 있는 곳,” 《중앙선데이》 2008년 3월 9일; 이태준, 「매이기(梅貽琦)의 교육사상과 국립서남연합대학」, 『외국학연구』 제38집, 2016년, 286쪽.

1946년까지 약 8년간 운영되었다.

6·25전쟁 시기 전시연합대학은 바로 이 국립서남연합대학을 모방한 것이지만, 나름대로 독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는 이후 지방 고등교육기관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지방 국립대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전시연합대학의 설치 시기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가장 이른 시기는 1950년 11월 설이다.¹⁰⁾ 다음으로는 1951년 2월 설로 이 때 부산에서 설치되어 이후 광주, 대전, 전주로 확대되었으며, 1952년 5월 31일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는 주장이다.¹¹⁾

하지만 대학설치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은 전시연합대학이 운영되고 3개월이 지난 1951년 5월 4일자 문교부령 제19호로 제정 공포된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이다.¹²⁾ 이 법령의 특성은 제4조에 언급되어 있듯이 ‘단독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없는 대학은 정상 수업이 가능할 때까지 전시연합대학의 명칭으로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합동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 특별조치령에서는 수업 시수와 학점 규정, 군사훈련과 현역군인에 대한 대우도 특별히 규정되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당시 발표된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의 하부 조문에서 후일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초기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¹³⁾ 즉 15조부터 20조에 이르는 조문에는 현역군인에 대한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조금 길지만 해당

10) 최해교에 따르면 전시연합대학은 1950년 11월 11일부터 개강하였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제대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해교, 앞의 논문, 18~19쪽; 연정은, 앞의 논문, 280쪽.

11) 최해교, 위의 논문, 2쪽.

12) 최해교, 위의 논문, 1998, 17쪽.

13) 손인수는 이러한 전시연합대학과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연계성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손인수, 앞의 논문, 54쪽.

내용의 전문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¹⁴⁾

제15조 현역군인에 편입된 학생, 제2국민병 응소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복귀한 자 및 제20조에 의하여 복귀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업시간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인정한다.

제16조 현역군인에 편입된 학생, 제2국민병 응소중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좌(注: 아래)에 의하여 졸업 또는 진급을 인정한다.

1. 졸업학년생은 단기 4283연도에 한하여 학년말에 가졸업으로 인정하고 복귀후 소정의 학점을 취득케하여 정규졸업으로 한다.
2. 하급학년생에 대하여는 복귀후 소정의 학점을 취득케하고 재학연한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군무기간을 재학기간으로 간주한다.
3. 학년단일제로 편성된 대학의 학생에 대하여는 단기 4283연도에 한하여 졸업학년생은 가졸업으로 인정하고 복귀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정규졸업으로 하며 하급학년생은 가진급으로 인정하고 복귀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정규진급으로 한다.

제17조 현역군인에 편입된 학생, 제2국민병 응소중에 있는 학생 기타 군사훈련의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그 기간에 대하여 제14조 소정의 군사훈련학점(時間)을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 현역군인에 편입된 학생, 제2국민병 응소중에 있는 학생, 기타 군경에 복무한 학생으로서 휴학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직무가 전수과목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매학기 5학점

14) 문교부령 제19호 (1951년 5월 4일)〈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

(120時間)내의 실습과정을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 현역군인에 편입된 학생, 제2국민병 응소중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수업료를 면제한다.

제20조 현역군인에 편입된 학생, 제2국민병 응소중에 있는 학생외의 학생은 본령 공포후 1개월내에 복귀하거나 또는 휴학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당 조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1950년 해당 연도의 수업은 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1950년 졸업학년생은 이를 졸업으로 인정하고 복귀 이후 학점을 추가적으로 취득케하여 정규 졸업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하 현역군인 학년생들에게는 1950년도를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대학이 실시해야 하는 매학기 3~4학점의 군사훈련은 현역군인들에게는 자동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이공계나 의학계통의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군 업무와 유사성이 있는 경우 이를 매학기 5학점 이내에서 인정하도록 했다. 당시 1학점 당 수업 시수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볼 때 현재 대학의 1학점 당 시수(16시간)보다 50% 이상 가중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기할 점은 제19조로 당시 현역군인임에도 후방에 있는 경우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이 시기 대학교육을 이수하는 현역군인에게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51년 1월 26일자로 당시 문교부에서는 <전시학교육특별조치요강>을 제정 공포하여 수업을 개시할 것을 시달하였다. 이 요강에 따르면 ① 피란 학생의 취학 독려, ② 가교사(假校舍), 피란 특설학교 설치, ③ 북한 피란 학생 수용, ④ 도시 피란학교 설치, ⑤ 전시연합대학의 설치, ⑥ 흙벽돌 교사(校舍)의 신축, ⑦ 임시교사 1천 교실의 건축 계획 ⑧ 전시교재의 발행 등이었다.¹⁵⁾

15) 백낙준, 『한국교육과 민족정신』 (문교사, 1953), 282~286쪽.

최해교는 전시연합대학의 시초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등 3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부산에서 최초로 실시한 1951년 2월 19일을 기점으로 삼았다.¹⁶⁾ 부산의 전시연합대학이 이후 설치되자 이후 전주에서는 1951년 5월 8일에 전북전시연합대학이, 대전에서는 충남전시연합대학이 개강식을 실시하였다.¹⁷⁾ 하지만 당시 부산의 전시연합대학과 그 이외 지역의 전시연합대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부산의 전시연합대학은 서울 소재 대학들, 특히 서울대학교가 중심인 반면, 전북전시연합대학과 충남전시연합대학 등은 그 설립 주체가 지역민들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전시연합대학의 운영은 부산전시연합대학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체로 이 전시연합대학을 구성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국학대학, 서울여자의과대학¹⁸⁾, 한국대학(현 서경대학), 국민대학, 신흥대학(현 경희대학), 단국대학, 세브란스 의과대학, 숙명여자대학교 등 10개 대학이다.¹⁹⁾

전시연합대학은 교무처, 학생처, 사무처 등 3개 처와 문학부, 이공학부, 법정경상학부, 의약학부, 농수산학부, 예술학부, 가사과, 체육과 등 6부 2과 체제로 편성되었다.²⁰⁾

먼저 운영경비는 3개월 분 등록금 1만원을 소속 대학에 납입하고, 대학은 학생 1명에 대해 1강좌당 500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과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선택과목으로 구별되어 있었고, 졸업 때까지 학생들이 취득해야 하는 학점은 180학점 이상이 원칙이었다. 현재의 대학 학점 130~140학점보다도 30% 이상을

16) 최해교, 앞의 논문, 21쪽.

17) 최해교, 위의 논문, 22쪽.

18) 국학대학과 서울여자의과대학은 우석대학에 흡수되었고, 우석대학은 고려대학에 흡수되어 의과대학으로 발전했다.

19) 연정은, 앞의 논문, 294쪽.

20) 부산대학교50년사편찬위원회, 『부산대학교50년사 1946~1996』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7), 74~75쪽.

더 수강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여기에 별도로 군사학 강의와 군사훈련 학점이 매학기 8학점 추가되었다.

당시 설립된 전시연합대학의 운영은 파행적으로 이루어졌다. 부산전시연합대학의 한 성적표에는 한 학기에 최고 50학점까지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²¹⁾ 학생들의 출석 상태도 부실했다.

부산전시연합대학에는 4,268명이 등록했다고 일부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강신청만 해놓고 전시직장(戰時職場)에 취업하고 있어서 실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고 평가하고 있다.²²⁾

이렇게 1년 동안 운영되었던 전시연합대학은 각 대학들이 단독 개강하면서 해체되기 시작했다. 서울 지역 대학 가운데 부산에서 최초로 단독 개강한 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였다. 이화여대는 1951년 9월 1일 부산시 부민동에서 단독 개강식을 실시하였다.²³⁾ 이후 동국대학, 부산대학, 성균관대학, 고려대학, 숙명여대, 연희대학 등 서울 소재 대학들이 차례차례 부산과 대구(고려대)에서 각각 단독 개강함으로써 전시연합대학은 점점 쇠퇴하게 되었고 결국 52년 5월에 가서 정식 해체되었다.

전시연합대학이 여러 특성을 갖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전시 교육체제하에서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진 국립대학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²⁴⁾ 결국 이렇게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등에 만들어진 전시연합대학은 전쟁 직후 지방 국립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²⁵⁾

21) 최해교, 앞의 논문, 30쪽.

22) 부산대학교50년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76쪽.

23)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편, 『이화100년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4), 304쪽.

24) 최해교, 앞의 논문, 47쪽.

25) 이를 두고 최해교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종합대학교는 4개교(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에 지나지 않았지만 52년에 전국의 종합대학교는 7개교(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등)로 증가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해교, 위의 논문, 49쪽; 박선영·김희용, 앞의 논문, 361~362쪽; 손인수, 앞의 논문, 58쪽.

3.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창설

전시연합대학이 교육적 필요에 의해 임시적으로 운용된 고등교육 기관이라고 한다면 전시군인연합대학은 일종의 군인 재교육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 제도는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1942년 4월에 설립되어 미국과 해외에서 미군 병사들을 상대로 운영되었던 미군교육원(United States Armed Forces Institute, USAFI)²⁶⁾과 전시연합대학을 혼합하여 만든 학교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군인들을 상대로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하며, 교육 경력을 유지하려는 면에서 보면 미군교육원의 기능을 모방한 것이었고, 연합대학의 형식을 갖고 서울의 각 대학의 유명 교수들이 출강하여 교육을 담당한 것을 보면 전시연합대학의 운영을 모방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전시군인연합대학은 다양한 교육기관을 혼합하여 만든 6·25전쟁기 독창적인 국내 군사 교육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54년 1월에 설립된 전시군인연합대학은 학업을 중단한 장병들에게 수학의 기회를 부여해서 그들의 노고에 보답한다는 국가적 시

26) 1942년 4월에 창설된 미군교육원은 그 본부를 위스콘신(Wisconsin) 주 매디슨(Madison) 시에 두고 있었다. 처음 창설되었을 때에는 전쟁으로 인해 학교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는 병사들을 위해 교육 경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수학, 응용과학, 기술과정 등 64개 과정으로 시작되었으며 80여개 대학이 지원하는 통신교육으로 확대되었다. 제2차 대전이 본격화되자 전 세계에 다수의 지부를 설치했다. 미군교육원의 인기 강좌는 수학, 부기(簿記), 회계, 영문법, 미국사 등이었다. 미군교육원의 강좌 시험은 일종의 검정고시 시험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1942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 본토 및 해외 기지의 군인들에게 검정고시 및 대학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 군 교육기관이었다. Herbert G. Espy, "The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stitute", *Journal of Chemical Education*, American Chemical Society and Division of Chemical Education, Inc., vol. 22, 1945. 1, pp. 26~27.

책에 의해 준비되었다.²⁷⁾ 안동준 정훈부장이 자료를 수집하여 손원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안을 제시했다.²⁸⁾

제1안 : 군단별로 교육부를 설치하여 교수 15명이 교실 15개 (인문, 사회, 자연별로 5개교실)에서 연 80일간 면접수업을 실시하는 군내 일반교육실시안

제2안 : 국방, 문교 양부 합의로 발간되는 강좌로서 자습하되 면접수업은 상황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실시한다는 군내 통신교육실시안

제3안 : 전시군인연합대학 교육진행요령안

이 안에서 손원일 장관으로부터 제3안을 확정 받은 군 당국은 문교당국과의 협의를 시작했다. 이 때 문교부와 협조된 사항은 전시군인연합대학에서의 교육가능 범위에 관한 문제였는데 인문, 사회과학 계통은 3학년까지, 자연과학 계통 중 응용과학에 속하는 학과는 1학년, 기초과학에 속하는 학과는 2학년 과정까지 각각 수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²⁹⁾

이렇게 해서 1954년 1월 22일 등록을 개시한 전시군인연합대학은 25일 오전 백두진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개강식을 거행했다.³⁰⁾

27)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창설 시기가 1954년이라 이에 대해 ‘전시’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전선에서는 전투가 멈추었지만, 후방에서는 아직도 공비토벌이 진행되고 있었다. 참고로 법률 제18441호(2021. 8.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라고 정의하고 있다.

28)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대계』 I (청구출판사, 1956), A 96~97쪽; 정훈50년사편찬위원회, 『정훈50년사』 (육군본부, 1991), 336~337쪽.

29) 정훈50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337쪽.

30) 《조선일보》 1954년 1월 26일.

당시 전시군인연합대학은 제1차로 인문과학 계통 최고 3학년 재적자와 자연과학 계통 최고 2학년 재적자 가운데 3분의 1을 선발하여 개강하였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사는 장충동에 위치한 한국대학교(현 서경대학교)로 결정되었다.

전시군인연합대학의 교육요강은 다음과 같다.³¹⁾

기간-80일간은 2기로 나누어 40일간 씩 실시

학점. 1일 8시간(매 과목 90분 교육을 실시하여 1학점으로 인정) 24학점

과목.

공통과목-고등영어, 시사영어, 영작, 국어특강, 한국근세사 (5과목)

2. 과목선택

- 가. 정치학과 - 정치사상사, 국제공법, 헌법, 정당법론, 동양정치사, 국제정치론, 의회론 (7과목)
- 나. 경제학과 - 국문학특강, 한국경제론, 농업정책론, 공업정책론, 경제사, 헌법, 의회론 (7과목)
- 다. 인문과학 - 한중교섭사, 한일교섭사, 한국사상사, 국문특강, 국제공법, 경제학사, 독어 (7과목)
- 라. 자연과학 - 국문학특강, 수학, 일반물리, 일반화학, 한국제도사, 한국경제, 독어 (7과목)

제1차로 이루어진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수강생은 육군과 해병대를 합하여 1백 명이었다. 과목선택에 있어 각 학과 및 단과대학의 수강과목을 일별해 보면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정치학과와 경주대학교를 제외하고 경제학과에 <국문학특강>이나 <헌법>이 포함되어 있고, 인문과학에도 <국제공법>이 들어 있다. 더욱이 자연과학에는 <국문학

31) 《경향신문》 1954년 1월 24일.

특강>과 <한국제도사>가 과목선택으로 들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전시군인연합대학이 수강생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들을 심리전이나 정훈 교육의 첨병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후술에서도 밝혀지듯이 이들이 학기를 마치고 다음 학기를 준비할 때까지는 자대로 복귀하여 정훈관의 임무를 맡았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과목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엿볼 수 있다.

〈사진 1〉 전시군인연합대학 수업 광경



* 출처: 경향신문 1954년 2월 28일 (오픈 아카이브)

이후 전시군인연합대학 창설에 관한 법적 근거가 1954년 2월 27일 국방부 일반명령 제110호 <전시군인연합대학창설령>으로 마련되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일반명령 제110호

단기4287년 2월 27일

국방부장관 손원일

전시군인연합대학 창설령

1. 단기 4287년 1월 25일 0시부로 국방부본부에 전시군인연합대학을 창설한다.
2. 인원 및 편성
인원 및 편성은 잠정적으로 아래의 도표와 같이 정한다.
3. 임무
각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각 군 장병에 대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수학(修學) 진학(進學) 조치 및 그 처리
4. 인사사항
 1. 육해공군총참모장 및 국방부총무과장은 전시군인연합대학 기간요원 및 학생을 잠정 차출하라.
 2. 학생차출에 관하여는 별도 지시한다.
5. 보급
보급은 정상적 계통에 의한다.
6. 보고
전시군인연합대학 학장은 이 명령실행과 동시에 최고교수, 학생 및 기간요원 명부와 그 결과보고서를 총무과장을 경유 본관에게 다음 3월 5일까지 제출하라.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창설에 대해 한 신문기사는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사설로 밝히고 있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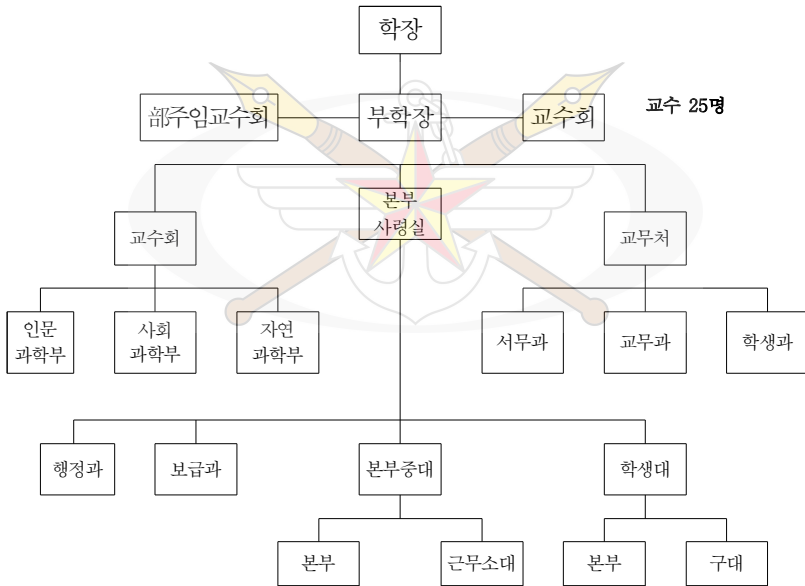
전시군인연합대학이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열의 있

32) 《조선일보》 1954년 1월 28일.

는 추진의 결과 26일로써(注: 25일의 오기) 개강을 보게 된 것을 우리는 크게 기뻐한다. 첫째로는 군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될 시기에 있는 청년으로서 그 연령으로 그 시대의 지식을 갖출 수 없다면, 극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군대에는 군무(軍務)가 있고 더구나 전시인 때문에 국가존망의 운명을 군인 각자가 두 어깨에 걸머지고 있는 만큼, 군인으로서 군인 아닌 시민학생과 같이 공부의 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없음은 누구나 인정할 바이다. 그러나 전쟁의 길은 곧 평화에 통하는 길이요, 평화건설의 수고와 명예를 누구에게 보다도 전선에서 돌아온 역전의 청년용사들에게 돌려야 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록 일전에서 분투의 장병일지라 해도 가능한데까지 지식의 새로운 보급을 받을 기회를 보다 더 많이 가지도록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의 군인연합대학안은 우리가 보기에는 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우선 대학재학중에 입대한 장교들을 위하여 학원을 계속케 한다는 정도로 그 과정도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대학재학 중에 입대한 청년들로서 전쟁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전쟁하는 새로운 군대생활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들 기(既)입대장교에게 뿐 아니라 앞으로 입대할 대학생 또는 고등학교출신학생에게 군인으로서 뿐 아니고, 학도로서도 일취월장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또 크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시대학을 더 확장하되, 대학재학중에 입대한 장교를 위하여 뿐 아니고, 지휘관으로서 중요한 책임에 있는 고급장교들에게도 적절한 고등교육을 베풀음으로써 그 지휘능력을 급속 향상시킬 수 있는 식견을 높이도록 할 것이 간절하다고 본다. 국방관계당국의 심심한 고려를 바란다.

이 사설을 자세히 보면, 당시 여론의 한 추이를 엿볼 수 있다. 즉 당시 배워야 할 시기에 군대에 들어와 그 시기를 놓친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그러면서 ‘전쟁의 길은 곧 평화에 통하는 길이요’라고 부르짖으면서, 평화건설의 주축이 될 청년들이 그 수고로움을 맡아야 하므로 더욱 더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전쟁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전쟁하는 새로운 군대생활’이라고 칭했다.

〈표 1〉 전시군인연합대학 직제표³³⁾



33) 대한민국 국방부, 앞의 책, A 97쪽

〈표 2〉 전시군인연합대학 편성표³⁴⁾

계급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장교 계	특무 상사	일등 상사	이등 상사	일등 중사	이등 중사	하사	일병	사병 계	일급	이급	삼급	기 타 계	합 계
인원	1	2	2	3	1	9	1	2	3	5	10	4	18	43	1	3	8	12	64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입학생들의 학적을 살펴보면 다수의 대학 출신자들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로 확인되는 첫 대학 출신자 명부는 1954년 제1학기 제2차생이다. 이 학생명부를 통해서 보면 총 인원 203명의 각 대학 출신자 통계는 다음과 같다.³⁵⁾

서울대학교 61명 / 고려대학교 15명 / 연희대학교 13명 / 성균관대학교 10명 / 조선대학교 9명 / 정치대학 9명 / 한양공과대학 8명 / 홍익대학 8명 / 단국대학 8명 / 동국대학교 7명 / 청구대학 6명 / 중앙대학교 5명 / 경북대학교 5명 / 전북대학교 4명 / 국학대학 4명 / 한국대학 4명 / 청주대학교 3명 / 국민대학 3명 / 부산수산대학 3명 / 해인대학 3명 / 동아대학 3명 / 전남대학교 2명 / 건국대학 2명 / 대구대학 2명 / 춘천농과대학 1명 / 부산공과대학 1명 / 해양대학 1명 / 신흥대학 1명 / 제주대학 1명 / 감리교신학교 1명

30개 대학의 출신 학생들이 운집하였고, 지역도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는 이후의 재적학교별 통계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34) 대한민국 국방부, 앞의 책, A 97쪽

3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4287년도 제1학기 제2차 학생명부〉,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철》 국방부 정훈국, 1954,

그러나 전시군인연합대학의 교사(校舍)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은 아니었다. 1954년 11월 10일에는 장충동 한국대학에서 신당동 국제대학으로 이동하였다. 다행히 경기도 가평에 위치하고 있던 미군 정양병원시설 전부를 미 제8군으로부터 기증받아 육군 제6관구 공병시설대의 지원으로 대형 콘셋 4동과 부속건물(도서관, 식당, 내무반 등)을 이전하였다. 1955년 7월 14일 새로운 전시군인연합대학 건물이 완성되어 7월 15일부터 낙성식을 갖고 운영하였다. 옮긴 지역은 동대문구 용두동이었다.³⁶⁾

1955년 한 잡지에 실린 전시군인연합대학에의 입교를 알리는 기사내용을 살펴보자.³⁷⁾

전시군인연합대학 입교 광고

대학재적 중 입대한 장병에 알림
전시군인연합대학입교에 관하여

전시군인 연합대학 제2년도 제1학기 제2차입교를 아래와 같이 알림.

1. 대상은 전시군인연합대학 제2년도 제1학기 제2차에 입교한자 전원과 동 제1학기에 취학치 못한 자로서 인문 과학 제2학년 재적장교 중 취학을 희망하는 자.
2. 차출은 각군 본부에서 지명차출함.
3. 차출된 자는 4289년 1월 23일한 전시군인연합대학에 필착 등록할 것임. 만일 기일내에 등록치 못하면 차출 취소됨.

36)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학생명부 제2년도 제2기 1차생>,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철》 국방부 정훈국, 195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1~2쪽.

37) 정훈50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39쪽.

4. 인문과학계통 제2학년 재적 장교의 전시군인연합대학 취학 기회는 본 제2차가 최종임.

전시군인연합대학에 대한 일반의 기대는 단순히 재학 중에 군대에 들어온 청년들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출신 학생에게는 진학의 희망을, 중요한 책임에 있는 고급장교들에게는 적절한 고등교육의 장을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으로 이러한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출범을 강력한 사상전 전개의 일대 전환기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었다.³⁸⁾

4.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운영

전시군인연합대학 제1기 입학생들은 1월 26일 국립 서울대학교 대강당에서 개강식을 하고 1월 27일부터 서울시내 장충동에 있는 한국대학에서 수업을 시작했다. 제1기 입학생의 수는 272명으로 각 대학에서 초빙된 33명의 강사로부터 강의를 받았다.³⁹⁾ 당시 초빙 교수로는 최남선, 이선근, 이병도 등이 있었다.⁴⁰⁾

초빙 교수 이외에도 전시군인연합대학은 각 대학으로부터 출강하여 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수들이 있었다. 다소의 편차는 있으나, 1955년도 제2기 제1차의 교수진을 살펴보면 약 71명의 전임교수를 두고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서울대 문리과대학에서 서양사를 가르치던 민석홍(閔錫弘) 교수가 〈서양근세사〉를, 단국대학교의 서중석(徐仲錫) 교수가 〈한국외교사〉, 고려대학교의 영문과 이호근(李浩

38) 《경향신문》 1954년 2월 13일.

39) 《경향신문》 1954년 2월 28일.

40) 《경향신문》 1954년 1월 23일.

根) 교수가 〈고등영어〉를 강의했다. 〈국어학〉에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의 이승녕(李崇寧) 교수가, 변형윤(邊衡尹)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교수는 〈은행론〉을 강의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양흥석(梁興錫) 교수가 〈전기학〉과 〈전기회로〉를, 서울대학교사범대학의 박익수(朴益洙) 교수가 〈과학사상사〉를 강의했다. 또한 당시 전시군인연합대학장인 홍성은(洪聖恩) 해군대령도 〈국제행정기구론〉과 〈국제전시법〉을 가르쳤다.⁴¹⁾ 철학계의 거두인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의 안병욱(安秉煜) 교수도 제2년도 제2기 제5차인 마지막 교육기간에 전임교수로 〈철학개론〉 수업을 담당했다.⁴²⁾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의 수는 변동이 있었다. 제2년도 제2기 제2차생의 경우 수업을 담당한 전임교수는 49명이었다.⁴³⁾ 제2년도 제2기 제3차생의 경우는 다시 전임교수의 수가 61명으로 약간 늘었다.⁴⁴⁾ 하지만 전임교수와 초빙교수를 포함하여 강사의 수는 200여 명에 달했으며, 당시 이들이 한국학계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쟁쟁한 인사들이라는 것을 전시군인연합대학교 당국 스스로 자랑할 정도였다.⁴⁵⁾

41)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학생명부 제2년도 제2기 1차생〉,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철》 국방부 정훈국, 195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9~10쪽.

42)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학생명부 제2년도 제2기 5차생〉,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철》 국방부 정훈국, 195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1쪽.

43)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학생명부 제2년도 제2기 2차생〉,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철》 국방부 정훈국, 195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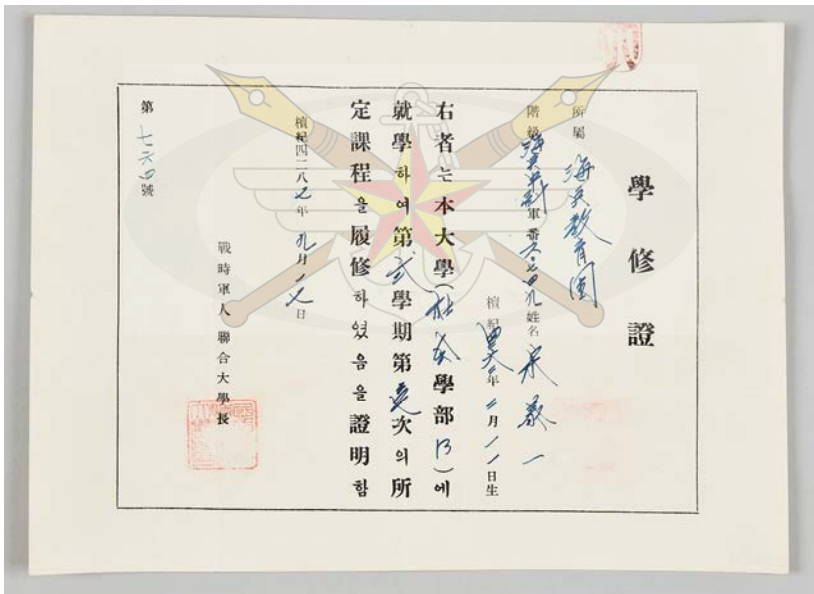
44)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학생명부 제2년도 제2기 3차생〉,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철》 국방부 정훈국, 195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1~2쪽.

4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학생명부 제2년도 제2기 4차〉,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철》 국방부 정훈국, 195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10쪽.

수업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90분을 1시수로 해서 강의를 받았다. 1월 27일부터 시작된 강의는 3월 18일로 끝내게 되어 있었고, 졸업시험에 합격하면 민간대학을 졸업한 것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다. 졸업고사는 3월 14일에 치루어졌고, 18일 248명에 대한 학수증 수여식이 거행되었다.⁴⁶⁾

학수증을 수여받은 수료생들은 7월 29일 제2학기 제1차 면접강의를 받을 때까지 각 부대 정훈관으로서 임무를 부여받았다.

〈사진 2〉 전시군인연합대학 학수증(수료증)



*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954년 5월 17일에는 제1학기 제2기생 수료식이 거행되었다.⁴⁷⁾ 이들은 3월 29일부터 43일간 교육을 받은 203명의 학생들로 다시

46) 《동아일보》 1954년 3월 20일.

47) 《동아일보》 1954년 5월 17일.

원대로 복귀하여 군무에 임하게 되었다.⁴⁸⁾

당시 전시군인연합대학의 교육과장이었던 이영치는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⁴⁹⁾

군의 특수사정 및 지휘관은 교육지도자를 겸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우선 대학교육을 받을 장교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본 전시군인연합대학의 교문을 나온 장병 제위는 필연적으로 군인사회의 지성인의 역할을 담당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중략) 일반사회의 지성인으로서 군 내의 지성인으로서 그리고 지휘관인 동시에 지도자의 역할마저 겸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1954년 5월 전시군인연합대학에서의 학점 인정에 대해 문교부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결정을 하였다.⁵⁰⁾ 즉 1학기(평균 43일) 수업 후 시험에 합격한 것을 1학점으로 계산하는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 특별조치령> 규정에 따라 이를 원적대학에서의 수업과정으로 동일하게 인정은 하지만, 전공과목 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선택과목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정식교육과정의 전공으로 인정하기에는 전시교육대학의 교육의 질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문교 당국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수업의 강도는 전시연합대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특히 전시군인연합대학의 학생들은 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무단결석은 곧 무단이탈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 또한 자유선택에 의한 시간표의 작성이 허용되지 않고, 통 수업 시간의

48) 《조선일보》 1954년 5월 21일.

49)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학생명부 제2년도 제2기 1차생>,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절》 국방부 정훈국, 195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8쪽.

50) 《동아일보》 1954년 6월 1일.

1/7 이상을 결강하면 시험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⁵¹⁾

전시군인연합대학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학장은 2년간 총 4명이 있었다. 초대 학장으로는 1954년 1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학교를 설립하고 기초를 마련한 안동준(安東濬) 육군대령이었고, 2대 학장은 1954년 4월 1일부터 27일까지 20여 일간 재직했던 김완룡(金完龍) 육군준장이었다. 3대 학장은 1954년 4월 28일부터 1955년 12월 29일까지 1년 6개월여간 재직했던 김종문(金宗文) 육군준장이었으며, 마지막 학장은 4대 학장으로 교수로도 재직했던 홍성은(洪聖恩) 해군대령이었다.⁵²⁾

전시군인연합대학은 2년간의 운영 끝에 1956년 1월 19일부로 폐교하였다. 이는 전시(戰時)에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후의 마감이었다. 당시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⁵³⁾

〈표 3〉 전시군인연합대학 제1차년도 이수 현황(1954년)

학기 군장교/사병	학기 것	제1학기				제2학기				합계
		1	2	3	소계	1	2	3	소계	
육군	장교	229	148	228	605	159	120	197	476	1,081
	사병	-	-	-	-	-	-	-	-	-
해군	장교	10	6	2	18	-	1	-	1	19
	사병	8	12	5	25	-	11	4	15	40
공군	장교	-	19	20	39	-	5	9	14	53
	사병	-	4	10	14	-	8	13	21	35

51)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학생명부 제2년도 제2기 4차〉,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철》 국방부 정훈국, 195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7~8쪽.

52)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학생명부 제2년도 제2기 4차〉,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철》 국방부 정훈국, 195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5~6쪽.

53) 대한민국 국방부, 앞의 책, G 95쪽.

해병대	장교	-	4	3	7	8	5	1	14	21
	사병	-	10	6	16	5	9	6	20	36
계	장교	239	177	253	669	167	131	207	505	1,174
	사병	8	26	21	55	5	28	23	56	111
합계		247	203	274	724	172	159	230	561	1,285

〈표 4〉 전시군인연합대학 제2차년도 이수 현황(1955년)

학기 군 장교/사병		제1학기						제2학기						합계
		1	2	3	4	5	소 계	1	2	3	4	5	소 계	
육군	장교	134	126	177	186	197	820	186	204	116	149	130	785	1,605
	사병	-	-	-	-	22	22	-	-	-	-	18	40	40
해군	장교	1	-	1	-	-	2	-	-	-	-	-	-	2
	사병	3	3	8	8	7	29	18	4	9	20	10	61	90
공군	장교	19	2	4	4	3	32	25	4	7	9	8	53	85
	사병	-	-	1	1	6	8	3	-	-	5	8	16	24
해병 대	장교	-	11	2	6	7	26	10	15	2	13	8	43	74
	사병	1	9	-	13	-	23	2	11	-	7	6	26	49
계	장교	154	139	184	196	207	880	221	223	125	171	146	886	1,766
	사병	4	12	9	22	35	82	23	15	9	32	42	121	203
합계		158	151	193	218	242	962	244	238	134	203	188	1,007	1,969

제1차 년도에는 제1, 2학기 3기수만 운영하다가 제2차 년도에 들어와서는 각각 5기수를 운영하여 그 수업대상자를 1.5배 정도 확충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시군인연합대학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자, 국방부는 이에 준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초급대학 등의 학교를 설치하여 군에 복무중인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일반교육을 실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⁵⁴⁾ 이는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외부적 성과와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54) 《경향신문》 1954년 4월 9일.

국방부 정훈국에서는 전시연합대학의 교육 범주를 넘어서 일반대학 재적 중 입대 장병에 대한 계속 교육의 문제와 전시군인연합대학 과정을 마친 장병에 대한 계속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교 당국과 협의하여 예비역 편입 후 복교를 추진하였다.⁵⁵⁾ 이는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는 장병을 수학(受學) 기간 동안에 예비역으로 편입시켜 일반대학으로 돌아가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후에 군으로 복귀시키도록 하는 제도였다.

이외에도 1955년에는 군통신교육을 실시하였다. 군통신교육의 대학과정은 인문, 사회과학 계통은 2학년과정, 자연과학계통은 1학년과정까지로 대학통신교육을 받을 자는 대학재적 중 입대한 자 및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장병으로 하고, 이렇게 통신교육을 통하여 획득한 성적으로 학점 또는 과목 이수로 인정하는 것이었다.⁵⁶⁾

전시군인연합대학 제2차 년도 제2학기 4차를 마무리하며 당시 운영실태에 대해 회고를 포함한 종합적인 보고를 당시 학장인 홍성은은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운영실태>라는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먼저 그는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운영에 대해 교육면에서 ‘전투력만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교양과 도의력(道義力)을 함양하는데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⁵⁷⁾

55) 대한민국 국방부, 앞의 책, A 99쪽; 정훈50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40쪽.

56) 정훈50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341쪽.

57)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학생명부 제2년도 제2기 4차>,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철》 국방부 정훈국, 195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2쪽.

5. 결론

군에서는 이미 1949년부터 보병 제7연대에서 지역 중등학교 교원을 초청하여 장병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중학교 졸업장을 수여했다. 더욱이 6·25전쟁 기간 중에는 병사의 문맹퇴치에 목표를 두고 군 내의 공민교육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휴전 직전까지 23만여 명에 달하는 문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6·25전쟁기 고등교육의 일환으로 군인들에 대한 교육은 1951년 2월 전시연합대학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반인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이었고 현역 군인의 경우에는 후방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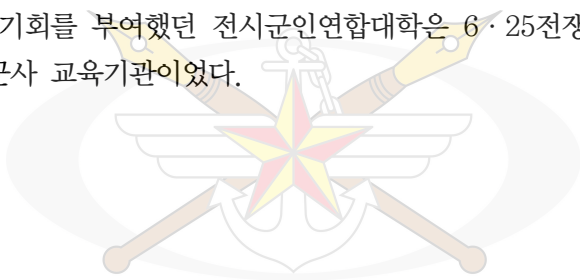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이 전시연합대학을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교육제도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1930년대 후반 중국의 국립서남연합대학을 통해서 이를 차용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전시연합대학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대학의 설치 근거인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의 하부 조문에 후일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초기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1953년에 한국군에서는 미군교육원(USAFI) 제도를 모방하여 공민교육의 내실화를 기도하면서 군내 일반교육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문맹교육, 초·중등교육과 함께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을 전시군인연합대학이라는 기구를 통해 실시하였다.

전시군인연합대학은 1954년부터 1956년 1월까지 만 2년 동안 실시되어 3천 2백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교육했다. 당시 열악한 교육 환경하 대학생 수가 3만 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에서 군내의 대학교육 제도의 운영과 실시는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즉 고등교육을 이끌어가는 군의 근대화 정책의 역점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흔히 후발국의 근대화 정책의 선도는 군의 규율주의와 선진 기술주의의 습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조지워싱턴 대학의 냉전사가인 브라진스키(Gregg Brazinsky)에 의하면 군사학교에서 교육받은 장교들이 국가경제에 유익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한 것인데, 이는 당시 한국의 민간 사회에서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⁵⁸⁾ 한국의 경우도 바로 군이 고등교육의 운영과 성취에 있어 앞장서서 그 정책을 실시했다는 점에 전시군인연합대학 창설과 운영의 의의가 있다.

연합대학의 형식을 갖고 서울 각 대학의 유명 교수들이 출강하여 교육을 담당하고, 미군교육원의 기능을 모방하여 군인들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했던 전시군인연합대학은 6·25전쟁기 독창적인 국내 군사 교육기관이었다.



58) 그렉 브라진스키,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책과함께, 2011), 151쪽.

〈참고문헌〉

1. 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선데이》

2. 단행본 및 논문

국가기록원 소장,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철》,

관리번호 CA0272894, 국방부 정훈국, 1954.

_____, 《기구창설(전시군인연합대학)》,

관리번호 CA0007563, 국방부 인사복지국, 1954.

_____, 《전시군인연합대학 학점취득확인》,

관리번호 CA0272917, 국방부 정훈국, 1961.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대계』 I (서울: 청구출판사, 1956).

정훈50년사편찬위원회, 『정훈50년사』 (육군본부, 1991).

그렉 브라진스키,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서울: 책과함께, 2011).

<http://uci.or.kr//G701:B-00114484992@N2M>

박선영 · 김희용, 「한국전쟁기 대학상황의 이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37집, 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원, 2008. pp. 341~370.

<http://doi.org/10.18399/actako.2008..37.013>

백낙준, 『한국교육과 민족정신』 (서울: 문교사, 1953).

<http://uci.or.kr//G901:A-0008501625@N2M>

부산대학교50년사편찬위원회 편, 『부산대학교50년사

1946~1996』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1997),

손인수, 「한국동란중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제29호, 성

신여자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1995. 2, pp. 49~62.

연정은, 「전시연합대학과 학원통제」, 『사림』 제24호, 수선사학회, 2005, pp. 275-303.

<http://uci.or.kr//G704-001587.2005..24.012>

오정렬, 「사다함의 후예들-전시연합대학을 전후한 학생운동」, 『세대』 제7권 통권 69호, 세대사, 1969. 4, pp. 96-99.

이상호, 『한국전쟁』 (고양: 섬앤섬, 2000).

이태준, 「매이기(梅貽琦)의 교육사상과 국립서남연합대학」, 『외국학연구』 제38집, 2016년, pp. 285~312.

<http://doi.org/10.15755/jfs.2016..38.285>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편, 『이화100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전종휘, 「전시연합대학에서의 활동」, 『의사학』 제9권 제2호, 대한의사학회, 2000, pp. 256~257.

최해교,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Espy, Herbert G., "The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stitute", Journal of Chemical Education, American Chemical Society and Division of Chemical Education, Inc., vol. 22, 1945. 1 (<https://doi.org/10.1021/ed022p26>).

(Abstrac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rmed Forces Associate University just after the Korean War

Lee, Sang-ho

As part of higher education during the Korean War, education for soldiers began in February 1951 as a Wartime Associate University. However, this system was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including the general public, and active-duty soldiers could attend school only if they were posted in the rear area.

In some previous studies, this Wartime Associate University was evaluated as Korea's original education system, but it was borrowed from China's National Southwestern Associate University in the late 1930s. But the reason why we're paying attention to the Wartime Associate University is that we can find out the initial appearance of the Armed Forces Associate University, which was established in January 1954, from the very basis of its establishment.

In 1953, the Korean military strengthened general education in the military by imitating th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stitute and attempting to improve civic education. Along with such the education for the illiterate an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university education, which is a higher education, was conducted through an organization called the Armed Forces Associate University.

The Armed Forces Associate University had been executed for two years from 1954 to January 1956, educating about 3,200 students. At that time, the number of college students under the poor educational environment was just only 30,000.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in the county have many implications. In other words, the emphasis of the military's modernization policy leading higher education can be seen.

Often, the lead the way of modernization policies in the undeveloped countries from the acquisition of military discipline and advanced technology. In the case of Korea, educated officers have accumulated experience in managing projects that are beneficial to the national economy. It is meaningful that the Armed Forces Associate University played a part in the operation and achievement of higher education.

Keywords : Wartime Associate University, Armed Forces Associate University, Jeong Hoon guk(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 National Southwestern Associate University, psychological warfare, Correspondence Cours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stitute, Korean War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4, pp.33-88
<https://doi.org/10.29212/mh.2022..124.3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1812년 평안도 정주성 전투의 경과 및 관군과 반군의 역량 비교

강석화 |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목 차

1. 머리말
2. 반군의 정주성 점거
3. 전투의 경과
4. 관군과 반군의 역량 비교
5. 맺음말

초 록

홍경래란은 1811년 12월 18일에 시작하여 1812년 4월 19일에 종식되었다. 정주성 전투는 1811년 12월 29일부터 1812년 4월 19일까지 전개되었으며, 홍경래란 전 시기의 대부분은 정주성 전투의 기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주성 전투의 전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관군과 반군의 역량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총공격을 펼친 관군은 신무기 윤차를 이용하여 성을 공격하였으나, 반군 역시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윤차를 파괴하였다. 오랜 포위

때문에 식량과 무기가 부족해진 반군은 과감한 출성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반군이 항복하지 않고 오래 버티자 관군은 성벽을 폭파한 후 진입하여 생존한 인원들을 모두 생포하였으며, 이들 중 여성과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성인 남성 1,917명을 전부 처형하였다.

관군의 지휘부는 몇몇 예외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투 지휘나 군사 역량 발휘에 무능하였고, 병사들의 전투력 역시 매우 부족한 형편이었다. 관군은 야간에 전투를 시작하면서 공격 기도를 감추지 못하였고 공성도구는 정교함이나 견고성이 떨어져 쓸모가 없었으며, 한양의 훈련도감에 보관된 홍이포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에 비해 반군은 식량과 무기 부족으로 결국 실패가 예정된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방어 도구를 개발하여 이용하면서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 성을 지켜내었다. 관군이 결국 성을 점령하였으나 관군의 승리라기보다는 이미 자멸한 반군의 마지막 숨을 끊은 것이었다.

본 연구는 홍경래란이나 정주성 전투에 관해 기존 연구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군사적 관점에 입각한 접근과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는 홍경래란의 종합적 이해를 위한 실증 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홍경래란, 정주성 전투, 평안도, 정주, 반란, 윤차(輪車), 조총, 대포, 굴토작업, 폭파작업

1. 머리말

1811년(순조 11) 12월 18일¹⁾에 평안도 가산 다북동의 봉기로 시작하여 1812년(순조 12) 4월 19일에 정주성에서 진압된 홍경래란²⁾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³⁾ 그러므로 난의 정치·사회·경제적 배경과 원인, 경과와 진행, 역사적 의미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밝혀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홍경래란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반란군과 관군의 군사적 충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⁴⁾ 안주 송림리 전투, 용천성과 궤산 쟁탈

1) 본 논문의 월일(月日)은 모두 음력임.

2) 홍경래란은 지역명과 역사적 의미를 함께 표시한 “평안도 농민전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홍경래란”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3) 홍경래란에 대한 기왕의 연구 중 정석종의 논문과 고석규, 오수창, 김선주 등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정석종, “홍경래란” 『창작과 비평』 7(3)(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2):620-680

정석종, “홍경래란의 성격” 『한국사연구』 7(서울, 한국사연구회, 1972): 151-206

정석종, “홍경래란” 『전통시대의 민중운동』 풀빛(1981): 259-315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 사회 연구 - 지배와 저항의 구조』(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오수창, 『조선 후기 평안도 사회 발전 연구』(서울, 일조각, 2002)

김선주, 『조선의 변방과 변란, 1812년 홍경래란』(서울, 푸른역사, 2020)

정석종의 일련의 논문은 1979년에 영인 간행된 『관서평란록(關西平亂錄)』(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9)의 앞머리에 실린 자료 해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홍경래란의 배경과 원인, 봉기에서 진압까지의 경과, 성격과 영향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창작과 비평』에 수록된 논문을 주로 참고하였다.

기존 연구 논저 목록은 김선주의 저서에 실린 논저목록 참조(김선주, 같은 책, pp.318~327). 김선주의 연구에 수록된 논저 목록에는 홍경래란에 직접 관련된 연구 논문은 물론 평안도 지역의 상황 및 평안도 지역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4) 정주성 공방전에 참가한 진압군은 중앙에서 온 순무영 직속 병력, 평양과 안주를 비롯한 평안도 각 읍에서 동원된 관병, 의주 등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의병 등 세

전, 정주성 농성전 등 주요 전투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도 주요 전투의 경과나 승패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난의 전개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취급하여 사료의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을 뿐, 반군과 관군의 상황, 전황의 전개, 승패 요인 등에 대한 세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⁵⁾

본 연구는 홍경래란의 최후 전투인 정주성 공방전에 대해 분석한 글이다. 정주성 전투는 1811년 12월 29일부터 1812년 4월 19일까지 110일간 전개되었으며 홍경래란의 전 기간 중 대부분은 정주성 전투의 시간이었다. 이미 기존의 연구를 통해 정주성 전투 당시 관군과 반군의 상황, 전투의 전개 양상, 관군의 정주성 폭파와 점령, 생존 인원 전원 참살 등 사건의 전개에 대해서는 대강의 사실이 밝혀져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하면서 시기별 전투 양상의 변화, 관군과 반군의 역량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⁶⁾

가치 유형의 부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영이라 불린 순무영 병력, 평안도 각 읍의 관병, 의병들은 부대별로 구성과 지휘체계, 전투력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1812년 1월 11일 이후 순무중군 겸 평안병사를 총지휘관으로 하는 지휘 체계가 마련되었으므로 부대나 지휘관별로 나누어 보지 않고 관군으로 통칭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홍경래를 비롯한 반란 세력의 군사들도 모두 반군이라 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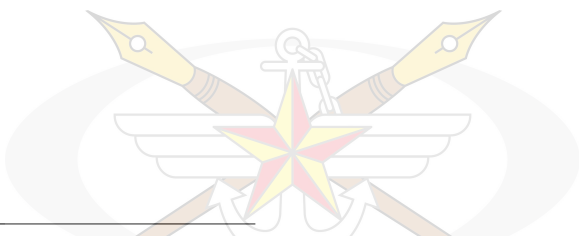
5) 기존 연구에서 홍경래란 당시의 주요 전투에 대한 서술은 난의 경과 과정에 대한 설명 중에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전투의 개황에 대해서는 정석종의 연구와 이병도의 글이 참고가 된다(이병도, “홍경래란과 정주성도” 『백산학보』 3(서울, 백산학회, 1967: 381-400). 특히 정석종의 연구에서는 안주 송림리 전투에서 관군이 승전한 요인과 반군이 패전한 요인을 제시하였다.

6) 본 연구에서는 정주성 전투의 개괄적인 경과는 정석종과 이왕무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서정일기』와 『진중일기』, 『관서평란록』 등의 사료를 이용하여 전투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관군과 반군의 역량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석종, “홍경래란” 『창작과 비평』 7(3)(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2):620-680
이왕무, “홍경래란의 진압과정”(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편, 『한국군사사』 8-조선후기 II-, 서울, 경인문화사): 395-428.

홍경래란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사회사적 관점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데 비해 이왕무의 연구는 군사적 시각에서 난의 전개 및 정주성 전투의 경과를 자세히 정리하여 군사사적인 의미가 크다.

논지 전개를 위해 우선 정주성 전투의 전개 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였고, 전투 과정에서 드러난 관군과 반군의 역량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흥경래란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거나 19세기 초 조선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 아니며, 정주성 전투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군사사(軍事史) 측면에서는 18세기 말, 19세기 초 조선의 군사 기술 수준과 군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⁷⁾



사료 중 『서정일기』와 『진중일기』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탑재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http://db.history.go.kr/>), 『관서평란록』은 1979년에 영인 간행된 자료를 이용하였다(한국학문헌연구소 편, 『관서평란록』 v.1-v.5,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9). 『관서평란록』을 인용할 경우에는 “『평란록』 제○책, 연월일(『관서평란록』 v.○, p.○)”의 형식을 취하였다.

- 7) 본 연구에서는 18세기 초에 수입되어 널리 보급되었다고 알려진 명 모원의(茅元儀) 작 『무비지(武備志)』의 내용을 관군이냐 반군이냐 전투에 얼마나 적용하였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무비지』의 보급에 대해서는 노영구, “정조대 병서 간행의 배경과 추이”, 『장서각』, 3(2000): 65 참조). 『무비지』의 편명 중에는 ‘공성편(功成編)’과 ‘수성편(守城編)’이 있고 관군 주요 지휘관 방우정은 공성작전에 참고하기 위해 무비지 공성편 필사본을 순무영 본영에 요청하여 받아 이용하였다(『서정일기』, 1월 17일, 25일 기사 참조). 그러므로 『무비지』는 정주성 전투 당시 관군 측의 주요 참고서였음을 알 수 있다. 반군 측의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평안도는 대청 무역과 직접 관련된 곳이며 청에서 수입된 주요 서적들이 지나는 경로였다. 그러므로 평안도의 인사들은 이러한 서적을 접할 수 있었고 필사도 활발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흥경래란의 핵심 세력인 평안도 향반층이라면 『무비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내용 역시 알고 있었으리라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화여대 박민수 교수와의 대답에서 시사를 받은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 반군의 정주성 점거

1811년(순조 11) 12월 18일에 평안도 가산 다북동에서 봉기한 홍경래의 반군은 가산, 꾀산, 정주, 박천, 선천, 철산, 구성, 태천, 용천 등 청천강 이북 북쪽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였다.⁸⁾ 그러나 반군 세력 중 평양으로 향하던 홍경래 휘하의 군사들은 평안 병영이 있는 안주를 공략하지 못하였으며 12월 29일 안주성 밖의 송림 전투에서 평안 병영 직속 군사 및 지역 의병 연합세력의 기세를 당하지 못하고 패배하였다. 이후 이들은 기세가 꺾여 정주성으로 이동하여 거점으로 삼았다. 의주로 향하던 김사용 부대 역시 관군에게 패한 후 후퇴하여 정주성에 합류하였다.

관군은 송림 전투 이후 주변 지역 주민들을 반군 일당으로 몰아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 소각하느라 지체되어 반군의 주력 부대를 포착·섬멸하지 못한 채 뒤늦게 반군을 추격하였다.⁹⁾ 1812년(순조 12) 1월 3일에 정주성 외곽에 이른 관군은 평안병영(안주)의 병마우후 이해승(李海昇), 숙천부사 이유수(李儒秀), 함중부사 윤옥렬(尹郁烈), 순천부사 오치수(吳致壽), 꾀산군수 이영식(李永植)과 휘하 병력들이었다. 이들은 1월 3일에 정주성 남문 밖 남산에 진을 설치하였다가 성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 역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동쪽으로 5리 정도 떨어진 달천 건너 이횡산(二橫山) 아래

8) 반군의 봉기에서 정주성 입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정석중, 이병도, 이왕무의 글을 참고하여 서술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쓰인 이왕무의 글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였다(이왕무, 앞의 글: 404-417). 이 글 중 안주 송림전투의 관군을 중앙과 지방의 관군 연합군이라고 지칭한 것은 오류다. 당시 중앙군은 아직 평안도 지역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9) 송림전투 후 관군이 벌인 지역민 학살과 약탈행위는 인접 지역 주민들이 관군을 피해 반군을 따라 정주성에 다수 입거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다(정석중, 앞 논문: 648).

이언평(伊彦坪)에 주둔하였다. 여기에 평안감영(평양)에서 보낸 순중군(巡中軍) 이정회(李鼎會)와 휘하 병력이 합류하였다.¹⁰⁾

정주성은 평양에서 안주를 거쳐 의주로 이어지는 의주대로에 연결해 있으며 북쪽으로 구성(龜城), 동북방향으로는 태천(泰川), 서쪽으로 객산(郭山), 동쪽으로 가산(嘉山)과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이다(〈그림 1〉 『동여도(東輿圖)』에 나타난 정주성의 위치).

성의 동쪽에는 달천강(撿川江)이 흐르고 이 위에는 달천교가 있다. 서쪽에는 서정천(西亭川)과 휴천(鵠川)이 있고 이 두 냇물이 합류하여 남산천(南山川)을 이루며, 남산천과 달천은 성 서남쪽에서 모여 서해로 유입된다(〈그림 2〉 정주지도(定州地圖)¹¹⁾).

정주성은 석성이며 1715년(숙종 41)에 완성되었다.¹²⁾ 성의 둘레는 4,680보(13리), 높이는 15척이며, 포혈(砲穴; 銃眼) 3,070개소, 사혈(射穴) 1,026개소, 치첩 1,026개소, 포루(鋪樓) 21개소 등의 방

10) 홍경래란을 진압하기 위해 중앙에서는 양서 순무영(兩西巡撫營)을 조직하였으며 (1811년 12월 24일 『순조실록』 순조 11년 12월 24일 무진) 이요현(李堯憲)을 양서순무사로 임명하고 박기풍(朴基豐)을 중군에 임명하였다. 박기풍은 관군의 현지 지휘관이 되었는데 순무중군이라 불렸다. 당시 관찰사가 주재하는 감영을 순영(巡營)이라 칭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감영에서 보낸 군사 지휘관은 순중군(巡中軍)이라 불렸다. 순영중군과 순중군은 직책도 다르고 해당 관원 역시 각각 별도의 인물이었지만 용어가 유사하여 사료나 연구 논저에 이를 혼동한 경우도 나타난다. 이병도의 논문에서 평안도 병력들이 둔취한 곳에 “순무중군 이정회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합진하였다.”(이병도, 앞의 논문: 385)고 한 것은 순중군과 순영중군을 구별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대표적 착오이다.

11) 『정주지도(定州地圖)』(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소장, 奎 10568)는 홍경래란 진압 후 60년이 지난 1871년(고종 8)에 작성된 것이지만 기본적인 지형 지물에 대한 정보는 충실히 수록되어 있으므로 정주성의 지리적 상황과 성첩, 성문 등에 대한 설명은 본 지도에 의거하였다.

12) 정주성에는 애초에 둘레 9,700척에 달하는 토축이 있었으나 김응서(金應瑞)가 목사 재임하던 17세기 초에 규모를 줄여 개축하려 하였고, 1714년(숙종 40)에 목사 이삼(李森)이 석성으로 쌓는 공사를 시작하여 1715년에 목사 김수(金洙)가 완성하였다(「정주목읍지(定州牧邑誌)」,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읍지』 15 평안도 2,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6: 232-233). 정주성의 방어시설에 대한 내용은 읍지 자료에 의거하였다.

어시설이 있었다. 성문은 동서남북 각 1개소와 소서문(小西門; 서문과 남문 사이) 등 5개가 있고 모두 문 위에 포루가 설치되어 있었다. 수구(水口)는 3개소였다.

〈그림 1〉 『동여도(東輿圖)』에 나타난 정주성의 위치



성벽은 대부분 능선을 따라 축조되어 있으며 북쪽면이 가장 높았다. 성 내외를 관측하면서 지휘할 수 있는 장대(將臺)는 북·서 두 곳에 있었으며, 북장대는 최북단 성벽 위에 있었고, 서장대는 서문 안쪽에 있었다. 동문과 남문 쪽에는 별도의 장대가 없었다. 북문과 동문, 서문 모두 지형이 험한 곳에 있었고, 개활지에 해당하는 곳은 남문 뿐이었으나, 밖으로 웅성으로 방비되고 있었다. 서문에도 웅성이 있었다(〈그림 2〉 정주지도 및 〈그림 3〉 정주성공함작전도¹³⁾).

13) <정주성공함작전도>는 이왕무, 앞의 글: 413에 수록된 것이다.

지형과 시설을 볼 때 정주성은 전형적으로 공자(攻者)에게 불리하고 방자(防者)에게 유리한 곳임을 알 수 있다. 관군이 정주성을 공격할 때에 특정 장소나 성문을 공격 목표로 삼지 못하고 매번 전면 공격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이러한 지형적 제약 때문이었다.

〈그림 2〉 『정주지도(定州地圖)』



〈그림 3〉 정주성공함작전도



성을 차지한 반군은 성 안의 사창, 신창, 승창 등 창고의 정곡 2,500여 석, 피잡곡 1천여 석과 주민들 소유 곡식을 징발하여 군량으로 삼았다. 성내에는 우물이 9개소 있었고, 이 중 6개소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곳이었다.¹⁴⁾

홍경래 등 지휘부는 서장대 부근에 자리하였고, 북장대 일대의 요해처에는 정예 병력을 배치하였다.¹⁵⁾ 반군은 주력을 이루는 가산과 박천 출신 인원들뿐 아니라 성내의 주민들까지 동원하여 수성군을 편성하였다. 이에 저항하거나 불응하는 주민은 가족들까지 모두 살해하겠다고 겁박하였으므로 주민들은 반군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¹⁶⁾ 외곽 방비를 위해 성 주위에 능철을 널리 살포하여 인마의 접근을 차단하였고, 주변 지역의 민가들을 불태워 관군이 의지할 거점을 제거하였다. 야간에는 성 주위에 불을 밝혀 공격군이 은밀히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주간에는 성벽 위에 병력이 매복하고 있다가 가까이 오는 적이 있으면 사격을 가하였다. 성 밖에도 첩자와 정보원들을 보내 관군의 동정을 파악하였다. 성을 출입하는 반군들은 은편(銀片)으로 만든 부절을 가지고 서로 신원을 확인하였다.¹⁷⁾

14) 『평란록』 제 9책, 임신(1812) 1월 25일(『관서평란록』 v.2, p.518, 정석중, 앞 논문, p.192,에서 재인용). 『정주읍지』에는 우물이 4곳이라 하여 이 내용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물의 수와 무관하게 성내의 인원들은 식수문제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이는 반군이 장기간의 포위를 견디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15) 『서정일기』 임신 1월 11일

16) “적진중 본주(정주)의 군사는 비록 성을 넘어 도망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가산 박천 두 곳에서 들어온 적도들이 성안에 많이 있어 성을 넘으려다가 잡힌 사람이 있으면 참하러 하고 있습니다.(賊陣中本州賊軍 雖有越城逃避之心 嘉博兩邑賊軍等多入城內 欲捉越城者而斬之)”(『평란록』 제 9책, 임신 1월 25일(『관서평란록』 v.2, p.519)

“의장 이성향이 군병들을 단속하며 이르기를, ‘주야로 잠들지 말고 수상한 행적을 상세히 살피라. 만약 한 놈이라도 성을 넘어 나가면 그 가족들을 찾아내어 한꺼번에 죽여버리겠다.’고 매번 위협 공갈하였을 뿐더러(翼將 李成恒 檢束軍兵曰 晝夜不寐 詳察殊常之跡 倘一漢越城 則查出其家屬 一時盡戮之意 每每威喝除良)”(『평란록』 제 15책, 임신 2월 11일, 『관서평란록』 v4, p.220)

17) 『서정일기』 임신 1월 11일

3. 전투의 경과

홍경래란 때의 정주성 공방전은 반군이 정주성에 들어간 1811년 12월 29일부터 관군이 정주성 북쪽 성벽을 폭파하고 돌입하여 반군을 완전히 진압한 1812년(순조 12) 4월 19일까지 110일에 걸쳐 전개되었다. 이 전투는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첫째, 관군과 반군의 전력 탐색기(1811.12.29.~1812.1.14.)
- 둘째, 관군의 적극적인 공세 시기(1812.1.15.~1812.3.7.)
- 셋째, 반군의 출성공격과 퇴로 모색기(1812.3.9.~1812.4.3.)
- 넷째, 관군의 정주성 폭파 및 진압 완료(1812.4.3.~1812.4.19.)

전반적인 전황을 보면 관군은 정주성 공방전 기간 내내 적극적인 공성작전을 추진하였고, 반군 역시 관군 제어와 전력 분산, 자신들의 사기 진작과 소요 물자 확보를 위해 수시로 출성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때문에 전투의 양상을 기준으로 한 시기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방전 전기간 동안 전황의 변화, 관군과 반군의 상황, 양측의 전술 등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러한 시기 구분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가. 상호 전력 탐색

정주성을 점거한 반군이 전력을 정돈하고, 반군을 추격한 평안도 병력들과 중앙에서 파견된 순무영의 전력이 합세하여 포위망을 형

성하는 과정에서 양측은 상대의 전력과 장단점 파악을 위해 정찰과 관측, 소규모 전투를 벌였다.

1812년 1월 3일 정주성 부근에 도달한 평안도 관·의병 연합군은 1월 5일에 정주성 동문을 공격하였다. 이 날 순영(평안감영) 비장 제경욱과 휘하 병사들은 도끼로 동문을 찍어 부수려 하였으나 성 안에 진입하지 못하였으며 반군의 공격으로 3명이 전사하고 17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고 철수하였다.¹⁸⁾

평안도 관·의병 연합군이 별다른 전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무중군 박기풍이 이끄는 경군 병력이 1월 10일에 도착하여 관군의 전력은 강화되었으며 박기풍은 경·향 연합군의 총지휘권을 장악하였다. 경향연합 관군이 진영을 재정비하는 동안 고급지휘관들은 성에 접근하여 수비 상태를 파악하려 하였다. 그러나 반군의 관측과 위협 사격으로 성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이들은 성의 지리적 여건이 방어에 유리하며 반군의 수비 태세 역시 견고하게 잘 갖추어져 있음을 파악하고 복귀하였다.¹⁹⁾

성을 쉽게 함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관군은 우선 선무공작을 시도하였다. 1월 12일 반군 핵심인물 김이대의 아들 김치적과, 앞서 체포한 반군 일당 승신묵으로 하여금 효유서를 가지고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²⁰⁾ 뒤이어 관군은 병력을 다수 동원한 위력 정찰을 감행하여 성을 포위하고 위세를 보이면서 반군의 동정을 살피려 하였다.²¹⁾

18) 평안도 관의병연합군의 정주성 최초 공격일자는 사료에 따라 달리 기록되어 있다. 『관서평란록』에는 1월 5일, 『서정일기』에는 1월 7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투 당일의 사정을 보고한 첩보를 수록한 『관서평란록』의 기록이 추후에 현장에 도착하여 앞서 있었던 전투에 대해 전문(傳聞)한 내용을 적은 서정일기의 기록보다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제경욱이 이끈 부대의 정주성 동문 공격일자는 1월 5일이라 판단하였다.

19) 『서정일기』 임신 1월 10일.

20) 『서정일기』임신 1월 12일

21) 선무공작과 위력 정찰의 효과는 곧바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을 몰래 빠져

다음으로 관군이 시도한 것은 위협 포격과 공격 위협이었다. 1월 13일에 관군은 대완구포를 남문 밖에 설치한 후 포격을 가하였다. 폭발이나 화염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관군은 비격진천뢰는 사용하지 않고 석환(石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포격으로 성첩과 여장 두 곳을 파괴하였고 성 안으로 날아들어간 포탄도 있었으나, 성 안의 반군은 일체 동요하지 않았고, 관군은 포격의 효과를 파악하지 못하였다.²²⁾ 일정 시간 동안 포격을 가한 후 관군은 동문과 남문 방향으로 공격대형을 취하고 일제히 진군하였다. 관군은 총을 가진 인원들이 모두 성을 향해 사격하고 북을 울리고 고함을 질러 위력을 과시하였으나 실제 성벽을 오르려 시도하거나 성문에 접근하지는 않았다. 수비군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전이었기 때문이다. 반군도 이에 상응하여 깃발을 휘두르며 북을 울리고 횃불을 더해 위세를 보였으나 역시 관군측을 향해 사격하지 않았다. 이 날 관군이나 반군 모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나. 관군의 적극 공세

관군은 1812년 1월 15일부터 본격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관군의 총지휘관 순무중군 박기풍은 1월 14일 밤에 <표 1>과 같이 관군 여러 지휘관들과 각 부대의 공격 목표를 지정하였으며 명을 받은 관군은 1월 15일 새벽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나와 항복한 반군이 있었으므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서정일기』임신 1월 13일

〈표 1〉 관군의 공격제대 편성표(1812년 1월 15일)

공격목표 (역할)	지휘관 및 담당 군영	주요 공성 무기 및 임무	비고
지휘 통제	중군 박기풍 비장 조익풍·민치익 행군집사 사의관·조경린, 배행집사 박치대 별무사 김우적, 이문주 ²³⁾ 및 휘하 군병	후방에서 지원	
북문 ²⁴⁾	좌초관 방우정 숙천부사 이유수 순무영 군관 손태영·김계택, 전오위 장 김대택 별무사 정의진 및 휘하의 군병	층제(層梯)	
동문	파총 윤지겸, 중초관 한석윤, 순영중군 이정희, 차관 신명렬 및 휘하의 군병	층제(層梯)	
남문	정주목사 서춘보 별정집사 장중령 차관 정계석 전우후 제경옥 및 휘하 군병	시초, 유황, 화약 등	화공 시도
소서문	초관 이기정 ²⁵⁾ 박천군수 이운식 차관 매경은 및 휘하의 군병	층제(層梯)	
서문 외곽	차관집사 이동은과 마군		서문 밖 10리 지점에 매복

23) 1812년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된 관군의 총공격 때 차수별 공격제대 지휘관의 직책과 성명을 정리한 <표>는 모두 『서정일기』의 기록에 따른 것이다(각 표마다 근거 자료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음). 1차 공격의 제대 편성에 대한 순무영 첩보에는 서정일기의 기록과 달리 조익풍, 민치익, 김우적, 이문주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24) 『서정일기』에서는 북문 공격이라 하였으나 순무영에 보고한 내용에는 동쪽과 북쪽 사이라고 하여 서로 차이가 있다.

25) 초관 이기정은 『서정일기』에 따르면 최초 공격제대 편성시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순무영 첩보에는 누락되어 있다.

여명에 달천 동쪽의 숙영지에서 출발한 관군은 폭설을 무릅쓰고 이동하여 달천교를 건넌 후 부대별 공격 목표를 향해 분산하였다. 관군은 공격로를 따라 북소리에 맞추어 총을 쏘며 진격하였는데 관군의 접근에도 불구하고 반군은 일체 응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군이 성벽에서 수십 보 정도 거리에 이르자 반군은 일제히 총탄과 궁시를 퍼부어 관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북문 공격조에서는 순무영 군관 김대택과 병사 2명이 전사하였고, 남문 공격조에서는 지휘관 제경옥이 총상을 입고 전사하였다. 이같이 피해가 누적되고 폭설이 심해지자 관군은 공격을 지속하지 못하고 일제히 후퇴하여 진영으로 복귀하였다. 이렇게 관군의 1차 총공격은 완전히 실패하였다.

1차 총공격 이후 관군은 진영의 위치를 조정하여 전열을 정비하는 한편 심리전의 일환으로 체포한 반군의 가족들을 성 앞으로 끌고 가 성 안의 반군들에게 투항하라고 호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성내의 반군들은 여기에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²⁶⁾

26) 『서정일기』 임신 1월 18일.

〈표 2〉 2차 총공격을 위한 관군의 공격제대 편성표(1812년 1월 19일)

공격목표 (역할)	지휘관 및 담당 군영	주요 공성 무기 및 임무	비고
지휘 통제	중군 박기풍 정주 목사 서춘보	전열에서 지휘	
북문	좌초관 방우정 가산군수 정주성 순영군관 손태영 별무사 김우적 및 휘하 군병	층제(層梯)	
동북면	중초 초관 한석운 숙천부사 이유수 집사 박치대 별무사 정의진 및 휘하 군병	층제(層梯)	
동문 방향	행군 집사 사의관·자용령· 조경란·이문주	지휘부 후방에서 독전.	
동남 사이	파총 윤지겸 별무사 정계석 장사군관 길익주 및 휘하 군병	층제(層梯)	
남문	순중군 이정희		
소서문	기사백총 박징희 별무사 매경은 및 휘하 군병		
서문 밖	마병 초관 이기정 차관 이동은 및 휘하 기병		매복조

관군의 2차 총공격은 1월 19일에 개시되었다. 이날 관군의 편성은 〈표 2〉와 같다.

이날 아침에는 지척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군 병사들은 부대별로 지정된 목표를 향해 진군하였다. 공격 목표 부근에 이르자 관군은 취타대가 연주하는 북소리와 천아성(天鵝聲)²⁷⁾에 맞추어 함성을 지르며 돌격하였다. 그러나 1차 공격 때와 마찬가지로 관군이 성에 접근하자 몸을 숨기고 있던 반군들이 일제히 총환과 궁시를 퍼부었다. 피해자가 누적되자

27) 군악의 하나.

관군은 공격을 지속하지 못하고 다시 후퇴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관군은 전사 8명, 부상 36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

2차 공격 실패 후 관군 지휘부는 공격을 일단 멈추고 전력 보강에 노력하였다. 두 차례의 총공격 실패로 많은 병사를 잃었으나 평안도 각지에서 모여든 의병들이 합류하여 관군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났다.²⁸⁾

관군 지휘부는 진영의 위치를 다시 조정하여 달천 동쪽에 모여 있던 병력들을 보다 성에 근접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문 밖에는 후영장이자 선봉장인 허항과 행영장 정래홍 및 그 휘하 병력, 함중부 병력을 두었고, 북문 밖에는 의병장 김견신과 휘하 병력, 소서문 밖에는 순천군수 오치수와 휘하 병력 등을 두었으며, 동문 쪽에는 삭주진 병력을 이동시켰다.²⁹⁾ 며칠 후에는 남문 밖에 평안 감영과 박천군의 병력을 추가 배치하여 정주성 모든 성문에 대한 포위망을 완성하였다.³⁰⁾

관군은 포위망을 구축하면서 공성용 장비도 새로 준비하였다. 순무영 본영에 대장군전과 대완구 등 대구경 화포와 탄자를 요청하는 한편, 비루(飛樓), 운제(雲梯), 녹로(轆轤)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전문 장인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³¹⁾ 화력을 보강하고 공성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관군의 활동이 성에 근접하게 되면서 소규모 접전이 계속 일어났다. 1월 26일 정주성 동쪽 오룡포에서는 관군 순찰대가 성을 나와 이동하던 반군 부대와 조우하여 전투를 벌여 반군 4명을 생포하였으며,³²⁾ 다음 날에는 외부와 연락을 위해 서신을 가지고 출성한 인

28) 의병 부대 중 의주 출신 허항의 의병진과 강계에서 온 송지림 의병진은 전투의 주역이었다.

29) 『서정일기』임신 1월 20일.

30) 『서정일기』임신 2월 1일.

31) 『서정일기』임신 1월 22일.

32) 『서정일기』임신 1월 26일.

원을 체포하기도 하였다.³³⁾ 반군은 동문과 남문 밖으로 병사들을 내보내 성 주변의 가옥을 철거하여 관측과 사격의 장애물을 없앴으며, 인마를 약탈하여 물자를 보충하였다. 관군 역시 성내 반군의 수비방책 파악을 위해 동문 밖에서 야간에 큰 소리를 내면서 병력을 이동시켰고³⁴⁾ 남문 밖에 병력을 배치하여 반군의 행동을 감시하고 제어하였다.³⁵⁾

관군은 중앙에서 기술자가 내려 오기 전인 2월 1일에 공성용 윤차(輪車) 4좌를 완성하였다.³⁶⁾ 윤차는 상 중 하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5,6명의 총수가 탑승하는 상층은 두꺼운 송판을 이용하여 전면과 좌우면을 막았다. 송판 안쪽에는 철판을 덧대어 방호력을 높였다. 중간층에는 층계(層梯)를 비치하였다. 가장 아래층에는 바퀴를 달았으며 병사들이 들어가 수레를 밀어서 나아가게 하였다. 역시 방호를 위해 외부에는 쇠가죽을 두르고 안쪽에는 철판을 덧대었다(〈그림 4〉, 〈그림 5〉 참조³⁷⁾).

33) 『서정일기』임신 1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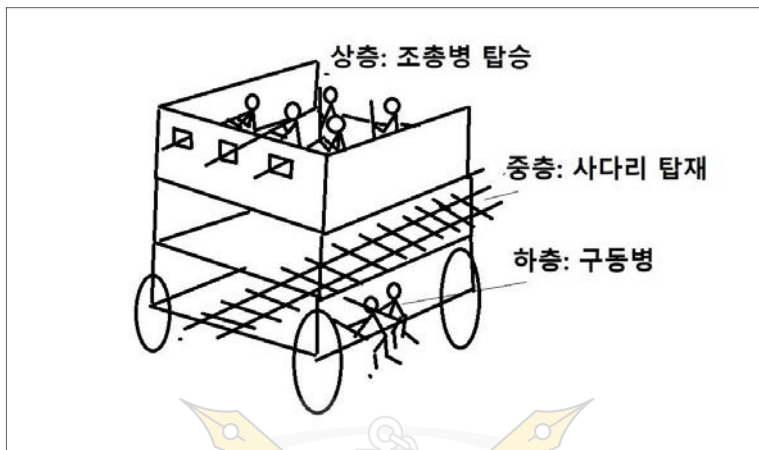
34) 『서정일기』임신 1월 28일.

35) 『서정일기』임신 1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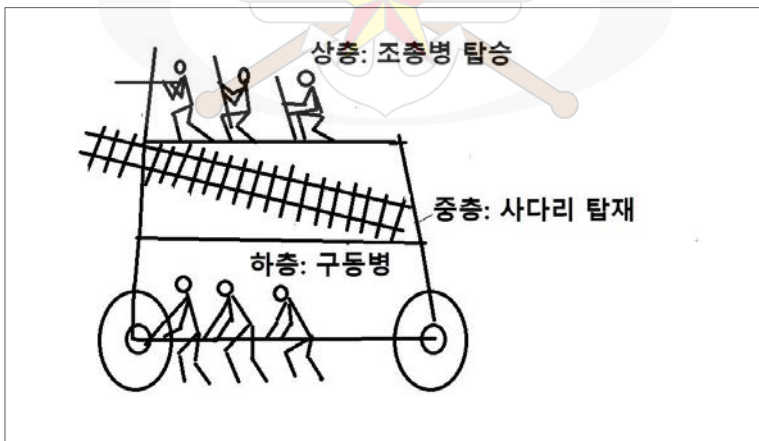
36) 1812년 2월에 관군이 제작한 공성용 윤차의 제원에 대해서는 『서정일기』임신 2월 1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37) 〈그림 4〉와 〈그림 5〉의 윤차도는 『서정일기』의 기록을 근거로 필자가 추정하여 그린 것이다. 중국에서 간행된 병서류에 유사한 형태의 도구가 있으나 그런 자료를 근거로 윤차를 제작하였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어 필자는 윤차의 형태와 운용 방식에 대한 묘사가 있는 『서정일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형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참고 자료가 필요하다.

〈그림 4〉 공성용 윤차도(추정)



〈그림 5〉 공성용 윤차의 구조(추정)



수레의 무게에 비해 바퀴가 약한 문제가 있었으나³⁸⁾ 관군 지휘부는 이를 크게 개의치 않고 공성작전에 투입하였다.

38) 『서정일기』임신 2월 1일

공성용 윤차를 준비하면서 관군은 우선 북문과 북장대 방향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였다. 2월 2일 새벽에 의병장 김견신과 삭주부사 윤민동 휘하의 군사들은 장작과 건초 더미를 모아 총탄과 화살 방호물로 삼아 성에 접근하였다. 성에 가까이 이르면 이를 던지고 성을 넘으려 한 것이다. 성 북방에 대한 공격과 함께 양동작전을 도모하여 함중, 순천, 박천 소속 군사들을 서문과 남문 방향으로 진격시켰다. 순무영에서는 총수와 살수 각 1백 명을 동문으로, 역시 총수와 살수 각 1백 명을 남문으로 보내 공격을 응원하였다. 동문 밖에는 총수 1초를 매북군으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반군은 관군의 의도를 간파하고 조롱하였다. 종일토록 북문 일대에서 주로 접전이 벌어졌으나 성과는 없었고 관군은 5명이 부상당하였다. 성에 근접하지 못한 북문 공격 부대는 날이 저물자 공격을 중단하고 시초더미를 불태우고 후퇴하였으며, 양동작전에 동원된 다른 부대들도 진영으로 복귀하였다.³⁹⁾

〈표 3〉 북문 공격시 관군의 공격제대 편성(1812년 2월 2일)

공격목표	지휘관 및 휘하 병력	주요 공성 무기 및 임무	비고(역할)
북문과 북장대	의병장 김견신 삭주부사 윤민동	시초더미 이용	주공
동문	좌초관 방우정 휘하 총수 1백명 파총 윤지겸·차관 정계석 휘하 살수 1백명		양동작전
동문 외곽	총수 1초		매북
남문	중초 차관 신명렬 휘하 총수 1백명 살수 1백명		양동작전
서남 방향 ⁴⁰⁾	함중, 순천, 박천 수령 및 휘하 병력		양동작전

39) 『서정일기』임신 2월 2일

40) 『서정일기』임신 2월 2일자 기사에는 서남문이라 하였으나 정주성에는 서문과 남문, 소서문이 있을 뿐 서남문은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서남문은 서남 방향인 것으로 추정하여 바꾸어 적었다.

遣別武士李文柱·金禹績，傳令咸順博三陣，進攻西南門，

북문을 공격목표로 삼은 공세가 실패하였으나 관군은 이미 제작된 윤차 등 공성 무기와 병력을 모두 동원한 3차 총공격을 준비하였다(3차 총공격의 부대별 목표는 <표 4> 참조).⁴¹⁾

<표 4> 3차 총공격을 위한 관군의 공격제대 편성 구상(1812년 2월 2일)

공격목표 (역할)	지휘관 및 휘하 병력	주요 공성 무기 및 임무	비고
지휘 통제	순무중군 박기풍 정주목사 서춘보	남문 밖에서 독전	
북문 및 북장대	선전관 김견신, 전부사 민수현 출신 김우중, 별군직 장낙현 및 휘하 병력		
	중초차관 신명렬과 경포수 50명	의병진 후원 북성 조공	
동문	식주부사 윤민동 및 휘하 병력	동문 공격조	
	상변초관 이기정과 마병 30 기사 백총 박징희와 기사 20	동문 밖 매복조	
동남방향	순중군 이정희의 평양진 병력 박천 군수 이운식 휘하 병력		
남문	좌초관 방우정·차관 정계석 및 경포수 50, 영변포수 15, 창수 1백	윤차 남문 주공	
	파총 윤지겸, 장사군관 화유청·황하운· 김용손 및 영변총수 50, 경포수 50, 창수 1백	윤차 남문 협공	
	가산군 정주성, 순무 군관 손태영, 전만호 김계택, 별무사 정의진, 장사군관 유순왕· 방승원·최경담·박인주·김지후·김윤후 및 영변포수 50, 창수 1백	윤차 남문 협공	
소서문	숙천부사 이유수, 장사군관 손지원·전차상· 강시제, 집사 장중령·구시방 휘하 영변포수 50, 경포수 50	윤차 소서문 주공	
	순천군수 오치수 휘하 병력, 우림장 허항 및 의주 의병, 집사 박치대와 경군 일부	소서문 협공	
서문	함중부사 윤옥렬과 휘하 병력	서문 공격	
	차관 이동은·매경은 및 마병 30 기사 차관 최정복과 기사 20	서문 밖 매복	
유진장 (留陣將)	개천군수 유상필		

41) 『서정일기』임신 2월 2일 후반부 기사

2월 3일은 새벽부터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은 날씨였다. 이를 무릅쓰고 관군은 윤차를 이용한 공성작전을 개시하였다. 윤차의 상층에는 총수들이 탑승하였고 맨 아래층에 군사들이 들어가 윤차를 밀었다. 동원한 윤차는 모두 4량이었고 남문과 소서문이 주공 방향이었다. 그러나 눈비 때문에 길은 이미 진창이 되어 윤차의 바퀴가 제대로 구르지 못하였고 3량이 연이어 멈추고 말았다. 이들을 겨우 끌어내어 길가에 세워두고 남은 하나의 윤차만 기동시킬 수 있었다. 관군 병력과 윤차가 남문 쪽으로 접근하자 반군은 일제 사격을 가하였으며, 관군도 응사하여 맹렬한 사격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관군 병사들은 성문 주위에 깔려 있는 마름쇠(능철)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웠고, 눈비가 계속 내려 조총의 장전과 사격이 점점 불가능해졌다. 남문으로 향하던 윤차도 성에서 30보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바퀴가 빠지고 축이 부러져 기동할 수 없었고 반군 사격의 고정 목표물이 되어 버렸다. 윤차의 판자와 판철은 두께가 얇아 반군의 근거리 사격을 막지 못하였고 탄환이 관통하였다.

전투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으나 병사들의 피해만 늘어났고 관군이 성벽을 넘어 진입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관군 지휘부는 공성작전을 중단하고 다시 병력을 후퇴시켰다. 윤차들은 끌어내지 못하였으며 반군의 전리품이 되지 않도록 모두 소각하였다. 이날 전투의 관군 피해는 전사 14명, 부상 72명이었다.

3차 총공격 실패로 관군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었으나 지휘부는 순무영에서 보낸 화기와 운용 인력을 인수하여 전력을 보강하고 윤차를 다시 제작하는 등 다음 공격을 준비하였다. 군병 가운데 나이가 많거나 병들어 전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원을 뽑아 귀향시켜 정예 병력만 남겨 두었으며,⁴²⁾ 진영 부근에 있는 임경업의 사당인

42) 『순무영등록』 임신 2월 27일.

장군대(將軍臺)에서 기도제를 행한 후 제례 음식을 분배하고 시사(試射)를 거행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며 하였다.⁴³⁾

공격 준비 기간 중에도 관군과 반군의 충돌은 계속 이어졌다. 2월 7일에는 삭주진 군사들이 동문을 폭파하려 시도하였고, 2월 13일에는 정주성 북장대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⁴⁴⁾ 의병장 김견신과 휘하 의병들이 성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⁴⁵⁾

반군의 출성 공격도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2월 9일 밤에는 반군 병사들이 동문 밖 오룡포 일대의 박천진을 공격하였다. 박천진 병사들은 외부와 연락을 도모하거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성에서 나오는 반군을 포획하기 위해 매복하고 있었으나 몰래 성을 빠져나온 반군에게 오히려 기습을 당한 것이다.⁴⁶⁾ 2월 19일에는 반군이 동문 밖에 병력을 매복시키려 하였으나 이를 포착한 강계 의병 부대의 공격을 받아 6명이 전사하였다. 곧이어 남문을 통해 5, 6백 명이 성을 나와 관군과 교전하였으나⁴⁷⁾ 최소 전사 7명 이상의 피해를 입고 패퇴하였다.

정주성을 둘러싼 충돌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중에 조정에서는 반란이 일어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진압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책임을 물어 관군의 현지 사령관인 순무 중군 겸 평안병사 박기풍을 삭직하고 후임으로 좌포도대장을 역임한 유효원(柳孝源)을 임명하였다.⁴⁸⁾ 이 소식은 23일에 관군 진영에 알려졌으나 박기풍은 동요하

43) 『서정일기』임신 2월 15일, 16일.

44) 이날 화재로 북장대가 전소되었다.

45) 『서정일기』임신 2월 13일. 이날 북장대의 화재사건은 앞서 반군 회유를 위해 투입한 투항 반군 이상욱이 일으킨 것이라 하였다(『서정일기』임신 2월 20일).

46) 『서정일기』임신 2월 7일. 이 때 성을 빠져나온 반군 중 일부는 정주와 꾀산 등지 에까지 이르러 정보를 수집하고 응원을 구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현지에서 체포되었으며, 관군 진영으로 끌려와 처형되었다(『서정일기』임신 2월 9일, 2월 11일 기사).

47) 출성 공격에 참여한 병력의 수는 과장되기가 쉬우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48) 토벌 지연의 책임을 물어 박기풍 삭직이 정해지자 좌의정 김재찬과 우의정 김사목

지 않고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였다.

관군의 4차 총공격은 2월 25일에 개시되었다. 이날 자시부터 관군은 7방향으로 진군하였다(공격 제대 편제는 <표 5>와 같음). 관군의 주요 공성도구는 순무영 본영에서 파견한 목수 김재명이 제작한 윤차(輪車)였다.

<표 5> 4차 총공격을 위한 관군의 공격제대 편성표(1812년 2월 25일)

공격목표 (역할)	지휘관 및 휘하 병력	공성 방식 및 주요 공성 무기	비고
지휘 통제	중군 박기풍 휘하 기사와 기고군	종로에서 독전	
후방 대기	평양 중군 이정화와 평양진 병력 박천군수 이윤식과 휘하 병력		
북문	내금위 허항과 의주 의병	윤차	자작 수레 추가
북장대	태천현감 김건신, 전부사 민수현 판관 장락현 출신 김우중 및 휘하의 병력	윤차	
동북면	숙천부사 이유수, 중초관 손태영, 전선전관 이용현, 구시방·김계택·황하윤·황 유청, 별무사 정의진·김창건 등과 휘하 병력, 굴도군 11, 강계의병장 송지렴 휘하 의병	윤차	
동문	삭주부사 윤민동과 휘하 병력	총제	
동남면	좌초관 방우정 휘하 좌초군 파총 윤지겸, 차관 정계석 가산군수 정주성 휘하병력과 벽동 의병	윤차	
남문	군관 김지환 외 7인의 장사군관배	윤차, 남문 주공	
	책응집사 김인환, 이정량 휘하의 별파군	각종 화포	남문 공격부대 화력 지원
소서문	순천군수 오치수, 함종부사 윤옥렬 경집사 박치대, 장사군관 송대운	윤차	
서문	마병초관 이기정, 차관 이동은·매경은 및 휘하 마병		서문 밖 매복조
유진장	개천군수 유상필 및 휘하 병력		

등 대신들은 전투 중에 지휘관을 교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하였으나 문책성 인사가 최종 결정되었다(『순조실록』 순조 12년 2월 18일 신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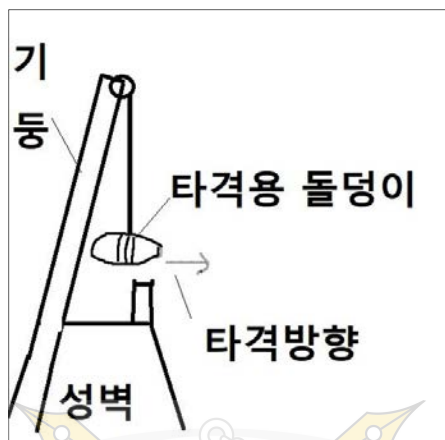
김재명이 제작한 윤차는 2차 총공격 때 사용하였던 윤차의 문제였던 허술한 바퀴와 상층부 방호력의 문제를 보완한 것이었다.⁴⁹⁾ 총수들이 탑승하는 상장(上粧)의 판재와 철판을 보강하고 상장 앞부분에 추가로 회석(灰石)을 쌓았다. 이 회석더미는 윤차가 성벽으로 접근할 때에는 방호력을 높여주고 윤차가 성벽에 닿으면 병사들이 이를 딛고 성벽 위로 오를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기대하였다.

4차 총공격의 제일 목표는 동북쪽 성벽이었다. 동북면 공격부대에는 굴토군(掘土軍) 11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성벽에 이르면 아랫돌을 파내거나 성벽 아래쪽을 파헤쳐 성을 무너뜨리는 임무를 맡았다.

나름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공격을 시작하였음에도 전투는 관군의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동북방면의 상황을 보면 관군이 성벽에 접근하자 반군은 먼저 조총 사격을 가하였고 이어서 화전(火箭)을 발사하였다. 화전이 윤차 위에 탑재한 회석 더미에 명중하자 불이 붙어 연기가 일었고 관군 병사들은 시야를 확보할 수 없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성벽까지 윤차를 접근시켰으나 반군은 새로운 무기를 이용하여 윤차 공격을 막았다. 반군의 신무기는 성벽 위에 세운 기둥에 무거운 돌을 매단 것이었다(〈그림 6〉반군의 수성 무기 참조).

49) 바퀴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윤차에 대해서는 바퀴를 약한 나무로 만들어 허술하다고 보았던 것에 비해 이 때 제작된 윤차에 대해서는 그러한 평가가 없었고 이동시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도 없으므로 바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그림 6〉 반군의 수성 무기(추론)



반군들은 이 기구의 돌로 윤차를 타격하여 상장 부분을 파괴하였으며 계속 화공을 가하였다. 이에 윤차의 상장에 탑승한 병사들은 화염을 견디지 못하고 뛰어내려 피하였고 하부에서 윤차를 밀던 병사들도 도주하여 윤차들은 불에 타버렸다. 성 위에서 쏟아지는 총탄과 화살을 피할 수 없었던 굴토군들도 피신하여 성벽을 무너뜨리려던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 소서문과 북문에 대한 공격도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남문 지역 공격 제대는 윤차의 바퀴가 진흙에 빠져 움직이지 않았고, 반군은 이 기회를 틈타 남문의 웅성을 돌아서 출격하여 관군을 기습하였다. 반군은 화약을 이용하여 윤차에 방화하였고 남문 밖의 관군 병력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동남 방향의 공격을 맡았던 관군부대의 지원사격을 이기지 못하고 성내로 철수하여 관군은 겨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날이 저물고 공격의 효과를 보지 못하자 관군은 패배를 인정하고 병력을 철수시켰다. 이미 파괴되어 불타는 윤차들은 물론 남은 윤차

들도 모두 부수고 소각하여 반군이 전리품으로 탈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날 관군은 전사 2명, 부상 144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다. 수성전에서 계속 승리한 반군은 밤새 풍악을 울리며 성벽 위를 돌면서 자축하였고, 관군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었다.⁵⁰⁾

관군의 총공격이 실패한 후에도 양측의 공방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2월 27일에는 성 밖에 나와 매복한 반군이 성 주위를 지나던 관군 장교의 군마를 빼앗기도 하였다.⁵¹⁾ 29일에는 관군의 전력을 파악하기 위해 출성한 반군과 관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같은 날 관군은 북장대 방향에 화공을 시도하였고, 남문 밖에서도 양동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반군은 거의 대응하지 않았고 관군의 공격은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관군은 고립된 반군이 성을 빠져나오기 위해 출성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여 목책을 세우고 진의 방비를 강화하려 하였으며, 3월 5일에는 반군과 내용한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다. 반군의 출성 공격

1812년 3월이 되자 관군은 성 전체를 에워싸는 목책을 설치·보강하고 주·야간 경계의 수위를 높였다. 전면 공격보다는 포위망을 강화하여 성을 더욱 고립시키려 한 것이다. 이에 대응한 반군의 출성 공격은 이전보다 훨씬 빈번해졌다.

반군이 정주성을 처음 점거하였을 때, 뒤늦게 추격해 온 관군은

50) 『서정일기』임신 2월 25일. 반군은 다음 날에도 정예병력이 모여 있는 북장대에서 크게 잔치를 열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51) 군마를 탈취한 반군은 곧바로 도살하여 나누어 먹으면서 관군을 조롱하였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성 안의 식량 사정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성과 근접한 곳에 진영을 설치하지 않았고 공격할 경우에만 병력을 이동시켜 전투를 벌였다. 이에 반군 지휘부는 전투가 없는 틈을 타서 성 주변 주민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고 인근 읍에 연락책들을 보내 지원 세력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관군은 주변 지역을 소탕하여 정주성에 대한 외부의 지원을 차단하였으며 주변의 주민들도 성으로 몰려 들어가거나 외지로 소개되어 성 내외의 연계는 끊어졌다. 관군의 여러 차례 총공격은 모두 실패하였으나 점차 진영을 성에 가까운 곳으로 옮겼고 성의 고립은 심화되었다.

수성 전투에서 연승을 거두어도 반군의 형편은 개선되지 않았다. 성안의 주민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였으나 탈출자는 계속 이어졌고, 전투가 벌어지면 적은 수라도 인명 손실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 외부에서의 병력 충원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러한 손실은 전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식량과 물자의 부족이었다. 반군이 처음 정주성에 들어갔을 때에는 식량이나 화약, 탄환의 양이 넉넉하였다. 그러나 2개월 이상 전투가 지속되면서 식량과 장비의 부족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반군은 개인당 배급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⁵²⁾ 부족한 연환 대신 철환을 사용하는 등 응급 조치를 취하였다.⁵³⁾

52) 관군은 포로로 잡은 반군의 진술을 통해 성안의 식량 사정을 파악하였는데, 포로가 사로잡힌 날짜나 출성 목적에 따라 진술 내용이 다르다. 예를 들면, 3월 23일에 출성하였다가 체포된 정신지는 3월 23일까지는 매 끼니마다 쌀이나 좁쌀을 1승씩 받았고 그후에는 절반씩 받았다고 하였다(『평란록』 권5, 『관서평란록』 1, p. 559). 이에 비해 3월 20일에 성 밖의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출성하였다가 잡힌 황종대는 3월 17일까지는 매일 쌀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국자(麴子-누룩) 1승씩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는 국자도 거의 고갈되었으며 성안의 모든 가축은 반군 지휘관들의 군마 몇 필만 남기고 모두 도살하였다는 사실도 진술하였다(『평란록』 권5, 『관서평란록』 1, p. 567).

53) 조총에 사용할 철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온으로 쇠를 녹인 후 주형틀에 부어 제작해야 한다. 그러나 땀감이나 장비가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그러한 작업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무쇠 술을 부수어 철환을 그대로 조총 탄환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반군 지휘부는 과감한 출성 작전을 통해 관군 영채를 습격하고 혈로를 뚫어 외부의 지원을 받거나 근거지를 옮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 하였다.⁵⁴⁾ 1, 2월에 공방전이 벌어질 때에도 반군은 기회가 되는대로 성을 나와 관군을 공격하여 전과를 확대하고 물자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3월 이후에는 출성 공격의 목표가 변한 것이다.

반군의 공세적 출성 작전은 3월 9일에 시도되었다. 이날 이른 새벽에 서문을 빠져나온 다수의 반군은⁵⁵⁾ 몸을 낮춘 채 무릎걸음으로 은밀히 이동하여 함종진 군영을 기습하였다. 외곽 경계병들을 먼저 제거한 반군은 함종진을 포위한 후 불붙인 화약주머니를 던져 막사와 영채를 불태우고 돌입하였다. 이들은 장창과 장검을 이용하여 미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함종진 병사들을 참살하였다. 반군의 계획은 함종진을 유린하고 관군 총지휘관이 있는 남쪽의 본진을 공격하여 관군 진영을 어지럽힌 후 포위망을 뚫고 도주로를 확보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함종진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부근의 순천진에서 보낸 구원병이 반격에 나서자 반군은 애초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채 전투를 중지하고 성으로 복귀하였다. 이날 전투로 함종진 병력 중 70명이 전사하였고 137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인근의 의주 의병진의 병사들도 3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함종진 지휘관 부사 윤옥렬은 평양진으로 피신하여 겨우 목숨을 건졌

보인다. 이 경우 총강의 밀폐도가 떨어져 사거리가 짧아지고 정확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54) 출성 공격을 통한 혈로 확보는 극히 어려운 일이어서 관군이나 반군 모두 구사일생(九死一生)이 아니라 만사일생(萬死一生)의 길이라고 할 정도였다(『서정일기』 임신 3월 9일).

55) 3월 9일의 전투에서 함종진 부상자의 수는 137명 혹은 127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의주 의병 허항의 진에서 구원하지 않았다고 한 기록과 구원하다가 전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병존한다. 이와 같이 기록된 내용과 숫자의 신빙성이 낮으므로 이 날의 출성 공격에 참가한 반군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제시하지 못하고 반군 무리라 표현하였다.

고, 현장에 있던 남한산성 별파진 교련관 이정량도 전사하였다.⁵⁶⁾ 반군은 10여 명이 전사하고 4명이 생포되었다⁵⁷⁾.

포위망을 굳히고도 기습을 당한 관군은 생포한 반군 4명을 모두 목 베어 분풀이를 하고, 주야간 경계태세를 강화하였다. 특히 군병들이 함부로 진영을 벗어나 여항에서 유흥을 즐기는 행동을 단속하여 군기 누설을 막으려 하였다.⁵⁸⁾

경계강화 조치의 역효과도 있었다. 야간 경계 병력들은 반군의 출성 공격을 겁내어 작은 움직임에도 과잉 반응하여 큰소리로 경보를 알렸고 그때마다 전군이 동요한 것이다. 3월 12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수시로 경보가 발령되었고 병사들의 피로는 누적되었다.⁵⁹⁾

피로해진 관군 병사들의 경계심은 더 소홀해졌고 이를 파악한 반군은 또다른 기습 공격을 시도하였다. 3월 15일 오후에 반군 1천여 명이 북문을 통해 나와 성 밖의 언덕에 포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관군의 기병이 먼저 돌격하였고, 포수들도 뒤따라 접근하여 사격을 가하였다. 반군은 언덕에서 평지로 이동하여 응전하였으며 상호간에 치열한 사격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전투 중에 반군 지도부의 핵심 인물인 김사용이 피격되어 성안으로 후송되자 사기가 꺾인 반군은 모두 성으로 철수하였다.⁶⁰⁾

반군이 계속 출성 공격을 시도한 것은 성내의 상황이 매우 나빠

56) 이정량은 화포 등 중화기 운영 지원을 위해 파견된 남한산성 별파진 병사들의 지휘관이었으며, 정주성을 둘러싼 목책 설치 공사 현장 감독을 위해 함종진에 머물다가 피살된 것이다.

57) 『서정일기』임신 3월 9일

58) 군병들의 여항 출입을 금지한 것은 그동안 병사들의 군기 문란 및 약탈 행의 폐해가 컸고, 출격 일시 등에 관한 정보 누설도 심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59) 관군의 경계 강화 조치와 오인 경보가 계속되자 반군은 이를 역이용하여 3월 15일에는 많은 병력을 내어 출성 공격할 것처럼 위장하였다가 관군이 요격하기 위해 출동하자 철수하여 관군의 피로를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60) 이 때 부상당한 김사용은 4, 5일 후에 절명하였다.

졌기 때문이었다. 식량이 고갈된 주민들은 아사를 면하기 위해 성 주변에서 풀뿌리를 캐거나 소나무 껍질을 벗겨야만 하는 형편이었다.⁶¹⁾

반군의 출성 공격에 대비하여 관군지휘부에서는 반군들이 성을 나올 기미가 보이면 성문 주위의 각 진영에서는 본부의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충수들을 동원하여 제압하도록 하였으며, 동문 밖에도 포수들을 상시 매복시켰다.⁶²⁾ 아울러 굶주린 성안 군민들을 자극하여 출성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 관군 각 진의 각 초마다 소한 마리씩을 나누어 주어 크게 잔치를 벌이기도 하였다.⁶³⁾

반군의 3월 20일에도 출성 공격을 벌였다. 북문과 서문을 통해 성을 빠져나온 반군은 함종진과 의주진의 방어용 목책을 뽑아 내고 영채로 돌입하였다. 그때 의주진 대장 허항은 외부에 있다가 급히 돌아와 반격을 지휘하였으나 반군의 우두머리 중 하나인 홍충각에게 피살되었다. 이 과정에서 허항의 부하가 쓴 총에 맞아 홍충각도 상처를 입었다. 의주진이 유린되고 있다는 급보에 본진에서는 중초관 손태영이 지휘하는 기보병을 보내 지원하였으며, 이들의 공격을 받은 반군은 기세가 꺾여 다시 성으로 도주하였다. 이 전투에서 관군은 허항 외에도 전사 23, 부상 6명의 피해를 입었고, 반군은 관군 측에서 확인한 숫자만으로도 48명이 전사하였으며 다수의 갑옷과 조총, 방패 등 군기를 빼앗겼다.

사상자의 숫자만 비교하면 관군의 승리라고 할 수 있으나, 기습을 막지 못해 평소 전공이 뛰어난 지휘관을 잃었고 상호 지원에도 실패하여 손실이 큰 전투였다. 반군 역시 많은 병력을 잃었으므로

61) 『서정일기』 임신 3월 17일.

62) 『서정일기』 임신 3월 17일.

63) 『서정일기』 임신 3월 18일. 정조 때의 기록을 보면 화성 성역을 마치고 노역자 3,841명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을 때 소 24마리가 소비되었다. 160 명당 1마리가 쓰인 셈이다(『일성록』 정조 20년 9월 16일). 1초의 병력이 120명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개인당 아주 넉넉한 양의 육류가 분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과를 내세우기 어려웠다.

반군 최후의 출성 공격은 3월 22일에 시도되었다. 홍경래와 우군
 칙은 남은 병력 중 정예병들을 엄선하여 편성한 공격 부대를 직접
 이끌고 출격하였다. 반군은 동문을 통해 나와 달천교 부근까지 은밀
 하게 이동하여 관군 경계병들을 제거하고 곧바로 관군 본진을 공격
 하였다. 반군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군의 화약과 군기 보관소였다.
 그러나 목표 지점에 이르기 전에 관군의 반격을 받아 반군은 다시
 패퇴하였다. 천여 명으로 알려진 출격 병사들 가운데 태반이 전사
 혹은 도주하였으며 수백 명만이 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모처럼
 대승을 거둔 관군은 전투에서 공을 세운 병사들에게 금전을 나누어
 주고 노획한 군마와 창 등 군기를 상으로 주어 포상하였다. 이 전
 투 이후 반군은 조직적으로 성을 나와 관군을 공격하거나 탈출하지
 못하였다.

퇴로가 막힌 반군은 최후를 각오하고 전투력이 없는 주민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하였다. 3월 23일에는 남녀 67인(남 7, 여
 60)을 내보냈으며, 이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자 26일
 에는 추가로 161인(남 6, 여 155)을 내보냈다.⁶⁴⁾

이들에 대한 심문을 통해 관군은 식량 사정이 지극히 나쁜 반군
 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었으나 반군이
 항복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에 관군은 마지막 총공격을
 준비하는 한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도모하였다.

라. 관군의 굴토 폭파 작전과 정주성 함락

여러 차례의 과감한 출성 공격이 실패한 반군은 성내 주민 중 일

64) 성에서 나온 주민들은 모두 노약자이거나 부녀자였다. 관군은 그저 인원이나 줄이
 려고 이들을 내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군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정보 누설
 을 알면서도 이들을 내보낸 것이니 얼마나 상황이 나빴는지 알 수 있었다.

부를 내보내어 식량 부족 문제를 완화하려 하였다. 이들을 통해 성안의 사정을 파악한 관군은 반군들이 곧 자멸할 것이라 예견하면서도 성을 점령하기 위한 총공격을 준비하였다(〈표 6〉 5차 공격제대 편성표 참조).

〈표 6〉 5차 총공격을 위한 관군의 공격제대 편성표(1812년 4월 3일)

공격목표 (역할)	지휘관 및 휘하 병력	공성 방식 및 주요 공성 무기	비고
지휘 통제· 후방 대기	중군 유효원 휘하 좌초군, 좌초장 방우정, 파총 윤지겸	후방 책임	동문 밖 삭주진 부근
북문	전부사 민수현, 판관 장락현 의병장 강인학		
북장대	중초관 손태영, 병우후 이익 태천현감 김건신,, 의주 의병장 송지렴 삭주부사 윤민동	축도 작업	
동문	숙천부사 이유수, 가산군수 정주성 전 선전관 이응현·구시방	축도 작업	
남문	순중군 이정희, 박천군수 이운식		
소서문	순천군수 오차수, 함흥부사 윤옥렬 의병장 정래홍		
서북방향 당아령	마병초관 이기정 휘하 마병 15, 기사 15, 창수 30, 총수 6		매복조
서문 밖 광산 방향	별무사 매경은 휘하 마병 32, 기사 12, 의주 기사 4		매복조
남문 밖 10리	기사차관 최정준 휘하 기사 15, 마병 10, 창수 30, 총수 2		매복조
북쪽 도로	최천학과 의병		매복조
북대로	이시복·한금기와 의병		매복조

4월 3일 새벽에 관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앞서의 공성 작전 부대 편제와 비교해 보면 여러 경로에 매복조를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식량 사정이 어렵고 전의를 상실한 반군들은 저항보다는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공격제대 편성과 업무를 보면, 북문 및 북장대 지역과 동문 방향의 공격부대는 공격뿐 아니

라 토축작업도 병행하려 하였다.⁶⁵⁾ 앞서 여러 차례의 정면 공격이 실패한 후 관군지휘부에서는 성문 아래에 지하 갱도를 굴착한 후 화약을 이용하여 문루와 성벽을 파괴하거나 성벽과 비슷한 높이의 토축[거인(拒堙)]을 쌓아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 전투의 양상은 앞서의 공성전과 별 차이가 없게 전개되었다. 관군은 북장대 방면 공격에서만 층계를 이용하려 하였을 뿐 윤차와 같은 공성 도구를 동원하지도 않았다. 수비가 취약한 곳을 정하여 전력을 집중하지 않고 성벽이나 성문을 일제 공격하는 관군의 기존 공격 방식도 변함이 없었다. 전력이 줄어든 반군의 저항이 약해 쉽게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예상 외로 강한 반격에 관군은 많은 피해를 입고 다시 철수하였다.

총공격 실패 후 관군 지휘부는 갱도 굴착 및 폭파작전을 사용하기로 최종 결심하였다. 폭파 대상은 성의 북문과 북장대 지역으로 정하였는데, 이곳은 반군 중에도 정예병들이 둔취한 곳으로 파악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⁶⁶⁾

굴토작업에 대한 반론도 있었다. 땅을 파고 들어가야 하는 지난한 작업 대신 거인(拒堙) 구축 작업, 즉 성 밖에서 흙을 쌓으면서 전진하여 성벽을 오를 수 있는 기틀을 만들자는 방안이 강력히 제

65) 이날 관군은 북문과 동북면에서 흙으로 낮은 곳을 매워 성벽을 넘으려 하였으며, 소서문 공격조는 정거(鼎車)를 이용하여 문루를 태울 계획이었다.(정석중, 앞 논문: 663-664).

66) 북문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갱도 굴착 작업을 숨기기 위해 동문 방향에서 거인(拒堙)을 축조하는 작전도 병행 추진되었다. 앞서 북문 방향으로 굴토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관군 지휘부 내부에서는 굴토작업은 공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땅 위에서 토축을 쌓아 성을 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논란이 있었다(근거자료 제시). 이에 대해 관의군 연합부대의 총지휘관인 순무증군 유효원은 갱도 굴착 및 폭파 작전을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북문 방향 굴토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작업 인원 통솔과 화약 적치 및 폭파 등 실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초관 손태영이 굴토 및 폭파 작전을 고집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방식을 지지하는 지휘관들은 동문 방향에서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이미 굴토 작업을 시작하여 주관하던 작전 책임자 순무영 중초관 손태영은 지휘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화약을 묻고 폭파하는 시범을 보여주었으며, 굴착도구의 효율성까지 입증하였다. 그의 노력에 따라 관군 지휘부는 굴토작업에 전념하게 되었다.⁶⁷⁾

굴토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암석지대를 만나 우회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⁶⁸⁾, 폭우가 쏟아져 토굴이 물에 잠겨 굴착 작업과 배수작업을 병행하는 난관을 겪기도 하였다⁶⁹⁾. 작업에 투입된 인부들은 운산의 연군(烟軍)들이 중심을 이루었으며,⁷⁰⁾ 이들의 태업을 막기 위한 강제와 회유조치도 필수적이었다.⁷¹⁾

굴토 작업을 진행하면서 관군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상에는 토축을 쌓아 전진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또 성에 포격을 가하거나 대조총 등으로 원거리 사격을 가하여 반군의 관측이나 출성 기도를 방지하려 하였다.⁷²⁾ 토굴이 성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는 땅위로 노출되다시피 하여 은폐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북성 쪽의 반군은 토축이 계속 성 쪽으로 접근하므로 그 뒤로 관군이 어떤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지 경계하였으며 활이나 조총을 토축 너머로 고각사격하여 반응을 확인하려 하였다.⁷³⁾ 작업 지대 앞의 토축은 좋은 은폐 장치로 반군의 관측과 직사는 막을 수 있었으나 고각으로 하늘 위로 올라갔다가 낙하하는 화살이나 탄환은 막을 수 없었고 부상당하는 작업자들이 생기기도 하였다.

67) 『서정일기』 임신 4월 4일.

68) 『서정일기』 임신 4월 6일.

69) 『서정일기』 임신 4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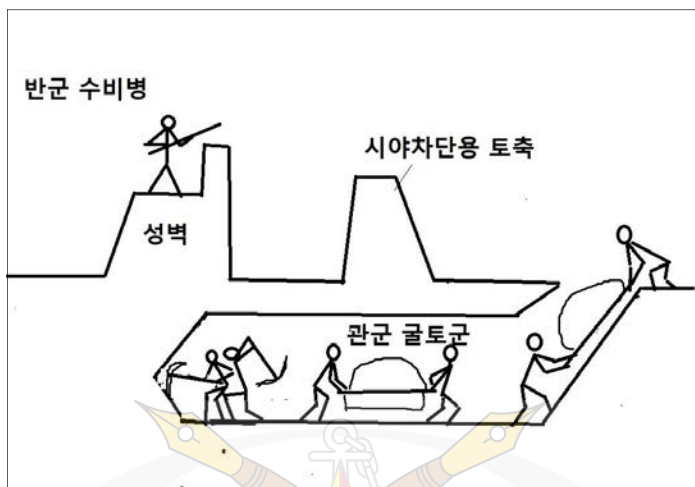
70) 『서정일기』 임신 4월 4일.

71) 『서정일기』 임신 4월 6일.

72) 『서정일기』 임신 4월 5일, 4월 11일.

73) 『서정일기』 임신 4월 17일.

〈그림 7〉 굴토작업 단면도(추정)



난관이 많았으나 공사는 4월 15일에 거의 마무리되었고, 폭파에 필요한 화약에 대해 논의한 끝에 1천 7백 근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4월 17일이 되자 공사는 끝났으며 18일에 관군은 화약을 장착하고 화승을 죽통으로 연결하여 점화 준비를 하였다. 점화 직전 관군은 〈표 7〉과 같이 공격군 제대를 배치하였다.

4월 19일 새벽에 관군은 매설한 화약에 점화하였고 폭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폭파에 대한 당시의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만 느껴지다가 곧이어 굉음과 함께 폭연이 솟구쳤다고 하였다.

폭발의 충격으로 북문과 문루가 흔적도 없이 날아갔으며, 북장대 부근에 있던 반군 수백 명은 한꺼번에 매몰되었다. 폭연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확인한 관군은 일제히 성으로 진입하였다. 북문 지역을 통해 쇄도한 관군은 동문과 북문을 안에서 개방하였다. 성 중앙 향교 부근에서는 반군의 저항으로 접전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나 반군은 관군의 기세를 당할 수 없었다. 관군 지휘

부에서는 반군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명을 내렸으나 마구잡이 참살은 도처에서 벌어졌다. 반군 중 일부는 남문을 통해 도주하였으나 외곽의 매복 병력들에 의해 대부분 사로잡혔고, 나머지 반군들은 남문 주위에 몰려 있다가 모두 관군의 포로가 되었다.

〈표 7〉 북장대 폭파 후 성 내 진입을 위한 관군의 공격제대 편성표
(1812년 4월 19일)

진입로	지휘관 및 군영	담당 임무	비고
북진 부근	중군(유효원)	지휘 통제 및 독전	
	좌초관 방우정, 파총 윤지겸 기타 장교가 이끄는 좌중초 보군 전배대기치		중군 호위 및 위력 시위
북장대	중초관 손태영, 병중군 이익, 사주부사 윤민동, 태천현감 김견신, 의병장 송지렴, 별파진 차지 김인환 및 휘하 군병	폭파 및 진입 선봉	
북문	함중부사 윤옥렬 함중 관병 및 의병	총제 이용	
동문	순중군 이정희 가산군수 정주성 정주목사 임재수 휘하의 평양, 가산, 정주 관병		
	이용현, 구시방의 유격병	총제 이용	
소서문	순천군수 오치수		
곽산 경로	최천학의 의병		매복군
북문 외곽	마병초관 이기정 휘하의 마병 40명, 기사 20명		매복군
	소모장 김인종, 김우종, 한금기 휘하의 총수 270명		
귀성, 태천 경로	김지환 및 휘하 군병		매복군
동문 북변-달천교	마병 차관 이동은과 마병 60명		
	기사 백총 박징희와 기사 30명		매복군

관군이 정주성 내에서 사로잡은 인원은 모두 2,983명이었다. 관군은 이 가운데 여자 842명과 남자 10세 이하 224명은 불문에 붙여 석방하였으며, 나머지 1,917명은 모두 당일로 참살하였다.⁷⁴⁾ 이상과 같이 1811년 평안도 가산 다복동의 봉기로 시작한 홍경래란은 1812년 4월 19일 관군의 정주성 점령으로 종식되었다.

정주성 점령과 반군 소탕을 마친 관군은 곧바로 이언평으로 이동하여 철수 및 해산 절차에 착수하였다. 지방의 향군과 의병들은 건량(乾糧)을 지급하고 귀가하도록 하였고, 한양에서 온 순무영 군사들은 한양으로 회군한 후 해산하였다.

4. 관군과 반군의 역량 비교

정주성 공방전이 전개되는 동안 관군은 다수의 군병과 우수한 무기, 막대한 물자를 바탕으로 적극 공세를 펼쳤으나 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폭파한 후에야 진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반군은 관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었으나 출성 공격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74) 정주성 점령 후 관군이 몰살한 인원의 숫자가 1,917명이라는 것은 관찬사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연구 논저나 개설서, 교과서 등에도 그대로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관서평란록』에는 정주성 점령 직후 관군의 포로 참살을 피해 도주하였다가 추후에 본향에서 다시 잡혀 조사받고 죽임을 당한 사례가 여럿 보인다. 『서정일기』에도 10세 이하 남아를 살리라고 했다가 다시 15세 이하 남아를 살리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서정일기』 임신 4월 19일). 『진중일기』에도 20일에도 처형이 계속되었고, 굴이나 벽속에 숨은 잔당까지 수색해내어 참하였으며, 시체 더미에서 생존자들을 수색하여 다시 죽였다고 하였다(『진중일기』 임신 4월 21일). 따라서 정주성 점령 후 참살된 숫자는 정확한 것이 아니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몇몇 누락된 사례가 있고 체포한 인원 참살의 연령 기준이 바뀌었다 해도 반군 수뇌부이거나 적극 가담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생포한 주민들도 반군에게 부여했다는 혐의만으로 모두 죽였다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보기 어렵다.⁷⁵⁾ 본 장에서는 관군과 반군의 역량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가. 관군의 고전

1811년 12월 29일에 관군은 안주 송림전투에서 반군을 격파하였으나 주변 지역 약탈과 초토화에 정신이 팔려 홍경래가 이끄는 반군 주력을 급히 추격하지 않아 도주한 반군이 정주성에 들어가 저항의 거점으로 삼도록 방치하였다. 또, 정주성 주변 지역을 평정하여 성을 고립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김사용 등의 또다른 반군 세력이 정주성에 합류하는 것을 막지도 못하였다. 이들의 합세로 반군 전력의 커졌으므로 관군은 정주성 공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기존의 연구에서는 관군의 문제점으로 낮은 사기, 전투보다 주변 지역 약탈에 치중한 탐학성, 지휘부의 무능함 등을 지적한 바 있다.⁷⁶⁾ 본 연구에서는 관군이 농성전을 조기에 끝내지 못한 요인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속전속결 방침 고수에 따른 졸속 공격

정주성 공방전 당시 관군의 문제점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속전속결을 바라는 조급함이었다. 관군 지휘부의 조급성은 장기간 포위를 견디지 못한 반군의 출성 항복이나 선무 공작을 통한 내부 동요를 기다리지 않고 급속히 공격작전을 벌이거나, 관군의 공격 준비 태세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생략하고 무리하게 전체 전력을 총동원

75) 야전 혹은 조우전에서 관군의 우수성과 반군의 약점이 가장 잘 드러난 전투는 안주 송림전투였다. 이 전투의 패배로 반군의 기세는 크게 꺾였다. 개별 전투 사례에 모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야전에서 전투는 관군이, 수성 전투는 반군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76) 정석중, 앞의 논문:653-654

하여 전면 공격을 반복한 것 모두 해당한다.

1811년 12월 29일 반군이 정주성을 점거한 직후 순영(평안감영) 비장 제경욱이 주도한 동문 공격작전(1812년 1월 5일)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반군이 수비태세를 정돈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군사행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순무영 군사들이 현지의 평안도 병력들과 합세하여 경향 연합군 체제를 정비하였을 때에는 반군의 정주성 방어체계가 이미 갖추어진 이후였다. 그러므로 관군은 지형을 정찰하고 반군의 수비 상황, 병력 배치 등에 대한 정보를 모은 후 이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공격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관군 지휘부는 단기간의 사전 정탐만 실시하였을 뿐 지형과 지세, 주 공격 방향이나 목표에 대한 숙의나 작전 회의를 생략한 채 곧바로 전면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러한 조급한 공격은 당연히 실패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성이나 신중론은 제기되지 않았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무리하게 전면 공격을 되풀이한 것 역시 조급함의 결과였다. 1812년 1월과 2월 두 달간 관군은 전면 공격과 실패, 공격 부대 재편성 및 재공격을 반복하였는데 전투 사이의 간격은 짧게는 4일, 길어야 22일이었다⁷⁷⁾.

관군은 전면 공격을 할 때마다 보병이 운반할 수 있는 사다리뿐 아니라 바퀴가 달린 윤차라는 새로운 공성 도구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실전에서 이를 운용해야 하는 병사들이 새로운 도구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시키거나 예행 연습할 시간은 부여하지 않았으며 완성되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실전에 투입하였다. 불리한 지형에서 낮은 공성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병사들은 장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전투가 벌어지면 관군 병사들은 반군의 공격에 효율

77) 1812년 1월 15일의 1차 총공격과 1월 19일의 2차 총공격 사이의 기간은 4일에 지나지 않았으며, 총공격 사이의 기간이 가장 길었던 1812년 2월 3일의 3차 총공격과 2월 25일의 4차 총공격 간의 간격은 22일이었다.

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전투의 패배와 장비의 손실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관군은 성벽과 성문에서 수비가 소홀하거나 허술한 곳, 지형상 취약한 곳을 파악하여 전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매번 같은 방식의 전면 공격을 되풀이하였으며 사상자만 늘어났다. 이 역시 급히 성을 점령해야 한다는 지휘부의 압박감 때문이었다.

포위 공격을 하면서 날씨와 전투 시간을 적절히 선택하지 못하였던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 때문이었다. 상대의 위치와 규모를 모른 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야지에서의 전투와 달리 공성전에서는 수비군의 병력수나 주요 무기 등 전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성이라는 목표는 명확하다. 그러므로 공격자 측에서는 전투 개시 시각과 주공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정주성 전투 때 관군은 이러한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였다. 공격일과 시각, 진영별 담당 지역을 한번 정하면 공격 당일에 비바람이 심하건, 폭설이 내리건 개의치 않고 예정 시각에 맞추어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종일 고전 끝에 날이 어두워지면 철수하는 양상을 되풀이하였다. 그때마다 관군 지휘부는 작전 실패의 이유를 악천후와 야음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는데, 패전의 가장 큰 원인은 사전에 이를 피하지 않았던 무리한 공격 명령이었던 것이다.⁷⁸⁾ 여러 차례의 실패를 겪으면서 2개월간 소모적인 공격을 거듭하던 관군은 3월 이후 반군의 출성 공격에 대비한 수비 및 경계 태세 강화로 작전 방침을 바꾸었다.

78) 반군의 강력한 저항, 악천후와 야음이 관군 공격 실패의 중요한 이유였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격일시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었음을 감안하면 관군이 날씨가 나쁜 날에도 공격을 개시한 것은 작전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패전의 이유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관군 지휘부는 편안한 거처가 없이 야지에서 노숙해야 하는 병사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였다(『순무영등록』 임신 3월 2일). 그러나 병사들이 고생하면서도 전과가 없었던 것은 하루빨리 난을 진압하여 공을 세우려 한 지휘부의 과욕 때문이었다.

조정에서도 단기간에 진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현지 지휘관을 교체하는 등 현장의 자율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간섭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관군 지휘부가 속전속결을 고집한 것을 비판하기도 어렵다.⁷⁹⁾

2) 정보 누설

관군이 성을 공격하면서 신무기라 할 수 있는 윤차를 동원하였으나 반군은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와 작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반군이 관군의 신무기나 장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군은 관군 진영 내부와 주변 지역에 많은 첩자들을 심어놓고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관군은 이를 막지 못하였다. 첩자뿐 아니라 관군의 행패로 피해를 입거나 불만을 품은 주변 지역 주민들도 관군의 동향을 반군 측에 적극적으로 알려 주는 등 협조하였다. 그 결과 관군의 공격 계획이나 준비 상황에 대한 정보는 거의 대부분 반군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반군은 수성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관군도 정보누설을 막기 위해 나름의 대비책을 강구하였다. 관군 주둔지의 수령들이 머무는 곳에는 이들을 수발하기 위한 통인이나 사령들도 함께 거처하고 있었는데, 반란의 중심 지역의 통인, 사령 등이 난에 적극 동조한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하여 진영에 있던 통인이나 사령들을 현지로 돌려보냈다. 또 야간 통금을 엄격히 시행하였으며, 병사들이 유흥을 위해 여항에 외출하는 행위를 통제하였다.

79) 현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언관들의 요구로 현장의 지휘관을 파면하고 신임 지휘관을 임명하여 내려보내는 현실이었으므로 일선의 지휘관들이 정주성을 신속히 점령하라고 병사들을 재촉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었다. 정주성을 점령한 후에 포로들을 철저히 심문하여 난의 원인과 경과, 참여자들의 사정을 낱낱이 밝혀려 하지 않고 즉시 모두 참살한 것도 이러한 조급함의 결과였다.

이와 아울러 위장 귀순한 반군 첩자나 간첩들을 색출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최후의 공격이 임박한 1812년 4월 10일까지도 첩자 체포 사례가 있었던 것을 보면⁸⁰⁾ 첩자들의 활동이나 정보의 누설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기도비닉(企圖秘匿) 실패

정주성 농성이 여러 날 지속되면서 반군도 피로가 누적되었고 야간 경계는 점점 어려워졌다. 그러므로 관군이 야음을 틈타 은밀히 성에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공격을 개시하면 반군 수비병들이 담당 장소에 투입되기 전에 성벽 위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관군은 은밀한 이동이나 공격 준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야간에 작전을 벌이면서 부대의 출발에서부터 병력의 이동과 성의 포위, 공격 개시 등 모든 과정을 드러내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812년 1월 15일 제1차 공격작전의 경우였다.

관군은 아직 어두운 4경에 병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전투를 준비시키고 부대별로 이동을 시작하였다. 병사들은 새벽이 되기 전에 성벽 부근에 이르렀으나 이동을 시작할 때부터 북을 울리고 마구 총을 쏘면서 전진하였으므로 반군은 관군의 병력 규모와 이동 경로를 소상히 알 수 있었다. 관군은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려 노력하기는커녕 스스로 노출시킨 셈이었다. 반군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비태세를 갖추 수 있었고 관군 병사들이 궁노와 조총의 유효 사거리 안에 접근할 때까지 은밀히 기다리고 있다가 일제 사격을 가하여 많은 피해를 입혔다.

공성전에서 포위한 쪽이 햇불이나 함성으로 자신들의 많은 병력과 높은 사기를 과시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다. 병자호란 때 남한

80) 『서정일기』 임신 4월 10일. 이날 북병장은 관군의 상황을 탐지한 후 성으로 돌아가던 첩자를 체포하였다.

산성을 포위한 청군이 그러하였다.⁸¹⁾ 그러나 당시 청군은 야간에 공격하면서 야음을 틈타 은밀히 접근하였으며, 청군 병력 일부가 성벽을 넘어 들어올 때까지 조선군 병사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⁸²⁾ 이와 같이 야간 공격에서 기도비닉 유지는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주성을 공격한 관군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로 행동하였다. 전투 실패 후에도 관군은 기도비닉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희생은 반복되었다.

4) 화약 무기 운용 미숙

조선은 고려말부터 화약무기를 전투에 이용하였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소구경 개인화기인 조총이 보병의 기본 화기로 채택되었고 제작기술이나 사용 방법이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³⁾ 홍경래란 당시 정주성 전투에서도 양측의 주력 무기는 활이 아니라 조총이었다.

조총은 활보다 명중률이 높으므로 공성전 공격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도열하여 성벽 위의 수비 시설과 병사들을 향해 집중 사격을 가하면 수비군은 머리카락이나 상체를 드러낸 채 상대편의 움직임을 관측하거나 사격을 하기 어렵다. 이 틈을 노려 공격측 병사들은 성벽 아래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고 사다리 등 도구를 이용하여 성벽 위까지 오를 수 있다. 실제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조선군이 지키

81) 『연려실기술』 권 25, 인조조 고사본말 <병자 노난(虜亂)과 정축항복> 병자년(1636) 12월 18일 “오랑캐 군사들이 성 가까이에서 밖으로 4,5리까지 에워싸고 곳곳마다 불을 피웠는데 밤이 되자 일부는 꺼지고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것도 있었다(胡兵環伏近城外四五里 處處燃火夜分乃滅 或達夜不滅)”.

82) 『연려실기술』 권 25, 인조조 고사본말 <병자 노난(虜亂)과 정축 항복> 정축년(1637) 1월 23일 “삼경에 적이 서쪽 성을 침범하였다. 수어군관 송의영이 눈 밝은 소리에 잠에서 놀라 깨니 적은 이미 사다리를 기어오르고 있었다(三更賊犯西城 守禦軍官宋義榮 聞踏雪聲 睡裡驚起 賊已登梯)”.

83) 강석화, “17,18세기 조선의 청 군사 기술 수용”, 『조선시대사학보』 67(서울, 조선시대사학회), 2013: 333-337.

고 있는 성을 공격할 때에 먼저 조총 사격을 통해 조선군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 후 성벽 아래에 쇄도하여 나무나 짚단을 쌓아 발판으로 삼고 성으로 진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⁸⁴⁾ 그러나 이러한 전훈은 정주성 전투에서 구현되지 못하였다. 총공격을 벌일 때 관군 병사들은 통제받지 않고 조총 사격을 남발하였으며, 특정 목표나 성첩 주위를 향한 집중 사격을 통해 반군 수비병들을 견제하거나 고착시키지 못하였다. 북문을 향한 굴토 작업 진행 중에 성벽 위에 있는 반군의 관측을 방해하고 견제하기 위해 조총으로 사격한 일도 있었으나⁸⁵⁾ 드문 경우였다. 전면 공격을 벌이면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조총 부대를 운용한 경우가 없었던 것이다.

관군 조총부대의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812년 3월 20일 반군의 출성 전투에서는 관군 포수들의 사격을 이기지 못한 반군들이 패퇴하였다. 공성전이 아닌 야전에서는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성전에서 조총부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관군 지휘부의 운용 능력 부족 때문이었다.

관군 지휘부는 대구경 화포의 특성이나 운용 능력도 충분하지 않았다. 관군은 천자포나 대완구 등 당시 이용할 수 있는 대구경 화포를 사용하였으나, 성 안으로 포탄을 날려 보내 건물을 파괴하거나

84) 「유성룡의 산성론」(“왜인들은) 성을 포위할 때에 먼저 성첩의 높이와 참호의 깊이를 둘러보고 나서 수천 자루의 조총으로 성을 향해 마구 쏘아대니 성 안에서는 엎드려 기어다니느라고 고개를 못드는데 더구나 이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 이럴 때 다른 적들은 이 기세를 타고 곧장 진격하여 나무·돌·짚단 따위를 마구 집어 던져 호를 매우면 그 높이가 성과 같게 되므로 순식간에 성이 함락된다. 임진년에 김해성을 함락한 것이나 정유년에 남원성(南原城)을 함락시킨 것이 모두 이런 방법[術]으로 한 것이었다(凡圍城。必先環視城堞高卑。壕塹淺深。數千鳥銃向城亂放。城內守卒方且鼠伏膝行。不敢出頭。況敢禦之耶。他賊乘勢直進。以木石草束亂投填壕。高與城齊。頃刻陷城。壬辰之陷金海。丁酉之陷南原。皆用此術。).”(『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4 관방 관망총론)

85) 『서정일기』 임신 4월 5일, 4월 11일.

작렬탄으로 인명을 살상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투 초기에는 천자포나 완구포로 성첩을 파손한 경우도 있었으나 계속해서 화포를 집중 운용하거나 특정 목표에 대해 집중 사격을 가하여 성첩을 파괴하거나 성벽을 무너뜨리려 시도는 없었다. 화포 공격의 성첩 파괴 효과를 보고도 후속 공격을 계속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관군은 대표적인 공성용 화기라 할 수 있는 홍이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홍이포의 포탄은 인마살상용 작렬탄은 아니다. 그러나 탄자의 속도가 빨라 파괴력이 크므로 성첩이나 성벽, 성내의 각종 시설물 파괴에 효과적이다.

병자호란 때 조선은 청군의 홍이포 때문에 남한산성 전투에서는 성첩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고, 강화도 전투에서는 기선을 제압당했다.⁸⁶⁾ 홍이포의 파괴력을 경험한 조선은 이를 갖추려 하였고 영조 때에는 2문을 제작하여 훈련도감에 비치하였다.⁸⁷⁾ 그러므로 홍이포는 농성전을 벌이는 반군 진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화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순무영 본영의 책임자들이나 현지 지휘관들 중 누구도 홍이포의 필요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남한산성의 교련관과 별파진 병력을 차출하고 천자포와 완구포를 이동시켜

86) 『연려실기술』 권 25, 인조조 고사본말 <병자 노란(虜亂)과 정축 항복> “(1627년 1월 25일) 적의 포탄이 망월대에 맞아 대장기가 꺾어지고, 또 잇달아 성첩에 맞아 한 귀퉁이가 거의 다 파괴되어 성가퀴는 이미 엄폐물 역할을 못하게 되었다(賊大砲中望月臺 大將旗柱折 又連中城堞 一隅幾盡破壞 女牆則已無所蔽).” 『연려실기술』 권 26, 인조조 고사본말 <강화도가 함락되다(江都敗沒)> “청군이 나루터 앞에 모여들어 홍이포를 발사하니 포탄이 강을 몇 리까지 넘어 날아왔다.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고 부숴버리지 않는 것이 없었다. 김경징과 이민구가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창고 건물 바닥으로 피하였으며 군사들이 모두 혼란에 빠져 대오를 이루지 못하였다(賊兵屯聚津頭 放紅夷大砲 砲丸越江渡陸數里 聲震天地 莫不催爛 慶徵敏求 恒慙失措 乃避于倉舍之底 一軍擾亂 不成行列).”

87) 『영조실록』 권 30, 영조 7년(1731) 9월 21일 신사.
홍이포의 구조 및 보관에 대해서는 강석화, 앞의 논문: 345. 참조.
1808년(순조 8)에 완성된 『만기요람』에는 영조대 제작된 홍이포 2문이 훈련도감에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만기요람』 군정편 2, 훈련도감 군기조).

현장에서 사용하였으나, 그보다 더 우수한 공성 무기라 할 수 있는 홍이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던 것이다. 훈련도감 군기고에 비치되어 있는 홍이포의 존재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야말로 관군 지휘부의 무능함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다.⁸⁸⁾

나. 반군의 강점

1) 지휘 통제 능력

정주성 공방전 당시 반군의 역량 가운데 가장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사격 통제 능력이었다. 관군이 성으로 진입하기 위해 접근할 때마다 반군은 깃발도 눕혀놓고 북도 울리지 않으면서 조용히 대기하다가 관군 공격부대가 지근거리에 도달하면 일제 사격을 가하여 관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⁸⁹⁾ 반군 수비병들은 경계 근무시에는 관군측 인사가 성에서 30보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을 하여 접근을 막았고 1812년 2월 3일의 전투에서는 관군이 50보까지 접근하자 사격을 시작하였다. 반군이 사격을 개시하는 시점이나 거리는 전투 때마다 일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⁹⁰⁾ 그러나 압도적인 기세로 밀려오는 공격부대의 위세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수비 위치를 이탈하거나 명령에 앞서 산발적으로 사격을 개시하지 않았다. 반군 지휘부와 하급 간부들이 병사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일사분란하게 통제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반군은 전투 때마다 초기의 일제 사격으로 쉽게 승기를 잡았고 성첩 위에 설치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은폐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개활지에서 반군의 사격에 노출된 관군은 많은 피해를 입은 채 물러나야만 했다.

88) 19세기 초에 훈련도감에 있던 홍이포는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낡거나 파손된 것이었으므로 관군 지휘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89) 『서정일기』 임신 1월 18일.

90) 『서정일기』 임신 2월 3일.

기선을 제압당한 관군은 공격보다는 사상자 수습과 개인 엄폐에 급급하였고 조직적으로 전투를 전개할 수도 없었다. 관군은 병사 개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장전과 사격을 되풀이하였고 지휘관의 통제에 따른 일제 사격이나 엄폐를 하지 못하였다.

2)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어시설 운영

반군은 성벽과 성문 주위의 관군 예상 접근로에 마름쇠(능철)를 산포하여 관군의 진격을 방해하고,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관군의 공격 도구나 공격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반군의 병사들은 주로 성첩에 의지해 사격하였으나, 전적으로 이러한 시설에만 기대지는 않았다. 반군은 성벽 위에 엄폐용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일제 사격 후 다음 사격을 준비하는 동안 관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⁹¹⁾

반군은 성벽 위에 흙을 추가로 쌓고 물을 부어 얼려 튼튼하게 보강하였으며⁹²⁾, 1812년 2월 25일 전투에서는 장대에 큰 돌을 단 무기를 이용하여 관군의 윤차를 쉽게 파괴하였다. 반군이 제한된 여건에서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어체계를 운영한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3) 체계적인 수성군 편성

농성기간 동안 정주성 내에 있던 인원의 총수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무리 늘려잡아도 4천 명 미만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⁹³⁾ 이

91) 반군이 성첩에만 의존하지 않고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은 관군의 화포 공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관군이 이용한 화포의 파괴력이 강하지 않았다 해도 석축이 아닌 성첩 방어시설은 완구포탄이나 대장군전을 맞아 파손된 경우도 있었다.

92) 『서정일기』 임신 1월 18일.

93) 농성기간 동안 정주성 안에 있던 인원의 총수는 자료마다 다르다. 정주성 점령 후

가운데 남정은 3천 명 정도인데, 반란 초기부터 참여한 봉기군의 주력이 1천여 명, 성내 원주민과 주변 지역의 입거민이 합하여 2천 명 정도였다. 반군 지휘부 중 홍경래는 전투 경험이 있고 충성심이 강한 주력군의 절반을 직접 거느리고 서장대 부근에 주둔하였고, 나머지 절반의 병력은 북문과 북장대 일대에 배치하였다. 아울러 민간인 중에서 장정들을 징발하여 수성군으로 편성하였다. 봉기 초부터 가담한 인원들을 조장이나 지휘자로 삼고 각 조마다 5~7명 정도의 일반 장정들을 묶어서 하나의 수비조를 이루도록 하였다.⁹⁴⁾ 강제로 수비조에 편성된 인원들 중에서는 장기간의 농성에 염증을 느끼거나 억지로 반군에 연루된 사실을 꺼려 성을 벗어나 관군측에 귀순할 것을 도모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들도 있었으나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수비군 편성 방식과 철저한 상호 감시 체제가 잘 작동했던 것이다. 반군은 반란 가담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들이 확보한 인적 자원을 적절히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1811년 12월 29일부터 1812년 4월 19일까지 전개된 정주성 공방전의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드러난 관군과 반군의 역량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정주성 전투는 초기의 상호 전력 탐색 기간, 관군이 총공세를 펼 시기, 반군

생포한 인원 총수가 2,983명이었다는 기록(『순무영등록』 5책, 임신 4월 23일 양서 순무 선봉 유효원의 보고)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차례 전투를 겪으면서 줄어든 인원수를 감안하여 농성에 참여한 인원의 수를 대략 4천 정도로 추정하였다.

94) 포로 정주 출신 명신정의 공술(『평란록』 권 15, 임신 2월 11일, 『관서평란록』 v.4, p.219)

이 퇴로를 찾기 위해 출성 공격을 시도하던 시기, 관군이 굴을 파 화약을 묻고 성벽을 폭파하고 후 진입하여 반란을 종식시킨 시기 등으로 나누어진다.

총공격을 펼치면서 관군은 윤차라는 신무기를 이용하여 성을 공격하였으나, 반군 역시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윤차를 파괴하였다. 오랜 포위 때문에 식량과 무기가 부족해진 반군은 과감한 출성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오랫동안 반군이 항복하지 않고 버티자 관군은 성벽을 폭파한 후 진입하여 생존한 인원들을 모두 생포하였다. 관군은 이들 중 여성과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성인 남성 1,917명을 전부 처형하였다.

관군의 지휘부는 몇몇 예외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투 지휘나 군사 역량 발휘에 무능하였고, 병사들의 전투력 역시 매우 부족한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정주성을 공략하여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던 것은 애초부터 비교하기 어려운 전력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관군에 대한 전국적인 지원, 평안도 지역의 인적·물적 지원에 힘입은 바가 컸다.

이에 비해 반군은 고립무원의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방어도구와 시설을 적절히 이용하여 관군의 공격을 번번이 무산시켰으며 여러 차례 출성 공격을 감행하여 관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관군은 야간에 전투를 시작하면서 공격 기도를 감추지 못하였고 공성도구는 정교함이나 견고성이 떨어져 쓸모가 없었으며, 한양의 훈련도감이 보관하고 있는 홍이포를 사용하여 반군을 공격하지도 않았다. 관군이 자신들의 역량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능력이 없어 고전을 면하지 못한 것에 비해, 반군은 식량과 무기 부족으로 결국 실패가 예정된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방어 도구를 개발하여 이용하면서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 성을 지켜내었다. 관군이 결국 성을 점령하였으나 관군의 승리라 하기는 어렵고

이미 자멸한 반군의 마지막 숨을 끊은 것이었다.

본 연구는 홍경래란이나 전주성 전투에 관해 새로운 사실을 규명하기보다는 기존 연구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군사적 관점에 입각한 접근과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는 홍경래란의 성격에 대해 새로운 관점의 해석을 시도한 것은 아니며 종합적 이해를 위한 실증 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 사료

『관서평란록』, 『동여도(東輿圖)』, 『만기요람』,
『무비지(武備志)』, 『서정일기』, 『순조실록』,
『연려실기술』, 『정주목읍지(定州牧邑誌)』, 『진중일기』,
『정주지도(定州地圖)』(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소장,奎 10568)

2. 단행본 및 논문

강석화, “17, 18세기 조선의 청 군사 기술 수용”, 『조선시대사학보』 67
(서울, 조선시대사학회), 2013: 333-337
<http://uci.or.kr//G704-000303.2013..67.008>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 사회 연구 - 지배와 저항의 구조』(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http://uci.or.kr//G901:A-0008480577>
김선주, 『조선의 변방과 변란, 1812년 홍경래란』(서울, 푸른역사, 2020)
노영구, “정조대 병서 간행의 배경과 추이”, 『장서각』 3(2000)
오수창, 『조선 후기 평안도 사회 발전 연구』(서울, 일조각, 2002)
<http://uci.or.kr//G901:A-0006021253>
이병도, “홍경래란과 정주성도” 『백산학보』 3(서울, 백산학회, 1967: 381-400)
이왕무, “홍경래란의 진압과정”(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편, 『한국군사사』 8-조선후기Ⅱ-, 서울, 경인문화사): 395-428.
<http://uci.or.kr//G901:A-0006416746>
정석중, “홍경래란” 『창작과 비평』 7(3)(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2): 620-680

정석중, “홍경래란의 성격” 『한국사연구』 7(서울, 한국사연구회, 1972):
151-206

정석중, “홍경래란” 『전통시대의 민중운동』 풀빛(1981): 259-315



(Abstract)

A Study on the Progress for the Jungju Castle Battle occurred in 1812 and the Comparison of the Capabilities of the Government Forces with the Rebel Armies

Kang, Seok-hwa

Hong Gyeong-rae's rebellion began in December 18th, 1811 and ended April 19th, 1812 during the middle age of Joseon Dynasty. Jeongju castle was besieged from December 29th, 1811 to April 19th, 1812, so the most part of the Hong Gyeong-rae's rebellion was the battle of Jeongju castl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whole stages of the battle of Jeongju castle and compared capabilities of the government forces with the rebel armies.

During the general attack, while the government forces used a new weapon called Yooncha(mobile carrier loaded with attack weapon), however, the rebels destroyed it with a new tool. As the long lasting siege exhausted their supplies such as food and weapons etc., the rebels dared to try advancing out of their castle only to fail. Because the rebels determined not to surrender for a long time, the government forces exploded the castle wall and captured those who survived. And then, except women and children, all of men participated in the rebellion, in total 1,917 ones were executed.

With almost incompetent officers, the command center of the government forces could not give orders and make strategies, nor did it have enough combat powers including manning. The government forces could not hide sign of attack even in night and their siege weapons were useless without precision and endurance. They did not even use Hong'ipo to attack the rebels which was stored in Hullyeondogam(Central Army) located in Hanyang. But the rebels, acknowledging that they would fail by the lack of food and weapons,

protected the castle by inventing and using effective defensive equipment until the end. The occupation of the castle was not the result of government forces' victory, but the result of extinction of the rebels.

This study focuses to review and analyze Hong Gyeong-rae's rebellion and the battle of Jeongju castle by military perspectives which were not researched in former studies. Therefore, this study is a part a proof to understand Hong Gyeong-rae's rebellion in total.

Keywords : Hong Gyeong-rae's rebellion, Siege of Jeongju, Pyeongan province, rebellion, Yooncha(輪車), matchlock, cannon, earthwork, blasting operation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4, pp.89-131
<https://doi.org/10.29212/mh.2022..124.8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고려·몽골 전쟁기 처인성 전투의 발발 요인과 승전의 반향

홍민호 | 자유기고가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수료)

목 차

1. 머리말
2. 撒禮塔軍과의 전쟁 추이와 廣州牧 일대의 조건
3. 몽골의 전술과 처인성 전투의 발발 요인
4. 고려의 방비 보완 기조와 처인성 승전의 반향
5. 맺음말

초 록

전쟁은 수행하는 주체가 있고, 그 행위는 주체의 특성을 반영한다. 몽골이라는 주체는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포로 등 인적 자원을 중요하게 활용하였다. 그렇기에 여러 지역에서 ‘大城’을 공략하기 전에 먼저 ‘小郡’을 공격하여, 軍民을 포로로 취하는 행적을 보였다.

몽골이 향후 한반도 남부로 진격해 나감에 있어, 처인부곡은 인적 자원을 비교적 쉽게 편취할 수 있는 ‘小郡’이었다. 이미 광주성에서 인적·시간적 손해를 떠안은 撤禮塔軍은 여러 ‘小郡’을 장악해 인적 자원을 재수급해야 했다. 하지만 처인성에서 撤禮塔은 전사하였고, 전쟁의 한 분기가 종결되었다.

처인성은 국가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거점이 아니었다. 특기할 만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저 몽골이 殘滅하고 지나간 여러 지역 중 하나로 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승전으로 인해 고려 정부에게는 처인성 전투 중심의 전황 이해가 강제되었다. 그리고 얼마든지 방어체계에서 유리된 이들이 군집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

처인성 전투 이후 고려 정부는 항전 역량을 보장할 수 있으면서도, 인적 자원 보호를 강화하는 기초에서 방어 방침을 보완하고 있다. 처인성 전투가 가져온 반향이자, 해당 전투의 또 다른 의의이다.

주제어 : 고려·몽골 전쟁, 처인성, 小郡, 大城, 포로, 入保

(원고투고일 : 2022. 7. 7, 심사수정일 : 2022. 8. 15, 게재확정일 : 2022. 8. 30.)

1. 머리말

크게 6차례에 걸쳐 전개된 고려·몽골 전쟁은¹⁾ 고려가 겪었던 직접적인 戰役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였다. 40여 년에 이르는 기간도 그렇거니와, 전장도 고려 全域에 걸쳐 있었다. 이 전쟁의 결과로 고려는 새로운 질서하에 편입되었으며, 폭넓은 변화를 맞이했다. 이렇듯 고려·몽골 전쟁은 고려 역사의 큰 분수령 중 하나가 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긴 시간 수행된 해당 전쟁 간에는 수많은 官·民의 노고가 투입되었고, 여러 주목되는 순간을 만들어냈다. 그 중에서 주요한 사건을 꼽자면, 처인성 전투는 후보에서 빠질 수 없다. 일반 군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던 부곡지역에서 치러진 이 전투는 적의 元帥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결국 몽골군이 철수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처인성 전투는 연구자들에게 오랜 기간 조망되어 온 사건 중 하나이다. 대개는 부곡민이 주체가 되어 수행한 전투라는 점이 다뤄졌다.²⁾ 고려 정부에게 전쟁을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

1) 전쟁의 시기 구분은 주로 통용되고 있는 몽골 元帥에 따른 구분법(1차 撒禮塔군과의 전쟁(1231~1232), 2차 撒禮塔군과의 전쟁(1232), 3차 唐古군과의 전쟁(1235~1239), 4차 阿母侃군과의 전쟁(1247~1248), 5차 也窟軍과의 전쟁(1253~1254), 6차 車羅大軍과의 전쟁(1254~1259))을 사용한다. 이에 따르면 처인성 전투가 전개된 시점은 2차 전쟁기에 해당한다. 전반적인 고려·몽골 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이 참조된다.

尹龍赫,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1991.

2) 尹龍赫, 「蒙古의 2차 侵寇와 處仁城 勝捷」, 『韓國史研究』 29, 1980 ; 尹龍赫, 앞의 책, 1991 ; 尹龍赫, 「1232년 용인 처인성에서의 대몽승첩」, 『고려시대의 용인』, 용인문화원, 1998 ; 『여몽전쟁과 강화도성 연구』, 혜안, 2011 ; 李在範, 「대몽항전의 성격에 대하여 : 계층별 향전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70, 2004.

었다는 점이나³⁾, 교통로 보존·해도입보책 운영 등에 기여했다는 것⁴⁾ 등 전쟁사적인 의의도 지적되었다. 작계는 몽골의 원수를 사살한 인물이 김윤후 본인인지⁵⁾ 혹은 아닌지부터⁶⁾, 전투는 공성전의 방식이었는지⁷⁾ 혹은 野戰이었는지⁸⁾도 추론된 바 있다.

몽골군의 처인성 진격 목적도 연구 대상이었다. 충청도·경상도 진군에 앞서 요해처를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견해⁹⁾, 군창이 있었다는 기록을 신뢰하면서 물자를 확보하려는 행보였다는 해석¹⁰⁾, 江都를 고립시키고 해도입보의 전개를 방해하고자 했다는 의견¹¹⁾ 등이 제기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이 처인성 전투 개별 사건은 물론, 고려·몽골 전쟁의 이해에 기여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상의 성과들은 전황의 전개와 고려의 지리적 환경을 바탕으로 해석을 도출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전쟁은 상호 간에 치러지며 수행하는 주체가 있다. 그렇기에 그들의 특성이 사건의 전개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처인성을 공략한 주체가 ‘몽골’이라는 점에 대해서 다소 간과된 인상이 있다.

주지하듯 몽골은 13세기 초 칭기즈 칸을 중심으로 규합되었고,

3) 尹龍赫, 앞의 글, 1980 ; 尹龍赫, 앞의 책, 1991.

4) 강재광, 「對蒙戰爭期 處仁城勝捷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廣州道 방어 및 部曲民·僧徒의 항전과 연관하여—」, 『한국중세사연구』 53, 2018.

5) 周采赫, 「撒禮塔(Sartai)와 몽골-고려전쟁」, 『고려시대의 용인』, 용인문화원, 1998.

6) 尹龍赫, 위의 글, 1980 ; 尹龍赫, 앞의 책, 1991 ; 尹龍赫, 위의 글, 1998 ; 앞의 책, 2011 ; 강재광, 2018, 위의 글.

7) 李仁寧, 「蒙古侵入과 處仁城 勝捷小考」, 『고려시대의 용인』, 용인문화원, 1988 ; 이인영, 「몽고침입과 처인성 승첩에 관하여」, 『읍치와 성곽』, 민속원, 2010 ; 강재광, 위의 글, 2018 ; 김호준, 「高麗 對蒙抗爭期 金允侯將軍의 3次例 勝戰의 意義」, 『白山學報』 114, 2019.

8) 柳在城, 『對蒙抗爭史』,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8.

9) 尹龍赫, 위의 글, 1980 ; 尹龍赫, 앞의 책, 1991.

10) 李仁寧, 앞의 책, 1988 ; 이인영, 앞의 책, 2010.

11) 강재광, 위의 글, 2018.

사방으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몽골이 펼쳤던 전략·전술은 각지의 관심사였으며, 다양한 시각을 통해 관측되었다. 몽골군이 처인성으로 길을 잡은 것은 물론 현장의 조건들이 고려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익숙한 전투 수행 방식의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다.¹²⁾ 따라서 이를 고려한 전황 분석이 요구된다. 또, 결국 고려 정부는 처인성 전투 이후부터 대응책을 보완했던 것이 확인된다. 방책의 효과와 처인성으로 향했던 요인을 상호 대조해보는다면, 처인성 전투가 향후 고려의 전쟁 수행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처인성 전투에 대해 보다 풍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처인성 전투 개전 이전까지 상황을 개괄하고, 처인부곡 주변 지역의 특성을 살핀다. 그리고 몽골이 군 운용시 보였던 특성을 분석하여 처인성 전투의 발발 요인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고려가 시행한 보완책의 기초를 통해 몽골의 진격 요인과 처인성 전투가 고려의 對몽골 방어책 전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늠해본다. 본고가 해당 전투의 성격 및 고려 정부의 전쟁 수행 방식의 일면을 조망할 수 있길 기대한다.

12) 몽골의 전략·전술을 중점적으로 고찰한 연구들로는 다음이 참조된다.

孫克寬, 『蒙古初期之軍略與金之崩潰』, 臺北: 中央文物供應社, 1955.; Ch'i-ch'ing Hsiao, "The Military Establishment of the Yuan Dynasty", *Cambridge :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1978; 羅旺紮布 外, 『蒙古族古代戰爭史』, 北京: 民族出版社, 1992; 박원길, 「몽골비사 195절의 표현 방식을 통해본 13-14세기 몽골군의 전술」, 『몽골학』 14, 2003; 『몽골비사의 종합적 연구』, 민속원, 2006; Timothy May, "The Mongol Art of War : Chinggis Khan and the Mongol military system", *Barnsley : Pen & Sword Military*, 2007; 신우철 譯, 『몽골 병법』, 대성닷컴, 2009; 윤은숙, 「몽골제국 시대 몽골군의 유목 전법」, 『몽골학』 28, 2010.

2. 撒禮塔軍과의 전쟁 추이와 廣州牧 일대의 조건

1225년(고종 12), 이른바 著古與 피살사건이 일어난다.¹³⁾ 그리고 몽골은 이를 빌미로 1231년에 고려를 침공하면서, 양자는 긴 전란을 치르게 된다. 撒禮塔¹⁴⁾을 원수로 한 몽골군을 맞이하여 고려는 북계 지역에 한정, 방어 역량을 주요 ‘大城’에 집중하면서도 나머지 군현은 해도로 입보하는 광역단위의 淸野를 전개하였다.¹⁵⁾ 龜州·慈州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고려였지만, 결국 강화를 선택하게 되었다.

1232년 1월, 결국 몽골군은 철수하였다.¹⁶⁾ 하지만 북계 지역을 장악했던¹⁷⁾ 몽골은 達魯花赤을 두고¹⁸⁾ 探馬赤軍과 함께 洪福源 및

13) 著古與 피살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다. 먼저 고려로 파악하는 논자가 있다(箭內互, 『蒙古の高麗經略』,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4, 東京: 丸善株式會社, 1918, 490~492쪽; 최윤정, 「고려의 요동·고려 경략 재검토(1211~1259)」, 『歷史學報』 209, 2011, 128~131쪽). 그리고 김이 배후일 가능성을 제시하거나(尹龍赫, 앞의 책, 1991, 35~40쪽), 東眞이 배후일 가능성을 제기한 논자(고명수, 「13세기 초 遼東의 정세변동과 高麗-東眞 관계」, 『한국중세사연구』 50, 2017, 371~376쪽)도 있다.

14) 撒禮塔는 1218~9년 江東城 전투 당시 몽골군 副元帥였던 札剌와 동일인물로, 다양한 글자로 음사되어 나타난다(周采赫, 「札剌와 撒禮塔」, 『史叢』 21·22합, 1977). 본고에서는 「撒禮塔」으로 기재방식을 통일한다. 다만 직접 인용한 사료에 다른 표기가 나오는 경우, 그 것을 노출하고 *를 표시하여 동일인물임을 나타냈다.

15) 홍민호, 「고려·몽골 전쟁기 방호별감(防護別監)의 운영과 내륙 입보의 보완」, 『韓國史研究』 193, 2021, 130~141쪽.

16)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19년 1월 壬辰.

17) 『元史』 권2, 本紀2 太宗 3년 8월. 이 때 몽골군이 장악했다고 하는 ‘四十餘城’에 대해서는 자구를 액면 그대로 신뢰하는 견해(池內宏, 「蒙古の高麗征伐」,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0, 東京: 丸善株式會社, 1924, 134~137쪽; 姜在光, 「蒙古의 제1차 침공과 被陷 北界 14大城의 抗戰」, 『韓國史研究』 146, 2009a)와 실제 14개가 아니라 북계 諸城을 총칭한 표현이라는 견해(周采赫, 「初期麗元戰爭과 北界四十餘城 問題」, 『史學會誌』 16, 1970; 尹龍赫, 앞의 책, 1991, 52쪽)로 나뉘어 있다.

18) 『元高麗紀事』 序, 太宗 3년.

投蒙高麗軍民을 주둔시키며¹⁹⁾ 고려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고려의 집정 최이는 이전부터 江華를 정찰하고 있었다.²⁰⁾ 그리고 고려는 몽골과의 강화 이후 북계 지역에 파견되었던 몽골의 達魯花赤을 제거하며²¹⁾ 항전 의지를 보이는 한편, 강화로 전격 천도하였다.²²⁾ 이에 수반하여 일부 국경 지대에만 적용되고 있던 입보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²³⁾ 앞서서의 강화는 재향전을 염두에 두고 한발 물러난 것이었던 셈이다.

撒禮塔은 그해 8월 고려에 대한 공격 명령을 받고²⁴⁾ 재침해왔다. 그는 고려 정부에 서신을 보내 반응을 살피는 한편,²⁵⁾ 江都를 공략하고자 현지에서 民戶를 모아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²⁶⁾ 하지만 몽골에 포획된 鄉戶 邊呂가 고문에도 불구하고 물길의 험난함을 피력하자, 결국 이를 신뢰하고 고려의 남부로 기수를 돌렸다.

이 때 몽골군의 별동대는 이미 남진하여 경상도에 이르고 있었다.²⁷⁾ 그리고 撒禮塔의 본대는 廣州牧 일대로 향했다. 여기서 해당 지역의 교통요건을 살펴보려고 한다.²⁸⁾ 군대의 운용에 있어서 중요

19) 周采赫, 「高麗內地의 達魯花赤 置廢에 관한 小考」, 『清大史林』 1, 1974 ; 『몽·려 전쟁기의 살리타이와 홍복원』, 혜안, 2009, 31쪽.

20) 『高麗史節要』 권16, 高宗 18년 12월.

21)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19년 7월 ; 『元高麗紀事』 序, 太宗 3년.
이 시기 達魯花赤의 설치·제거 과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周采赫, 앞의 글, 1974 ; 앞의 책, 2009 ; 姜在光, 앞의 글, 2009a.

22) 尹龍赫, 앞의 책, 1991, 153쪽.

23) 『高麗史節要』 권16, 高宗 19년 6월.

24) 『元史』 권154, 列傳41 洪福源 ; 『元高麗紀事』 太宗 4년 8월.

25)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19년 9월.

2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4, 平安道 泰川縣 人物 邊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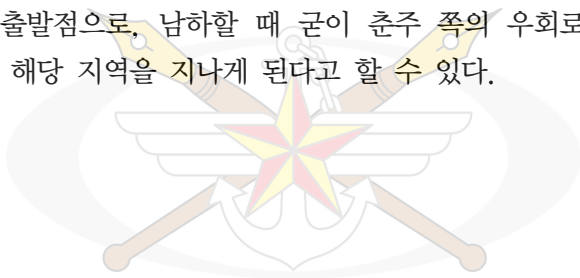
27) 그 당시의 전황에 대해서는 기록이 자세하지 않다. 다만 부인사 대장경 소실을 바탕으로 별동대의 흔적을 확인한 다음의 연구가 참조된다.

윤용혁, 「몽고 침입과 부인사 대장경의 소실」, 『한국중세사연구』 28, 2010.

28) 이후 글의 전개에서 ‘영역’·‘지역’·‘일대’는 모두 면 단위의 일정 구역의 나타낼 때 사용하였다. 군현명과 함께 활용했을 경우는 계수관 영역 등 일종의 광역 행정 이 이루어지는 범주가 아니라, 주현으로 기능하는 범위를 가리킨다. 영역 내 특정 거점을 가리키는 경우, ‘○○城’ 등으로 구분하였다.

한 요소 중 하나는 길의 존재이다. 고려의 역로는 대읍 간을 직로로 연결하여 뻗어가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²⁹⁾ 그리고 실제 대규모 군의 기동도 이러한 역로를 통해 이루어졌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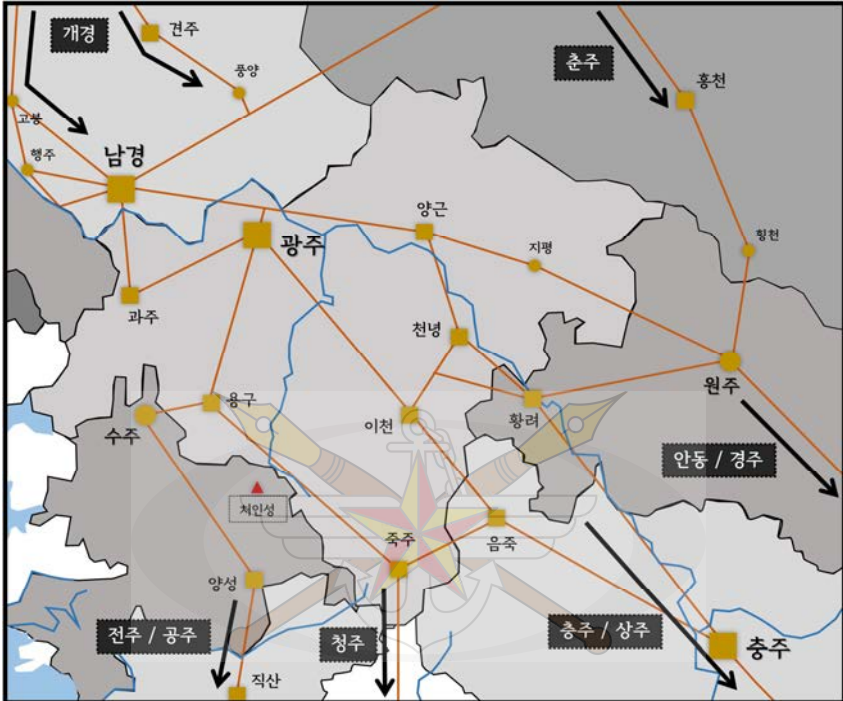
전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려의 도로는 개경을 중심으로 각 방면을 직로로 연결하는 ‘X자형’의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한반도 중부 일대의 역로망을 지도에 옮기면 〈그림 1〉과 같다. 개경 방향에서 내려오는 큰 대로들은 결국 모두 광주목 영역 내에 진입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광주목 영역을 지나면 공주-전주, 청주, 충주-상주, 안동-경주 등 한반도 남부 각 지역의 주요 군현으로 향할 수 있었다. 즉, 廣州 일대는 X자의 중심부이자 길이 다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남하할 때 군이 춘주 쪽의 우회로를 택하지 않는 이상 해당 지역을 지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9) 鄭杓根, 『高麗·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研究』,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08, 49쪽; 한정훈, 「고려 전기 22驛道와 漕倉制의 운영」, 『고려시대 교통운수사 연구』, 혜안, 2013, 114쪽.

30) 鄭杓根, 앞의 글, 2008, 74~80쪽.

〈그림 1〉 한반도 중부 일대의 역로망



* 역로망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高麗史』 권82, 志36 兵2 站驛.

鄭杓根, 2008, 『高麗·朝鮮初の驛路網과驛制研究』, 서울대학교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훗날의 龍仁縣은 광주목 내 龍駒縣과 水州 내 처인부곡이 병합되면서 만들어졌다.³¹⁾ 이처럼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고을이 지리적 인접성을 비롯해 여러 관련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처인성이 위치한 처인부곡은 고려 시대에는 비록 수주 소관이었지만, 위와 같은 광주목 일대의 특성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어떠한 군대가

3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0, 京畿 龍仁縣.

고려의 남부 지방으로 진격하고자 한다면 광주목의 영역을 지날 가능성이 높고, 처인부곡 역시 그 영향권 아래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고려는 물론이고, 몽골 역시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을 함께 보도록 한다.

- A1) 廣州가 곧 中道の 巨鎮이므로 조정에서 논의하고 가려 뽑아 공을 보내어 지키게 하였다. … (중략) … 주는 남쪽 길의 중요한 곳에 해당하니, 이 성이 함락되면 남은 일은 가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군이 아니었다면 위험했도다.³²⁾
- A2) 몽병 3,000명이 와서 高州·和州 경계에 주둔하였고, 척후기 300여 명은 廣州에 와서 민가를 불태웠다.³³⁾
- A3) 몽병이 서북쪽 변방에 들어왔고, 척후기가 廣州에 이르렀다.³⁴⁾

A1은 「李世華墓誌銘」의 일부이다. 해당 시점은 1232년(고종 19)으로, 처인성 전투가 있었던 2차 전쟁기에 해당한다. 이 때 이세화는 廣州副使에 임명되었는데,³⁵⁾ 해당 사료에 따르면 이세화를 특별히 택해 보낸 이유는 광주가 中道巨鎮인 탓이었다. 이어서 그의 공적에 대한 평이 나타나는데, 광주가 가지는 지리적 이점 탓에 잘못 되었을 경우 연쇄적인 피해를 보았을 것이라 하였다. 당시 고려인들

32) 「李世華墓誌銘」. ‘以廣州，迺中道巨鎮，朝論揀汰，遣公出刺 …(중략)… 州當南路要會，此城名，則餘可知已，微君幾殆矣’. 이하의 묘지명 자료는 모두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제5판)』, 한림대 출판부, 2012에서 인용하였다.

33) 『高麗史』 권24, 世家24 高宗 40년 8월. ‘蒙兵三千來屯高和二州之境，候騎三百餘至廣州，焚燒廬舍’.

34) 『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1년 8월. ‘蒙兵入西北鄙，候騎至廣州’.

35) 이세화는 『新增東國輿地勝覽』 廣州牧條에 그 직함이 刺史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전직을 참고하면 廣州副使였던 것으로 판단된다(尹龍赫, 앞의 책, 252쪽, 1991).

은 광주 일대가 가지는 교통상 특징과 해당 지역 방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³⁶⁾

A2·A3은 비록 이후 시기에 해당하지만, 몽골군의 활동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A2에서 高州·和州 등 고려의 동북쪽 경계로 진입한 몽골군은 광주로 척후를 파견하고 있다. A3의 몽골병은 고려의 서북쪽 경계로 들어왔지만, 역시 광주에 척후를 보냈다. 몽골군은 척후의 운용을 굉장히 중요시했다.³⁷⁾ 그리고 그들은 고려의 어떤 방향에서 고려 경내에 진입하더라도 광주를 정탐하였다. 몽골군의 진격 노선에 있어서 광주 일대가 가지는 중요성을 짐작하게 한다. 교통상의 여건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撒禮塔 역시 해당 지역을 장악해 추후 진군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을 것이다. 다음을 통해 그 행적을 살펴본다.

B1) 고려 고종 때에 도읍을 강화로 옮겼는데, 元 황제가 노하여 군사를 보내 사실을 문책하였다. 元의 元帥 撒歹*이 御史雜端 薛愼을 군중에 잡아 두고 松京에 와서 강을 건너 남하하고자 하였다. 薛愼이 撒歹*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속된 말에 異國 大官으로 南江을 건너는 자는 불길하다 한다.”라고 하였다. 撒歹*은 듣지 않았다. 漢陽山城으로 가서 함락시키고, 그 다음 處仁城에 갔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었다. 元兵은 돌아와 송경에 다다르자 설신은 식견이 있다 이르며

36) 전술한 것처럼 처인부곡도 물론 이러한 교통상의 여건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림 1>에서 보이듯 광주에서 용구현·처인부곡을 거치면 죽주를 지나 청주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강재광 역시 이 루트를 ‘광주도 B길’이라 지칭하면서 처인성의 지리적 여건을 언급한 바 있다(강재광, 위의 글, 2018, 228~233쪽).

37) 『黑韃事略』 其行軍 ; Giovanni da Pian del Carpine, “Ystoria Mongalorum” ; 플라노 카르피니·윌리엄 르부룩, 김호동 역주, 『몽골제국기행 : 마르코 폴로의 선구자들』, 까치, 2015, 106~107쪽. 이하 번역서만을 표기한다.

강화에 들어보냈다.³⁸⁾

B2) 겨울 11월 몽골의 대군이 와서 수십 겹으로 포위했으며, 온갖 계책으로 공격하기를 수 개월이 되었다. 공은 밤낮으로 보수하여 수비하고, 상황에 따라 응변하면서도 예상 밖의 것을 내놓았고, 혹 사로잡고 죽인 것도 심히 많았다. 오랑캐가 불가능함을 알고 비로소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³⁹⁾

B1은 2차 전쟁과 처인성 진격 직전의 행보를 보여주는 사료 중 하나이다. 한반도 중부 지역에 진입한 이후, 撒禮塔의 첫 번째 공략지는 한양산성이었다.⁴⁰⁾ 해당 전투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정보가 없어 그 전개를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결국 몽골군은 이를 攻取하였고, 한강을 도하하여 곧장 남하하였다.

다음으로 撒禮塔을 마주한 곳은 廣州城⁴¹⁾이었다. 하지만 廣州副

3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0, 京畿 古跡 處仁城. '高麗高宗時, 遷都江華, 元帝怒, 遣兵問狀. 元帥撒歹繫御史雜端辭憤於軍中, 到松京, 將渡江南下. 慎謂撒歹曰, 國諺有之異國大官, 渡南江者不吉. 撒歹不聽. 抵漢陽山城拔之, 次至處仁城. 爲流矢所中而死. 元兵回到松京, 謂慎有知識, 遣入江華.'

39) 『李世華墓誌銘』. '是夏, 國家因虜寇, 將遷都, 以廣州酒中道巨鎮, 朝論揀汰, 遣公出刺. 冬十一月, 蒙古大兵來, 圍數十重, 以百計攻之, 至數月. 公日夜繕守備, 隨機應變, 出其意表, 或俘殺甚眾. 虜知不可, 遂解圍去.'

40) 한양산성은 곧 三角山城. 中興(重興)山城이다(崔鐘奭, 「대몽항쟁·원간섭기 山城海島入保策의 시행과 治所城 위상의 변화」, 『震檀學報』 105, 2008 ; 『한국 중세의 읍치와 성』, 신구문화사, 2014, 208~210쪽). 9,417척 규모에 해당하는 비교적 넓은 성곽이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3, 漢城府 古跡 重興洞石城). 내·외의 2중성이며, 외성은 지금의 노적봉과 중취봉을 연결한 구간에 해당하고 내성은 중흥사 권역 초입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1711년(조선 숙종 37) 북한산성은 중흥산성의 古基에 수축되었다(서울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의 성곽』,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4, 253~256쪽 ; 김성태, 「삼각산 중흥산성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고찰」, 『서울과 역사』 95, 2017).

41) 廣州城 戰鬪의 전장으로는 후에 남한산성이 되는 광주 日長城을 지목하는 경우가 많다(尹龍赫, 1991, 앞의 책, 255쪽 ; 강재광, 2018, 「1232년 李世華의 廣州山城 전투 勝捷의 歷史의 意味」, 『民族文化研究』 78, 140쪽). 다만 전황을 보여주는 유일한 사료인 『李世華墓誌銘』에서는 모두 '廣州'를 주체로 기록되었는데, 해당

使 李世華의 활약으로 이 일대를 차례로 장악해나가려던 撒禮塔의 계획은 차질이 생겼다. B2는 「李世華墓誌銘」 중 광주성 전투의 현황과 관련한 부분이다. 몽골이 성곽을 여러 겹 포위한 채 공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1차 전쟁기에 이미 나타난 바 있다.⁴²⁾ 또, 고려 외 다른 지역에서도 자주 활용되었다.⁴³⁾ 하지만 이 세화는 상황에 따라 응변하고, 유사시 기지를 발휘해 몽골군의 의표를 찌르면서 그들을 수개월이나 붙잡아 두었다. 결국 撒禮塔은 광주성 점령을 포기하였다. 그렇게 남진시 ‘1차 거점지’가 될 수 있는 곳의 초입에서, 몽골군은 물적·인적·시간적 피해를 모두 떠안게 되었다.

광주성 공략 실패로 인해 몽골군은 목표를 수정해야만 했다. 이에 B1에서 확인되듯 처인성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撒禮塔이 화살을 맞고 전사하였다. 몽골군은 불의의 일격으로 인해 결국 廣州牧 일대 장악에 실패했으며, 元帥를 잃고 고려에서 철군하였다. 이러한 몽골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동기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때문에 조건들을 바탕으로 해석되고 있는 지점이다. 보다 해명될 부분이 없을지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전투의 영향에 대해 ‘此城陷則餘可知已’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이는 해당 성곽이 읍치랑 관련되었기에 나타난 표현이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李世華墓誌銘」에는 ‘淸州山城’이라는 표기가 나타나는 등 ‘山城’ 표기와 단순 ‘城’ 표기가 구분되고 있기도 하다. 광주 읍치와 관련한 성곽이 존재했다면, 字句상의 전장은 별도의 산성이 아니라 광주읍성을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한편, 고려시대 광주의 읍치는 하남시 교산동 일대로 여겨지고 있다(안신원, 「고려시대 광주읍치의 고고학적 고찰」, 『동아시아문화연구』 86, 2021). 해당 지역 발굴 과정에서 성곽의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태종대 ‘山城’이 아닌 ‘廣州城’을 수축한 사례나(『太宗實錄』 권19, 太宗 10년 1월 丙戌, 廣州人 趙云佐와 관련한 기록에서 ‘城’과 관련한 지명이 나타나기도 해서(『高麗史』 권112, 列傳25 趙云佐), 아직 확정할 단계는 아니라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중심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광주성 전장의 위치 비정은 잠시 보류하고, 해당 전투의 전장표기를 일단 ‘광주산성’이 아니라 ‘광주성’으로 통일한다.

42) 『高麗史』 권103, 列傳16 朴犀·金慶孫·崔椿命.

43) 『黑韃事略』 其軍器 ; 플라노 카르피니·윌리엄 르부룩, 김호동 역주, 앞의 책, 2015, 109·110쪽.

3. 몽골의 전술과 처인성 전투의 발발 요인

처인성은 현재 용인시 남사면 아곡리 마을 입구에 있는 해발 약 70m의 낮은 구릉에 위치한다. 사다리꼴 모양이며, 둘레는 약 350m에 그친다.⁴⁴⁾ 그 여건은 要害處라고 불리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⁴⁵⁾ 또 軍倉이 있다는 기록이 있지만 운용 시대에 관한 정보는 없다.⁴⁶⁾ 때문에 고려시대로 소급하여 신뢰할 수 있을지, 일단 소급한다고 하더라도 전투 시점 이전에도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⁴⁷⁾

또 하천이 인근에 있어 분명 서쪽 바다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있

44) 용인시·용인문화원, 『용인 처인성 : 시굴조사 보고서』,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2 ; 용인시·용인문화원, 『용인 처인성 : 지표조사 보고서』,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2 ; 해안문화재연구원, 『용인 처인성Ⅱ—용인 처인성 정비사업 부지 내 문화재 시·발굴조사—』, 해안문화재연구원, 2020.

45) 해발고도나 규모 등의 요소가 해당 성곽의 항전 역량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때, 처인성은 해당 시기 다른 입보용 성곽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악한 지표를 보인다(김호준, 『高麗 對蒙抗爭期 險山大城의 入保用山城 出現』, 『先史와 古代』 40, 2014, 206~207쪽). 게다가 대개 입보용 성곽으로는 석축 성곽이 활용되었으나, 처인성은 판축식의 토축 성곽이라는 점에서도 일면 약점을 가지고 있다.

4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0, 京畿 古跡 處仁城.

47)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난 처인성 부분의 자구가 ‘今盡頽廢 舊(古)有軍倉’ 혹은 ‘有軍倉 今盡頽廢’ 등의 형태가 아니기에 더욱 그러하다. 실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다른 편목에서는 이전에 군창이 운영되었던 성곽이지만 지리지 작성 시점에 폐성되었을 경우, 일관되게 ‘군창의 유무·성의 폐성’ 순서로 기재하고 있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17, 忠淸道 韓山郡 城郭 乾至山城·권18, 忠淸道 定山縣 古跡 鷄鳳山城·권35, 全羅道 羅州牧 古跡 錦城山古城·권47, 江原道 淮陽都護府 古跡 南山城). 하지만 처인성의 경우 ‘今盡頽廢-有軍倉’ 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今盡頽廢’ 되기 이전에도 ‘有軍倉’이었던 상태인지를 문헌의 문구상으로도 보장받기 힘들다. 이에 더하여, 『東國輿地勝覽』보다 앞선 단계에 편찬된 『世宗實錄』 地理志에는 해당 軍倉에 대한 기록이 없다. 『世宗實錄』 地理志는 비교적 군창의 소재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서이기에, 더욱 소급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世宗實錄』 권148, 地理志 京畿 水原都護府 龍仁縣).

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고려의 해도입보 전개에 타격을 준다거나, 혹은 江都 압박의 효과를 가질 개연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이는 굳이 城을 치지 않고 물길을 장악하여 통행을 차단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또 처인성이 항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채 국가적·조직적으로 운영된 거점이 아니었다면, 몽골군이 왜 처인부곡에 나타났는지는 분석될 필요가 있다.

몽골은 이로운 점을 보지 못하면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⁴⁸⁾ 처인성 공격이 어떤 이로움으로 작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먼저 그들이 각지에서 전개했던 전술을 살펴보도록 한다.⁴⁹⁾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서술된 기록들을 참조할 때, 그들이 펼치는 다소 ‘특징적인’ 전략·전술은 몽골이 공략한 각지에서 포착되었다. 예컨대, 몽골이 火攻을 위해 사람의 기름을 사용한다는 점은 서방 세계의 입장에서도 인상 깊었던 듯 기록되고 있으며⁵⁰⁾ 고려에서도 역시 활용상이 나타난다.⁵¹⁾ 또 성을 공략할 때 땅굴을 파서 진입을 시도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했음이 확인되는데,⁵²⁾ 고려에서는 물론⁵³⁾金を 공격할 때도 사용하고 있다.⁵⁴⁾ 즉, 지역적 요인에 따라 그 방식을 응용·변화시키는 부분이 있겠지만, 몽골인의 전투 양식은 보편적인 형태가 보

48) 『黑韃事略』, “其陣 …… 不見利不進”

49) 이 때 활용할 자료는 宋 彭大雅의 『黑韃事略』, 宋 孟珙의 『蒙韃備錄』, 그리고 페르시아 Rashīd al-Dīn의 “Jāmi‘ al-tawārikh”와 Atā-Malek Juvayni의 “Ta’rikh-i Jahān-gushā’i”, 또 선교사 Giovanni da Pian del Carpine의 “Ystoria Mongalorum” 등이다. 이들 사서는 모두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몽골사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David Morgan, “The Mongols”, New York : Polity Pr, 1986 ; 권용철 역, 『몽골족의 역사 : 몽골초원에서 중국, 중동, 러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Monograph, 2012, 33~64쪽 ; Timothy May, “The Mongol conquests in world history”, London : Reaktion Books, 2012 ; 권용철 역, 『칭기스의 교환 : 몽골 제국과 세계화의 시작』, 사계절, 2020, 13~23쪽).

50) 플라노 카르피니·윌리엄 르부룩, 김호동 역주, 앞의 책, 2015, 109쪽.

51) 『高麗史』 권103, 列傳16 朴犀.

52) 플라노 카르피니·윌리엄 르부룩, 김호동 역주, 앞의 책, 2015, 110·118쪽.

53) 『高麗史』 권103, 列傳16 朴犀.

54) 『金史』 권111, 列傳49 完顏訛可.

였던 셈이다.

몽골과 관련한 특징 중 다음의 사료를 주목하고자 한다.

- C) 무릇 大城을 공격하면 먼저 小郡을 쳐서 그 人民을 약탈하여 驅使로 공급한다. 이에 명을 내리기를 “매 1騎兵에 반드시 10인을 약탈하라.”라고 한다. 사람이 죽히 준비되면 매 사람마다 풀을 구하게 하며, 혹은 땀감·혹은 흙과 돌 약간을 모은다. 밤낮으로 재촉하며 늘어지는 자는 죽인다. 재촉하여 해자를 채워 막아 평평하게 하고 혹은 鵝車·洞車·砲車에 공급한다.⁵⁵⁾

C는 宋人이 기록한 몽골인의 전투 방식 일부이다. 이에 따르면 몽골은 근본적 목표점인 大城⁵⁶⁾을 공략하기 위해, 주변 지역인 小郡을 쳐서 인적 자원을 약탈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때로는 노역을 시키고, 때로는 군인으로 충당하여 전투를 수행하였다. 본래 유목 생활을 하던 몽골은 영역적 요소보다 인적 요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⁵⁷⁾ 전투시에도 이러한 성향이 잘 드러난다고 하겠다. C와 같은 방식은 다양한 지역의 실제 전투에서 목격된다. 그 사례들을 일부 확인해보도록 한다.

55) 『蒙韃備錄』軍政. ‘凡攻大城, 先擊小郡, 掠其人民以供驅使. 乃下令曰, 每一騎兵, 必欲掠十人. 人足備, 則每名需草, 或柴薪, 或土石若干. 晝夜迫逐, 緩者殺之. 迫逐墳墓塹壘立平, 或供鵝洞砲座等.’

56) 이 때의 ‘大城’은 비단 해당 지역의 읍격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여겨진다. 몽골이 각 지역의 지방제도나 그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택적으로 움직인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인식상 ‘大城’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개념은 대읍·공간적 규모가 큰 성곽·많은 軍民이 입보해 있는 성곽 등 다양한 요소에서 ‘大’의 성격을 가지는 성곽을 포괄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57) Б.Я.Владимирцов, “Общественные строй монголов”, *Russian :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1934 ; 주채혁 譯, 『몽골 사회 제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192쪽.

- D1) 오르라트를 비롯해 정복한 촌락과 마을들에서 지원병을 불러들여 5만 명에 이르렀으며, 2만 명의 몽골인들도 집결했다. 그 모두를 십호·백호로 나누고 타직인 십호마다 몽골인 한 사람을 임명하여, (그곳에서) 3파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산에서 걸어서 돌을 날라와 시르다리아에 던져 넣었다.⁵⁸⁾
- D2) 그들은 코젠트의 젊은이들을 강제로 군적에 편입시키고 오르라트·부하라·사마르칸트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병사를 징용했다. 이리하여 5만의 징용군과 2만의 몽골군이 이 지역에 집결했다. 10타직인을 1대를 구성했으며 몽골 장교가 배정되었다. 그들은 3파르상 거리에서 도보로 돌을 운반해야 했고, 몽골인들은 말을 타고 이 돌을 강에 떨어트렸다.⁵⁹⁾
- D3) 성채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사마르칸트 시를 정복하는 데만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그는 사전 조치로 먼저 그 주변을 깨끗이 일소하는 것이 좋은 방책이라고 판단했다. …… 오토라르나 다른 지방으로 보냈던 왕자들과 아미르들이 그런 곳들을 정복하고 돌아와 징발된 징용대와 함께 (사마르칸트에) 왔다.⁶⁰⁾

58) Rashīd al-Dīn, “Jāmi’ al-tawārīkh” ; 라시드 앳 딘 지음, 김호동 역주, 『라시드 앳 딘의 집사 2 : 칭기스칸기』, 사계절, 2003, 332쪽. 이하 번역서만을 표기한다.

59) Juvaynī ‘Alā’ al-Dīn ‘Atā Malik, “Ta’rikh-i Jahān-gushā’i” ; Boyle, J. A 역, “The History Of The World Conqueror” Vol I,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7, p92. “They therefore drove the young men of Khojend thither in a forced levy(hasbar) and also fetched reinforcement from Otrar, Bokhara, Samarqand and the other towns and villages, so that fifty thousand levies and twenty thousand Mongols were assembled in that place. These were all formed into detachments of ten of the Taziks there was set a Mongol officer. on foot they had to carry stones a distance of three parasangs, and the Mongols, on horseback, dropped these stones into the river.” 이하 번역서만을 표기한다.

60) 라시드 앳 딘 지음, 김호동 역주, 앞의 책, 2003, 341쪽.

D4) 만약 한 지방이 다른 지방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타타르인들이 공격하는 고장은 파멸될 것이고, 그들은 붙잡은 포로들을 데리고 가서 최전선에 배치시켜서 또 다른 고장과 전투를 치를 것입니다. …… 이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이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을 데리고 가서 다른 지방을 파괴하기 때문에, 나의 견해로는 신께서 같은 편이 되어 싸워주기 전에는 어느 지방도 혼자 힘만으로는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⁶¹⁾

D1과 D2는 같은 시점의 일을 각기 다른 필자가 기록한 것이다. 오르라트·코젠트 등을 정복한 몽골군은 그 곳에서 인적 자원을 취하여 군인으로 편성하였다. 일정 단위마다 몽골인을 두어 관리하게 했는데, C에 나타난 ‘1騎당 10인 약탈’과 관련된다. 즉, 몽골군은 각기 10인 정도를 편취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편제하는 방식을 통해 인적 자원을 확보·관리하고 있다. 노획된 포로들은 노역에 동원되기도 했고, 軍籍에 편입되었던 만큼 전투에도 활용되었을 것이다.

시점은 다르지만, D3도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전투 수행 장면을 보여준다. 사마르칸트를 공략하기에 앞서서 주변 지역을 깨끗이 일소하겠다는 부분은 大城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小郡을 친다는 C의 언급과 부합한다. 또 그 결과 징용대를 구성하여 왔다는 점에서 D1·2 및 C의 포로 편취 방식과도 연결된다.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을 활용하였음은 지역을 막론하고 포착되었다.

D4는 Carpine가 몽골의 풍속을 관찰한 결과,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개인적 견해를 기록한 부분이다. 이 역시 포로를 붙잡고, 정복지민들을 다른 지역 공략에 활용하였음을 확인하게 한다. 그렇기에 각 고을 단독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성을 가지며 도

61) 플라노 카르피니·윌리엄 르부룩, 김호동 역주, 앞의 책, 2015, 124쪽.

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D1~D4는 C에서 나타나는 인적 자원 약탈과 활용 방식이 실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몽골의 군대는 ‘한 군대 속에 다소의 몽골인이 있고, 많은 남은 부분은 모두 망국의 사람이다.’⁶²⁾라고 이를 정도였다.

몽골군은 고려와의 전쟁에서도 수많은 포로를 활용하였다. 앞 장에서 언급되었지만, 물길의 어려움을 피력해 몽골의 기수를 돌리게 했던 鄉戶 邊呂도 그 중 하나였다. 또 鐵州城을 공략하기 위해 瑞昌縣에서 잡은 郎將 文大를 앞세운 사례도 있었다.⁶³⁾ 특히 철주성은 1차 전쟁기 북계 ‘14大城’의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⁶⁴⁾ 그렇기에 C와 같이 小郡에서 잡은 포로를 大城에서 활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비록 이후이기는 하지만, 길이 열렸을 때 돌아오는 포로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묘사나⁶⁵⁾ 한 해에 206,800명의 포로를 취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⁶⁶⁾ 이를 고려하면 몽골군은 民庶까지 포괄하는 다수의 포로를 수집·활용했다고 보여진다. 일정 수 이상의 포로는 유사시 기동력을 저하시키고, 물자를 다수 소비하게 하는 요인이다. 분명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수를 운용한 것은 분명 고려에서도 몽골의 전투 수행에서 포로가 맡아주어야 하는 역할이 있었음을 시사한다.⁶⁷⁾ 이를 감안하여 처인성 및 그 전투 문제를 논의해보도록 한다.

62) 『黑韃事略』. “其陣 …… 一軍中寧有多少韃人, 甚餘盡是亡國之人”

63) 『高麗史』 권121, 列傳34 忠義 文大.

64) 姜在光, 앞의 글, 2009a, 50·51쪽.

65) 『高麗史』 권24, 世家24 高宗 42년 4월.

66) 『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1년.

67) 물론 특정 지역에서는 남자들을 도륙하는 모습도 나타난다(『高麗史節要』 권 17, 高宗 40년 8월). 하지만 이상의 검토를 고려할 때 필요한 포로의 수를 충족하면 공포감을 주기 위해 남은 민들을 학살하는(『蒙韃備錄』 軍政; 플라노 카르피니·윌리엄 르부룩, 김호동 역주, 앞의 책, 2015, 110·111쪽; Boyle, J. A 역, 앞의 책, 1997, p127·129·131) 행보였다고 보여진다.

E1) 금년 12월 16일에는 水州 속읍인 처인부곡의 小城에서 (몽골군에) 맞서 싸웠는데, 적의 원수인 撒禮塔을 쏘아 맞춰 죽였고 사로잡은 포로 역시 많았으며 나머지 군사들은 무너져 흩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기가 꺾여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군대를 돌려 돌아가는 듯 보였는데, 일시에 모여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혹은 앞서고 혹은 뒤지면서 동으로 가기도, 북으로 가기도 했습니다.⁶⁸⁾

E2) 왕경 남쪽 처인성에 이르자 공격하였다. 撒禮塔火里赤*이 화살에 맞아 죽으니, 別將 鐵哥火里赤이 병사를 이끌고 돌아왔다.⁶⁹⁾

E3) 金允侯는 고종 때 사람이다. 일찍이 승려가 되어 白峴院에 주재했다. 몽골군이 이르자 金允후는 처인성으로 피난하였다. 몽골 원수 撒禮塔이 와서 성을 공격하자 金允후가 쏘아 죽였다.⁷⁰⁾

E1~E3은 처인성 전투의 전황과 관련된 사료들이다. 처인성이 ‘小郡’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大城으로 취급될 만한 지역들을 굳이 예시하며 그 규모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처인부곡은 일반 군현에 비해서도 작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이다.⁷¹⁾ 때문에 E1처

68)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19년 12월. ‘至今年十二月十六日, 水州屬邑處仁部曲之小城, 方與對戰, 射中魁帥撒禮塔殺之, 俘虜亦多, 餘眾潰散. 自是, 漚氣不得安止, 似已回軍前去, 然不以一時鳩集而歸, 或先行, 或落後, 欲東欲北.’

69) 『元高麗紀事』 太宗 4년 8월. ‘至王京南處仁城, 攻擊. 撒里塔火里赤中流矢卒, 別將鐵哥火里赤領兵回.’

70) 『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允侯. ‘金允侯, 高宗時人. 嘗爲僧, 住白峴院. 蒙古兵至, 允侯避亂于處仁城. 蒙古元帥撒禮塔來攻城, 允侯射殺之.’

71) 부곡제와 관련한 대체적인 연구성과 및 흐름은 다음의 논문 참조. 具山祐, 「고려시기 부곡제의 연구성과와 과제」, 『釜大史學』 12, 1988 ; 이흥두, 「부곡의 연구현황과 과제」, 『한국중세 부곡 연구』, 혜안, 2006.

한편, 위의 글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비교적 최근 부곡제 영역의 특성을 검토한 연구가 있어 참조된다. 해당 연구에서는 향·부곡 등이 인구나 영역적 측면에서 일

럼 고려 스스로도 처인성을 ‘小城’이라고 지칭할 정도였다.

처인성은 전략적·정부 주도적으로 지속적 활용을 위해 軍民을 입보시켜 만든 거점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외부 발신 목적으로 고려가 작성한 E1·몽골측의 기록에 의거한 E2·고려 내부의 기록인 E3 모두에서 官軍·官人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만약 주요한 군수창고가 운영되었던 성곽이거나, 고려 정부에게 요충지로 인식되었던 곳이라면 분명 방비를 위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문제점을 감수하고서 당시 군창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에도, 국가적으로 배정된 인원이 보이지 않음을 고려하면 처인성의 물자는 이미 다른 중심 거점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또 이후에는 활용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고려 정부가 ‘처인성의 방어처 운영’을 생각했다고 보기에는 의아한 점이 많다.⁷²⁾ 그렇다면 처인성은 고려 정부의 전국적 입보 전략에서 유리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모여 있던 곳이라 파악하는 쪽이 합리적이다.

만약 몽골군이 요해처를 먼저 선점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면, 처인성보다 더 눈길에 들 만한 곳은 바로 인근, 현재 용인시 일원에 위

반 군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가졌기에, 국가적으로 이들을 해당 지역에 긴박하여 타 지역으로의 이탈을 막았다고 보았다(정요근, 「고려시대 鄕·部曲의 성격 재검토—下三道의 향·부곡 주요 밀집 분포 지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史學研究』 124, 2016).

- 72) 전쟁기 고려 정부는 한정된 자원하에서 입보 거점들을 형성·운영하고 있었다. 수많은 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인적 여건상 그 전부를 관리·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참고로, 당대보다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이 풍부했을 조선 초에도 여러 성 가운데 어떤 곳을 ‘선택’하여 입보성으로 운영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다(『世宗實錄』 권42, 世宗 10년 12월 癸未). 때문에 고려 정부에게 부곡 영역에까지 국가적인 입보처를 마련하고 관리할 여력이 있었을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공적자의 관점에서 보아도, 군수 물자 획득이나 전략 거점 확보의 측면 모두에서 처인성 자체의 가치는 그리 높지 않다. 꼭 중요한 요충지에서 승전을 거두어야만 해당 전투의 의미가 중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즉, 군사적으로 ‘처인성’의 가치가 높지 않더라도, ‘처인성 전투’는 충분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치하는 寶蓋山城이었다. 보개산성은 높고 험하다[高險]는 것이 특징으로 지적되는 공간이다.⁷³⁾ 그리고 『世宗實錄』地理志가 편찬되었던 조선 단종대까지도 활용되고 있었다.⁷⁴⁾ 보개산성은 전형적인 고려 중기의 축성 양식을 보이고 있다.⁷⁵⁾ 따라서 고려·몽골 전쟁기에도 국가적 거점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몽골이 어떠한 요해처를 차지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며 고려에 지속적인 타격을 가할 생각이었다면, 처인성의 경우보다 인근의 보개산성을 점령하는 편이 이점을 가진다. 하지만 B2 등에서 이러한 행보는 나타나지 않는다.

撤禮塔의 몽골군이 우선 수주 관내의 처인성을 공략하였기에, 水州를 지나 전라도 방면으로 향하고자 했을 수 있다. 하지만 별동대가 척후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면⁷⁶⁾ 이들의 목표는 충청-경상도였고, 처인성 공격은 그 준비 차원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 앞서 아직 함락되지 않은 광주성을 이후 재차 공격하려 했을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 중 그들의 의도가 어느 방향이었던 간에, 향후 몽골군은 廣州牧·忠州牧·淸州牧 등을 비롯해 大城이라 할만한 곳을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大城으로의 진군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광주성에서 이세화에게 저지당하며 수개월 동안 묶여있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해당 시점의 몽골은 많은 인적 자원을 소비한 상태였다. 포로를 전장에 적극 활용하는 몽골에게, 당시 인적 자원에

73) 『世宗實錄』권148, 地理志 京畿 水原都護府 龍仁縣.

74) 다만 『東國輿地勝覽』 단계에서는 무너졌다고 되어 있어(『新增東國輿地勝覽』권10, 京畿 龍仁縣 古跡, 寶蓋山城), 兩書의 편찬 시기 사이 어느 시점에 폐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75) 車勇杰 外, 『處仁城·老姑城·寶蓋山城 : 地表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9.

76) 앞서 살펴본 A2·3에서도 고려 경내에 진입하면서부터 광주 일대까지 비교적 멀리 척후를 보냈다. 2차 고려·몽골 전쟁 당시의 별동대도 척후를 겸하여 경상도 깊숙이 진격하였을 수 있다. 물론, 해당 기간의 사료가 타시기에 비해 양적으로 매우 소략하므로(尹龍赫, 「고려시대 史料量의 시기별 對比 —高麗史節要를 중심으로—」, 『公州師大論文集』26, 1986), 다른 방면으로의 파견 기록이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대한 재수급처는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따라서 撒禮塔은 군을 여러 갈래로 나누고, 주변의 ‘小郡’들을 일거에 공략하여 다시금 포로의 수급을 시도했다고 생각된다. 물길과 같이 전술적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공간만을 장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굳이 작은 규모의 城들을 공략했던 이유는 民戶가 모여 있을 공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그들이 위치한 곳을 감안하면, 인근에 있던 처인성은 쉽게 여러 목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실제 몽골군이 이러한 행보를 보였다는 것은 E1을 통해 방증된다. 처인성이 유일한 목표였고 그렇기에 撒禮塔의 규합된 본대가 공격했다면, 그가 사망했을 시점에 전장에서 일시적으로 흩어져 물러났더라도 철군시에는 鐵哥의 지휘 아래 모여 퇴각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몽골군은 각기 활동하였고 모여서 퇴각하지 않았다. 결국 몽골군은 처인성 전투 직전 이미 군소한 편제 형태로 활동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처인성은 당시 몽골군이 인적 자원을 노획하고자 분대를 나누어 공략한 여러 ‘小郡’ 중 하나였다. 여러 갈래의 군 중 撒禮塔의 ‘分隊’가 처인성으로 향했을 뿐, 本隊를 규합해 전면전을 치르려던 전장은 아니었다.

요컨대, 그들의 행동양식을 감안하면 몽골에게 처인성 진격은 ‘향후 大城 공략에 대비하기 위해 小郡을 쳐서 그 人民을 약탈하려는’ 여러 갈래 행보 중 하나가 아니었나 한다. 국가적 방비책의 비호를 받지 못했던 처인성의 상태는 몽골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더욱 용이한 곳으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E2·E3에서 보이듯 처인성의 射手들은 적의 元帥를 사살하였다⁷⁷⁾. 그리하여 역으로 몽

77) 전력상 열세에 놓였을 처인성에서 고려가 승전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승군의 존재와 사수의 운용을 꼽은 연구가 있다(강재광, 위의 글, 2018, 247~250쪽). 어느 정도 체계의 승군 조직이 얼마나 입보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영역이므로 차치하더라도, 궁수의 효율적 운용으로 적장을 빠르게 제거했던 것이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한편, 撒禮塔을 사살한 인물에 대한 논의는 각주 5)·6)의 연구 참조.

골군이 와해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의외의 장소에서 거둔 승전은, 결국 전쟁에서 커다란 분기를 만들어냈다. 이후 고려 정부는 어떤 기조에서 몽골에 대처하고 있는지,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4. 고려의 방비 보완 기조와 처인성 승전의 반향

처인성 전투 이후 고려에서 일단 철수한 몽골은 만주 일대로 기수를 돌렸다. 1233년 5월 速不台 등을 앞세워 金의 汴京을 함락시켰고,⁷⁸⁾ 9월 蒲鮮萬奴를 사로잡으면서⁷⁹⁾ 東眞을 멸망시켰다. 이듬해 金 哀宗이 스스로 목매어 자진하면서 金 역시 멸망하였다.⁸⁰⁾ 몽골이 재차 고려로 향한 것은 그 이후인 1235년이였다.

몽골이 다른 곳에 집중하는 약 3년간 고려는 재정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몽골군이 더 이상 ‘小郡’들을 기반으로 진격할 수 없도록 보완된 방비 형태를 준비해야 했다. 軍民을 더욱 단속하지 않으면, 사로잡힌 이들은 곧 적의 役夫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3차 전쟁부터는 추가적인 조치들이 차례로 확인된다. 이를 살피면서 어떠한 기조에서 보완되고 있는지 파악해본다.⁸¹⁾

1253년 윤7월, 몽골은 고려의 서북부 경내에 진입하였다.⁸²⁾ 그리고

78) 『金史』 권18, 本紀18 天興 2년 5월 ; 『元史』 권121, 列傳8 速不台.

79) 『元史』 권2, 本紀2 太宗 5년 9월.

80) 『金史』 권18, 本紀18 天興 3년 1월 己酉.

81) 이 때 검토대상은 고려 정부를 주체로 한 정책들로 한정한다. 전쟁기의 특성상 민이나 군사적 계선에 놓이지 않았던 주체들의 활약이 물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전쟁 전부터 고려 정부가 의도한 것이라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82) 『高麗史』 권23, 高宗 22년 윤7월 丙子. 해당 사료에는 몽골이 침입해온 군현이 ‘安邊都護府’라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보고한 이가 西北面兵馬使이고, 이후 몽골군의 행보가 서해도 일대로 향하고 있다는 점(『高麗史』 권23, 高宗 23년 8월 癸丑)을 고려할 때 ‘安北都護府’의 오키라고 생각된다.

일주일의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고려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 F) 前·後·左·右軍의 陣主와 知兵馬事로 하여금 강화 연안을 수비하게 하고, 廣州와 南京에 명하여 강화로 들어 오게 했다.⁸³⁾

南京은 廣州와 함께 ‘X자형’ 도로망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즉,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려 남부의 여러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용인시 일원에 해당하는 처인부곡·용구현을 비롯하여, 廣州牧 영역 일대는 이러한 특성상 몽골의 1차적 진군 목표지가 될 가능성이 다분했다는 점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고려 입장에서 보면, 해당 지역은 民戶의 피랍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입보는 면 단위로 퍼져있는 특정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점 단위로 응축하는 것이다. 때문에 입보처는 평시 행정 구역의 영역보다 비좁다. 각 거점이 포화상태에 이룬다면, 그 수용 정도를 초과하는 민들은 고려 정부가 구상한 방어체제 안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다.

특히 F에서 언급된 남경과 광주에 도읍인 개경과 그리 멀지 않고, ‘大邑’끼리 연결해 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영역이다.⁸⁴⁾ 과밀하게 입보처를 운영한다면 항전에도 효율적이지 않을뿐더러, 입보책에서 이탈되는 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83) 『高麗史』 권23, 高宗 22년 윤7월 壬午. ‘命前後左右軍陣主知兵馬事, 沿江防戍, 又令廣州南京, 合入江華.’

84) 남경의 경우 인구를 추정한 연구가 있기에 참조된다. 고려의 인구를 350~500만으로 볼 때 개경의 인구는 30~50만명, 남경의 인구는 7~10만명으로 추산된다(김창현, 「고려 남경의 주민과 인구」, 『고려의 남경, 한양』, 신서원, 2006). 이에 따르면 남경에는 고려 인구의 약 2% 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이 수치는 개경의 인구가 10% 수준임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여기에 광주목까지 합산해야 하므로, F에서 언급된 남경-광주는 인구 분포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높다.⁸⁵⁾ 그리고 국가적 방책에 포함되지 못한 채 흩어진 이들은 몽골이 손쉽게 편취할 수 있는 자원이다. 결국, 고려 정부는 사전에 남경·광주의 民戶 일부를 강도에 들어오게 하는 방식으로 내륙 거점의 포화도를 줄이고, 결국 다수의 포로가 몽골에 사로잡힐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를 노렸다고 여겨진다.⁸⁶⁾

이상과 같은 조치에도 입보책의 운영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추가적으로 남아있었다. 고려의 지방 구조적·군사 제도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다음 〈그림 2〉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85) 해당 지역의 사례도, 내륙 입보처도 아니지만 竹島의 사례가 참고된다. 東北面兵馬使 愼執平은 동계 군현들을 이 곳에 입보시키고자 하였지만, 民들은 섬도 없고 좁은 섬에 과밀하게 입보하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다. 결국 10중 2, 3만 입보하고 나머지는 逃散하였다고 한다(『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趙暉).

86) F가 이 일대의 민호를 완전히 강화로 들이려는 조치는 아니었을 것이다. 현지에 남아서 전투를 수행·보호할 인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광주목 영역 내에는 방어거점들이 형성·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으로 모든 민호를 옮겼다 기보다는, 미리 일부를 강도에 입보시켜 유망민의 수를 줄이고자 했다고 생각된다.

당시 존재했던 주현을 중심으로 입보를 시행했을 경우, 수많은 ‘小郡’이 도처에 존재하게 된다. 항전 역량이 떨어지는 ‘小郡’들은 쉽게 함락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결국 이들이 모두 소거되었을 때, 항전의 중심이 되는 거점, ‘大城’ 간의 거리는 멀어지게 된다.

지휘관의 수효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양계 지역은 본래 속현이 적어 수령도 다수 파견되어 있고,⁸⁸⁾ 추가로 군사 계통의 지휘관들이 다수 편제되어 있었다.⁸⁹⁾ 그러나 5도 지역은 사정이 달랐다. 주현군의 지휘체계는 주진군에 비해 매우 소략한 형태였다.⁹⁰⁾ 5도 내 수령들이 군권을 보유하기는 했지만⁹¹⁾ 속현이 많아 비교적

88) 양계 수령 역시 군 지휘권을 보유하였다(李基白, 「高麗 兩界의 州鎮軍」,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257쪽).

89) 양계 주진군의 경우 세부 군현 단위까지 세세하게 장교층이 편성되어 있다(『高麗史』 권83, 志37 兵3 州縣軍). 그리고 본래 방수장군·방수증랑장·방수낭장·방수별장 등으로 이루어진 방수군의 별도 지휘계선도 운영되었다(李基白, 「高麗 州縣軍考」, 『歷史學報』 29, 1965 ;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214~216쪽 ; 趙仁成, 「高麗 兩界 州鎮의 防戍軍과 州鎮軍」, 『高麗光宗研究』, 一潮閣, 1981, 121~126쪽).

90) 주현군의 경우, 노역부대인 1품군을 제외하면 지휘체계가 극히 소략하거나 거의 설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鄭景鉉, 『高麗前期 二軍六衛制 研究』, 서울大學校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1992, 139쪽 ; 최종석, 「고려전기 보승·정용군의 성격과 지방군 구성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담론』 58, 2011, 58·59쪽). 한편 향리들이 전투를 지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향리들을 주현군 지휘관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권영국, 「고려전기 州縣軍의 동원과 지휘」, 『史學研究』 64 ; 2019, 「고려시대 군사제도 연구」, 경인문화사 2001 ; 구산우, 「고려전기 주현군(州縣軍)의 활동과 지휘」, 『한국중세사연구』 63, 2020). 그러나 평시 주현군의 보승·정용군의 지휘권은 수령에게 있었다. 향리들이 무반직을 받고 주현군의 장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이미 주현군의 지휘체계하에서 ‘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향리에게 처음부터 군권이 있었다면 1품군 장교직 등을 겸임하게 하거나, 주현군 장교직 임명 등 추가적인 절차가 군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러한 조치들이 확인된다. 때문에 향리는 그 자체로 군사지휘권의 보유자라 생각되지 않는다. 해당 군현의 役事 등 ‘役의 수취’라는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지휘에 간여하는 외에 ‘향리로서’ 군사작전을 통솔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유사시의 예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常存하는 지휘관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91) 李基白, 앞의 글, 1965 ; 앞의 책, 1968, 213쪽.

소수의 수령들이 넓은 범위의 입보를 책임져야 했다. 업무의 강도 측면에서 5도 지역의 수령이 과중도가 높았던 것이다. 그럴수록 자연히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민들이 유리되어 자체적으로 군집한 ‘小郡’은 5도 곳곳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의 작용으로 각 거점 간의 유기성은 자연히 떨어지게 되고, D4에서 Carpine가 우려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다분했다.

이러한 추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36년부터는 내륙을 중심으로 防護別監이 파견되었다.⁹²⁾ 고려 정부가 입보책에 대한 촉차적인 보완을 시행한 것이다. 방호별감은 방호사와 같은 계통으로, 본래 道 단위로 파견되었다가 고려·몽골 전쟁기에는 특정 군현 단위로 책임 구역을 좁혀서 분견되었다. 당시의 방호별감은 知州府郡事급 외관에 비견되는 관원이다. 監務 혹은 縣令 단위의 군현은 방호별감의 지휘아래 결집되기도 했다. 예컨대, 忠州牧의 天龍山城에는 黃驪縣이 흡수되었고,⁹³⁾ 東州의 東州山城에는 金城縣·金華縣이 입보하여 있었다.⁹⁴⁾ 知州府郡事 이상급의 수령과 방호별감의 지휘아래 거점을 통폐합하면서 각 거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상호 거리가 줄어들어 유기성도 갖추게 되었다.⁹⁵⁾ 성공적으로 전개된다면, 2차 전쟁기 처인성과 같은 ‘小郡’들이 줄어들게 되므로 몽골에 대해 民戶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었다.

고려가 F의 조치로 民戶의 포로 피랍 가능성을 줄이고자 했던 한반도 중부 지역은, 방호별감이 집중 배치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파견지는 <표 1>과 같다.

92)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23년 6월 丁酉.

93) 『高麗史』 권24, 世家24 高宗 40년 10월 甲寅.

94) 『高麗史』 권101, 列傳40 文漢卿 附 白敦明.

95) 홍민호, 앞의 글, 2021, 148·149쪽.

〈표 1〉 한반도 중부 일대 방호별감 배치 현황

노선	방호별감 배치성곽	전거
廣州牧-楊根縣-砥平縣-原州	楊根城 ⁹⁶⁾	『史』世 高宗 40년 10월 己酉
	原州山城 ⁹⁷⁾	『要』高宗 40년 10월
廣州牧-利川縣-忠州牧 ⁹⁸⁾	天龍山城 ⁹⁹⁾	『史』世 高宗 40년 10월 甲寅
	忠州山城 ¹⁰⁰⁾	『史』列 金允侯
廣州牧-竹州-淸州牧	竹州城 ¹⁰¹⁾	『史』列 朴犀 附 宋文胄

* 『史』는 『高麗史』, 세는 世家, 列은 列傳, 『要』는 『高麗史節要』를 말한다.

이상과 같은 보완책은 처인성 전투를 겪은 이후인 3차 전쟁기부터 마련되기 시작하여, 4차 전쟁 이전 휴지기에는 일단의 정비가 마쳐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간 중인 1243년(고종 30)에도 방호별감이 37명 규모로 각지에 파견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⁰²⁾ 그리고 그 틀은 계속해서 유지되었을 것이다.¹⁰³⁾ 추가적 관원의 파견과 거점

96) 양근성은 그 명칭상 양근현의 치소와 관련한 성곽이 아닐까 한다. 한편 다소 억측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양근성을 이후에 나타나는 함왕성(함공성)에 비정한 견해가 있다(수원대학교 박물관, 『양평 함왕성지—지표 및 시굴조사 보고서—』, 양평군, 1999, 20~25쪽).

97) 원주산성은 鵠原城에 비정된다(홍민호, 앞의 글, 2021, 155·156쪽).

98) 서술한 바와 같이 황려현은 천룡산성에 합입되어 있었는데, 廣州牧-黃驪縣-忠州牧의 길은 포기하고 廣州牧-利川縣-忠州牧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각주 72)에서 일면 언급했듯, 고려 정부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방어처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99) 천룡산성은 보련산 정상에 위치한 석축 산성으로, 고려·몽골 전쟁기 축조된 입보용 성곽이다(장준식 외, 『忠州 寶蓮山城 및 天龍寺址 地表調査 報告書』, 忠淸大學校 博物館, 2011).

100) 충주산성은 大林山城에 비정된다(최규성, 「제5차 여·몽전쟁과 충주산성의 위치 비정」, 『상명사학』 6, 1998 ; 최근영, 「忠州 大林山城 考」, 『중원문화연구』 4,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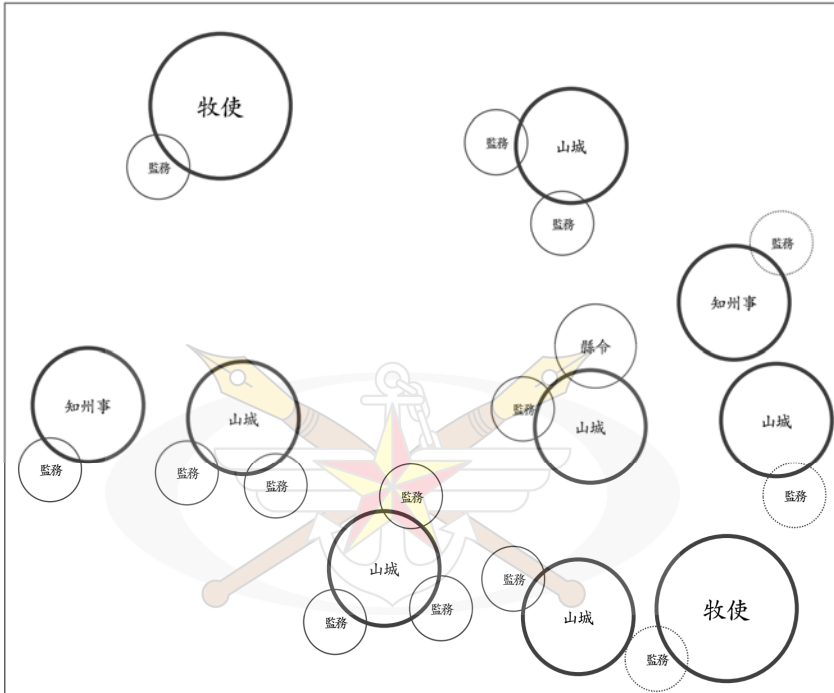
101) 죽주성은 퇴포식의 내성과 본성, 포곡식의 외성으로 이루어진 3중성의 형태였다(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9, 170·175쪽).

102) 『高麗史節要』 권16, 高宗 30년 2월.

103) 姜在光, 「對蒙抗爭期 崔氏政權의 山城入保策과 地方統治」, 『전쟁과 유물』 1, 2009b, 150쪽.

형성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을 <그림 3>¹⁰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3> 한반도 중부 일대 입보 운영 예시 2



104) <그림 3>의 '山城'은 추가적인 지휘관 파견이 확인되는 입보 거점이다. <그림 2>의 유형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읍치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읍격을 표기하지 않고, 지휘관을 새로이 파견하여 규모를 키웠다면 일괄 '山城'으로 적었다. 그러나 앞선 장에서 언급한 寶蓋山城의 경우 이 시기 활용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외적으로 추가하였다(山城 중 가장 좌측). 점선으로 표기한 군현은 <지도 2>에 등장하지 않았던 지역이다. 해당 영역 내에는 망이산성·만정리토성·설봉산성·이성산성 등 여러 성곽도 존재하고 있지만, 출토 유물의 연대·축조특징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전쟁기에 국가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개별 성곽들에 대한 발굴보고서도 있지만, 지면 여건상 개괄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성과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위의 책, 1999 ; 차용걸 외, 『京畿道の城廓』, 경기문화재단, 2003.

전술한 것처럼, 방호별감은 知州府郡事급 지휘관이었다. 縣令·監務 등 그보다 낮은 읍격의 군현들은 방호별감이 지휘하는 산성에 함께 입보하기도 했다. 그리고 전시의 한정된 자원하에서도, 고려 정부는 광주 남부 여러 방면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지점들에 각기 방호별감을 집중 배치하였다. 한반도 중부 지역 거점들에 대해 전통적인 ‘大城’만큼은 아닐 지라도, 적어도 ‘中郡’ 정도로의 크기는 유지하도록 재구성해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역로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형태였기에,¹⁰⁵⁾ 거점 간의 상호 유기성도 어느 정도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고려 정부는 단계적으로 몽골에 대해 인적 자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항전 역량을 갖춰가는 기조에서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¹⁰⁶⁾

위 지역에 파견된 인물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고려 정부가 해당 지역 지휘관 인선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 양근성에 주재했던 인물로는 尹椿이 확인된다. 그는 몽골군과 싸우지 않고 항복하였다.¹⁰⁷⁾ 하지만 그가 1256년(고종 43) 다시 고려로 돌아왔을 때 몽골의 전술을 바탕으로 대책을 상언했던 점을¹⁰⁸⁾ 고려하면, 군사적 식견이 없는 인물은 아니었다. 돌아온 윤춘에게 고려는 오히려 親從將軍¹⁰⁹⁾을 超授하기도 했다. 다른 항복자들은 모두 처벌받았던 것을 고려하면¹¹⁰⁾, 전쟁기에 있어 고려 정부에게도 윤춘은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죽주성에 파견된 바 있는 宋文胄는 1차 전쟁기 龜州에서 朴犀를

105) 홍민호, 앞의 글, 2021, 151~167쪽.

106) 이러한 방침을 시행하면 물론 ‘小郡’ 들을 그대로 두었을 때보다는 그 수가 줄겠지만, 실질적으로 항전 역량을 갖춘 거점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 즉, 몽골의 군사력을 소모시킬 가능성이 높은 거점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그들의 남진을 늦출 수 있는 효과도 보았을 것이다.

107) 『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0년 10월.

108) 『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3년 6월.

109) 親從將軍은 鷹揚軍의 정4품 將軍職이다(『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西班).

110) 『高麗史』 권24, 世家24 高宗 41년 2월 甲辰·7월 戊午.

도왔다. 그 전문을 바탕으로 몽골군의 공격 방식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정도였으므로,¹¹¹⁾ 수성전에 상당한 능력을 보유한 인물이었다. 원주산성에는 鄭至麟이 파견되었던 바 있는데, 윤춘의 항복 권유를 물리치고 성의 수비를 더욱 굳건하게 하여 결국 몽골병이 포기하고 물러나도록 하였다.¹¹²⁾ 또 충주산성은 처인성의 승전을 지휘한 김윤후가 파견되었던 공간이다.¹¹³⁾ 고려 정부가 한반도 중부 방비에 주의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라 여겨진다.¹¹⁴⁾ 전쟁기 한정된 자원하에서도 한반도 중부에 유능한 지휘관을 집중 배치하면서, 고려 정부는 몽골의 전투 방식에 대해 원활한 대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해당 영역의 중요성을 인지한 탓임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고려 정부는 南京·廣州의 民戶 일부를 강화에 들어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몽골의 1차적 목표지가 될 수 있는 지역에서 입보지의 포화를 막아 민이 방비책에서 유리될 가능성을 줄였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 방호별감을 파견하여 거점간 거리·거점의 크기를 조절하고, 처인성과 같은 ‘小郡’이 다수 散存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중부의 경우 유능한 지휘관들을 파견하여 신경 쓴 흔적이 포착된다.

축차적이고 또 일관적이며 인적 자원의 보호가 수월해지도록 하는 보완 기조를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처인성 전투가 이러한 보완책의 직접적인 동기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승첩이 조정에 보고되면서 처인성과 같은 곳들이 전국 각지에 분포해있다는 점을 강제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입보 전개의 조밀화 과정이

111) 『高麗史』 권103, 列傳16 朴犀 附 宋文曹.

112) 『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0년 10월.

113) 『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允侯.

114) 한편, 당사자의 관품상 방호별감이라 여겨지지는 않지만, 이미 광주성에서 능력을 보여주었던 이세화는 3년을 더 광주성에 주재하다가 추후 淸州山城에 파견되고 있다(『李世華墓誌銘』). 이 역시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이후 어느 시점에는 등장할 수 있었겠지만, 처인성 전투는 그 방침들의 직접적인 시행에 있어 촉매제가 되기 충분한 사건이었다.

처인성은 국가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거점이 아니었다. 즉, 고려 정부의 인식에서는 그 전략적 이점이 높다고 보이지 않았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몽골이 진격한 경로상에는 수많은 고을들이 산재해 있지만, 몽골이 寇掠한 공간들은 그 읍명이 전부 기록되지 않았다. 물론 직접 공략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해당 軍民이 잘 입보하여 대피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국가적 입장에서 중요성을 가지지 않았기에 기술에서 누락된 지역도 분명 존재한다.

한 예로, 몽골과의 1차 전쟁에서 몽골군 一隊는 廣州를 지나 忠州·淸州로 나아갔다. 당시의 전황에 대해서는 지나는 곳마다 殘滅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所過無不殘滅].¹¹⁵⁾ 몽골이 필요한 인적 자원을 편취한 뒤 남은 이들은 학살했다고 하는데,¹¹⁶⁾ 그 과정의 일환일 것이다. 1차 전쟁기는 전국적 입보 조치가 시행되기 이전 시점이므로, 고려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小郡’이 산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강도로 전달된 상황은 史草가 되어 해당 사료의 기재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¹¹⁷⁾ 그 과정에서 결국 ‘廣州’·‘忠州’·‘淸州’ 등 大邑을 중심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군소한 지역들은 가려진 채 ‘所過’로만 전해졌다.¹¹⁸⁾ 특기할 만한 사안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존

115)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18년 12월 丁巳.

116) 『蒙韃備錄』 軍政; 플라노 카르피나·윌리엄 르부룩, 김호동 역주, 앞의 책, 2015, 110·111쪽; Boyle, J. A 역, 앞의 책, 1997, p127·129·131.

117) 『高麗史』는 史草를 바탕으로 사관이 재작성하는 방식이 아니고 原史料를 그대로 둔 채 편집만 하는 형태로 편찬되었다(邊太燮, 「高麗史 編纂에 있어서의 客觀性의 問題」, 『震壇學報』 40, 1975; 「『高麗史』의 研究」, 三英社, 1983). 그렇기에 전황을 담고 있는 『高麗史』 내 기사들이 당시 조정에 보고된 것과 판이하게 다른 형태일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진다.

118) 예컨대, 충주목 내에는 속현과 함께 多仁鐵所 외 12곳 가량의 향·소·부곡·장·치

고려의 주요 지역이나 거점을 바탕으로 전황이 기재되고 있으며, 작은 고을들은 누락되고 있음을 보여준다.¹¹⁹⁾

처인부곡 역시 자칫 감춰지기 쉬운 공간이었다. 즉, 해당 지역에서 무언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所過’가 ‘殘滅’되었다는 정도로 중앙에 보고되고, 지나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상외의 큰 전과를 거두었다. 해당 지역에 시선이 닿게 되면서, 고려 정부에게는 처인성 전투 중심의 전황 이해가 강제되었다. 당시 시행하고 있었던 방어 방침의 맹점도 확인했을 것이다. 즉, 처인성과 같이 방어체제에서 벗어난 공간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 이들은 몽골군에 의해 쉽게 포획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계기였다. 인적 자원의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나름의 보완책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인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처인성’ 자체는 비록 고려에게 중요하지 않았을지라도, ‘처인성 전투’가 가져온 여파는 상당했던 셈이다. 고려 내부의 상황적 요소와 고려 사회의 계층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적되었던 의미 외에, 해당 전투 승전이 가졌던 또 다른 의의이고, 반향이다.

5. 맺음말

전쟁은 수행하는 주체가 있고, 행위는 주체의 특성을 반영한다. 몽골은 대외적 확장을 통해 다양한 나라에 영향을 미쳤고, 그만큼

가 산재하고 있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14, 忠淸道 忠州牧 古跡). 하지만 당시 전황 속에서 이들의 명칭은 드러나지 않는다.

119) 한편, 처인부곡 주변에도 磁器所와 陶器所가 1곳씩 있었다(『世宗實錄』 권148, 地理志 京畿 水原都護府 龍仁縣). 하지만 처인성에서 몽골군의 행적이 확실히 기록된 해당 시점에도 자기소와 도기소는 어찌 되었는지 그 향방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역시 주요 전과를 중심으로 행적이 보고되고 기록된 예라 하겠다.

다양한 입장·시각에서 그들의 특징이 포착되었다. 몽골이 고려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물론 고려 내부의 사정이나 조건도 고려해가면서 방침을 마련해 나갔겠지만, 그들에게 익숙한 전투 방식도 그 선택에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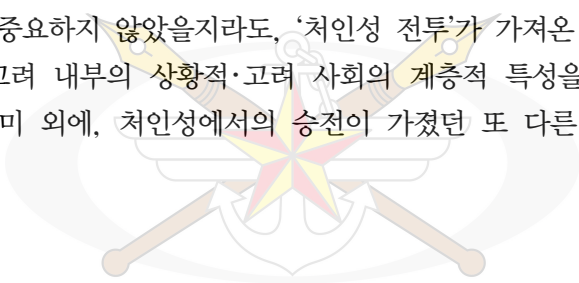
1차 고려·몽골 전쟁이 마무리된 이후, 고려는 達魯花赤을 축출하는 한편 江都로의 전격적인 천도를 감행하였다. 그리고 몽골은 재차 撒禮塔를 元帥로 하여, 고려를 침공하였다. 撒禮塔는 배를 건조하여 江都로 향하려던 계획을 수정하고, 廣州 일대를 점령하려 했다. 하지만 광주성에서 廣州副使 李世華에게 수 개월간 매여있게 되고, 撒禮塔軍은 많은 인적·시간적 손해를 떠안아야 했다.

몽골이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포로 등 인적 자원은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그렇기에 ‘大城’을 공략하기 전에 먼저 ‘小郡’을 공격하여, 軍民을 포로로 취하는 행적을 보였다. 처인성은 둘레 약 350m의 작은 성으로, 당시 고려 정부가 시행했던 전국적인 입보책에서 유리된 이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었다. 몽골이 향후 한반도 남부로 진격해 나감에 있어, 처인부곡은 인적 자원을 비교적 쉽게 편취할 수 있는 ‘小郡’이었다. 국가적 방비책의 비호를 받지 못했던 처인성의 상태는, 몽골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용이한 곳으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撒禮塔는 전사하였고, 전쟁의 한 분기가 종결되었다.

金과 東眞을 멸한 몽골이 재차 고려를 공격해오자, 고려는 이전의 방어 방침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했다. 먼저, 몽골이 추후 진격을 위한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지역인 南京·廣州 일대의 民戶를 江都로 옮겼다. 그리고 知州府郡事급 관원인 防護別監을 각 지에 파견하고 거점을 일정 규모로 키워 재편하면서, 처인성과 같은 ‘小郡’이 다수 散存하지 않도록 하였다. 유능한 지휘관을 한반도 중부 지역에 집중 파견하면서, 해당 지역에 보다 신경 쓰고 있는 모

습도 포착된다. 인적 자원의 보호를 수월하게 하는 기조에서 방침은 보완되고 있으며, 원활한 전개가 이루어졌을 때 유리된 民戶의 수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처인성은 국가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거점이 아니었다. 고려 정부에게 있어 그 전략적 이점이 높게 평가되지는 않았던 공간인 것이다. 특기할 만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저 몽골이 殘滅하고 지나간 지역으로만 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에서 극적인 勝捷을 거두면서, 처인성과 같이 방어체계에서 벗어난 공간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 고려는 일정한 기조의 보완책을 보인다. ‘처인성’ 자체는 비록 고려에게 중요하지 않았을지라도, ‘처인성 전투’가 가져온 여파는 상당했다. 고려 내부의 상황적·고려 사회의 계층적 특성을 바탕으로 도출된 의미 외에, 처인성에서의 승전이 가졌던 또 다른 의의이고, 반향이다.



〈참고문헌〉

1. 자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金史』, 『元史』, 『元高麗紀事』, 『太宗實錄』,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黑韃事略』, 『蒙韃備錄』

Giovanni da Pian del Carpine, “Ystoria Mongalorum” ; 플라노 카르피니·윌리엄 르부룩, 김호동 역주, 『몽골제국기행 : 마르코 폴로의 선구자들』, 까치, 2015.

<http://uci.or.kr//G901:A-0006570859@N2M>

Juvaynī ‘Alā’ al-Dīn ‘Atā Malik, “Ta’rīkh-i Jahān-gushā’i” ; Boyle, J. A 역, “The History Of The World Conqueror” Vol I,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7.

Rashīd al-Dīn, “Jāmi‘ al-tawārīkh” ; 라시드 앳 딘 지음, 김호동 역주, 『라시드 앳 딘의 집사 2 : 칭기스칸기』, 사계절, 2003.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제5판)』,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

2. 단행본

권영국, 『고려시대 군사제도 연구』, 경인문화사, 2019.

김창현, 『고려의 남경, 한양』, 신서원, 2006.

<http://uci.or.kr//G901:A-0006150813@N2M>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안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9.

박원길, 『몽골비사의 종합적 연구』, 민속원, 2006.

<http://uci.or.kr//G901:A-0006123512@N2M>

- 邊太燮, 『「高麗史」의 研究』, 三英社, 1983.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의 성곽』,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4.
- 용인시사편찬위원회 편, 『고려시대의 용인』, 용인문화원, 1998.
<http://uci.or.kr//G901:A-0008436432@N2M>
- 용인시·용인문화원, 『용인 처인성 : 시굴조사 보고서』, 충북대학교 중
 원문화연구소, 2002.
<http://uci.or.kr//G701:B-00113830793@N2M>
- 용인시·용인문화원, 『용인 처인성 : 지표조사 보고서』, 충북대학교 중
 원문화연구소, 2002.
- 柳在城, 『對蒙抗爭史』,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88.
<http://uci.or.kr//G901:A-0008356284@N2M>
- 尹龍赫,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1991.
- , 『여몽전쟁과 강화도성 연구』, 혜안, 2011.
<http://uci.or.kr//G901:A-0006355253@N2M>
- 李基白,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http://uci.or.kr//G901:A-0008260828@N2M>
- 李基白 外, 『高麗光宗研究』, 一潮閣, 1981.
<http://uci.or.kr//G901:A-0008324259@N2M>
- 이인영, 『읍치와 성곽』, 민속원, 2010.
<http://uci.or.kr//G901:A-0006342294@N2M>
- 장준식 외, 『忠州 寶蓮山城 및 天龍寺址 地表調査 報告書』, 忠淸大學校
 博物館, 2011.
- 鄭景鉉, 『高麗前期 二軍六衛制 研究』,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
 文, 1992.
- , 『高麗·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研究』, 서울大學校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08.
<http://uci.or.kr//G901:A-0005399500@N2M>
- 周采赫, 『몽·려전쟁기의 살리타이와 흥복원』, 혜안, 2009.
- 車勇杰 外, 『處仁城·老姑城·寶蓋山城 : 地表調査報告書』,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9.
<http://uci.or.kr//G901:A-0008567560@N2M>

차용걸 외, 『京畿道の 城廓』, 경기문화재단, 2003.

<http://uci.or.kr//G901:A-0006073733@N2M>

최종석, 『한국 중세의 읍치와 성』, 신구문화사, 2014.

<http://uci.or.kr//G901:A-0006523437@N2M>

한정훈, 『고려시대 교통운수사 연구』, 혜안, 2013.

<http://uci.or.kr//G901:A-0006460241@N2M>

혜안문화재연구원, 『용인 처인성Ⅱ—용인 처인성 정비사업부지 내 문화재 시·발굴조사—』, 혜안문화재연구원, 2020.

孫克寬, 『蒙古初期之軍略與金之崩潰』, 臺北：中央文物供應社, 1955.

羅旺紮布 外, 『蒙古族古代戰爭史』, 北京：民族出版社, 1992.

Ch'i-ch'ing Hsiao, "The Military Establishment of the Yuan Dynasty", Cambridge :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1978.

<http://uci.or.kr//G901:A-0008665387@N2M>

Timothy May, "The Mongol Art of War : Chinggis Khan and the Mongol military system", Barnsley : Pen & Sword Military, 2007 ; 신우철 譯, 『몽골 병법』, 대성닷컴, 2009.

<http://uci.or.kr//G901:A-0006223854@N2M>

_____, "The Mongol conquests in world history", London : Reaktion Books, 2012 ; 권용철 역, 『칭기스의 교환 : 몽골 제국과 세계화의 시작』, 사계절, 2020.

Б.Я.Владимирцов, "Общественные строй монголов", Russian :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1934 ; 주재혁 譯, 『몽골 사회 제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http://uci.or.kr//G901:A-0008262418@N2M>

3. 일반논문

姜在光, 「蒙古의 제1차 침공과 被陷 北界 14大城의 抗戰」, 『韓國史研究』 146, 2009a.

<http://uci.or.kr//G901:A-0002709288@N2M>

姜在光, 「對蒙抗爭期 崔氏政權의 山城入保策과 地方統治」, 『전쟁과 유물』 1, 2009b.

강재광, 「對蒙戰爭期 處仁城勝捷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廣州道 방어 및 部曲民·僧徒의 항전과 연관하여—」, 『한국중세사연구』 53, 2018.

<http://doi.org/10.35863/JKMH.53.7>

고명수, 「13세기 초 遼東의 정세변동과 高麗-東眞 관계」, 『한국중세사연구』 50, 2017.

구산우, 「고려전기 주현군(州縣軍)의 활동과 지휘」, 『한국중세사연구』 63, 2020.

<http://doi.org/10.35863/JKMH.63.5>

김성태, 「삼각산 중흥산성에 대한 역사고고학적 고찰」, 『서울과 역사』 95, 2017.

<http://doi.org/10.22827/seoul.2017..95.005>

김호준, 「高麗 對蒙抗爭期 險山大城의 入保用山城 出現」, 『先史와 古代』 40, 2014.

<http://doi.org/10.23024/pah.2014..40.189>

———, 「高麗 對蒙抗爭期 金允侯將軍의 3次例 勝戰의 意義」, 『白山學報』 114, 2019.

<http://doi.org/10.52557/tpsh.2019.114.121>

안신원, 「고려시대 광주읍치의 고고학적 고찰」, 『동아시아문화연구』 86, 2021.

<http://doi.org/10.16959/jeachy..86.202108.13>

尹龍燦, 「蒙古의 2차 侵寇와 處仁城 勝捷」, 『韓國史研究』 29, 1980.

- 윤은숙, 「몽골제국시대 몽골군의 유목 전법」, 『몽골학』 28, 2010.
<http://doi.org/10.17292/kams.2010..28.001>
- 李在範, 「대몽항전의 성격에 대하여 : 계층별 항전을 중심으로」, 『白山學報』 70, 2004.
<http://uci.or.kr//G901:A-0002259679@N2M>
- 최규성, 「제5차 여·몽전쟁과 충주산성의 위치 비정」, 『상명사학』 6, 1998.
<http://uci.or.kr//G901:A-0001399251@N2M>
- 최근영, 「忠州 大林山城 考」, 『중원문화연구』 4, 2000.
<http://uci.or.kr//G901:A-0001437954@N2M>
- 최윤정, 「고려의 요동·고려 경략 재검토(1211~1259)」, 『歷史學報』 209, 2011.
<http://uci.or.kr//G901:A-0002919076@N2M>
- 최종석, 「고려전기 보승·정용군의 성격과 지방군 구성에 대한 재검토」, 『역사와 담론』 58, 2011.
<http://uci.or.kr//G901:A-0003463428@N2M>
- 홍민호, 「고려·몽골 전쟁기 방호별감(防護別監)의 운영과 내륙 입보의 보완」, 『韓國史研究』 193, 2021.
<http://doi.org/10.31791/JKH.2021.06.193.127>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its Affects of the Battle of Cheoin Castle(處仁城) in the Period of Goryeo-Mongol War

Hong, Min-ho

It is said that there is a main performer in war, and actions which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The main performer of war, Mongol forces made use of human resources weigh with such as prisoners of war. Therefore, before attacking the big castle(大城), they attacked a small village(小郡) firstly and took the people as prisoner.

As Mongol advanced to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t a later time, Cheoin Bugok(處仁音曲) was a small village that could take human resources relatively easily. The Salietai(撒禮塔) 's army, which had already taken on human and time damage in Gwangju(廣州), had to take control of several small villages and re-supply human resources. However, Salietai died in Cheoin Castle(處仁城), and the war is over temporarily.

Cheoin Castle was not a national level operated military base at that time. If nothing remarkable happened, it could only remain as an area where Mongol army wiped out and passed by. However, the victory of Chein castle forced the Goryeo government to understand the situation centered on the battle of Cheoin Castle. And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re could be as many people who were freed from the defense system.

After the Battle of Cheoin Castle, the Goryeo government is complementing its defense policy in the stance of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human resources while guaranteeing the capabilities of resistance. It is the echo of the Battle of Cheoin Castle and another significance of the battle.

Keywords : Goryeo-Mongol war, Battle of Cheoin Castle(處仁城), small village(小郡), big castle(大城), prisoners, ipbo(入保)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4, pp.133-165
<https://doi.org/10.29212/mh.2022..124.13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唐太宗 高句麗 親征과 唐軍의 병력

- 군량으로 추산한 唐軍의 수와 그 함의 -

崔珍烈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

목 차

1. 서론
2. 史書에 언급된 唐軍의 병력
3. 唐軍 병력의 추산
4. 추산 唐軍 병력과 인구대비 징발률
5. 결론

초 록

이 논문은 唐太宗의 高句麗 親征에 동원된 唐軍의 수를 추산하고 唐軍 수의 의미를 인구와 군사적 측면에서 분석한 글이다. 필자는 『冊府元龜』와 『新唐書』, 『資治通鑑』에 기록된 唐軍이 탈취한 군량을 바탕으로 安市城과 遼東城 등지에 있었던 唐軍 병력을 추산하였다.

唐太宗은 333,334인(『新唐書』) 또는 352,000인(『冊府元龜』)이었으며, 張亮이 지휘한 수군 7만인을 포함하면 최소 약 403,000(『新唐書』), 또는 422,000인(『冊府元龜』)을 동원하였다. 이는 張儉 등이 지휘한 군

사를 제외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후자의 수치가 보다 사실에 부합할 것이다. 여기에 각종 물자를 수송하는 치중부대의 수를 정규군의 3배라고 가정하면 唐太宗은 당시 인구의 최소 11.97%(『冊府元龜』), 또는 11.36%(『新唐書』)에 해당하는 정규군과 물자수송을 맡은 백성들을 동원했을 것이다. 이는 성인남성의 23.94% 또는 22.72%를 동원한 셈인데,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심지어 이 비율은 唐太宗이 비난한 隋煬帝의 제1차 고구려 침공(113만 동원)보다 높았다.

이 논문은 唐太宗의 高句麗 침략 당시 唐軍의 수를 정확히 추산함으로써 高唐 전쟁을 재평가하는 돌파구가 된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高句麗가 일방적으로 패배했다고 서술한 『通典』, 『舊唐書』, 『唐會要』, 『冊府元龜』, 『新唐書』, 『資治通鑑』 등 중국 사서 기록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연구이다. 특히 高唐 전쟁을 가장 상세히 기록한 『冊府元龜』의 사료적 가치를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 高句麗, 唐太宗의 高句麗 親征(침략), 高唐 전쟁, 은폐된 唐軍의 수, 唐太宗, 隋煬帝, 『冊府元龜』, 『新唐書』, 『資治通鑑』

(원고투고일 : 2022. 7. 1, 심사수정일 : 2022. 8. 15, 게재확정일 : 2022. 8. 30.)

1. 서론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은 중국 역사에서 皇帝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주변국을 침략했던 드문 예였다. 그러나 隋末에 여러 군웅들을 격파하여 武勇을 떨쳤던 唐太宗의 高句麗 親征은 실패로 끝났다. 공교롭게도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사료는 史書마다 내용이 다르며, 심지어 모순되기도 하였다. 이는 당시 전쟁 상황을 은폐하려는 의도라는 심증을 낳게 한다.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은 高唐 전쟁은 전쟁의 원인,¹⁾ 외교관계,²⁾ 親征의 실패,³⁾ 침공 전략,⁴⁾ 치중 문제⁵⁾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되었다.⁶⁾ 이 가운데 史書의 모호한 기록 때문에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당시 高句麗軍의 활약 및 전과는 물론 唐軍 병력의 수는 아직

- 1) 董明勝, 「隋唐與高句麗爭原因及影向探析」,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張豔, 「朝貢關系下隋唐對高句麗戰爭的原因分析」, 『周口師範學院學報』 2015-6, 2015; 天行健, 「隋唐爲何一定要征服高句麗」, 『會博覽(下旬刊)』 2012-6, 2012.
- 2) 拜根興, 「激動의 50년-高句麗와 唐 關係 研究-」, 『高句麗研究』 14, 417-443쪽; 이성제, 「고구려와 거란의 관계-대수, 당전쟁기 거란의 동향과 그 의미-」, 『북방사논총』 5, 2005; 祝立業, 「略論唐麗戰爭與唐代東亞秩序構建」, 『社會科學戰線』 2014-5, 2014.
- 3) 拯救夢想, 「隋唐皇帝禦駕親征爲何屢屢失敗」, 『時代青年』 2013-9, 2013.
- 4) 馬正兵, 「唐太宗三次東征的軍事失誤」, 『文史春秋』 2008-9, 2008; 張國亮, 「唐征高句麗之戰的戰略研究」, 吉林大學 석사학위논문, 2008, 5-29쪽; 張曉東, 「唐太宗與高句麗之戰跨海戰略」, 『史林』 2011-4, 2011.
- 5) 楊希義于汝波, 「唐代軍事史」上(中國軍事通史 第十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8, 156-161쪽 및 370쪽; 曹柳麗, 「隋煬帝·唐太宗征高句麗軍事後勤建設比較研究」, 江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 6)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을 비롯한 高唐 전쟁 및 연구사는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高句麗 對隋, 唐戰爭史』, 서울: 국방부, 1991; 임기환, 「7세기 동북아 전쟁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고구려와 수, 당의 전쟁을 중심으로」, 『역사문화논총』 8, 신구문화사, 2014, 7-33쪽; 정동민, 「최근 중국 학계의 고구려 전쟁사 연구」, 『軍史』 102, 2017, 259-294쪽 등 참조.

완전히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新唐書』 「高麗傳」에 기록된 唐軍 10여만 인과 船師 7만을 병력 총수로 보거나⁷⁾ 최소 10만 3천과 전함 500척으로 파악하기도 한다.⁸⁾ 그러나 『新唐書』처럼 같은 사서에서도 唐軍의 병력 수를 다르게 기록하였기 때문에 『舊唐書』와 『新唐書』 등의 기록에서 당군이 누락되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唐軍의 병력을 추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용만은 신라 성덕왕이 707년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1인당 하루 3升씩 모두 300,500석의 곡물을 구휼을 위해 나눠주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과 唐이 획득한 628,000石의 군량을 단서로 대략 30만 명의 唐軍이 요동군과 안시성 주변에 있었다고 추산하였다.⁹⁾ 그러나 『삼국유사』의 도량형과 唐의 도량형 단위가 다른 점을 간과하였다. 노태돈은 唐太宗, 李勣, 張亮이 각각 26명, 14명, 10명의 총관을 지휘했음에 주목하여 총관 1명이 4천 명을 지휘했다고 계산하여 육군과 수군이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였다.¹⁰⁾ 총관 1인이 4천 인을 지휘했다는 중국학자의 추산¹¹⁾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성이 의심된다.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당시 唐軍의 병력은 高唐 전쟁을 이해하는 기초이다. 필자는 『通典』 등에서 당시 唐軍의 수를 추산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唐太宗이 동원한 군사 숫자를 추산하였다. 지면 관계상 본고에서 다루지 못하지만¹²⁾ 당시 군사의 차

7) 曹柳麗, 『隋煬帝·唐太宗征高句麗軍事後勤建設比較研究』, 江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29-30쪽.

8) 이호영, 「당과의 전쟁」,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5(삼국의 정치와 사회 I - 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1996, 141쪽, 고구려의 대수(당의 오기)전쟁표.

9) 김용만, 『새로 쓰는 연개소문傳』, 바다출판사, 2003, 168쪽.

10)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82쪽 및 주)39. 여기에는 장검이 지휘하는 營州都督府의 군사와 唐에 협조한 契丹奚의 군대는 제외한 수이다.

11) 孫繼民, 『唐代行軍制度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1995, 123쪽.

12) 「唐太宗 시기 高唐 전쟁과 唐의 인력·물자 동원」이란 제목의 논문을 집필 중이다.

출, 물자 징발과 운송의 지역 할당, 軍船의 건조 등을 통해 병참경제·재정 측면에서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을 재해석할 수 있다. 본고는 이 작업의 교두보로써 사료검토와 唐軍의 병력을 추산하고 인구 통계 및 전체 병력과 비교를 통해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이 唐 국내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 力作이다.

먼저 2장에서 唐軍의 병력과 전과를 간략히 기록한 사서, 즉 『通典』, 『舊唐書』, 『唐會要』와 唐軍의 수와 戰功을 자세히 기록한 사서인 『冊府元龜』·『新唐書』·『資治通鑑』·『三國史記』의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기록을 분석한다. 이어서 3장에서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에 동원된 唐軍 병력을 추산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 병력 및 병참수송 인력이 唐太宗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지역별 전쟁 부담을 검토하여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이 唐의 경제와 사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이 논문은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당시 唐軍의 숫자를 추산하여 高唐 전쟁의 실상을 밝히고 ‘聖君’ 唐太宗의 민낯을 초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2. 史書에 언급된 唐軍의 병력

본장에서 『通典』, 『舊唐書』, 『唐會要』, 『冊府元龜』, 『新唐書』, 『資治通鑑』, 『三國史記』(편찬 연도순)에 기록된 唐軍의 수와 관련된 사료를 검토한다.

먼저 唐後半期에 편찬된 杜佑의 『通典』의 관련 기사를 살펴보자.

[정관 18년] 十一月에 이르러 刑部尙書 張亮을 平壤道行軍大總管에 임명하여 萊州에서 출발하여 바다를 통해 平壤

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하였다. 또 特進 李勣을 遼東道行軍大總管에 임명하여 遼東으로 진격하여 양군이 합勢하도록 하였다. 三十日에 遼東(高句麗를 지칭-필자) 정벌에 종군하는 병사들을 幽州에 집합시켰다. [정관] 19년에 太宗이 친정하여 요수를 건넜다. 四月에 李勣이 蓋牟城을 점령하였고 2만 인을 사로잡았으며 蓋州를 설치하였다. 李勣은 遼東城도 함락시켰고 遼州를 설치하였다. 六月에 白巖城을 점령하고 巖州를 설치하였다. 드디어 군사들을 이끌고 安市城에 주둔하여 병사들을 진격시켜 공격하였다. 이때 高麗의 北部俘薩 高延壽와 南部[俘薩] 高惠眞이 靺鞨 15만을 이끌고 구원하러 와서 安市城 東南 8里 떨어진 곳에서 산을 의지해 진을 쳤다. 上은 所司에 朝堂 곁에 受降幕을 치도록 명령하고 밤에 文武 관리들을 불러 몸소 지휘하였다. 이날 밤에 유성이 적의 군영 안에 떨어졌다. 다음날 싸워서 대과하였다. 延壽와 惠眞은 36,800인을 거느리고 항복하였다. 上은 酋首 3,500인에게 戎秩을 제수하였고 그들을 內地로 옮겼고, 나머지 3萬人은 모두 석방하여 平壤城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으며, 靺鞨 3,000인은 모두 과몰어 죽었다. 말 5만 필, 소 5만 마리, 갑옷 1만 領을 획득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행차한 산을 駐驛山이라 이름 지었다. 許敬宗에게 글을 짓게 하여 돌에 새겨 그 행적을 기념하도록 하였다. 드디어 군사를 安市城 남쪽으로 이동시켰다. 오래되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九月에 드디어 회군하였다. 먼저 遼·蓋 2州의 戶口를 보내 요수를 넘도록 하였고 兵馬를 불러 성 아래를 돌도록 하였다. 安市城 城主는 성에 올라 절하며 사례를 표했고 태종은 그의 堅守를 가상히 여겨 縑 100필을 하사하여 임금을 섬긴 자를 격려하였다.¹³⁾

13) 『通典』 卷186 「邊防」2 高句麗傳, 5016-5017쪽, “至十一月, 以刑部尚書張亮為平壤道行軍大總管, 自萊州泛海趣平壤。又以特進李勣為遼東道行軍大總管, 趣遼東, 兩軍合勢。三十日, 征遼東之兵集於幽州。十九年, 太宗親征渡遼。四月, 李勣攻拔蓋

위의 기록에서 唐太宗의 高句麗 親征에 동원된 군사의 구체적인 수를 적지 않았다. 唐軍이 蓋牟城을 점령한 후 2만 인을 사로잡았으며 蓋州로 바꿨고 遼東城과 白巖城을 攻拔한 후에 각각 遼州와 巖州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高延壽·高惠眞의 군대를 격파하고 36,800인의 항복을 받았으며 밀 5萬 匹, 소 5만 마리, 甲 1萬 領을 노획한 전과를 언급하였다. 이를 제외하면 唐軍이 승리한 蓋牟城·遼東城·白巖城의 전리품이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舊唐書』「高麗傳」은 위에서 인용한 『通典·邊防典』「高句麗傳」의 서술과 비슷하지만 唐軍이 점령한 城에서 죽이거나 사로잡은 포로의 수가 추가되었다.¹⁴⁾ 또 高延壽·高惠眞 공격할 때 李勣의 步騎 15,000, 長孫無忌의 精兵 11,000의 奇兵, 唐太宗의 步騎 4,000 등 합계 3만 인이 동원되었다고 적었다.¹⁵⁾ 또 항복한 高延壽·高惠眞의 군사는 156,800인, 살해된 말갈인은 3,300인, 벼슬을 받은 추장 3,500인이라고 기록하였다.¹⁶⁾ 이는 『通典』에 항복한 高句麗軍이

牟城 獲口二萬, 以其城置蓋州. 勣又攻遼東城, 拔之, 以其城為遼州. 六月, 攻拔白巖城, 以其城為巖州. 遂引軍次安市城, 進兵以攻之. 會高麗北部僭薩高延壽·南部高惠眞率靺鞨之眾十五萬來援, 於安市城東南八里依山為陣. 上令所司張受降幕於朝堂之側, 夜召文武躬自指揮. 是夜有流星墜賊營中. 明日及戰, 大破之. 延壽·惠眞率三萬六千八百人來降. 上以酋首三千五百人授以戎秩, 遷之內地, 餘三萬人悉放還平壤城. 靺鞨三千人并坑之. 獲馬五萬匹, 牛五萬頭, 甲一萬領, 因名所幸山為駐驂山. 命許敬宗為文, 勒石以紀其跡. 遂移軍於安市城南. 久不剋. 九月, 遂班師. 先遣遼·蓋二州戶口渡遼, 乃召兵馬歷於城下而旋. 城主升城拜辭, 太宗嘉其堅守, 賜練百匹以勵事君者.”

14) 『舊唐書』卷199上「東夷高麗傳」, 5322-5323쪽, “十九年, 命刑部尚書張亮為平壤道行軍大總管, 領將軍常何等率江·淮·嶺·硤勁卒四萬, 戰船五百艘, 自荊州汎海趨平壤; 又以特進英國公李勣為遼東道行軍大總管, 禮部尚書江夏王道宗為副, 領將軍張士貴等率步騎六萬趨遼東; 兩軍合勢, 太宗親御六軍以會之.” 이하 正史類와『資治通鑑』은 中華書局 標點校勘本에 따른다.

15) 『舊唐書』卷199上「東夷高麗傳」, 5324쪽, “太宗夜召諸將, 躬自指麾. 遣李勣率步騎一萬五千於城西嶺為陣; 長孫無忌率牛進達等精兵一萬一千以為奇兵, 自山北於狹谷出, 以衝其後; 太宗自將步騎四千, 潛鼓角, 偃旌幟, 趨賊營北高峯之上; 令諸軍聞鼓角聲而齊縱.”

16) 『舊唐書』卷199上「東夷高麗傳」, 5325쪽, “明日, 延壽獨見李勣兵, 欲與戰. 太宗

36,800인, 살해된 靺鞨人이 3,000인에 비해 『舊唐書』 「高麗傳」에 기록된 항복한 高句麗軍이 156,800인으로 전자보다 120,000인이 더 많고 살해된 靺鞨人도 300인 더 많다.

이어서 宋太祖 建隆 2년(961년)에 편찬된 『唐會要』에 唐太宗의 高句麗 親征은 두 단락에 걸쳐 서술되었다.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자.

十一月 十六日(644. 12. 20)에 이르러 刑部尙書 張亮을 平壤道行軍大總管으로 임명하여 萊州에서 바다를 건너 平壤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하였다. 또 特進 李勣을 遼東道行軍大總管에 임명하여 遼東을 공격하게 하였다. 兩軍이 합세하여 같은 달 三十日(645. 1. 3)에 征遼의 兵이 幽州에 모이도록 하였다.¹⁷⁾

여기에서 구체적인 唐軍의 수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에서 高句麗 공격 과정을 서술하였다.

① [정관] 19년 四月에 李勣이 蓋牟城을 점령하여 2만 인을 생포하고 그 성에 蓋州를 설치하였다. 五月에 上은 遼水를 건너 후에 橋梁을 없애도록 하여 士卒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上은 친히 甲騎를 거느리고 李勣과 함께 遼東城을

遙望無忌軍塵起，令鼓角並作，旗幟齊舉。賊眾大懼，將分兵禦之，而其陣已亂，李勣以步卒長槍一萬擊之，延壽眾敗。無忌縱兵乘其後，太宗又自山而下，引軍臨之，賊因大潰，斬首萬餘級。延壽等率其餘寇，依山自保。於是命無忌·勣等引兵圍之，撤東川梁以斷歸路。太宗按轡徐行，觀賊營壘，謂侍臣曰：「高麗傾國而來，存亡所繫，一麾而敗，天佑我也。」因下馬再拜以謝天。延壽·惠真率十五萬六千八百人請降，太宗引入轅門。延壽等膝行而前，拜手請命。太宗簡僊薩以下酋長三千五百人，授以戎秩，遷之內地。收靺鞨三千三百，盡坑之，餘眾放還平壤。”

- 17) 『唐會要』卷95 「高句麗傳」貞觀十八年條，2020쪽，「至十一月十六日，以刑部尙書張亮為平壤道行軍大總管，自萊州泛海趨平壤。又以特進李勣為遼東道行軍大總管，趨遼東。兩軍合勢，以其月之三十日，征遼之兵，集於幽州。」

공격하여 점령한 후에 그 성을 州로 삼았다. 六月에 白巖城을 점령한 후에 그 성을 巖州라고 했다.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 安市城에 머물러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였다. 이때 高麗 北部 耨薩 高延壽와 南部 高惠眞이 靺鞨의 무리 15만을 이끌고 구원하여 安市城 東南 8里 떨어진 곳에서 산을 의지하여 진을 쳤다. 上은 所司에 朝堂 곁에 授降幕을 치도록 명령한 후에, ‘다음날 午時에 이곳에서 降虜를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上은 밤에 文武 관리를 불러서 몸소 지휘하였다. 이날 밤에 유성이 적의 군중 속에 떨어졌다. 다음 날 싸워서 高句麗軍을 대파하였다. 延壽와 惠眞는 36,800인을 데리고 와서 항복하였다. 上은 酋首 3,500인에게 戎秩을 제수한 후에 內地로 옮겼다. 나머지 3만 인은 모두 석방하여 平壤城에 돌려보냈다. 靺鞨 3,300인을 체포하여 모두 파묻어 죽였다. 말 5만 필과 소 5만 마리, 甲 1萬 領을 획득하였다. 행차한 산 이름을 駐蹕山으로 이름 짓고 許敬宗에게 글을 짓게 하고 돌에 새긴 후 그 공적을 기념하게 하였다. 마침내 군대를 安市城 남쪽으로 이주시켰으나 오래도록 이기지 못했다. 九月에 드디어 회군하였다. 먼저 遼·蓋 2州의 戶口에게 遼水를 건너도록 하고 兵馬를 성 아래에서 성을 돌도록 하였다. 城主는 성에 올라 절하며 사례하였고 太宗은 그의 堅守를 가상히 여겨 縑 100필을 하사하여 임금을 섬긴 자를 격려하였다. ② 十一月에 幽州에 이르렀다. 처음에 遼(高句麗)에 들어갔을 때, 10만 인을 거느리고 각각 八駄가 있었다. 양군의 戰馬는 4만 필이었는데 돌아올 때에 이르러 1,200인이 죽었고 八駄와 戰死者는 10 중 7-8이었다. 張亮의 水軍은 7만 인이었으며,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수백 인이었다. 內地로 옮겨진 遼·蓋·巖 2州 戶口는 전후 합하여 7만여 인이었다.¹⁸⁾(강조는 필자)

18) 『唐會要』卷95 「高句麗傳」貞觀十九年條, 2021쪽, “十九年四月, 李勣攻拔蓋牟城,

위의 ①부분은 『通典·邊防典』 「高句麗傳」의 기록과 거의 같다. 다만 마지막에 군대 10만을 동원했고 양군의 戰馬가 4萬 匹이었으며 돌아올 때 사망한 군사가 1,200인, 八駄와 戰死者가 70-80%였고 張亮의 水軍이 7만 인이었고 바다에 익사한 사람이 수백 인이었으며 遼蓋巖 3州에서 內地로 옮긴 사람이 7만여 인이었다는 ②부분만이 추가되었다. 이 부분만 제외하면 『唐會要』는 『通典·邊防典』 「高句麗傳」의 서술과 유사하다.

다음으로 『冊府元龜』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唐太宗 貞觀 18년 十月에 帝는 친히 六軍을 지휘하여 遼海를 건너려고 하였다. …(중략)… 甲午日(644. 12. 28)에 光祿大夫 刑部尚書 鄧國公 張亮을 使持節 平壤道行軍大總管에 임명하고 左領軍將軍 武水縣伯 常何와 瀘州都督 戴國公 左難當을 副總管에 임명하였다. 汾州刺史 黃國公 冉仁德과 眉州刺史 下傳縣男 劉英, 銀青光祿大夫 行撫州刺史 張文翰, 雲麾將軍 行中郎將 龐孝恭, 右驍衛將軍 東平郡公 程名振을 모두 行軍總管에 임명하여 張亮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江·淮·嶺·碣의 勁卒 4만 인과 長安과 洛陽의 召募 3,000인, 戰艦 500척을 이끌고 萊州에서 바다를 건너

獲口二萬, 以其城置蓋州. 五月, 上渡遼水, 詔撤橋梁, 以堅士卒之心. 上親率甲騎, 與李勣攻遼東城. 拔之, 以其城為州. 六月, 攻拔白巖城, 以其城為巖州. 遂引軍次安市城. 進兵以攻之. 會高麗北部靺薩高延壽·南部高惠真. 率靺鞨之眾十五萬來援, 於安市城東南八里, 依山為陣. 上令所司張授降幕於朝堂之側, 曰: 「明日午時, 納降虜於此」 上夜召文武, 躬自指麾. 是夜, 有流星墜賊營中. 明日, 及戰, 大破之. 延壽·惠真率三萬六千八百人來降. 上以酋首三千五百人授以戎秩, 遷之內地. 餘三萬人悉放還平壤城. 收靺鞨三千三百人, 並坑之. 獲馬五萬匹, 牛五萬頭, 甲一萬領. 因名所幸山為駐蹕山, 命許敬宗為文, 勒石, 以紀其跡. 遂移軍於安市城南, 久不剋. 九月, 遂班師. 先遣遼·蓋二州戶口渡遼, 乃召兵馬歷於城下而旋. 城主昇城拜辭, 太宗嘉其堅守, 賜練百疋, 以勵事君者. 十一月, 至幽州. 初入遼也, 將十萬人, 各有八駄, 兩軍戰馬四萬匹, 及還, 死者一千二百人, 八駄及戰死者十七八. 張亮水軍七萬人, 沉海溺死數百人. 凡徙遼·蓋·巖二州戶口入內地, 前後七萬餘人.”

平壤으로 진격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特進 太子詹事 左衛率 英國公 李勣을 使持節 遼東道行軍大總管에, 禮部尙書 江夏郡王 道宗을 總管에 각각 임명하였다. 또 前幽州都督 虢國公 張士貴, 右領軍大將軍 安國公 執失思力, 右驍衛大將軍 張掖郡國公 契必何力, 右監門大將軍 阿史冊彌射, 右屯衛將軍 金城縣公 姜德本, 左武衛將軍 金城郡公 麴智盛, 雲麾將軍 新鄉縣公 吳黑闥, 營州都督 博臨縣男 張儉, 左驍衛中郎將 安縣和를 모두 行軍總管에 임명하여 李勣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으며, 步騎 6만 인과 蘭·河 2주 降胡에게 遼東으로 진격하도록 하였고 양군이 合勢하도록 하였다.¹⁹⁾

위의 인용문은 『冊府元龜』 「帝王部」 親征門에 기록된 唐太宗의 침공 기사이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唐太宗이 六軍을 거느리고 高句麗를 침략하려고 했으며 江淮嶺硤의 勁卒 4萬, 長安·洛陽의 召募 3千, 戰艦 5百 艘로 구성된 水軍과 李勣 등 步騎 6만과 蘭河 2州 降胡로 편성된 육군을 동원하였다.

『冊府元龜』에 “[五月]丁丑日(645. 6. 9)에 車駕는 遼水を 건너 후에 橋梁을 치워 士卒의 마음을 굳건히 하였다. 甲士 6萬으로 馬首山에 진을 쳤다”²⁰⁾라는 구절이 있는데, 唐太宗의 직속부대 군사의

19)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78쪽, “唐太宗貞觀十八年十月, 帝欲親總六軍, 以度遼海. …… 甲午, 以光祿大夫·刑部尙書·鄖國公張亮為使持節平壤道行軍大總管, 以左領軍將軍·武水縣伯常何·瀘州都督·戴國公左難當為副總管, 汾州刺史·黃國公冉仁德·眉州刺史·下博縣男劉瑛·銀青光祿大夫·行撫州刺史張文翰·雲麾將軍·行中郎將龐孝恭·右驍衛將軍·東平郡公程名振並為行軍總管以隸之, 率江淮嶺硤勁卒四萬, 長安·洛陽召募三千, 戰艦五百艘, 自荊州泛海趣平壤. 又以特進·太子詹事·左衛率·英國公李勣使持節遼東道行軍大總管, 以禮部尙書·江夏郡王道宗為總管, 又以前幽州都督·虢國公張士貴·右領軍大將軍·安國公執失思力·右驍衛大將軍·張掖郡國公契必何力·右監門大將軍阿史冊彌射·右屯衛將軍·金城縣公姜德本·左武衛將軍·金城郡公麴智盛·雲麾將軍·新鄉縣公吳黑闥·營州都督·博臨縣男張儉·左驍衛中郎將安縣和並為行軍總管以隸之, 步騎六萬, 并蘭·河二州降胡趣遼東, 兩軍合勢.”

20)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80쪽, “丁丑, 車駕渡遼, 撤橋梁以堅士卒之心. 甲士六萬營於馬首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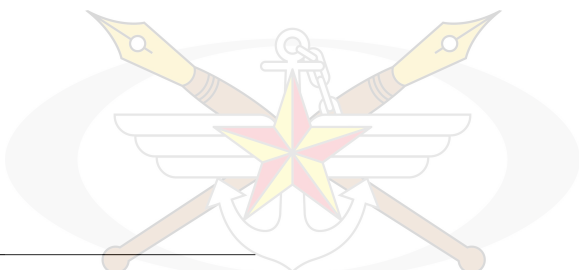
수가 최소 甲士 6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史書에 보이지 않는데 이를 포함하면 唐太宗의 高句麗 親征에 참전한 唐軍은 163,000인이다. 그러나 唐軍이 安市城에서 철군한 후의 기록을 보면 이 수와 다르다. 아래의 기사를 보자.

十月 丙申朔(645. 10. 26)에 蒲溝에 머물렀는데 길을 가득 채워 끝나지 않았다. 太宗은 말을 타고 감독하였다. 군사들이 渤陂水를 건널 때 暴風이 불고 눈이 내렸으며 매우 추웠다. 士卒은 물에 젖고 얼었으며 泥水에서 빠져죽은 말과 소가 매우 많았다. 큰불을 내서 대처하도록 명령하니 건너는 병사들은 이에 의존하여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다. 처음에 太宗의 軍과 李勣이 遼(高句麗)를 침입할 때 10만 인을 거느리고 각각 八駄가 있었고 양군의 戰馬는 1만 필이었다. 돌아올 때 죽은 전사는 1,200인이었고 八駄와 戰馬는 10 가운데 7-8이 죽었다. 張亮의 水軍 7만인이 바다를 건넜는데 바람을 만나 익사한 자가 수백 인이었다. 內地로 이주시킨 遼·蓋·巖 3州 戶口는 전후 합하여 7만 인이었다.²¹⁾

위의 인용문에서 唐太宗과 李勣 군대의 군인이 高句麗의 영토로 쳐들어 왔을 때 군인 수가 10만 인, 兩軍 戰馬 1萬匹이었다고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高句麗를 침략한 唐軍이 10만이라고 기록했는데 이는 앞의 두 사료에서 합산한 163,000인보다 63,000인 더 적다. 같은 책의 같은 部(帝王部)와 門(親征門)에서 달리 기록하여 논

21) 『冊府元龜』卷117「帝王部」親征第二, 1283쪽, “十月丙申朔, 次蒲溝, 填路未畢. 太宗駐馬以督之. 及兵渡渤陂水, 暴風降雪, 時甚冰寒. 士卒沾凍, 馬牛溺於泥水死者甚多. 詔遣積火以待之, 渡兵賴以獲濟. 初, 太宗軍及李勣之入遼也, 將十萬人, 各有八駄, 兩軍戰馬萬匹. 及還, 戰士死者一千二百人, 其八駄及戰馬死十七八. 張亮水軍七萬人泛海, 遭風溺死者數百人. 凡徙遼·蓋·巖三州戶口入內地, 前後七萬人.”

리적으로 모순된다. 게다가 군사의 수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군량미 수를 보면 이 두 수치와 다를 수 있다. 『舊唐書』, 『唐會要』와 北宋 중기에 편찬된 『新唐書』에서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때 동원한 군사가 10만이라고 기록하였다.²²⁾ 『新唐書』에 17만이라는 기록도 있다.²³⁾ 『資治通鑑』²⁴⁾과 『三國史記』²⁵⁾의 기록에 長安洛陽에서 모집한 3천 인이 더 기록되었는데, 이를 합하여 103,000인이다. 요컨대 『冊府元龜』, 『新唐書』, 『資治通鑑』 가운데 『冊府元龜』의 기사가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新唐書』와 『資治通鑑』은 이를 ‘취사선택’하였다. 또는 이 세 史書가 공통적으로 초록한 원시 사료가 존재했을 것이다.



22) 『新唐書』卷220 「東夷高麗傳」, 6189쪽, “於是北輸粟營州, 東儲粟古大人城. 帝幸洛陽, 乃以張亮為平壤道行軍大總管, 常何·左難當副之, 冉仁德·劉英行·張文幹·龐孝泰·程名振為總管, 帥江·吳·京·洛募兵凡四萬, 吳艘五百, 泛海趨平壤. 以李勣為遼東道行軍大總管, 江夏王道宗副之, 張士貴·張儉·執失思力·契苾何力·阿史那彌射·姜德本·麴智盛·吳黑闥為行軍總管隸之, 帥騎士六萬趨遼東.”

23) 『新唐書』卷220 「東夷高麗傳」, 6193-6194쪽.

24) 『資治通鑑』卷197 「唐紀」13 唐太宗貞觀十八年十一月條, 6214쪽, “甲午, 以刑部尚書張亮為平壤道行軍大總管, 帥江·淮·嶺·峽兵四萬, 長安·洛陽募士三千, 戰艦五百艘, 自荊州泛海趨平壤; 又以太子詹事·左衛率李世勣為遼東道行軍大總管, 帥步騎六萬及蘭·河二州降胡趨遼東, 兩軍合勢並進. 庚子, 諸軍大集於幽州. 遣行軍總管姜行本·少府少監丘行淹先督眾工造梯衝于安蘿山. 時遠近勇士應募及獻攻城器械者不可勝數, 上皆親加損益, 取其便易.”

25) 『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9 寶臧王上 三年十一月條, “十一月, 帝至洛陽. 前宜州刺史鄭天壽, 已致仕, 帝以其嘗從隋煬帝伐高句麗, 召詣行在問之. 對曰: “遼東道遠, 糧轉艱阻, 東夷善守城, 不可猝下.” 帝曰: “今日非隋之比, 公但聽之.” 以刑部尚書張亮, 為平壤道行軍大總管, 帥江·淮·嶺·峽兵四萬, 長安洛陽募士三千, 戰艦五百艘, 自荊州泛海, 趨平壤. 又以太子詹事左衛率李世勣, 為遼東道行軍大總管, 帥步騎六萬, 及蘭·河二州降胡, 趨遼東. 兩軍合勢, 大集於幽州.”

3. 唐軍 병력의 추산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唐太宗이 高句麗를 침공할 당시의 唐軍의 병력이 사서마다 다르다.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당시 참전한 唐軍의 병력과 전과를 간단히 다룬 『通典』, 『舊唐書』, 『唐會要』와 구체적으로 기록한 『冊府元龜』 및 이를 참조한 『新唐書』, 『資治通鑑』, 『三國史記』에서 인용한 사료의 내원과 서술 史觀이 다름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에서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당시 병력을 알 수 있는 실마리는 『冊府元龜』와 『新唐書』, 『資治通鑑』에 기록된 高句麗의 蓋牟城, 遼東城, 白崖城(白巖城) 함락 당시 唐軍이 빼앗은 곡물의 양이다. 예컨대 『冊府元龜』에 따르면, 唐軍이 蓋牟城을 점령했을 때 倉糧 10餘萬石,²⁶⁾ 遼東城 점령 이후 50萬石,²⁷⁾ 白巖城에서 倉廩 28,000石²⁸⁾을 각각 획득하였다. 이를 합하면 628,000石이다. 이 가운데 唐軍이 安市城에서 후퇴할 때 遼東城에 아직 10萬石이 남아 있다.²⁹⁾ 즉 唐軍은 蓋牟城을 점령할 때부터 安市城에서 회군할 때까지 528,000石을 소비하였다. 『新唐書』 「高麗傳」에서 白崖城을 제외하고 蓋牟城 함락 후에 10萬石,³⁰⁾ 遼東城을 점령한 후 식량 50萬石을 얻었다고 기록하였다.³¹⁾ 양자를 합하면 60萬石이다. 그런데 唐軍이 遼東城에 도착했을 때 遼州(遼東城)에 10萬斛 남아 있었다고 기록하였다.³²⁾ 이 기록을 믿을 수 있다면 唐軍은 安市城의

26)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80쪽.

27)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80-1281쪽.

28) 『冊府元龜』 卷126 「帝王部」 納降, 1378쪽.

29)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83쪽.

30)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90쪽.

31)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90-6191쪽.

32)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93-6194쪽.

포위 전후에 최소 50萬 石을 소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군량 소모량으로 唐軍의 병력을 추산할 수 있는데, 이에 앞서 唐軍의 체류 기간을 살펴보자. 즉 蓋牟城 점령 전후부터 唐軍의 동선을 『新唐書』 「太宗紀」를 통해 살펴보자.

四月 癸亥日(645. 5. 26)에 李世勣이 蓋牟城을 점령하였다.³³⁾

五月 己巳日(645. 6. 1)에 平壤道行軍總管 程名振이 沙卑城을 점령하였다. 庚午日에 太宗의 군대가 遼澤에 머물렀으며 전쟁에서 사망한 隋의 병사들을 묻어주었다. 乙亥日에 遼東道行軍總管 張君乂가 죄를 지어 주살하였다. 丁丑日에 馬首山에 주둔하였다. 甲申日(645. 6. 16)에 遼東城을 점령하였다.³⁴⁾

六月 丁酉日(645. 6. 29)에 白巖城을 점령하였다. 己未日에 高麗軍을 安市城 동남쪽 산에서 대파하였다. 左武衛將軍 王君愕이 전사하였다. 辛酉日에 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³⁵⁾

九月 癸未日(645. 10. 13)에 회군하였다.³⁶⁾

唐軍이 遼東城을 점령한 후에 회군할 때까지 119일(3개월 27일)

33) 『新唐書』 卷2 「太宗紀」 貞觀十九年四月條, 44쪽, “癸亥, 李世勣克蓋牟城.”

34) 『新唐書』 卷2 「太宗紀」 貞觀十九年五月條, 44쪽, “五月己巳, 平壤道行軍總管程名振克沙卑城. 庚午, 次遼澤, 瘞隋人戰亡者. 乙亥, 遼東道行軍總管張君乂有罪, 伏誅. 丁丑, 軍于馬首山. 甲申, 克遼東城.”

35) 『新唐書』 卷2 「太宗紀」 貞觀十九年六月條, 44쪽, “六月丁酉, 克白巖城. 己未, 大敗高麗于安市城東南山, 左武衛將軍王君愕死之. 辛酉, 賜酺三日.”

36) 『新唐書』 卷2 「太宗紀」 貞觀十九年九月癸未條, 44쪽, “九月癸未, 班師.”

이 걸렸다. 蓋牟城 점령(645. 5. 26)부터 계산하면 141일이다. 唐軍이 蓋牟城을 점령한 이후 획득한 식량은 10餘萬石(『資治通鑑』), 500,000石(『新唐書』), 또는 528,000石(『冊府元龜』)이다. 唐軍이 이 식량만 소비했다고 가정하고³⁷⁾ 安市城과 이전에 점령한 蓋牟城遼東城白崖城(白巖城) 일대에 있었던 唐軍의 충수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 먼저 1인당 곡물 소비량을 계산해야 한다. 唐代의 기록 가운데 『通典州郡典』에 군사들의 곡물 소비량을 가늠할 자료가 있다.

또 邊境에 節度使와 經略使를 설치하여 四夷를 막도록 하였다. 대체로 보아 鎮兵은 49萬 人이고, 戎馬는 8萬餘 疋이다. 每歲의 經費는 衣賜는 1,020萬 疋段, 軍倉은 190萬 石이니 합계 1,210萬이다(細注: 開元·天寶 연간에 매해 변방에서 지출하는 액수는 200萬을 넘지 않았다).³⁸⁾

위의 인용문에서 鎮兵 49萬 人과 戎馬 8만여 필과 軍倉의 190萬 石을 소비하였다. 위 인용문에 따르면 군인 1인이 1년에 소비하는 곡물은 약 3.88石(190萬石÷49萬人)이다. 따라서 蓋牟城 점령 이후 회군할 때까지 141일간 소모한 식량은 1인당 약 1.5석(3.88石×141/365=1.4988...)이다. 이를 통해 唐軍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³⁹⁾

37) 唐太宗은 「高麗班師詔」에서 100일 동안 곡물을 자급자족하여 運糧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자부하였다(『唐大詔令集』(宋敏求 編, 北京: 中華書局, 2008) 卷130 「蕃夷」 討伐高麗班師詔, 904쪽, “館穀十旬, 不假運糧之費; 徒兵累萬, 咸發兼乘之歌.”). 이 조서는 점령하지 않은 高句麗의 성과 죽이거나 생포하지 않은 高句麗軍의 수를 과장했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할 수 없지만(주)65 참조) 현지에서 軍糧을 직접 조달했다는 부분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38) 『通典』 卷172 「州郡」2 序目下, 4479쪽, “又於邊境置節度·經略使, 式遏四夷. 大凡鎮兵四十九萬人, 戎馬八萬餘疋. 每歲經費: 衣賜則千二十萬疋段, 軍倉則百九十萬石, 大凡千二百十萬(開元·天寶每歲邊用不過二百萬).” 『舊唐書』 「地理志」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다(『舊唐書』 卷38 「地理志」1, 1385쪽).

蓋牟城에서 10餘萬 石을 노획했다는 『資治通鑑』의 기록에서 이 곡물만 唐軍이 소비했다면 唐軍은 약 66,667인이다(10만石÷1.5石, 소숫점 반올림). 『新唐書』에 따르면, 蓋牟城에서 10餘萬石, 遼東城에서 50萬 石을 획득하고 遼東城에 10萬 石이 남아 500,000石을 소비했다고 기록했으므로 333,334인(50만石÷1.5石), 『冊府元龜』에 따르면 352,000인이다(528,000石÷1.5石). 여기에 다른 곳에 있었던 군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한다. 安市城 일대에서 활동했던 唐軍은 李勣이 지휘하는 선발대와 唐太宗의 직할군이고, 張亮이 이끄는 수군이 별도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수치에 營州都督 張儉이 建安城을 공격한⁴⁰⁾ 병력은 포함하지 않았다.

『資治通鑑』의 기록을 바탕으로 추산한 唐軍은 곡물량으로 추산한 安市城 일대의 66,667인에 張亮이 지휘한 43,000인을 더하면 109,667인이다. 이 수는 처음 출정한 唐軍 103,000인과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資治通鑑』에서 蓋牟城에서 획득한 곡물만 기록하고 遼東城에서 획득한 곡물량을 누락한 것은 기록상 唐軍의 수를 일치시키는 수미상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법이었을 것이다.

『新唐書』에 기록된 唐軍의 노획 곡물 소비량으로 추정한 333,334인에 船師(水軍) 7만⁴¹⁾을 더하면 403,334인이다. 『冊府元

39) 蓋牟城과 遼東城에서 安市城까지 운송한 인원도 포함해야 하는데 구글로 검색한 遼東城과 安市城은 唐代 하루 일정에 해당하므로 운송인원이 소모한 식량은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40) 『冊府元龜』 卷357 「將帥部」18 立功10 張儉條, 4032쪽, “征遼東, 時有獲高麗侯者, 稱莫離支將至遼東, 詔儉率兵新城路邀莫離支, 竟不敢出. 儉因進兵渡遼, 趣建安城.”; 『冊府元龜』 卷384 「將帥部」45 褒異10 張儉條, 4344쪽, “張儉爲營州都督, 兼護東夷校尉. 太宗將至遼東, 拜行軍總管, 進渡遼, 趣建安城, 賊徒大潰. 以功累封皖城郡公, 賞賜甚厚.”; 『資治通鑑』 卷197 「唐紀」13 唐太宗貞觀十九年四月戊戌朔條, 6218-6219쪽, “夏四月戊戌朔, 世勣自通定濟遼水, 至玄菟. 高麗大駭, 城邑皆閉門自守. 壬寅, 遼東道副大總管江夏王道宗將兵數千至新城. 折衝都尉曹三良引十餘騎直壓城門, 城中驚擾, 無敢出者. 營州都督張儉將胡兵爲前鋒, 進渡遼水, 趣建安城, 破高麗兵, 斬首數千級.”

41) 『新唐書』 卷220 「東夷高麗傳」, 6193-6194쪽.

龜』에 기록된 唐軍의 노획 곡물 소비량으로 추정된 352,000인에 張亮이 지휘한 水軍 7만인을 더하면 422,000인이다.⁴²⁾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은 兵種이 있다. 즉 군량과 무기 등을 수송하는 치중 부대인데 대개 민간인을 징발하였다. 隋煬帝가 大業 8년(612) 正月 제1차 高句麗 遠征을 선포하는 詔書를 선포한 후에 1,133,800인의 군대를 동원하며 200만이라 칭하였고 餽運者는 군인의 배였다고 『隋書』 「煬帝紀」에서 기록하였다.⁴³⁾ 『隋書』는 唐太宗 시기에 편찬 되었고 唐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隋의 역사, 특히 煬帝를 폄하하였으므로 餽運者가 정규군의 배(즉 정규군×2)라는 기록이 과 장이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宋代 沈括이 펴낸 『夢溪筆談』에 군량의 수송에 관한 기사가 있다.

무릇 군사가 행군할 때 식량은 적보다 가장 중요한 急務이다. 運糧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勢는 어렵고 行은 멀다. 내가 일찍이 계산해보니, 한 사람이 米 6斗를 굶어지는데,卒이 스스로 5일분의 乾糧을 휴대하면, 한 사람이 1인의 卒을 먹이는데 한번 가면 18일을 버틸 수 있다(米 6斗는 사람이 하루에 2升을 먹으므로 2인이 米 6斗를 먹으면 18일에 다 없어진다). 만약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계산하면 겨우 9일이다. 두 사람이 1인의 卒을 먹이는

42) 唐太宗은 貞觀 22년(648)에 다음 해(649년)에 30만을 동원해 高句麗를 멸하려고 하였다(『資治通鑑』 卷199 「唐紀」15 太宗貞觀二十二年六月條, 6258쪽, “上以高麗困弊, 議以明年發三十萬眾, 一舉滅之.”). 여기에 등장한 30만이 육군만인지 전체 숫자인지 문맥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본문에서 군량미로 추산한 안시성 일대의 군인수인 333,334인 또는 352,000인과 유사한 숫자이다. 따라서 이 기사의 30만 대군이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당시 동원한 육군의 수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43) 『隋書』 卷4 「煬帝紀」下 大業八年正月壬午條, 81쪽, “總一百一十三萬三千八百, 號二百萬, 其餽運者倍之.” 隋煬帝가 1차 高句麗 침공에 1,133,800인의 군인을 동원했으므로 운송에 동원한 사람은 2,267,600이었다. 즉 정규군과 비정규 일반인을 포함하면 隋煬帝의 1차 高句麗 침공에 3,401,400인이 동원되었다.

데 한 번 가면 26일을 지탱할 수 있다(米 1石 2斗는 세 사람이 먹으면 하루에 6升이고 8일이면 1夫가 짊어지고 간 식량이 모두 사라지니 6일분 식량을 주고 되돌아온다. 후의 18일은 두 사람이 먹고 하루에 4升을 먹으면 된다). 만약 되돌아오는 것으로 계산하면 단지 13일이다(앞의 8일은 날마다 6升을 먹는다. 뒤의 5일은 돌아오는 일정이며 하루에 4升을 먹는다). 3인이 1인의 줄을 먹이면 한번 가는데 31일을 버틸 수 있다(米 1石 8斗, 앞의 6일 반은 4인이 하루에 8升 먹는다. 1夫를 줄이면, 4일의 식량을 지급할 수 있다. 17일 동안 세 사람이 하루에 6升을 먹는다. 또 1夫를 줄이면 9일의 식량을 지급할 수 있다. 뒤의 18일 동안 두 사람이 하루에 4升의 식량을 먹는다). 다시 돌아온다고 계산하면 16일을 진군할 수 있다(앞의 6일반은 하루에 8升씩 먹는다.中间的 7인은 하루에 6升씩 먹고 후 11일은 모두 돌아오는 일정으로 하루에 4升씩 먹는다). 세 사람이 1인의 짊을 먹이는 것은 심하도다. 만약 10만의 군대를 동원하면 치중은 그 군대의 세 배가 되니 주둔하거나 전쟁하는 줄 7만 인에 이미 30만 인분의 군량을 운송한다. 여기에 어려움이 더욱 가해지는 것이다(오가는 운송인에게 지켜주는 병졸이 필요하다. 운송 도중에 죽거나 질병에 걸려서 사람 수는 점차 줄어들지만 감소한 식량은 수비병이 허비한다). 運糧의 법은 사람이 6斗의 식량을 짊어지고 가니 이는 총수로 계산한 것이다. 그 사이에 隊長이 짊어지지 않고 나무하고 물길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운반할 인력은 반으로 줄어들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짊어져야 한다.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짊어져야 하는 곡식도 남은 사람들이 균등하게 나누어진다. 사람이 진 짐은 6斗만이 아니다. 따라서 군중에 쓸데없이 밥을 축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니, 1인의 夫가 헛되어 식량을 축내면 2-3인이 먹여야 한다. 늘 부족하다.

만약 가축으로 운반하면 낙타는 3石, 말과 노새는 1石 5斗, 나귀는 1石을 각각 싣고 갈 수 있다. 사람과 비교하면 운송량은 많고 비용은 적지만 가축이 먹을 건초가 늘 필요하고 가축이 대부분 말라 죽는다. 가축 한 마리가 죽으면 그 가축이 싣었던 식량은 버려야 한다.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것과 비교하면 이익과 손해가 반반이다.⁴⁴⁾

위의 인용문에서 軍卒 1인을 먹이기 위해 거리에 따라 2-4인이 운송해야 한다고 기록하였다. 7만 인의 군졸을 먹이기 위해 30만 인분의 군량을 운송해야 한다고 계산한 沈括의 주장이 옳다면 약 3-4배의 운송 인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沈括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唐軍이 高句麗까지 가는 거리와 도착시간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通典·州郡典』에 郡(州) 사이의 거리가 기록되었다. 이 가운데 唐太宗이 高句麗를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집중시켰던 幽州(范陽郡)에서 遼河(遼水)까지의 거리를 살펴보자.

44) 『夢溪筆談』 卷11 「官政」1 114-115쪽, “凡師行, 因糧於敵, 最為急務. 運糧不但多費. 而勢難行遠. 余嘗計之, 人負米六斗, 卒自攜五日乾糧, 人餉一卒, 一去可十八日(米六斗, 人食日二升. 二人食之, 十八日盡.), 若計復回, 只可進九日. 二人餉一卒, 一去可二十六日(米一石二斗, 三人食, 日六升, 八日, 則一夫所負已盡, 給六日糧遣回. 後十八日, 二人食, 日四升並糧.), 若計復回, 止可進十三日(前八日, 日食六升. 後五日并回程, 日食四升並糧.); 三人餉一卒, 一去可三十一日(米一石八斗, 前六日半, 四人食, 日八升. 減一夫, 給四日糧. 十七日, 三人食, 日六升. 又減一夫, 給九日糧. 後十八日, 二人食, 日四升並糧.), 計復回, 止可進十六日(前六日半, 日食八升. 中七日, 日食六升, 後十一日并回程, 日食四升並糧.); 三人餉一卒, 極矣. 若興師十萬, 輜重三之一, 止得駐戰之卒七萬人, 已用三十萬人運糧, 此外難復加矣(放回運人, 須有援卒. 緣運行死亡疾病, 人數稍減, 且以所減之食, 準援卒所費.). 運糧之法, 人負六斗, 此以總數率之也. 其間隊長不負, 樵汲減半, 所餘皆均在眾夫. 更有死亡疾病者, 所負之米, 又以均之. 則人所負, 常不啻六斗矣. 故軍中不容冗食, 一夫冗食, 二三人餉之. 尚或不足. 若以畜乘運之, 則駝負三石, 馬騾一石五斗, 驢一石. 比之人遠, 雖負多而費寡, 然芻牧不時, 畜多瘦死. 一畜死, 則并所負棄之. 較之人負, 利害相半.”

〈표 1〉 『通典』에 기록된 郡(州) 사이의 거리

구 간	거리	소요 일정	
		보행, 나귀 이용 50리 ⁴⁵⁾	수레 이용 하루 30리 ⁴⁶⁾
范陽郡(幽州)~漁陽郡(薊州)	210里	4.2일	7일
漁陽郡(薊州)~北平郡(平州)	300里	6일	10일
北平郡(平州)~柳城郡(營州)	700里	14일	23.3일
柳城郡(營州)~遼河	480里	9.6일	16일
합 계	1,690里	33.8일	56.3일

* 출처 : 『通典』 권178 「州郡」8 范陽郡(幽州)條細注, 4709쪽; 『通典』 권178 「州郡」8 漁陽郡(薊州)條細注, 4713쪽; 『通典』 권178 「州郡」8 漁陽郡(薊州)條細注, 4715쪽을 참조하여 필자가 직접 작성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당시 唐의 운송로는 육로와 해로가 있다. 이 가운데 육로만 살펴보면, 唐軍의 집결지인 幽州에서 遼河(遼水)까지 깊어지거나 나귀를 이용하면 33.8일(1,690里÷50里), 수레를 이용해 곡물이나 무기 등을 수송하면 56.3일(1,690里÷30里)이 걸린다. 위의 인용문에서 가장 먼 31일을 편도로 진군하는데 3인의 운송 인원이 6斗의 식량을 짊어져야 한다. 말과 노새, 나귀를 이용할 경우 하루에 30리가 걸린다고 하면 거리는 약 57일이지만 운반할 수 있는 식량의 수는 늘어난다. 따라서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사람만을 이용할 경우 약 34일 또는 57일 동안 버틸 식량을 운반할 사람이 병사 1인당 운반 인원 3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45) 근거: 『唐六典』에 육로로 가는 하루 거리가 기록되었다. 이에 따르면 말은 하루에 70里, 도보와 驢를 타고 가면 50里, 수레는 30里이다(『唐六典』卷3 尚書戶部度支郎中條, 80쪽, “凡陸行之程, 馬日七十里, 步及驢五十里, 車三十里.”). 唐軍이 騎兵과 歩兵으로 구성되었지만, 행군 중에 步行했다고 계산하여 하루에 50里를 갈 수 있다.

46) 근거: 앞의 주에서 인용한 『唐六典』에 따르면 수레를 이용한 하루의 운송거리는 30里이다.

가축이나 수레를 이용하면 짊어지는 일꾼의 수를 줄일 수 있지만, 가축을 움직이는 사람과 호위병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규군의 배나 많은 餽運者가 동원되었다는 『隋書』 「煬帝紀」의 기록은 과장이 아니다. 『夢溪筆談』의 계산에 따르면 오히려 수양제는 가축, 마차 등을 이용했기 때문에 식량을 운반하는 짐꾼의 수를 2명으로 줄였을 것이다.

당시 唐軍이 가축을 이용하여 식량을 실어날랐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夢溪筆談』의 기록에 따라 치중 부대는 정규군의 3배라고 계산한다. 그러나 唐軍의 치중부대가 唐의 영토에서 高句麗 땅으로 식량 등을 운반했는지는 史書에 기록이 없어서 단정할 수 없다. 李勣의 唐軍은 遼水를 건너 玄菟·新城에 이르렀으나 점령하지 않고⁴⁷⁾ 蓋牟·遼東 2城을 점령하고 白崖城(白巖城)을 항복시켰다. 즉 국경에 위치한 玄菟城 등이 여전히 高句麗 땅이었기 때문에 唐의 치중 부대가 국경선에서 멀리 떨어진 安市城 일대까지 물자를 운송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輕武裝의 호위를 받는 唐의 치중 부대가 국경과 기타 지역의 高句麗軍의 수비망과 기습공격을 뚫고 安市城 일대까지 물자를 운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당시 唐軍이 高句麗에서 빼앗은 식량만으로 군량을 조달했다는 기록을 보면,⁴⁸⁾ 唐의 치중부대 식량을 운반할 수 있는 지역은 高句麗와 唐의 국경선까지로 간주한다.⁴⁹⁾

47)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 親征第二, 1280쪽, “四月戊戌朔, 李勣師自通定濟遼水至玄菟, 所經烽戍皆下之. 高麗大駭, 城邑各閉門不敢出. 壬寅, 江夏王道宗率眾數千至新城. 折衝都尉曹三良率十餘騎直壓其門下. 城中驚擾, 無敢出者. …… 癸亥, 李勣拔蓋牟城, 獲戶口萬餘人, 倉糧十餘萬石.”

48) 『唐大詔令集』 卷130 「蕃夷」 討伐高麗班師詔, 904쪽, “館穀十旬, 不假運糧之費; 徒兵累萬, 咸發兼乘之歌.”

49) 李勣이 지휘하는 唐軍은 四月 戊戌朔(645. 5. 1)에 遼水를 건너 癸亥日(5. 26)에 蓋牟城을 점령하였다. 이 사이 唐軍은 25일만에 蓋牟城을 점령했으므로 한달 정도의 군량만 필요했고 운반했을 것이다. 이는 정규군과 소수의 치중부대로 충분히 운송할 수 있는 군량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조건을 바탕으로 전투병의 3배나 되는 치중 부대를 계산해보자. 『新唐書』의 논리를 따르면 정규군 333,334인과 비정규군 1,000,002인, 수군 7만을 합하면 1,403,336인이다. 『冊府元龜』의 경우 정규군 352,000인, 비정규군 1,056,000인, 수군 7만 등 모두 1,478,000인이다. 이 가운데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을 자세히 기록한 『冊府元龜』의 기사를 신뢰할 수 있다. 다만 치중 부대가 高句麗 영토 안까지 들어왔을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蓋牟城遼東城安市城 일대에 있었던 군인들은 주로 전투병이었을 것이다. 이 수치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4. 추산 唐軍 병력과 인구대비 징발률

3장에서 『冊府元龜』, 『新唐書』, 『資治通鑑』(편찬 시대 순서)에 기록된 高句麗에서 획득한 곡물량을 바탕으로 唐軍의 병력을 추산하였다. 이 唐軍의 병력이 당시 唐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자. 먼저 太宗 시기의 인구를 살펴보자. 『通典食貨典』에 太宗 貞觀 연간 戶數가 300만이 되지 않는다고 기록하였다.⁵⁰⁾ 이를 통해 太宗 시기(627-649) 인구가 300萬 戶 미만임을 알 수 있다.⁵¹⁾ 또 梁方仲은 『舊唐書』 「地理志」의 “舊” 호구를 貞觀 13년의 戶口라고 보았다.⁵²⁾

50) 『通典食貨典』 卷7 「食貨」7 歷代盛衰戶口唐貞觀條, 148쪽, “大唐貞觀戶不滿三百萬。三年, 戶部奏, 中國人因塞外來歸及突厥前後降附開四夷爲州縣, 獲男女一百二十餘萬口。”

51) 이밖에 『冊府元龜』, 『新唐書』 「食貨志」, 『文獻通考』도 『通典』의 기록과 같다(梁方仲,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0, 69쪽, 甲表21 隋唐五代戶口數·每戶平均口數及戶口數的昇降百分比).

52) 梁方仲,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78쪽, 甲表23 唐貞觀十三年各道戶口數平均戶口數及各道戶口數的比重 및 78-85쪽, 甲表24 唐貞觀十三年各道府州戶口數及每縣平均戶口數和每戶平均口數.

예전대 唐의 수도 京兆府의 호구는 “예전에 縣 18, 戶 27,650, 口 923,320을 거느렸다(舊領). 天寶 연간에 縣 23, 戶 362,921, 口 1,967,188을 거느렸다”⁵³⁾라고 기록되어 두 시기의 호구가 기록되었다. 즉 天寶 연간의 戶口와 “舊”의 연대가 太宗 貞觀 13년(639)라고 단정하였다. 필자가 梁方仲의 주장에 동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舊” 호구는 玄宗 天寶 연간보다 이른 시기의 호구이어야 한다. 둘째, 戶數 합계 3,041,871戶⁵⁴⁾는 太宗 시기의 “大唐 貞觀 戶는 300만을 넘지 않는다”⁵⁵⁾라는 『通典』의 기록과 유사하다. 셋째, 唐은 貞觀 13년(639) 高昌을 평정한 후에 설치한 西州의 호구에 대해 『舊唐書』 「地理志」 西州中都督府條에 “예전에 縣 5, 戶 6,466을 거느렸다. 天寶 연간에 縣 5, 戶 9,016, 口 49,476을 거느렸다. 京師 서북쪽 5,516里 떨어진 곳에 있으며, 東都에 이르려면 6,215里이다”⁵⁶⁾라고 기록하였다. 이 호구는 貞觀 13년(639) 또는 그 이후의 戶口일 수밖에 없다. 반면 高句麗를 멸망시킨 후에 설치한 安東都護府의 戶數는 天寶 연간의 戶口數만 기록하였다.⁵⁷⁾ 따라서 『新

53) 『舊唐書』卷38 「地理志」1 關內道京兆府條, 1396쪽, “舊領縣十八, 戶二十萬七千六百五十, 口九十二萬三千三百二十. 天寶領縣二十三, 戶三十六萬二千九百二十一, 口一百九十六萬七千一百八十八.”

54) 梁方仲,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78쪽, 甲表23 唐貞觀十三年各道戶口數平均戶口數及各道戶口數的比重.

55) 『通典·食貨典』卷7 「食貨」7 歷代盛衰戶口·唐貞觀條, 148쪽, “大唐貞觀戶不滿三百萬. 三年, 戶部奏, 中國人因塞外來歸及突厥前後降附開四夷為州縣, 獲男女一百二十餘萬口. 十四年, 侯君集破高昌, 得三郡·五縣·二十二城, 戶八千四十六, 口三萬七千三十一, 馬四千三百匹.”

56) 『舊唐書』卷40 「地理志」3 河西道西州中都督府條, 1644-1645쪽, “本高昌國. 貞觀十三年, 平高昌, 置西州都督府, 仍立五縣. 顯慶三年, 改為都督府. 天寶元年, 改為交河郡. 乾元元年, 復為西州. 舊領縣五, 戶六千四百六十六. 天寶領縣五, 戶九千一十六, 口四萬九千四百七十六. 在京師西北五千五百一十六里, 至東都六千二百一十五里.”

57) 『舊唐書』卷39 「地理志」2 河北道安東都護府條, 1527쪽, “凡此十四州, 並無城池. 是高麗降戶散此諸軍鎮, 以其酋渠為都督·刺史·羈縻之. 天寶, 領戶五千七百一十八, 口一萬八千一百五十六.”

『唐書』의 “舊” 호구는 고창이 멸망한 639년과 高句麗가 망한 668년 사이의 戶口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梁方仲의 연대 비정과 호구 통계를 믿을 수 있다.

梁方仲은 『舊唐書』 「地理志」 각 지방의 “舊” 호구 수를 더했는데, 貞觀 13년(639) 戶數는 3,041,871戶, 口數는 12,351,681口였다.⁵⁸⁾ 이 수치⁵⁹⁾를 3장에서 추산한 수치와 비교하면 군사와 치중에 동원된 인원의 비중을 알 수 있다. 이를 각각의 경우에 따라 계산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곡물량으로 추산한 唐軍의 규모 및 貞觀 13년(639) 호구수의 비중

史書 이름	唐軍 숫자		
	兵種	추산군인수	정관13년 인구대비비율
『冊府元龜』	安市城 일대의 唐軍	352,000인	2.85%
	張亮의 水軍	70,000인	0.57%
	치중부대(운송인)	1,056,000인	8.51%
	총계	1,478,000인	11.97%
『新唐書』 『高麗傳』	安市城 일대의 唐軍	333,334인	2.70%
	張亮의 水軍	70,000인	0.57%
	치중병(운송병)	1,000,002인	8.10%
	총계	1,403,336인	11.36%
『資治通鑑』	安市城 일대의 唐軍	66,667인	0.54%
	張亮의 水軍	70,000인	0.35%
	치중부대(운송인)	200,001인	1.62%
	총계	336,668인	2.73%

* 출처 : 본문의 3-4장 내용을 필자가 직접 정리. 비교 기준인 호구는 梁方仲이 합산한 貞觀 13년(639) 戶數는 3,041,871戶, 口數는 12,351,681口를 인용하였다(梁方仲,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78쪽, 甲表23 唐貞觀十三年各道戶口數平均戶口數及各道戶口數的比重).

58) 梁方仲,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78쪽, 甲表23 唐貞觀十三年各道戶口數平均戶口數及各道戶口數的比重.

59) 비록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이 貞觀 19년(645)이라 호구수의 증감이 있지만 당시 연간 인구증가율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6년 동안의 증감은 배제한다. 중국 인구사 전문가들은 근거없이 인구증가율을 상정한 후 계산하는데, 믿을 수 없으므로 이 역시 배제한다.

〈표 2〉에서 필자가 3장에서 곡물수로 추산한 唐軍의 수에 운송 인력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 계산하면⁶⁰⁾ 전체 인구 가운데 동원한 비율은 11.97%(『冊府元龜』), 11.36%(『新唐書』), 또는 2.73%(『資治通鑑』)이다. 남녀 성비를 1:1로 가정하면 성인남성을 동원한 비율은 23.94%(『冊府元龜』), 22.72%(『新唐書』), 또는 5.46%(『資治通鑑』)이다. 성인과 미성년·노약자의 비율을 1:1이라 가정하여 성인남성을 동원했다고 추산하면, 그 비율은 47.88%(『冊府元龜』), 45.44%(『新唐書』), 또는 10.92%(『資治通鑑』)이다. 따라서 2장에서 검토한 여섯 개 중국 문헌에서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 당시 동원된 병력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고, 사서마다 기록이 다른 이유는 당시 많은 성인남성을 동원한 ‘虐政’을 숨기려는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貞觀 13년(639) 인구인 3,041,871戶와 12,351,681口는 隋煬帝 大業 5년(609) 8,907,546戶와 46,019,956口⁶¹⁾의 각각 34.1%, 26.8%에 해당한다. 인구만 보면 唐太宗은 隋煬帝 시기의 26.8-34.1%의 적은 인구로 高句麗와 싸운 것이다. 또 隋煬帝는 전투병 1,133,800인과 전투병의 배인 餽運者 2,267,600인을 동원하였다.⁶²⁾ 이는 隋煬帝 大業 5년(609)의 인구의 각각 2.46%, 4.93%에 해당한다. 이는 2.85%와 8.51%(『冊府元龜』), 2.70%와 8.10%(『新唐書』)보다 높았다. 지나치게 唐軍의 병력수를 적게 추산한 『資治通

60) 주)39와 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蓋牟城遼東城과 安市城은 하루만에 운반할 수 있는 거리이다. 정규군의 2-3배인 唐의 치중부대가 高句麗 영토 안까지 들어올 수 없다면 蓋牟城遼東城 일대에서 생포한 高句麗 백성들을 동원했을 것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에서 요역에 동원한 백성들은 식량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唐軍이 이들에게 군량의 일부를 주었을 가능성이 없다. 또 蓋牟城과 遼東城에서 획득한 곡물은 창고의 곡물이었으므로 백성들의 식량을 제외한 수치이다. 즉 高句麗 백성들이 동원되더라도 하루치 식량을 자비부담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61) 『隋書』卷29「地理志」上 序, 808쪽, “大凡郡一百九十, 縣一千二百五十五, 戶八百九十萬七千五百四十六, 口四千六百一萬九千九百五十六.”

62) 『隋書』卷4「煬帝紀」下 大業八年正月壬午條, 81쪽, “總一百一十三萬三千八百, 號二百萬, 其餽運者倍之.”

鑑』의 수치를 배제한다면, 『冊府元龜』의 징발비율인 2.85%(군인)와 8.51%(치중부대), 또는 『新唐書』의 2.70%(군인)와 8.10%(치중부대)는 隋煬帝 시기의 동원율인 2.46%와 4.93%보다 높다. 즉 唐太宗은 隋煬帝보다 절대 수치는 적지만 비율상 더 많은 백성들을 징발하였다.

또 唐代 657개의 折衝府마다 府兵을 1,000인이 배치되었다고 계산하면 전체 府兵의 수는 657,000인으로 추산된다.⁶³⁾ 본장에서 추산한 352,000인(『冊府元龜』), 333,334인(『新唐書』), 66,667인(『資治通鑑』)이 전부 府兵으로 차출되었다고 계산하면 唐軍은 각각 전체 府兵의 53.6%(『冊府元龜』), 50.7%(『新唐書』), 10.1%(『資治通鑑』)가 동원되었을 것이다. 이는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唐太宗의 高句麗 침략 당시 동원된 折衝府의 府兵이 최대 50%에 달한다면 국방상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5. 결론

필자는 본문에서 唐太宗의 高句麗 親征에 동원된 唐軍의 수를 추산하고 그 수가 의미하는 바를 밝혔다. 본문에서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을 다룬 史書を 편찬 순서대로 『通典』, 『舊唐書』, 『唐會要』, 『冊府元龜』, 『新唐書』, 『資治通鑑』, 『三國史記』 등에 기록된 唐軍 병력 수치를 분석하였다. 『通典』, 『舊唐書』, 『唐會要』는 唐軍의 공격을 간단하게 기록하였고 高句麗 城을 점령했을 때 살해하거나 생포한 高句麗人 수나 빼앗은 곡물의 양을 기록하지 않았다. 세 史書 가운데 『唐會要』에서만 唐軍의 수를 10만이라고 기록하였다. 반면 『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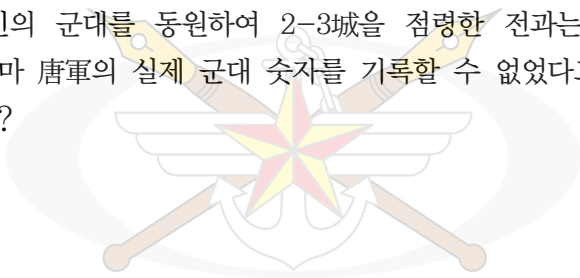
63) 谷霽光, 『府兵制度考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62, 154쪽, 表1 唐十道折衝府府數比較表.

『府元龜』에 唐軍의 성과가 가장 상세히 기록되었으며 『新唐書』와 『三國史記』는 『冊府元龜』의 기사를 채록하였다. 『資治通鑑』도 『冊府元龜』의 기록을 채록했으나 遼東城에서 획득한 곡물의 수를 기록하지 않는 등 ‘취사선택’의 태도가 보인다. 요컨대 唐太宗의 高句麗 침략 기사는 최소 4개의 자료 내원이 있었고 각각 『通典』, 『舊唐書』, 『唐會要』, 『冊府元龜』에 채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新唐書』와 『資治通鑑』, 『삼국사기』는 『冊府元龜』의 기록을 ‘취사선택’하였다. 고구려 침공을 다룬 기록이 여러 개이고 그 내용도 다르다는 점이 특이하며 이 가운데 어떤 기록이 옳은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冊府元龜』의 기록이 가장 상세하기 때문에 唐軍의 전공을 과장했다고 해도 唐太宗의 高句麗 침공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료로 봐야 한다.⁶⁴⁾

추산한 唐軍 병력과 물자수송 인원을 바탕으로 唐 백성들의 부담을 계산한 결과 安市城 일대에 있었던 唐軍은 333,334인(『新唐書』) 또는 352,000인(『冊府元龜』)이었으며, 張亮이 지휘한 수군 7만인을 포함하면 최소 약 403,000(『新唐書』) 또는 422,000인(『冊府元龜』)을 동원하였다. 필자는 후자의 수가 당시 唐軍의 최소 숫자라고 생각한다. 이는 張儉 등이 지휘한 군사를 제외한 병력이다. 여기에 각종 물자를 수송하는 치중 부대의 수를 정규군의 3배라고 보면 唐太宗은 당시 인구의 최소 11.97%(『冊府元龜』), 또는 11.36%(『新唐書』)에 해당하는 정규군과 물자수송을 맡은 백성들을 최소한 高句麗와의 국경 지역까지 동원하였다. 이는 성인남성의 23.94% 또는 22.72%를 동원한 셈인데,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심지어 이 비율은 唐太宗이 비난한 隋煬帝의 제1차 고구려 침공(113만 동원)보다 높았다. 이것이 唐軍의 병력을 은폐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唐太

64)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冊府元龜』 同卷에서도 기록이 엇갈리기 때문에 엄밀한 사료비판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宗은 「高麗班師詔」에서 玄菟·橫山·蓋牟·磨迷·遼東·白巖·卑沙·麥谷·銀山·後黃 11성을 점령하고 6萬戶와 18만인을 획득했으며 3대 대전을 통해 高句麗軍 4만여 급을 참하고 대장 2인과 裨將官人·酋帥 3,500인, 병사 10만 인을 사로잡은 후 방면했다고 자부하였다.⁶⁵⁾ 그러나 각종 사서에서 唐軍이 실제 점령한 성은 蓋牟·遼東 2城에 불과했으며 白巖城은 항복했을 뿐이다. 이처럼 전과가 컸다면 高句麗 침략에 동원된 唐軍의 수를 밝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王道智墓誌」에서 이때의 상황을 “三韓이 완강하게 저항하여 六軍이 不振하였다”⁶⁶⁾라고 기록하였다. 간략하고 우회적이지만 이 기록이 실제 唐軍의 성과를 반영한 실상이었을 것이다. 최소 422,000인의 군대를 동원하여 2-3城을 점령한 전과는 초라했기 때문에 차마 唐軍의 실제 군대 숫자를 기록할 수 없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65) 『唐大詔令集』卷130 「蕃夷」討伐·高麗班師詔, 904쪽, “剋其玄菟·橫山·蓋牟·磨迷·遼東·白巖·卑沙·麥谷·銀山·後黃等, 合一十城. 凡獲戶六萬·口十六有八萬. 覆其新城, 駐蹕建安. 合三大陣前後斬首四萬餘級. 降其大將二人, 裨將及官人酋帥子弟三千五百人, 兵士十萬人, 並給程糧放還本土.”

66) 「唐故左驍騎左一軍車騎將軍上柱國王君(王道智)墓誌銘」, 『唐代墓誌彙編』乾封022, 456쪽, “既而天子按劍, 親事遼陽, 三韓方便, 六軍不振.”; 「唐故左驍騎左一軍騎將軍上柱國王君墓誌銘」, 『全唐文新編』20, 14194쪽.

〈참고문헌〉

1. 한글문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高句麗 對隋, 唐戰爭史』, 서울: 국방부, 1991
- 김용만, 『새로 쓰는 연개소문傳』, 서울: 바다출판사, 2003: 168
-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 拜根興, “激動의 50년-高句麗와 唐 關係 研究-”, 『高句麗研究』 14, 2002: 417-443,
<http://uci.or.kr///G704-001250.2002.14..015>
- 이성제, “고구려와 거란의 관계-대수, 당전쟁기 거란의 동향과 그 의미-”, 『북방사논총』 5, 2005
- 이호영, “당과의 전쟁”,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5(삼국의 정치와 사회 I -고구려),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96: 141
- 임기환, “7세기 동북아 전쟁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고구려와 수, 당의 전쟁을 중심으로”, 『역사문화논총』 8, 서울: 신구문화사, 2014: 7-33,
<http://www.uci.or.kr/?menuno=8#none>
- 정동민, “최근 중국 학계의 고구려 전쟁사 연구”, 『軍史』 102, 2017: 259-294,
<http://doi.org/10.29212/mh.2017..102.259>

2. 한문문헌

- 『隋書』(魏徵 等撰, 北京: 中華書局, 1973)
- 『舊唐書』(劉昫 等修, 北京: 中華書局, 1975)
- 『新唐書』(歐陽修宋祁 撰, 北京: 中華書局, 1975)
- 『通典』(杜佑 撰, 王文錦 等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88)

- 『唐大詔令集』(宋敏求 編, 北京: 中華書局, 2008)
- 『唐會要』(王溥 撰,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 『冊府元龜』(王欽若 等編纂, 周勛初 等校訂, 南京: 鳳凰出版社, 2006)
- 『三國史記』
- 『夢溪筆談』(沈括, 鳳凰出版社, 2009)
- 『唐代墓誌彙編』(周紹良 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 『全唐文新編』20(周紹良 主編,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0)

3. 중국어문헌

- 谷霽光, 『府兵制度考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62
- 董明勝, “隋唐與高句爭原因及影向探析”,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 梁方仲,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0
- 馬正兵, “唐太宗三次東征的軍事失誤”, 『文史春秋』2008-9, 2008
- 楊希義·于汝波, 『唐代軍事史』上(中國軍事通史 第十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98: 156-161; 370
- 張國亮, “唐征高句麗之戰的戰略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5-29
- 張豔, “朝貢關系下隋唐對高句麗戰爭的原因分析”, 『周口師範學院學報』2015-6, 2015
- 張曉東, “唐太宗與高句麗之戰跨海戰略”, 『史林』2011-4, 2011
- 曹柳麗, “隋煬帝·唐太宗征高句麗軍事後勤建設比較研究”, 江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 拯救夢想, “隋唐皇帝禦駕親征為何屢屢失敗”, 『時代青年』2013-9, 2013
- 天行健, “隋唐為何一定要征服高句麗”, 『會博覽(下旬刊)』2012-6, 2012
- 祝立業, “略論唐麗戰爭與唐代東亞秩序構建”, 『社會科學戰線』2014-5, 2014

(Abstract)

The Estimating Number of Soldiers Mobilized during the
period of Tang Taizong's Aggression of Goguryo
- The Number and its Implications of Tang's Forces based
on the amount of Army Provisions for the Forces -

Choi, Jin-yeoul

This thesis is about estimating the number of soldiers mobilized during the period of the Tang Taizong's aggression of Goguryo and clarifying the implications of the number.

I estimated the number of Tang military forces participated in Anshi castle and Yodong(Liaodong in Chinese) castle battle, based on the provisions recorded in Ts'e-fu yuan-kui, New history of the Tang(Xin Tang shu), and Zizhi tongjian. I estimated the number of soldiers participated in Anshi castle and Yodong castle battle, ranging from 333,334(the record of Xin Tang shu) to 422,000(the record of Ts'e-fu yuan-kui) or ranging from 403,000 to 422,000 including Zhang Liang's naval forces, whose figures were excluding the military forces commanded by Zhang Jian and others. If we consider the number of units transporting various materials as ships of the regular army, the Tang Taizong mobilized at least 11,97% or 11,36% of the whole population of the country. It means he mobilized at least 23,94% or 22,72% of the grown-up male population, which was a great burden on the subjects. This ratio of mobilization was higher than the 1st Invasion of Goguryeo(1,33 million mobilizations) by the Sui Yangdi who was criticized by Tang Taizong, which was one of the reasons for concealing the number of the military forces in Tang history records.

This thesis has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it becomes a breakthrough in re-evaluating the War of the High Command by accurately estimating

the number of military personnel at the time of the invasion of Goguryeo by Tang Taizong and re-evaluated Tang Taizong, who was exaggerated in the image of a good and wise king.

Keywords : Goguryo, the Tang Taizong's aggression of Goguryo, the war between Goguryo and Tang, the concealed number of soldiers, Tang Taizong, Sui Yangdi, Ts'e-fu yuan-kui, New history of the Tang(Xin Tang shu), Zizhi tongjian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4, pp.167-214
<https://doi.org/10.29212/mh.2022..124.16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광양 마로산성을 통해 본 9세기대 지방 거점성 운영

최권호 | 국립창원대학교박물관 학예부 특별연구원

목 차

1. 머리말
2. 9세기대 마로산성 자료 검토
3. 마로산성을 통해 본 9세기대 지방 거점성 운영
4. 맺음말

초 록

마로산성은 백제시대 석축산성으로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산성의 전모가 밝혀졌다. 발굴조사 결과 9세기대 유구와 유물이 집중 확인되었는데, 특히 광양의 백제때 지명인 ‘마로(馬老)’가 시문된 ‘마로관(馬老官)’ 기와가 출토되어 주목되었다. 그 이유는 ‘마로관’명 기와의 제작 시기가 9세기대로 판별되어 지명의 사용 시기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9세기대 건물지, 집수(集水)시설 등에서 독특한 문양의 막새기와, 중국제 동경·자기류,

청동장식구, ‘왕가조경(王家造鏡)’명 동경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유물의 조합은 지금까지 출토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당시 마로산성 운영세력의 독자성이 잘 드러난다.

9세기대는 중앙귀족의 권력투쟁으로 인해 약화된 지방지배를 틈타 지방 호족세력이 영역을 확장해 나가던 시기였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마로관’명 기와와 같은 ‘古지명’이 시문된 명문기와들이 고구려·백제 고토의 거점성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는 점은 그 제작 주체가 지방호족세력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결론적으로 9세기대 마로산성을 점유한 세력은 독자적인 지방호족세력이었다. ‘마로관’명 기와는 이들이 거점성을 운영하는 전략적 측면에서 명분 확보와 영역지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서 그들의 국계의식(國系意識)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주제어 : 광양(光陽), 마로산성, ‘마로관’명 기와, 거점성(據點城), 국계의식

(원고투고일 : 2022. 6. 27, 심사수정일 : 2022. 8. 15, 게재확정일 : 2022. 8. 30.)

1. 머리말

광양 마로산성(사적 492호)은 마로산(광양읍 용강리 소재) 정상부(해발 208.9m)에 위치한 6세기대 백제에 의해 축성된 거점성(둘레 550m)으로서 백제의 경남 서부권역 진출의 전진기지로 활용되었고, 통일신라시대 이후 9세기대에 들어서며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10세기 전엽까지 가장 활발히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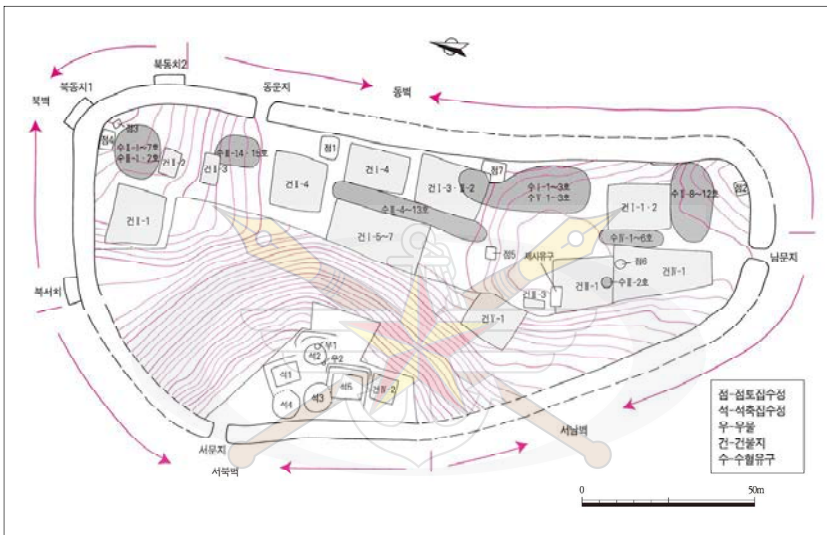
마로산성은 총 다섯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문지 3개소, 수구 3개소, 치 3개소, 건물지 17동, 집수시설 14개소, 수혈유구 39개소, 구상유구 1개소 등의 유구<그림 1>이 확인되었고 여기에서 토기류, 기와류, 금속류, 자기류 등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마로관(馬老官)’명 기와, 독특한 문양의 막새, 중국 제 동경 및 자기류, 청동장식구 등의 상징적인 유물들이다. 특히 ‘마로관’명 기와는 광양의 백제시대 지명인 ‘마로’와 관련이 있어 문헌사료에 등장하는 지명을 고고학적 자료로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그런데 ‘마로’라는 지명은 경덕왕대(757년)에 이르러 ‘희양(睢陽)’으로 개칭되는데, ‘마로관’명이 시문된 기와의 제작 시기는 9세기대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마로산성에서는 백제시대 기와도 다량으로 출토되었는데, 백제시대 기와에서는 ‘마로관’명이 시문된 것이 단 한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 필자는 ‘마로관’명 기와가 지명의 사용 시기를 훌쩍 뛰어넘어 제작된 이유가 마로산성이 9세기대에 개편되어 다시금 활발히 사용되는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마로산성에서 확인된 9세기대 유구와 유물을 검토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로관’명 기와처럼 ‘古지명+官’명이 시문된 기와들을 분석하여 그 제작 시기,

출토 범위 등을 파악한 후 ‘마로관’명 기와와의 상관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9세기대 마로산성에서 등장하는 ‘마로관’명 기와의 성격과 광양지역의 거점성인 마로산성의 운영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 광양 마로산성 유구배치도



2. 9세기대 마로산성 자료 검토

가. 유구 검토

1) 성벽〈그림 2〉

성벽은 협축식으로 축조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마로산성 초축 성벽은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제토한 후

별도의 기단을 두지 않고 부정형 할석으로 외벽을 쌓으면서 내부를 뒤채움 하였다. 그리고 일정 높이 만큼 쌓은 후에 내벽을 쌓아 협축식 성벽을 완성하였다.

성벽에서 주목되는 점은 서문지 북쪽 개구부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약 30m 구간인데, 이 구간은 다듬은 석재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들여쌓기 하였다. 남쪽 개구부는 장방형 내지 부정형 할석을 이용하여 기존 성벽과 동일한 방식으로 축조하였다. 북쪽 개구부는 바닥면을 생토면까지 굴착하여 석재를 놓았는데, 일부 지대석으로 볼 수 있는 석재가 확인되고 있으나 정연하지 않다. 이 구간은 사용된 석재와 축조방법에서 다른 구간과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후대에 개보수를 진행한 것은 분명하다. 이와 유사한 석재와 축조기법은 산성 내부의 석축 집수시설과 석벽 건물지, 그리고 성벽에 덧붙여 쌓은 치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림 2〉 마로산성 성벽 현황



2) 건물지

건물지들은 모두 기와가 다량으로 출토되고 있어 와가(瓦家)로 추정된다. 9세기대 건물지는 총 15동이며, 산성의 평탄지 및 경사면에 분포하고 있어 내부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9세기대 대표적인 건물지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9세기대 건물지 현황

유구명	규모(m)	칸수(주칸거리 cm)	출토유물	비고
I-2건	7.0×14.9	정면 7칸(200) 측면 3칸(230)	토기, 평기와, '馬老官'銘 기와, 막새, 납석제 개, 해무리굽 완, 철제초두, 과대(금동제대단금구, 청동제 판금구, 철제과판), 청동동고, 동경, 호등, 자물쇠	초석 적심
II-1건	11.0×11.2	정면 5칸(170~220) 측면 4칸(240~280)	건물지: 토기·평기와, 명문와, 막새, 납석제 개, 철제차관, 과대(철제과판), 청동장식품, 중국 자기 수혈: 토기, 과대(은제고구, 철제과판), 철제호등, 철제새갈, 철제술, 철부, 은제장식, 청동향로, 철제초두, 중국 자기	초석, 수혈 18
II-2건	7.7×5.0	정면 1칸 측면 1칸	토기·평기와, 명문와, 해무리굽백자, 철부, 과대(철제과판)	초석, 주공, 임거(배수로)
II-3건	9.3×5.4	정면 3칸(350) 측면 2칸(245)	평기와, 명문와, 막새, 탄화미(다량)	기둥구멍 4개소

I-2건물지는 규모가 7.0×14.9m이며 내부에서 '마로관'명 기와, 해무리굽 청자, 철제초두, 과대(금동제대단금구, 청동제판금구), '해수포도방경(海獸葡萄方鏡)'¹⁾, 호등, 자물쇠 등이 출토되고 있어 산성 내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 특히 수막새와 '마로관'명을 비롯한 명문기와가 다른 건물지에 비해 많이 출토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²⁾ II-1건물지는 규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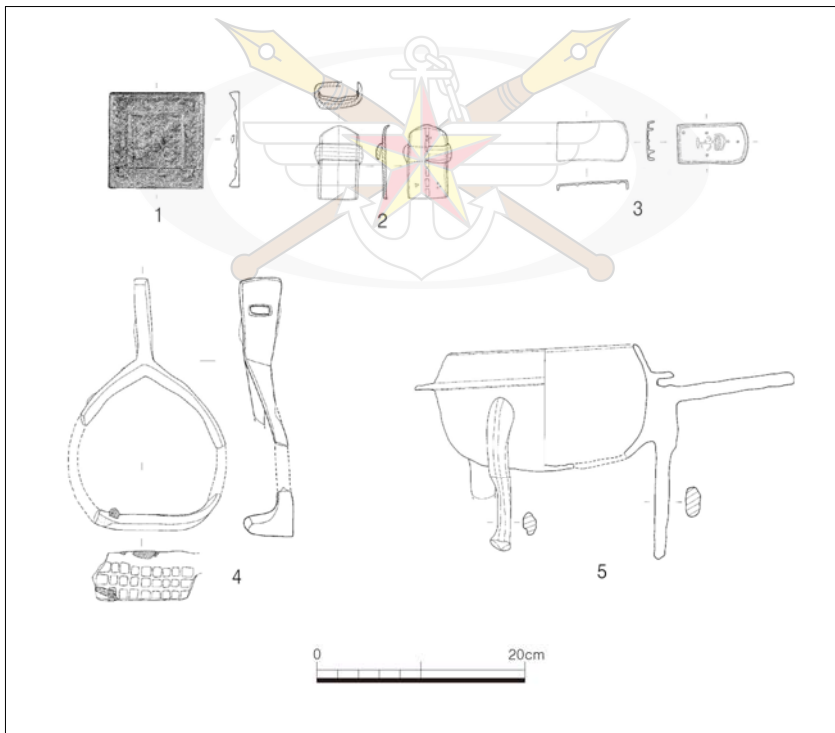
1) 해수포도방경은 백제 시기 건물지인 I-1건물지 초석 상층부에서 출토되었는데, I-2건물지와 중복을 이루고 있어 층위상 I-2건물지와 관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마로산성 3차 발굴조사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건물지 내에서 출토된 명문와(銘文

11.0×11.2m이며 산성내부에서 조망권이 가장 좋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은제요대, 호등, 해무리굽 백자, 청동향로, 철제초두 등이 출토되었는데 특징적인 유물들이 건물지 내부 수혈에서 출토되고 있어 장대 및 제의공간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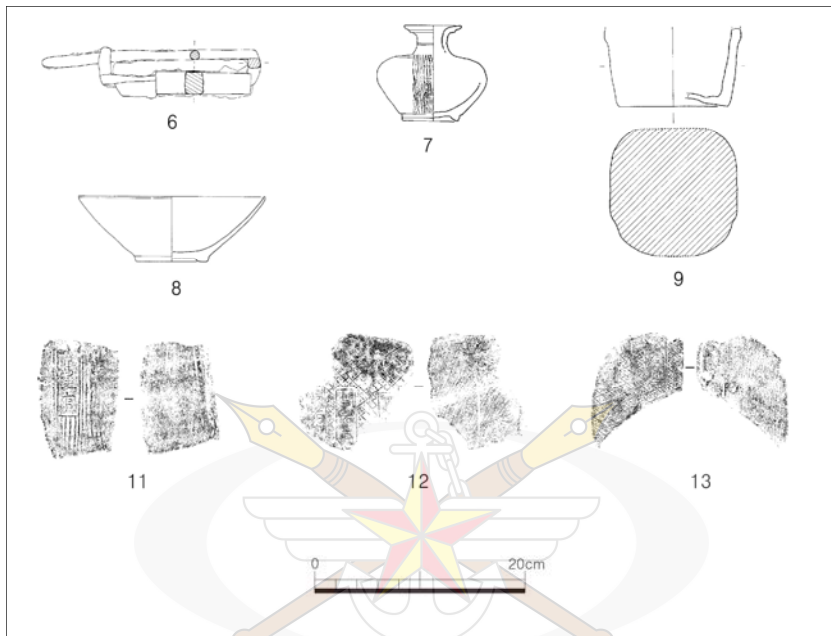
Ⅱ-2, Ⅱ-3건물지는 북쪽 정상부에서 내려오는 경사면을 ‘ㄴ’자 형태로 굴착한 반지하식 건물지로 각각 1동씩 조사되었다. Ⅱ-2건물지는 규모 7.7×5.0m이고, 내부에서 초석 1매와 주공 2개가 확인되었다. 건물지 바닥에는 전체적으로 할석을 깔았고, 길이 7.8m의

〈그림 3〉 마로산성 Ⅰ-2건물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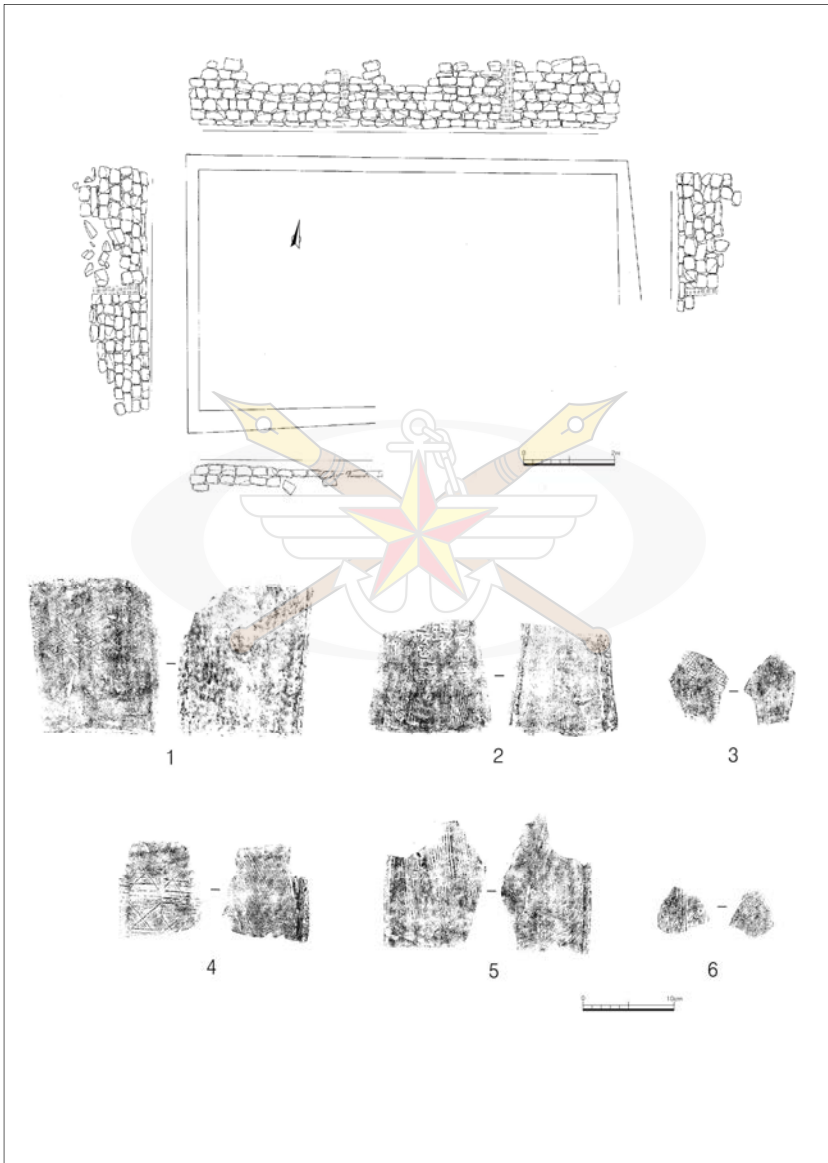
瓦는 총 529점인데, 이 중에서 359점이 Ⅰ-2건물지에 출토되어 65.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최인선 외, 『광양 마로산성』 I, 순천대학교박물관, 2005).

〈그림 3(계속)〉 마로산성 Ⅰ-2건물지 출토유물



뚜껑돌이 잘 남아 있는 암거시설이 확인되었다. Ⅱ-3건물지는 규모가 $9.3 \times 5.4\text{m}$ 이고, 축조 방법은 잘 다듬은 석재를 이용하여 안쪽으로 면을 고르게 맞추며 쌓았다. 남아 있는 각 벽면에서 기둥구멍이 1~2개소 확인되었다〈그림 4〉.

〈그림 4〉 마로산성 II-3건물지 및 출토유물



이 건물지들은 벽체를 석재로 조성하여 석벽건물로 볼 수 있는데, 내부에서 배수시설과 다량의 탄화미가 출토되고 있어 군창지 같은 특수 용도의 시설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석벽 건물은 양주 대모산성, 연기 운주산성, 아산 학성산성, 홍성 석성산성, 공주 공산성, 부여 부소산성, 전주 동고산성, 광주 무진고성 등의 백제고지(百濟故地)에서만 발견되고 있다.³⁾

3) 석축 집수시설

석축 집수시설은 성내에서 가장 낮은 지역인 서쪽 계곡부에 7기가 밀집하여 위치하고 있다. 9세기대 석축 집수시설은 총 4기이며 현황은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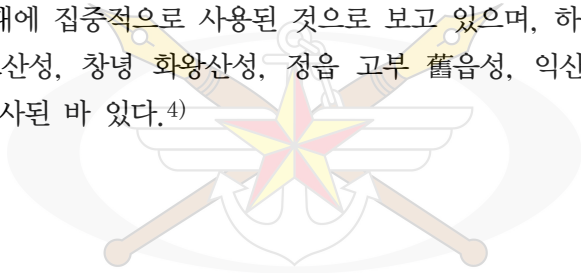
<표 2> 9세기대 집수시설 현황

유구명	규모(단위 : cm)			평면형태	단면형태	축조재료	주요유물
	길이	너비 (직경)	깊이				
석축 1호	760	540	300	장방형	경사 (들여쌓기)	석재(사각추) 바닥 점토, 암반	토기, 평기와, 명문와, 막새, 지석, 청동집게, 철촉, 원판형토제품,
석축 5호	766	580	360	장방형	경사 (들여쌓기)	석재(사각추) 바닥 점토, 암반	토기, 평기와, 막새, 원판형토제품
1호 우물		(140)	320	원형	수직	석재(할석+ 다듬은석재) 바닥 점토, 암반	토기, 평기와, 명문와, 막새, 청동완, 청동손가락
2호 우물		(60)	118	원형	수직	석재(할석) 바닥 확인불가	평기와, 명문와

3) 서정석, 「산성에서 발견된 석벽건물(石壁建物)의 성격에 대한 시고」, 『백제문화』 42, 2010,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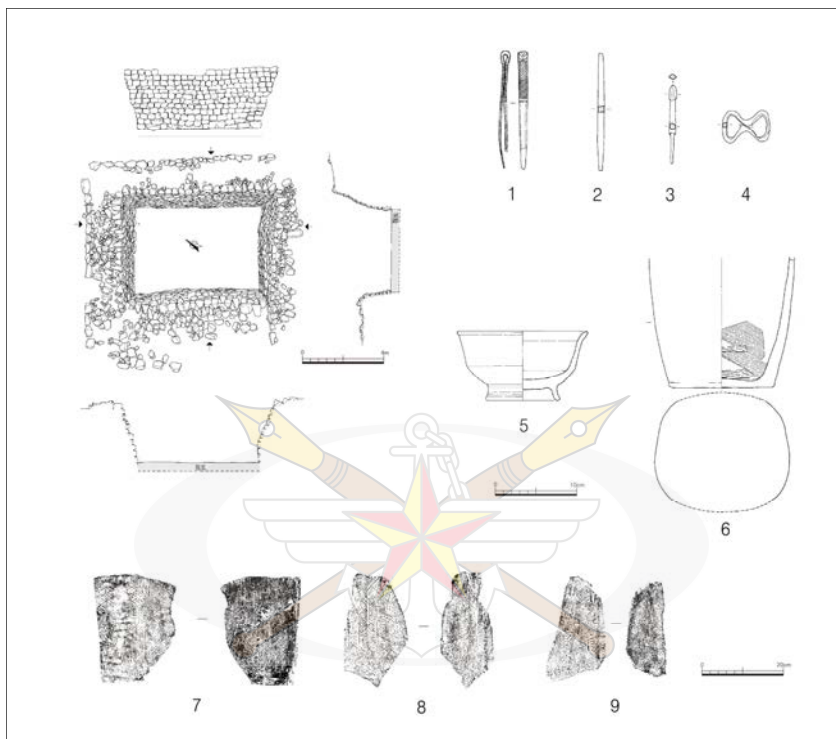
석축 1·5호는 평면형태가 방형이며 9세기대 축조된 건물지 축조에 사용되었던 잘 다듬은 석재를 이용하여 경사식의 들여쌓기 방식으로品茶 형태를 유지하며 정연하게 쌓았다(그림 5). 특히 석축 1호·5호는 이전시기에 조성된 석축 3·4호를 일부 파괴하고 축조되고 있어 산성내 석축 집수시설의 축조방법, 사용 석재 등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석축 1·5호 외곽에 석축의 방향과 대응되는 석열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전단계 집수시설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설로 경사면에서 밀려드는 토사에 의한 매몰을 방지하고 배수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형태의 집수시설은 8세기 말에 등장하여 9세기대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하동 고소성, 문경 고모산성, 창녕 화왕산성, 정읍 고부 舊읍성, 익산 미륵산성 등에서 조사된 바 있다.⁴⁾



4) 최권호, 앞의 논문, 2010, 56쪽.

〈그림 5〉 마로산성 석축 1호 집수시설 및 출토유물



4) 치〈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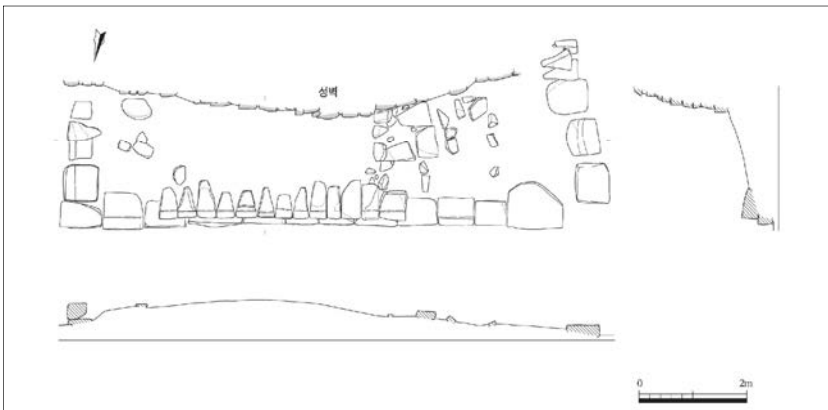
치는 북벽의 모서리와 동문지 주변에서 총 3개소가 확인되었는데 현황은 〈표 3〉과 같다. 규모는 7.9~9.8m, 너비 2~3.6m, 잔존 높이 1m 정도이다. 축조방법은 잘 다듬은 석재를 이용하여 들여쌓기 하였는데, 최하단에 대형의 장방형 지대석을 놓고 2단부터는 Ⅱ-3 건물지에서 확인되는 잘 다듬은 형태의 석재를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치는 성벽이 축성된 이후 덧대어 축조하였다.

〈표 3〉 9세기대 치 현황

유구명	평면형태	규모(m)	석재/축조기법
북서치	장방형	길이 7.9, 너비 2.8~3.2	석재 : 다듬은 석재 기법 : 최하단 장방형 지대석, 수평 묘자형 들어쌓기
북동치 1	장방형	길이 9.8, 너비 2.0~2.6	석재 : 다듬은 석재 기법 : 최하단 장방형 지대석, 수평 묘자형 들어쌓기
북동치 2	장방형	길이 9.4 너비 3.4~3.6	석재 : 다듬은 석재 기법 : 최하단 장방형 지대석, 수평 묘자형 들어쌓기

치에서 주목되는 것은 최하단에 대형의 장방형 지대석을 놓고 2단부터 잘 다듬은 석재로 들어쌓기 한 것이다. 이러한 축조기법은 장산도 대성산성, 무안 봉대산성, 전주 동고산성, 정읍 고사부리성 등에서 확인되는 특징으로 마로산성에서는 치에서만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축조기법은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확인되는 것으로 치의 축조시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그림 6〉 마로산성 북동치 1



나. 유물 검토

1) 토기류<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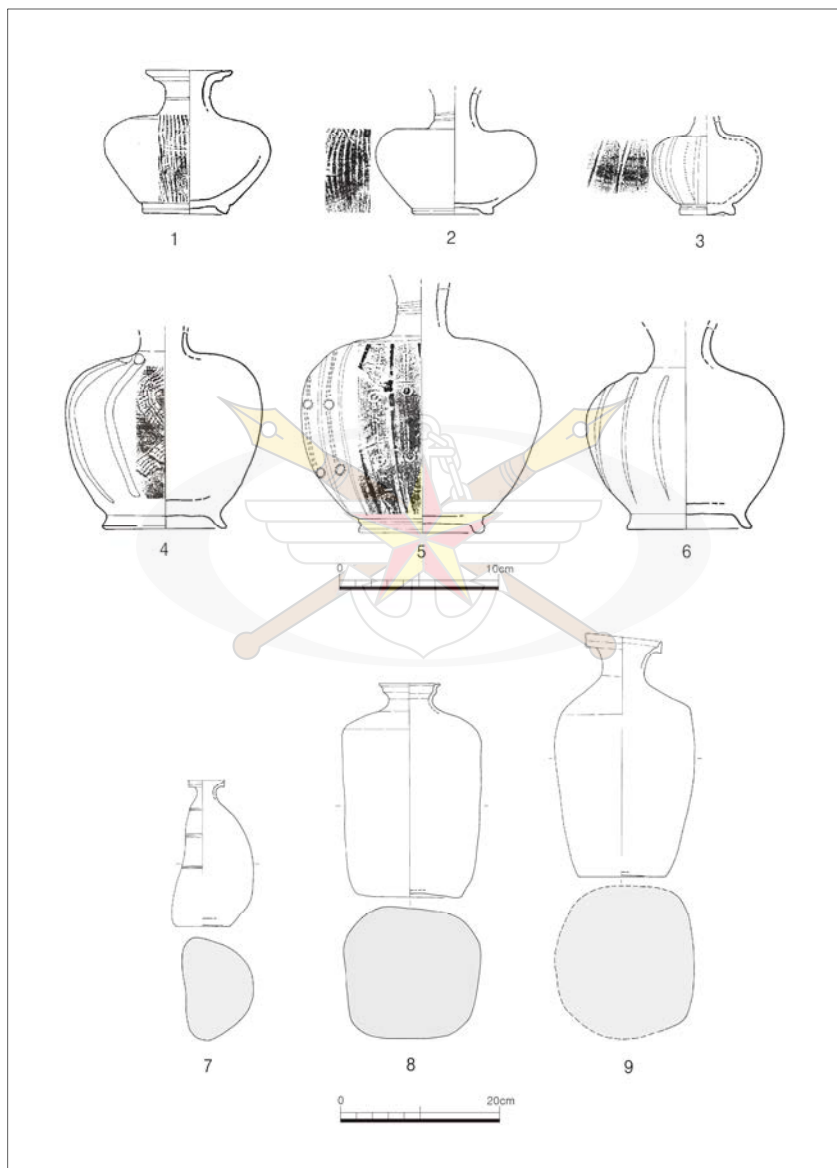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9세기대 토기는 개, 완, 병, 대호 등이 확인된다. 개는 드림부가 완전히 퇴화되어 ‘ㄱ’자형에 가깝고, 구경은 15cm 내외로 비교적 큰 편이며, 꼭지는 모두 환상형이다. 완은 S자형의 동체에 구연부는 외반하고 있으며, 굽은 길고八字형으로 외반하고 있다. 인화문은 구연부와 동하위에 침선을 돌리고 그 사이에 점열문을 시문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한강유역이나 중서부 지방의 생활유적과 고분에서 출토되는 대부완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대체로 외면에 문양이 없거나 일부는 밀집문과 기하학적인 문양이 확인되고 있어 중심연대는 9세기대로 보고 있다.⁵⁾

병은 줄무늬병과 편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줄무늬병은 통일신라 시대 건물지와 수혈유구에서 출토되었다. 줄무늬병은 구연이 단이지는 반구형이고, 전부에 1~3조의 침선이 돌아간다. 바닥에는 낮은 굽이 부착되어 있다. 덧띠무늬병은 동체부가 구형에 가깝고, 동중상위에서 최대경을 이루고 있다. 동체 외면에 띠를 따로 만들어 부착하고 있으며, 띠와 띠사이에 점열문, 다변화문 등이 시문되어 있다. 줄무늬병과 덧띠무늬병은 익산 미륵사지 동원 동승방지(東院 東僧房址) 기단토와 접한 층에서 “대중십이년미륵사(大中十二年彌勒寺)”명(858年)의 대호(大壺)편이 공반 출토되어 9세기대를 중심으로 편년되고 있다.⁶⁾

5) 강진주, 「漢江流域 新羅土器에 대한 考察」, 2006,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자린, 「統一新羅 臺附器의 型式分類와 變遷」-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2008, 한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최맹식, 「統一新羅 줄무늬 및 덧띠무늬 토기병에 관한 小考」, 『文化財』24,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1991, 87쪽.

〈그림 7〉 마로산성 출토 9세기대 토기류



편병은 1면 편병, 4면 편병 등이 확인되고 있다. 1면 편병은 동체의 한쪽 면을 전체적으로 눌러 편평하게 하여 단면형태가 반구형인 것들이 많다. 바닥은 평저이고, 동체부에 침선이 돌아가며, 구연부는 매우 좁게 형성되었다. 4면 편병은 기벽을 4등분하여 사각형의 형태로 만든 것으로 동체부의 단면형태가 사각이나 말각방형을 이루는데, 말각방형이 많다. 바닥는 평저이고, 기신은 수직으로 올라 견부에서 크게 꺾여 짧은 경부를 형성한 후 외반하는 구연부로 연결된다. 구연부는 외반하거나 직립하고 있다. 외면 문양은 모두 무문이고, 동체부에 침선을 돌린 것도 있다.⁷⁾

2) 기와류

기와류는 명문와와 막새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표 4〉 마로산성 출토 명문 수기와 현황

번호	명문 내용	크기(cm)			문 양	내 면	분할 방법
		길이	너비	두께			
1	馬老官	24.4	19.4	2.1	무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2	馬老官	34.7	19	3	사격자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3
3	馬老官	33.0	15.0	2.5	사격자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4	馬老官	33.2	16.5	1.5	사격자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5	馬老官	34.0	13.5	1.5	사격자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6	馬老官	28.3	16.6	2.0	사격자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7	馬老官	34	13.0	1.2	사격자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8	馬老官	29.0	17.0	1.5	사격자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9	馬老官	25.6	12.5	2.3	선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2/3
10	馬老官	23.6	17.7	2.5	선문+사격자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7) 최권호, 앞의 논문, 2010, 78쪽.

번호	명문 내용	크기(cm)			문 양	내 면	분할 방법
		길이	너비	두께			
11	馬老官	23.6	17.5	2.0	종선문	포흔	내-외, 외-내1/2
12	馬老官	32.8	15.9	2.5	횡선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13	馬	33.8	16.8	2.8	사격자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14	官年末	36.2	14	1.7	선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15	官年末	24	14.2	1.5	종선문	포흔+사도흔	내-외1/2
16	年末	34	13.5	2.3	사격자문+종선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17	年末	26.7	14.3	1.2	선문+X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18	年末/年天	34.1	14.5	2	종선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19	官	36.6	14.1	1.7	선문	포흔+사도흔	내-외1/2
20	官	38.2	19.3	1.9	종선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21	甲全官	28.4	18	2.2	종선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2/3
22	全官/甲	29.6	17.5	1.6	종선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23	口全官	26.6	15.7	2.4	선문	포흔+사도흔	내-외, 외-내1/2
24	口天	33.8	16.3	1.8	종선문	포흔	내-외, 외-내1/2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명문와의 종류는 ‘馬老官, 官年末, 官末, 年末, ○天, 甲全官, 官’ 銘 등이다. 명문과 결합되는 문양은 수량이 가장 많은 ‘마로관’명 기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격자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종·횡선문의 선문계열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문양의 타날은 대체로 중판 이상의 타날판을 사용하였고, 타날 깊이가 비교적 얇다. 분할면은 수키와⁸⁾를 기준으로 볼 때 내면에서 자른 후 부러뜨린 것과 한 측면은 내면에서, 다른 측면은 외면에서 자른 후 부러뜨린 것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의 기법은 2점

8) 암키와의 경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안쪽에서 와도를 그어 분리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와도 관찰을 통한 특징을 발견하기 어렵다(최맹식, 『백제 평기와 신연구』, 학연문화사, 1999, 57-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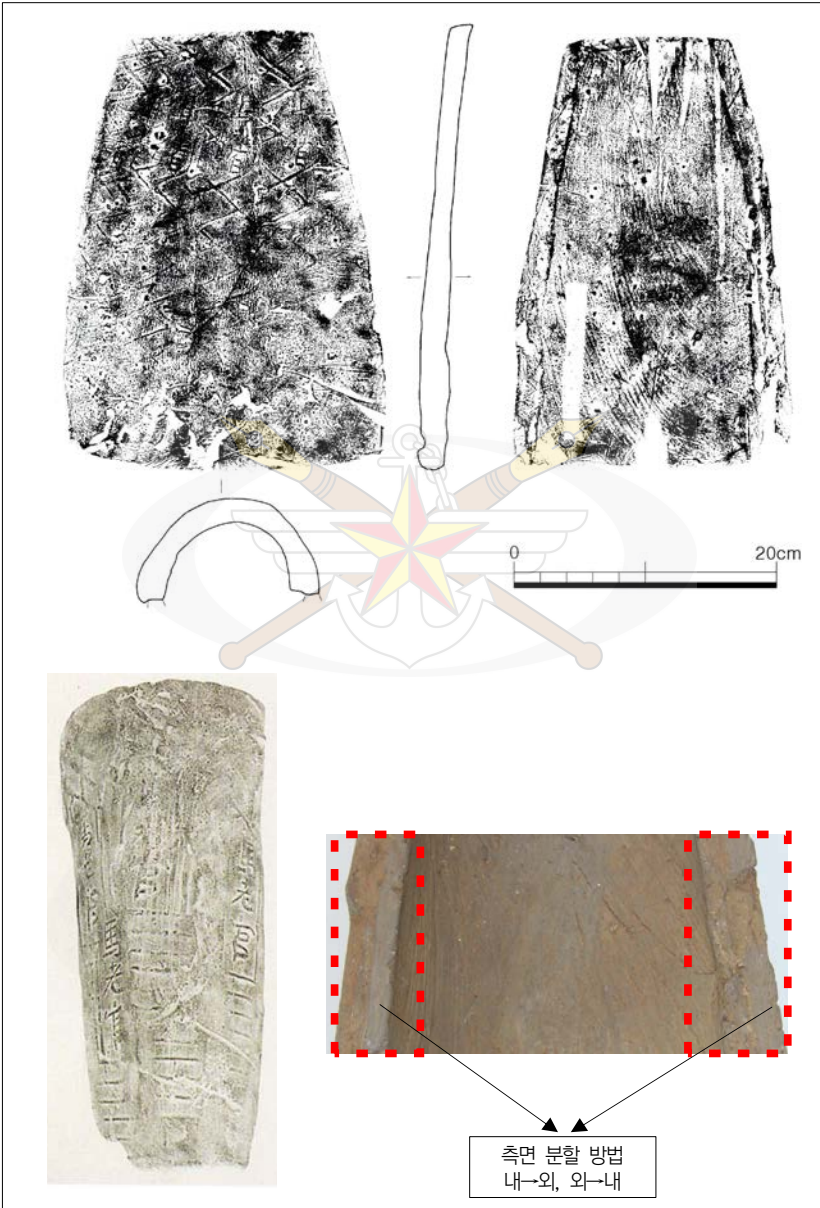
에서만 확인되고 나머지 22점은 모두 후자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특히 ‘마로관’명이 시문된 기와는 모두 후자의 기법만 확인된다(그림 8). 이렇게 와도질 방향이 한쪽은 내측, 다른 한쪽은 외측인 것은 9세기~10세기 전엽까지만 사용된 기법으로 이해되어 왔다.⁹⁾ 하지만 이런 견해에 대해 경주 황성동 석실분(7세기) 및 황오동 326-1번지 유적(7세기~9세기)에서 출토된 중판 타날판 수키와에서도 확인되므로 다른 속성과의 비교 검토 없이 와도질 방향만으로 제작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¹⁰⁾이 있으므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된다.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명문와들은 문양, 타날방식, 분할기법 등에서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기법들이 관찰되고, 동반유물의 중심연대가 9세기대로 편년되고 있어 이러한 기와 제작기법의 사용시기와도 부합된다. 따라서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명문와는 9세기대에 집중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9) 최맹식, 앞의 책, 1999, 60쪽.

10) 이인숙, 「통일신라~조선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93-95쪽.

〈그림 8〉 마로산성 출토 ‘馬老官’ 명 수키와



막새<그림 9>는 수막새만 확인되며 문양은 대부분 새로운 것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당시 전국에서 유행했던 것들과의 유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막새의 문양은 총 30여 종이 확인되었는데 큰 틀에서 볼 때 연화문, 파문, 원문, 능형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연화문이 28종으로 가장 많은 종류를 보이고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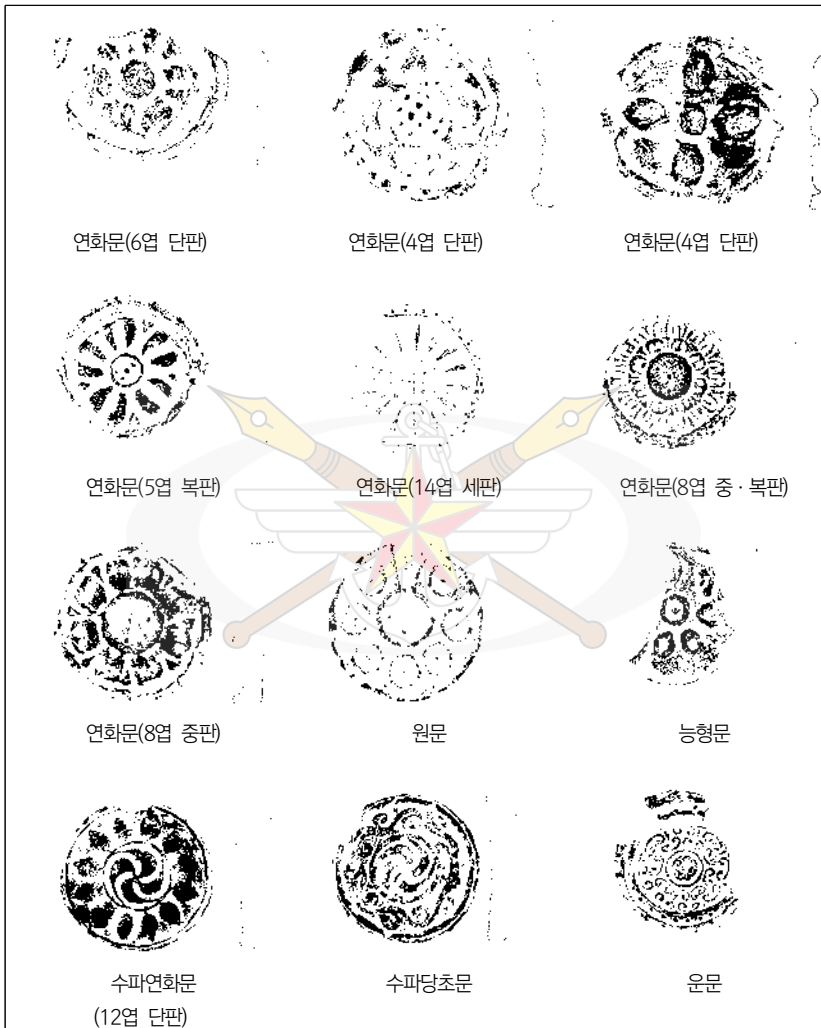
연화문은 단판, 중판, 복판, 세판 양식이 모두 확인된다. 연잎의 수는 4·5·6·7·8·10·11·12·14엽으로 다양하다. 통일신라시대에 유행한 복엽형의 중판 연화문과 유사한 양식은 2~3종 정도 확인되고 있다. 원문과 능형문은 백제 한성기 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는데, 외당면을 ‘十’자형으로 4구획하고, 주연이 돌출되는 특징이 있다. 마로산성 출토품은 외당면 구획이 없고 주연부를 만들지 않아 차이가 있다. 파문은 사비기 유적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는데, 마로산성 출토 파문 막새는 파문+당초문, 파문+연화문이 조합된 형식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출토된 예가 없는 신형식이다. 주연부는 1조의 원권을 돌려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연부 처리 방식은 통일신라시대 후엽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마로산성 출토 막새는 독특한 문양조합, 거칠고 조잡한 제작기법 등에서 동시기 타지역에서 출토된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중앙의 통제를 받아 조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동반된 유물로 볼 때 제작 시기는 9세기대로 판단된다. 최근 조사된 임실 월평리 산성에서도 독특한 문양의 막새가 출토되었는데, 조사단은 이 막새의 제작 시기를 9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

11) 최인선, 「광양 마로산성 출토 막새기와에 대한 고찰」, 『문화사학』 33, 2010, 한국문화사학회.

12) 최권호, 「광양 마로산성 출토 ‘馬老官’ 銘 기와에 대한 일고찰」, 『백제와 주변세계』, 2012, 진인진.

〈그림 9〉 마로산성 출토 수막새(축척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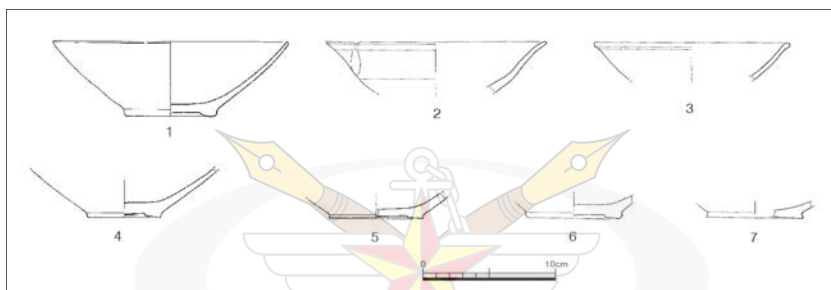


3) 자기류 및 금속류

가) 자기류<그림 10>

자기류는 주로 건물지에서 출토되었으며, 일부 수혈에서도 확인되었다. 마로산성 출토품은 모두 중국제품¹³⁾으로 크게 청자와 백자 계열로 나눌 수 있고, 황유녹갈채(黃釉綠褐彩)자기편도 확인되고 있다.

<그림 10> 마로산성 출토 중국제 자기류(1·6·7 : Ⅰ-2건물지, 2~5·8 : Ⅱ-1건물지)



청자 해무리굽완편들은 월요주요(越州窯) 계통인데, 내저곡면식(內底曲面式)이면서 굽바닥에 내화토 받침을 받쳐 구웠다. 백자 해무리굽완편은窯 계통으로 내저곡면식에 구연부는 도톰한 옥련(玉緣)형 구연을 지니고 있다. 굽바닥에는 백색내화토 빚음을 받쳐 구웠다. 황유녹갈채자기편은 장사요(長沙窯) 계통으로 주전자나 호의 저부편으로 추정되는데, 황유의 자기에 산화동과 산화철로 그린 오리, 새문양이 녹색, 갈색으로 시문되었다. 이러한 황유녹갈채자기는 기면에 접화 장식을 하거나 갈색이나 녹색의 산화철, 산화동 안료로 그린 것이 특징적이다.¹⁴⁾

13) 자기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內低圓刻의 有無는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중요한 속성으로 인식해온 것으로 내저원각이 없는 것은 중국산, 있는 것은 국산으로 분류하고 있다(충남대학교박물관, 『성주사』, 1998, 548쪽).

14) 윤용이, 「광양 마로산성 출토 자기의 검토」, 『한국성곽학회』 제10집, 2006, 한국성곽학회.

해무리굽의 청차는 굽의 직경과 너비가 편년에 중요한 속성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기가 늦어질수록 굽의 직경과 너비가 좁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마로산성 출토품에서도 일부 확인이 되고 있으나 출토된 개체수가 적고 완형굽이 거의 없어 세부적인 편년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

월주요산 청자완들은 해무리굽을 특징으로 하는 완들로 당대(唐代) 9세기 중엽부터 10세기 초엽에 걸치는 절강성 자계, 영파지역의 상림호 등지 요지에서 다완용으로 제작된 후 무역을 통해 받아들여져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⁵⁾. 국내에서는 익산 미륵사지, 경주 안압지, 완도 청해진 유적, 보령 성주사, 부여 부소산성, 남원 실상사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중심 연대를 9세기 중엽에서 10세기 전엽으로 보고 있다. 마로산성 출토품도 이와 유사한 시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나) 동경 및 청동장식구<그림 11>

동경은 해수포도방경(海獸葡萄方鏡)과 ‘왕가조경(王家造鏡)’명 동경이 출토되었다.

해수포도방경<그림 8-1>은 9.1×9.1cm의 정사각형이고, 두께는 0.9cm이다. 문양은 크게 내구와 외구로 나뉘어져 있다. 외구에서 1.8cm 안쪽에 5.2×5.2cm의 방형의 내구를 형성하고 내구의 중앙에 머리를 숙인 짐승모양의 뉴를 배치하였다. 이 해수포도방경은 당나라에서 제작되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마로산성 출토품이 유일하다¹⁶⁾. 이러한 해수포도방경은 당나라 高宗~武則天代(7C후반~8C전엽)에 유행한 鏡이고, 당시에 당경(唐鏡)을 주

15) 이동희, 「전남지역의 후백제유적과 역사적 성격」, 『한국상고사학보』87, 2015, 한국상고사학회, 54쪽.

16) 최권호, 앞의 논문, 2012, 570쪽.

로 제작하였던 곳은 양주(揚州)로 알려져 있다.¹⁷⁾ 마로산성 출토품은 전술한 바와 같이 9세기대의 건물지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출토되는 동경과는 약간의 시기차를 보인다.

‘왕가조경’명 동경은 칠보문¹⁸⁾경으로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지름 18.5cm로 중앙에 반원형으로 돌출된 소형의 뉴를 배치하고 뉴좌 및 내구, 외구의 구획이 전혀 없다. ‘왕가조경’명은 정면 우측에 치우쳐 종으로 양각되어 있다. 명문을 해석해보면 ‘왕씨 집안에서 만든 거울’이라는 뜻인데, 이와 관련하여 일본 正倉院에 소장된 먹 가운데 ‘新羅楊家上墨’·‘新羅武家上墨’이라는 명문을 가진 먹이 있다. 이 명문 역시 ‘신라의 양가(楊家)와 무가(武家)에서 만든 상등품 먹’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제작지를 표기한 유물의 존재는 당시 통일신라에서 ‘家’를 중심으로 먹이나 경을 제작·생산했음을 알려준다.¹⁹⁾

청동장식구는 V-2 수혈에서 일괄 출토되었는데 재갈, 철검, 자물쇠, 톱, 단야구, 철촉 등이 동반 출토되었다. 청동장식구는 말의 엉덩이나 가슴 등의 곡률부에 장착하는 행엽과 이들을 구성하는 혁대를 장식하는 금구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마로산성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의 것이 익산 미륵사지, 경주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예가 있다. 그런데 미륵사지 출토품은 외면에 금동장식인 반면 마로산성 출토품은 청동장식 외면에 은박이 씌어져 차이가 있다.²⁰⁾

17) 孔祥星·劉一曼, 安京淑 譯, 『中國古代銅鏡』, 주류성, 2003, 343-34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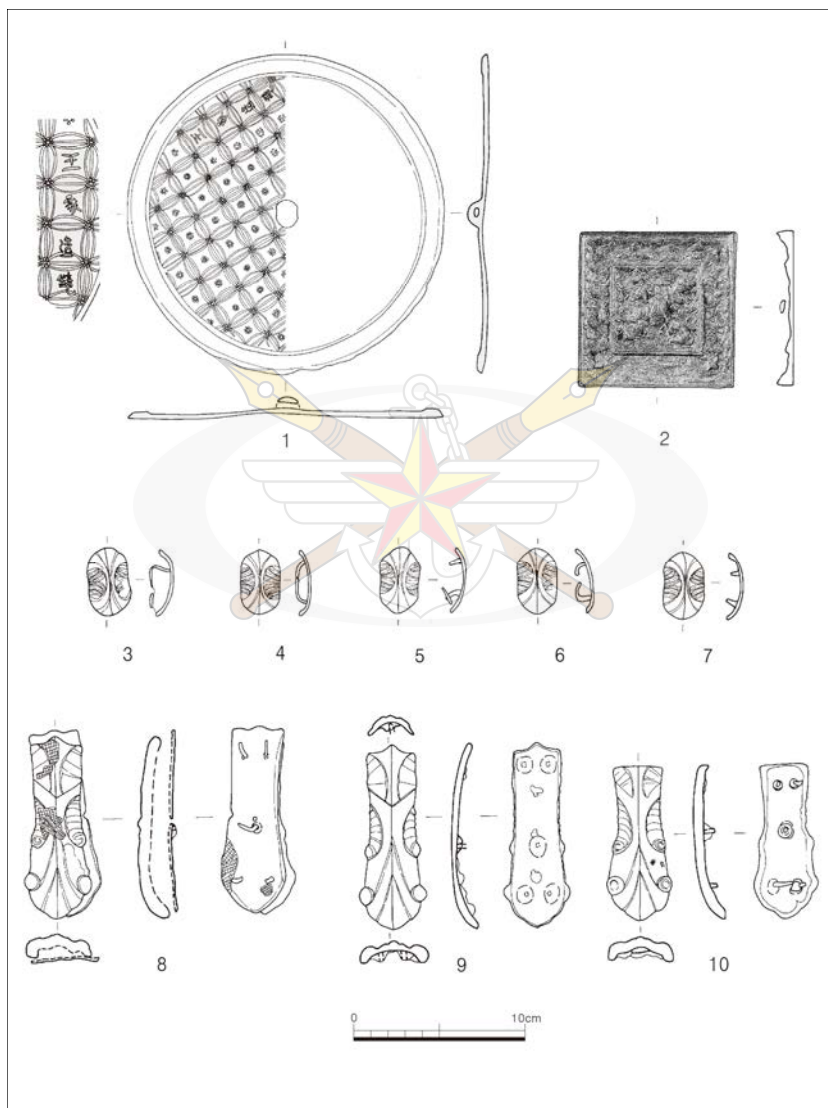
18) 칠보문은 多福·多數·多男 등 도교적 이념에서 비롯된 三多사상에 의한 길상도안의 하나로 子孫吉慶·長命富貴등을 뜻한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9) 이도하, 「新羅末 甄萱의 勢力 形成과 交易 張保皐 이후 50년」, 『신라문화』 28,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6, 210쪽.

20) 최권호, 앞의 논문, 2012, 571쪽.

〈그림 11〉 마로산성 출토 청동거울 및 청동장식구

(1-2: 1-2건물지 및 주변 / 3-10 : V-2호 수혈)



이러한 장식구는 10세기 중엽을 거치며 중국의 영향을 받아 주요 식물에서 동물 및 길상형태로 문양이 전환되고 있는데, 마로산성의 장식구류는 아직 동물 문양을 띠고 있지 않아 그 제작 시기를 다른 마구와 같이 10세기 중엽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로 미루어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마구들은 적어도 통일신라 후반에 폐기되었던 마구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²¹⁾

다. 소결

지금까지 마로산성에서 확인된 9세기대 유구와 유물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마로산성은 6세기 백제에 의해 초축되어 삼국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다가 9세기대에 이르러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진다. 건물지는 내부의 평탄지, 정상부, 경사면 등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는데, 초축 시기가 동일하면서 삼국 통일이후 폐성되는 점단산성이나 고락산성의 내부 구조와 비교하면 이시기 마로산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집수시설은 잘 다듬은 석재를 이용하여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축조기법을 도입하여 가장 큰 규모로 축조하였는데, 외곽에 토사의 유입과 배수를 용이하게 하는 시설이 등장하고 있어 집수정 축조에 상당한 공력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치는 산성에 오르기 가장 쉬운 북벽과 동문지 주변을 방어하기 위해 기존 성벽에 덧대어 축조하는데, 최하단에 대형의 장방형 지대석을 놓고 2단부터 잘 다듬어진 석재를 들여쌓기 하였다. 이러한 축조기법은 통일신라시대 산성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기법으로 호남지역에서는 장산도 대성산성,

21) 성경용·권도희·諫早直人, 「고락산성과 마로산성 출토 마구에 대하여」, 『호남고고학보』 27, 2007, 호남고고학회, 95-97쪽.

무안 봉대산성, 전주 동고산성, 정읍 고사부리성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9세기대 마로산성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것은 군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산성이 갖는 지정학적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산성 내부 곳곳에 건물지를 축조하고 전단계와 비교되는 대형 집수시설을 정교하게 만든 것은 상주 군인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목되는 것은 치의 축조이다. 치는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조기 관측하고 효과적으로 격퇴하기 위한 시설로 산성의 방어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는 구조물이다. 그런데 9세기대는 삼국이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였던 삼국시대와는 달리 명확한 주적의 존재가 희미한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성의 방어를 견고히 하는 치를 축조한 것은 지방 호족 세력이 독자성 확보를 위해 지역 거점인 마로산성을 장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내부에서 출토된 ‘마로관’명 기와, 독창적인 문양의 막새, 청동거울, 청동장식구, 중국제 자기 등 독특하고 다양한 유물의 조합은 동시기 타지역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는 건물지, 집수시설, 치의 축조에서 보는 것과 같이 9세기대 마로산성 운영 세력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물은 ‘마로관’명 기와를 들 수 있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마로관’명의 ‘마로’는 광양의 백제때 지명으로 백제에 의해 운영된 6~7세기대와 관련이 있지만 기와의 제작기법, 문양, 동반된 유물로 볼 때 9세기대에 제작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마로산성이 9세기대에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이유는 ‘마로관’명 기와가 등장한 배경과 궤를 같이 한다. 이와 관련하여 ‘마로관’명 기와처럼 ‘古지명+官’명 이 시문된 기와가 여러 산성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3. 마로산성을 통해 본 9세기대 지방 거점성 운영

가. ‘古지명’기와가 출토된 주요 산성유적

‘古지명’이나 ‘古지명+官’銘이 시문된 기와는 현재까지 산성, 寺址, 생활유적 등 다양한 유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중에서 출토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산성인데, 그 출토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인되며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래서 본 절에서는 ‘古지명’이나 ‘古지명+官’명이 시문된 기와가 출토된 산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²²⁾

1) 홍성 석성산성²³⁾

홍성 석성산성은 충남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산 28-1번지 일대에 위치한 석축산성이다. 발굴조사는 2차례 이루어졌고, 내부에서 건물지 1개소가 확인되었다. 명문와는 건물지에서 출토되었는데, ‘사시랑(沙尸良)’, ‘사라와초(沙羅瓦草)’, ‘공사랑관(工沙良官)’등의 3종이 확인되었고, 분할기법은 한측면은 내측에서 다른 측면은 외측에서 자른 후 부러뜨린 기법이 사용되었다. 석성산성의 보고자는 건물지의 축조 시기를 토기로 볼 때 9세기 무렵으로 보았으나 ‘사라와초’명 기와에 시문된 서체가 북위풍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기와의 제작시기를 백제 말기로 보고 있다.

22) 이 절과 관련된 그림은 <그림 12>인데, 보고서에 원형급 명문기와의 수록되지 않았거나, 실측도면이 누락되어 있어 수키와의 중요 속성인 와도질 방향은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유물 설명과 사진을 참조하여 선별·기술하였다.

23) 상명대학교박물관, 1998, 『홍성 석성산성-건물지발굴조사보고서-』.

〈표 5〉 홍성 석성산성 출토 ‘沙尸良’銘 기와 속성

번호	명 문	크기(cm)	특 징	비고
1	沙尸良	길이:34 두께:2.2	외면에 ‘사시량’ 명이 종서로 20×5cm 범위 내에 양각으로 시문됨. 내면에는 포목흔. 분할면은 내-외, 외-내 방향으로 1/3정도 자른 후 부러뜨림.	그림 12

〈그림 12〉 홍성 석성산성 출토 명문와



하지만 같은 건물지에서 호형토기나 삼족기 같은 특징적인 백제 토기가 출토되지 않은 점과 명문와의 타날판 길이, 하단내면 조정 방법 등으로 볼 때 명문와의 제작 시기는 9세기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²⁴⁾ 홍성군은 백제시대에 결기군이었고 속현으로 신촌현과 사시량현이 편제되어 있었다. 사시량현은 통일신라시대 경덕왕대에 신량현으로 개명된다.

24) 이인숙, 앞의 논문, 2004, 68쪽.

2) 예산 봉수산성²⁵⁾

봉수산성은 충남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산 8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아직까지 정식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표조사만 이루어진 상태이다. 봉수산성은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이었던 주류성과 함께 활약했던 임존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지표조사를 통해 수습된 기와의 명문은 ‘임존(任存)’, …존관(存官)’ 등인데 ‘임존관(任存官)’으로 보고 있다.

〈표 6〉 예산 봉수산성 출토 ‘任存’ 銘 기와 속성

번호	명 문	크기(cm)	특 징	비고
1	任存	길이:5.4 두께:1.5	외면에 ‘임존’ 명이 시문됨. 글자크기 2.5×2cm. 내면에 포흔. 한측면에 분할면 내-외 1/2자른 후 부러뜨림.	그림 13
2	…存官	길이:14.7 두께:1.8	외면에 ‘존관’ 명이 시문됨. 글자크기 4×4cm. 내면에 포흔. 한측면에 분할면 내-외 1/2자른 후 부러뜨림.	그림 13

〈그림 13〉 예산 봉수산성 출토 명문와



25) 이남석, 「禮山 鳳首山城任存城의 現況과 特徵」, 『백제문화』 28, 1999,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충남개발연구원, 『예산 임존성 -문화유적 정밀지표조사-』, 2000.

임존관은 봉수산성이 임존성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보고 있는데, 명문이 새겨진 외편은 문양이나 제작기법으로 볼 때 삼국시대로 소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군 대흥면은 백제때 임존성으로 불리다 통일신라시대 경덕왕대에 임성군으로 개명되었다.

3) 서천 남산성²⁶⁾

서천 남산성은 충남 서천군 서천읍 남산리 산 22-1번지 일대의 남산 정상부에 테포식으로 축조된 석성이다. 발굴조사는 문지와 성벽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성내부의 트렌치 조사를 통해 총 3개의 와적층이 조사되었는데, 명문와는 2와적층에서부터 3와적층에 걸쳐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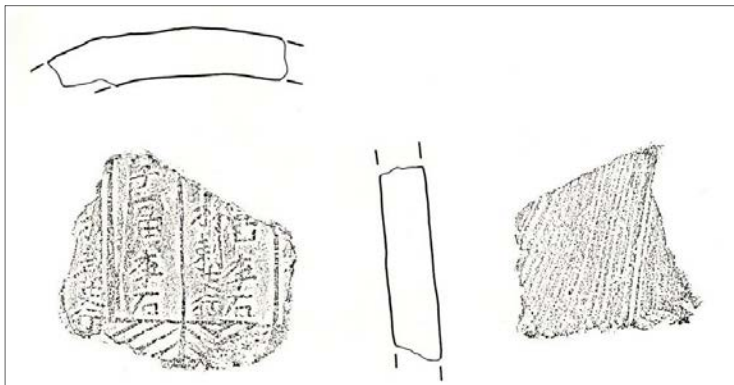
명문은 ‘서림군관와작(西林郡官瓦作)’, ‘서림군관와초(西林郡官瓦草)’, ‘○국사설림자사행(○國巳舌林刺史行)’ 등의 3종이 확인되었고, 분할기법은 한측면은 내측에서 다른 측면은 외측에서 자른 후 부러뜨린 기법이 사용되었다. 명문이 출토된 2와적층은 중심시기를 나말여초기로 보고 있는데, 서천읍의 통일신라시대 지명인 서림과 백제시대 지명인 설림이 같이 확인되고 있다. 서천읍은 백제시대에 설림군으로 있다가 통일신라시대 경덕왕대에 서림으로 개명되었다.

〈표 7〉 서천 남산성 출토 ‘國巳舌林刺史行’ 銘 기와 속성

번호	명 문	크기(cm)	특 징	비고
1	…國巳舌林刺史行	두께:2.5	종방향의 곽 내부에 ‘…국사설림자사행’ 명이 시문됨. 내면 포흔.	그림 14

26) 류기정 외, 『서천 남산성 -서문지 1·2차 발굴조사』, 2006, (재)충청문화재연구원.

〈그림 14〉 서천 남산성 출토 명문와



4) 인천 계양산성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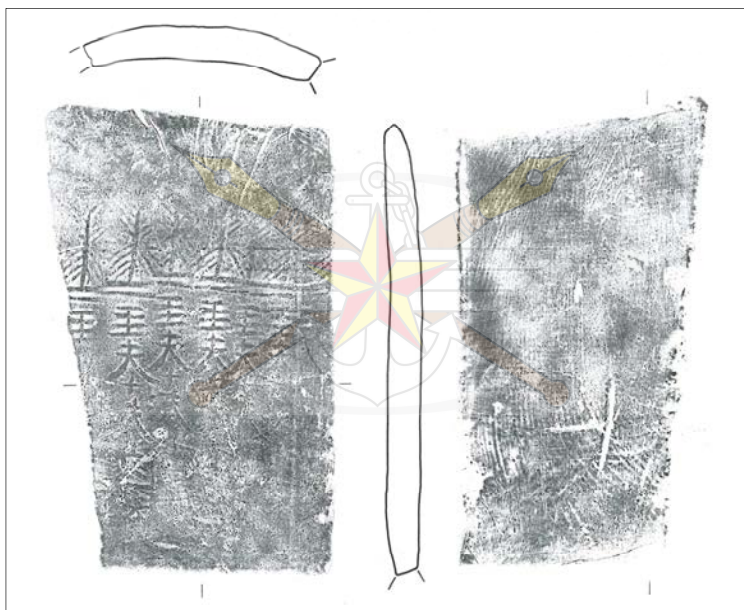
계양산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는 세 차례 이루어졌는데, 성벽과 집수정이 조사되었다. 명문와는 동벽과 집수정 상층에서 출토되었는데, 명문은 ‘주부십(主夫十)’명이 확인되었다. 계양은 삼국시대에 ‘주부토군(主夫吐郡)’이었는데 보고자는 ‘주부십’이 ‘주부토’일 것으로 보고 있다. 명문이 출토된 유구는 대체로 삼국시대로 보고 있으나 집수정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서 줄무늬병이나 명문와에 타날된 문양이 수지문임을 감안하면 산성의 하한이 9세기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계양은 고구려와 백제때 주부토군이었고, 통일신라 경덕왕대에 장제군으로 개명되었다.

27) 이정구, 『계양산성』, 2008,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표 8〉 인천 계양산성 출토 ‘主夫十夫〇大’ 銘 기와 속성

번호	명 문	크기(cm)	특 징	비고
1	主夫十夫〇大	길이:36.1 두께:2.7	외면상단부 수지문타날. ‘주부십부〇대’ 명이 시문됨. 내면 사절흔과 포흔. 분할 면은 내·외 절단 후 부러뜨림	그림 15

〈그림 15〉 인천 계양산성 출토 명문와



5) 서울 호암산성²⁸⁾

호암산성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83-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발굴조사는 두 차례 이루어졌고, 한우물과 제2우물지, 건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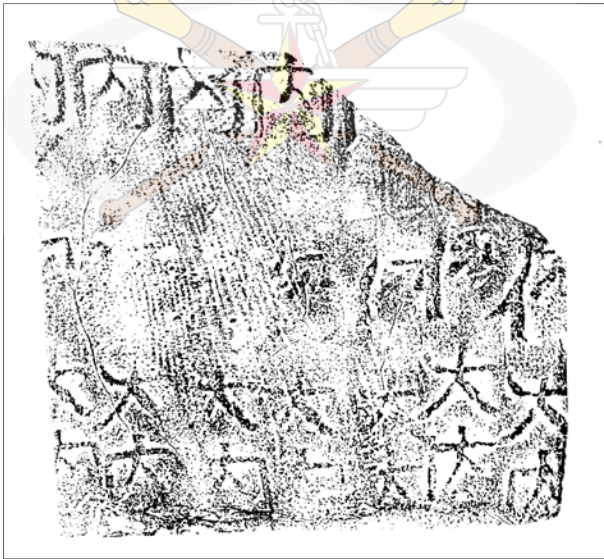
28) 임효재·최종택, 『한우물-호암산성 및 연지발굴조사보고서-』, 1990, 서울대학교박물관.

등이 확인되었다. 명문와는 건물지에서 출토되었는데 종류는 ‘잉대내(仍大內)’, ‘잉대내관(仍大內官)’, ‘春○’, ‘支○’ 등이다. ‘잉대내’명은 고구려때 금천의 지명인 ‘잉벌노(仍伐奴)’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표 9〉 서울 호암산성 출토 ‘仍大內’ 銘 기와 속성

번호	명 문	크기(cm)	특 징	비고
1	仍大內	알수없음	외면상단부 수지문타날. ‘주부십부○대’ 명이 시문됨. 내면 사절흔과 포흔. 분할면은 내-외 절단 후 부러뜨림	그림 16

〈그림 16〉 서울 호암산성 출토 명문와



명문이 출토된 건물지의 시기에 대하여 보고자는 잉벌노현이 8세기 중엽에 곡양현으로 개명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한을 8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으나 동반 출토된 기와에서 나타나는 어골문과 수

지문 볼 때 하한이 9세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천은 고구려때 잉벌노현으로 있다가 통일신라시대 경덕왕대에 곡양현으로 개명되었다.

나. 9세기대 지방 거점성 운영과 마로산성

‘官’자명 기와는 기존 연구에 의하면 ‘관청 건물이나, 관영의 창고, 관에서 제작한 관급와(官給瓦), 대관사(大官寺) 같은 사찰의 이름, 해당 지역의 지방 이름과 ‘관’자가 결합된 것, 지방호족의 거관(居館)을 표시한 것 등으로 분류된다고 알려져 있다.²⁹⁾ 앞 절에서 검토한 각 지역 산성에서 출토된 ‘古지명+官’명 기와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되는데, 이 기와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이 확인된다. 첫째, 기와의 제작 시기는 대체로 9세기~10세기 전엽이다. 둘째, 기와의 출토 범위는 호남, 충남, 서울 경기 지역 등 삼국 통일 이전 고구려와 백제 지역이다. 셋째, 기와에 시문된 지명은 통일신라 경덕왕대 지명이 개칭되기 이전의 고호(古號)이며, 출토된 산성들은 대체로 그 지역의 치소로 비정되고 있다.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마로관’명 기와 역시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 기와의 제작 주체나 등장 배경이 유사함을 짐작케 한다.

‘古지명+관’명 기와가 가지는 의미를 단순히 보면 각 지역에서 중앙정부에 의해 행정적 지명이 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역의 전통적 문화를 잇고, 지역적 특색을 강조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옛 지명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29) 차순철, 「‘官’子銘 銘文瓦의 使用處 檢討」, 『경주문화연구』5, 2002, 경주대학교 문화재연구소, 128-129쪽.

김창호, 「신라 기와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 『강좌미술사』 15, 2000, 한국불교미술사학회.

_____, 「後三國時代의 기와에 나타난 麗·濟의 지명」, 『金潤坤教授定年紀念論叢』, 『韓國中世史會의 諸問題』, 2001, 韓國中世史學會.

이들 기와의 제작 시기가 9세기대인 점을 감안하면 개명 시점 직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개명된 이후의 지명이 시문된 동시기의 기와는 거의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³⁰⁾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홍성 석성산성, 서천 남산성, 서울 호암산성, 예산 봉수산성, 인천 계양산성 이외에도 대전 계족산성 2건물지에서는 ‘우술(雨述)’명(백제→우술)기와, 파주 오두산성에서 ‘천(泉)’명(고구려→泉井口縣), 익산 저토성에서 ‘금마저성(金馬渚城)’(백제→금마저)기와, 나주 자미산성에서 ‘반내부(半乃夫)(백제→반나부리) 기와등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산성유적은 아니지만 군산 임피군에서 조사된 금강(Ⅱ)지구 옥구2-1공구內 안흥(Ⅱ)유적 건물지에서 ‘시산관초(屎山官草)’명(백제→시산현)기와 등이 출토된 예가 있다.

이들 명문와에 시문된 지명은 각 지역의 고구려와 백제시대 지명에 해당되지만 기와의 출토층위, 동반유물 등은 대부분 9~10세기 전엽에 해당되고 있어 지명의 사용시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명문와들이 어떠한 이유로 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다. 다만 기와의 절단면이 통일신라시대 후반에 한시적으로 사용된 한 측면은 내측에서 외측으로 다른 측면은 외측에서 내측으로 자른 기법이 사용되고, 동반된 유물에 있어서도 대부분 이 시기의 것들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9~10세기 전엽에 제작된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출토지가 전국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단순히 관습적인 면에서 옛 지명을 사용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여기에는 토착 세력이나 지방민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들의 정체성을 내세우려는 의미도 분명히 포함되었을 것이다.

30) 필자가 확인한 유적 중에서는 서천 남산성에서 유일하게 백제(설립)와 통일신라(서립) 개칭된 지명 명문이 확인되었다.

즉, 통일신라 말기 각 지역에서 활동한 지방호족이 대규모 건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을 행한 주체를 밝힘과 동시에 지역민들에게 타 지역과의 차별의식을 심기 위해 그 지역의 지명을 기와에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³¹⁾ 이 가능성은 마로산성에서 보이는 9세기대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로산성은 다섯 차례의 발굴 조사를 통해 산성 전반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9세기대 산성의 개편에 관한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9세기대 마로산성의 운영 세력은 다수의 건물지 및 대형 집수시설을 축조하였고, 전단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방어 수단인 치를 축조하여 산성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적의 개념이 희미해지는 9세기대에 지방의 산성을 보다 견고히 재정비하였다는 것은 그 주체가 중앙 정부가 아닌 이 지역의 독자 세력에 의해 추진되었음을 의미한다.

‘마로관’명 기와는 이 과정에서 마로산성을 점유하고 있던 세력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한 양상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신라시대 말기는 8세기 후반부터 가속화된 골품 귀족의 정권 쟁탈로 왕권이 약화되고, 왕위 쟁탈에서 밀려난 귀족세력은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 대표적인 사건은 822년에 일어난 ‘김헌창의 난’을 들 수 있다. 관련된 사료를 살펴보자

3월, 熊川州 都督 金憲昌은 그의 父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반역하여 國號를 長安이라 하고, 年號를 慶雲 元年이라 하고, 武珍(광주)·完山(전주)·菁州(진주)·沙伐(상주)의 四州 都督과 國原京(충주)·西原京(청주)·

31) 차순철, 앞의 논문, 2002, 127쪽.

金官京(김해)의 仕臣과 여러 郡縣의 守令을 협박하여 자기의 소속으로 삼을 때, 靑州 都督 向榮은 몸을 빼어, 推火郡(밀양)으로 달아났다.(『三國史記』 10 憲德王 14년)

이 기록은 단편적이긴 하나 여러 측면에서 당시의 시대상을 짐작케 한다. 원문의 내용에는 김헌창이 광주, 전주, 진주, 상주, 충주, 청주, 김해 등의 여러 사신과 수령을 위협하여 자신에게 협력하도록 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김헌창에게 협력한 곳을 보면 남한 중남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범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넓은 지역의 모든 수령들이 김헌창의 협박에 못 이겨 반란에 동조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³²⁾

반란에 동조한 수령 들은 이미 지방 호족화 되어 각지에서 세력을 확대하며 기회를 엿보다 김헌창이 주도하여 난을 일으키자 거기에 동조하여 반란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반란에 참여한 지역의 범위가 중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점으로 볼 때 9세기 전엽에는 중앙 정부의 지방 지배력이 매우 약화되었고, 지방 호족세력들의 영역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로산성을 점유하고 있던 세력도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속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해갔을 것이고, 그 근거지 중의 하나로 마로산성을 활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김헌창의 난 이후 지방 세력의 할거적 경향이 크게 촉진되었다는 점³³⁾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막새와 동경, 청동장식구 등은 산성의 점유 세력이 지방 호족 세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막새는 동시기 다른 지역에서 출토되는 막새류

32) 김상돈, 「新羅末・高麗初 政治秩序의 再編研究」, 2007, 서강대학교석사학위논문, 30-31쪽.

33) 이기동,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과 정치과정」,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1984, 일조각, 154쪽.

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는 당시 유행했던 요소를 간직하고 있으나 문양의 조합이나 제작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특히 파문과 당초문의 조합상, 백제 한성기 이후 출토된 적이 없는 원문과 능형문이 확인되는 점은 이러한 막새의 제작 집단이 중앙이 아닌 이 지역의 토착세력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고대 기와의 경우 국가적 조영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어 대체로 정형화된 양식을 보이는데³⁴⁾, 마로산성 출토 막새들은 정형성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산성의 운영 세력이 독자적으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청동장식구는 익산 미륵사지와 경주 황룡사에서 출토된 예가 있는데, 기존의 출토지에서는 소수로 확인된 반면 마로산성에서는 4유형의 37점이 출토되어 조합 양상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물론 마로산성 출토품이 교역을 통해서 들어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기존의 출토유적이나 그 수량이 소수에 불과한 반면 마로산성에서는 다량으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교역을 통한 일괄 수입품으로 추정된다. 특히 해수포도방경과 자기류는 중국에서 제작되어 수입된 것이 분명하고, '왕가조경'명 동경 역시 해외로 수출되던 품목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당시 이 지역에 당과 왜와의 교역을 주도했던 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교역품들이 마로산성에서 출토되는 것은 마로산성의 운영집단이 교역의 주체세력과 무관하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다. 그리고 동경이나 청동장식구 같은 품목들이 당시 중앙인 경주는 물론 타지역에서 출토되지 않은 점은 이러한 대외교역의 주체가 중앙인 경주가 아니라 이 지역의 호족세력임을 알 수 있게 한다.³⁵⁾

이상으로 볼 때 9세기대 마로산성 점유 세력의 지역 거점성 운영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34) 백중오,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 2006, 주류성, 17쪽.

35) 최권호, 앞의 논문, 2012, 575쪽.

9세기대 마로산성 운영 세력은 중앙귀족의 권력투쟁으로 인한 지방 지배의 약화를 틈타 세력을 확장하였고 건물지, 집수시설 등을 축조하여 산성을 재편하였고, 성벽 방어시설인 치 조성을 통해 방어를 견고히 하였다. 그리고 당이나 왜와의 대외 교역을 주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영속과 부를 위한 영역 확대에 많은 투자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영역 확장에는 반드시 명분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지방호족세력들이 세력을 결합하는 방법과 명분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이나 후백제, 후고구려의 국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을 거론할 수 있다.³⁶⁾ 9세기대 마로산성 운영 세력 역시 이와 유사한 전략을 채택하였고, ‘마로관’명 기와는 그 결과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마로관’명 기와는 당시 지역 거점성인 마로산성 운용했던 세력이 명분 확보와 자신들의 영역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국제의식(國系意識)³⁷⁾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9세기대 전국적인 범위에서 ‘고지명+관’명 기와가 등장하는 배경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판단된다.

36) 김상돈, 앞의 논문, 2007, 27쪽.

37)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의식(國系意識)은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 후 백제와 고구려인들에게 강렬하게 나타난 歸巢的自國民意識을 말하는 것이다.(국제의식에 대한 개념은 최근영(「高麗建國理念의 國系的性格」, 2007, 『한국사론』 1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21쪽.)의 견해를 인용하였다.

4. 맺음말

9세기대는 통일신라 말기로 중앙 귀족의 권력 쟁탈에 따른 왕권 약화로 인해 지방에 대한 지배구조가 약화된 시기였다. 지방 호족들은 이를 틈타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궁예, 왕건, 견훤 등의 맹주가 등장하여 후삼국이 형성된다. 본고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9세기대 마로산성에서 확인되는 유구와 유물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당시 마로산성 운영 세력의 성격을 정리하였다.

먼저 9세기대에 축조된 건물지, 집수시설, 치 등의 유구 검토를 통해 내부에 상주하는 군인의 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산성에 오르기 가장 유리한 북쪽과 동문지 주변에 치를 축조한 것은 방어적 측면을 강화한 것으로 보았다.

유물은 ‘마로관’명 기와, 막새, 청동제품, 중국제 자기류 등을 검토하였다. 그 중에서 ‘마로관’명 기와는 광양의 백제때 지명인 ‘마로’가 시문되어 있어 주목하였다. ‘마로관’명 기와는 검토 결과 제작 시기가 9세기대 임이 분명해졌고, 타 지역 산성에서 출토된 유사한 명문와에 대한 검토를 통해 9~10세기 전엽에 이러한 기와가 고려와 백제의 고토에서 집중적으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필자는 9세기대에 제작되는 이런 명문와들은 중앙 귀족의 정권 쟁탈에 따른 지방지배의 약화로 당시 지역에서 활동했던 호족세력들이 독자적으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막새는 독특한 문양이 시문되어 있는데, 타지역에서는 출토 사례가 거의 없어 상호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최근 전북지역의 산성들에서도 독특한 문양의 막새들이 확인되고 있어 향후 보다 자세한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동거울, 청동장식구, 중국제 자기류 등은 국제 교역의 증거물이다. 특히 해수포도방경과 자기류는 중국에서 제작되어 수입된 것이 분명하고, ‘왕가조경’명 동경 역시 해외로 수출되던 품목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당시 이 지역에 당과 왜와의 교역을 주도했던 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교역품들이 마로산성에서 출토되는 것은 마로산성의 운영집단이 교역의 주체세력과 무관하지 않음을 방증하고 있다. 그리고 동경이나 청동장식구 같은 품목들이 당시 중앙인 경주는 물론 타지역에서 출토되지 않은 점은 이러한 대외교역의 주체가 중앙인 경주가 아니라 이 지역의 호족세력임을 알 수 있게 한다.

9세기대 마로산성은 지역 거점으로서 지방 호족세력이 중앙 정부의 지배를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되었고, 그들의 국제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마로관’명 기와를 제작하였다. 마로산성을 점유하고 있던 세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9세기 말 후백제를 건국했던 견훤의 사위로 알려진 박영규가 인근지역인 순천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점으로 보면 박영규 세력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孔祥星·劉一曼, 安京淑 譯, 『中國古代銅鏡』, 2003, 주류성.

<http://uci.or.kr//G701:B-00092853793@N2M>

奈良文化財研究所飛鳥資料館, 2002, 『含水居藏鏡図録』, (有)関西プロ
セス.

백종오,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 2006, 주류성.

<http://uci.or.kr//G701:B-00091429302@N2M>

최맹식, 『백제 평기와 신연구』, 1999, 학연문화사.

<http://uci.or.kr//G901:A-0008444186@N2M>

최맹식, 『삼국시대 평기와 연구』, 2005, 주류성.

<http://uci.or.kr//G701:B-00091448085@N2M>

2. 연구논문

강진주, 「漢江流域 新羅土器에 대한 考察」, 2006,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http://uci.or.kr//G901:A-0005300421@N2M>

김상돈, 『新羅末、高麗初 政治秩序의 再編研究』, 2007, 서강대학교석
사학위논문,

<http://uci.or.kr//G701:B-00099026202@N2M>

김창호, 「신라 기와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 『강좌미술사』 15,
2000.

<http://uci.or.kr//G901:A-0001889853@N2M>

_____, 「後三國時代の 기와에 나타난 麗·濟의 지명」, 『韓國中世史會
의 諸問題』, 2001.

서정석, 「산성에서 발견된 석벽건물(石壁建物)의 성격에 대한 시고」, 『백제문화』 42, 2010.

<http://uci.or.kr//I410-ECN-0102-2012-910-000865189@N2M>

성정용 · 권도희 · 諫早直人, 「고락산성과 마로산성 출토 마구에 대하여」, 『호남고고학보』 27, 2007.

<http://uci.or.kr//G704-000669.2007.27..005@N2M>

윤용이, 「광양 마로산성 출토 자기의 검토」, 『한국성곽학보』 제10집, 2006.

<http://uci.or.kr//G901:A-0002412648@N2M>

이기동,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과 정치과정」, 『신라골품제사회와 화랑도』, 1984.

<http://uci.or.kr//G901:A-0000444203@N2M>

이남석, 「禮山 鳳首山城(任存城)의 現況과 特徵」, 『백제문화』 28, 1999.

<http://uci.or.kr//G701:A-00053876744@N2M>

이도학, 「新羅末 甄萱의 勢力 形成과 交易 張保臯 이후 50년」, 『신라문화』 28, 2006.

<http://uci.or.kr//G704-001251.2006..28.004@N2M>

이동희, 「전남지역의 후백제유적과 역사적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87, 2015.

<http://uci.or.kr//G704-000730.2015.87.87.004@N2M>

이인숙, 「통일신라~조선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2004, 경북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http://uci.or.kr//G901:A-0005184866@N2M>

이인숙 · 최태선, 「평기와 용어 검토」, 『한국고고학보』 80, 2011.

<http://uci.or.kr//G704-000699.2011..80.002@N2M>

차순철, 「“官”子銘 銘文瓦의 使用處 檢討」, 『경주문화연구』 5, 2002.

<http://uci.or.kr//G901:A-0001757555@N2M>

최권호, 「광양 마로산성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2010,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uci.or.kr//G901:A-0005518492@N2M>

최권호, 「광양 마로산성 출토 ‘馬老官’銘 기와에 대한 일고찰」, 『백제와 주변세계』, 2012.

<http://uci.or.kr//G901:A-0006415372@N2M>

최근영, “高麗建國理念의 國系的性格”, 『한국사론』 18, 2007

최인선, 「광양 마로산성 출토 막새기와에 대한 고찰」, 『문화사학』 33, 2010.

<http://uci.or.kr//G704-000879.2010..33.003@N2M>

3. 발굴보고서

군산대학교박물관, 「장수 함미산성 2차 발굴조사 자문위원회 자료」, 2016.

군산대학교박물관, 「임실 월평리산성 시굴조사 약보고서」, 2015.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미륵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 Ⅱ』, 1996.

김시환 외, 『昌寧 火旺山城內 蓮池』, 경남문화재연구원, 2009.

김종문 외, 『정읍 고부 舊읍성』 I, 전북문화재연구원, 2007.

김창억·이인숙, 「경주 황오동 326-1번지 건물지 유적」, 『박물관연보』, 창간호, 경북대학교박물관, 2004.

류기정 외, 『서천 남산성 -서문지 1·2차 발굴조사』, (재)충청문화재연구원, 2006.

문화재관리국, 『황룡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 1984.

부여문화재연구소, 『扶蘇山城 -發掘調査 中間報告-』, 1995.

상명대학교박물관, 『홍성 석성산성-건물지발굴조사보고서-』, 1998.

서영일 외, 『파주오두산성 정밀지표조사보고서』, 한백문화재연구원, 2008.

심봉근, 『河東姑蘇城址試掘調査報告書』, 동아대학교박물관, 2000.

이강승·이희준, 『경주 황성동 석실분』, 국립경주박물관, 1993.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靈岩 鳩林里 土器窯址發掘調査 -1次發掘調査 中間報告-』, 1988.

- 이정구, 『계양산성』,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2008.
- 임효재 · 최종택, 『한우물-호암산성 및 연지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박물관, 1990.
- 전북문화재연구원, 「금강(Ⅱ)지구 옥구 2-1공구내 발굴조사약보고」, 2008.
- 전북문화재연구원, 『전주 동고산성』, 2009.
- 전북문화재연구원, 『전주 동고산성』, 2011.
- 전북문화재연구원, 『정읍 고사부리성-종합보고서(1~5차발굴조사)』, 2013.
- 전북문화재연구원, 『정읍 고사부리성-남서성벽』, 2016.
- 전북문화재연구원, 『익산 미륵산성』, 2017.
- 최인선 외, 『광양 마로산성』Ⅰ, 순천대학교박물관, 2005.
- _____, 『광양 마로산성』Ⅱ, 순천대학교박물관, 2009.
- _____, 『광양 마로산성』Ⅲ, 순천대학교박물관, 2011.
- _____, 『광양 마로산성』Ⅳ, 순천대학교박물관, 2012.
- _____, 『광양 마로산성』Ⅴ, 순천대학교박물관, 2012.
- 충남개발연구원, 『예산 임존성 -문화유적 정밀지표조사-』, 2000.
- 충남대학교박물관, 『성주사』, 1998.
- 충남대학교박물관, 『대전계족산성발굴조사약보고』, 1998.

(Abstract)

The Operation of Regional Strongholds in the 9th Century during the Three Kingdom Period of Korean Peninsular - A Case of Maro Mountain Fortress located in Gwangyang -

Choi, Kwon-ho

Maro Mountain Fortress (Maro Sanseong, 馬老山城), a stone-stacked mountain stronghold built in the Baekje period, has revealed its full appearance through five excavation surveys so far. These surveys have identified artifacts and features from the 9th century, among which the “Marogwan” (馬老官, the office of Maro) roof tiles engraved with “Maro” 馬老, the old name of Gwangyang during the Baekje period, received the attention. The “Marogwan” tiles are intriguing in that their estimated production period (the 9th century) and the period when the place name “Maro” was used are different. Moreover, uniquely patterned eave-edge tiles, Chinese bronze mirrors, porcelains, bronze ornaments, and a bronze mirror engraved with “Wanga Jogyeong” (王家造鏡, a mirror made in the Wang family) were excavated from the 9th-century ruins of building and water collection facilities. The unprecedented combination of artifacts, which has never been found in any other excavation case, reveals the unique character of the forces that operated Maro Mountain Fortress. The 9th century witnessed the expansion of the territories of powerful local warlords as the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over the provinces weakened due to the power struggle between the central nobility. Given this historical background, the excavation of the tiles inscribed with ancient place names, such as “Maro”, in the strategic fortresses of Goguryeo and Baekje’s old territories strongly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the producers of the tiles were powerful local warlords.

In conclusion, the forces behind Maro Mountain Fortress in the 9th century

were independent powerful local families. The “Marogwan” engraved roof tiles, as a concrete expression of their awareness of the national lineage, were produced to secure legitimacy and dominance over the territory in terms of the strategic aspect of operating the regional strongholds.

Keywords : Gwangyang, Maro Mountain Fortress (Maro sanseong),
“Marogwan” engraved roof tiles, regional stronghold,
awareness of the national lineag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4, pp.215-262
<https://doi.org/10.29212/mh.2022..124.21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북한의 ‘독자적’ 군사 사상의 역사적 기원과 변화

김태현 |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군사전략학과 교수

목 차

1. 서론
2. 항일유격대 집단과 소련군의 모방
3. 독자적 군사 사상의 형성
4. ‘전군 친위대화’의 논리로 굴절
5. 결론

초 록 본 논문은 ‘주체 군사 사상’으로 불리는 북한의 ‘독자적’ 군사 사상의 역사적 기원과 변화 과정을 ‘자주의 모색과 이념의 굴절’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북한이 소련군의 기계적 모방에서 탈피하여 독자적 군사 사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수령중심의 정권 안보 논리와 공세적 모험주의의 성향을 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군사 사상은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 특색에 맞도록 창조적으로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자주’와 ‘독자성’을 화두로 한 ‘실천적 군사지침’

으로서 배태하였다. 하지만, 북한 군사 사상은 1960년대 후반 김일성의 유일 지배체제 구축과 맞물리면서 ‘자위 사상’이라는 ‘실천적 지침’의 성격에서 벗어나 김일성 유일 지배를 강화하는 ‘정치 전략적 지침’으로 굴절되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냉전기 소련과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과 의존성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자주’적 동기의 군사안보 차원의 발전전략은 김일성의 유일 지배체제와 맞물리면서 ‘군사적 천재’를 뒷받침하는 정치 논리로 굴절되었고, 이것은 또다시 김일성의 통치를 목숨으로 수호하자는 ‘수령 결사옹위’의 친위대화 논리로 변질되었다. 북한의 군사 사상이 ‘전군 친위대화’를 위한 정치 논리로 굴절되는 과정은 북한의 공세 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우상충배를 위한 ‘상징 기제’로서 군사 사상은 김일성을 군사적 천재로 둔갑시키고, ‘무오류성’의 신적 위상을 가진 수령의 군사 사상은 ‘불패의 신화’를 창조해야 하는 확고부동한 군사지침이 되었다. 김일성의 ‘군사적 천재’라는 상징 장치는 북한군이 전투에서 패전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페르소나’를 씌우게 되었으며, 이것으로 북한의 공세적 모험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주제어 : 주체적 군사 사상, 자주, 자위, 항일유격대 집단,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 전군 친위대화, 공세 주의

(원고투고일 : 2022. 7. 10, 심사수정일 : 2022. 8. 15, 게재확정일 : 2022. 8. 30.)

1. 서론

북한은 '주체사상의 나라'이다.¹⁾ 주체사상은 당과 국가 활동의 유일한 지도지침으로서 북한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모든 분야 활동은 주체사상을 떠나 생각할 수 없으며 지탱할 수도 없다. 정권 안보와 직결되는 국방과 군사 분야는 더욱 엄격한 사상적 통제를 받는다. 북한은 김일성이 창조했다는 '주체적 군사 사상'을 유일한 군사적 지도지침으로 삼고 있다. '주체적 군사 사상'은 외세의 간섭과 과도한 의존으로부터 '자주성'을 확립하자는 데서 출발하여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의 통치이념으로 승격되었던 '주체', 그리고 '전쟁과 군사력 건설, 군사 활동 등 군사문제 전반에 대한 총적 견해와 관점'으로 규정되는 '군사 사상'의 합성어이다.²⁾ 이렇게 볼 때 북한이 말하는 '주체적 군사 사상'이란 '주체사상이 국방 분야에서 표현된 것',³⁾ 다시 말해 주체사상의 영향을 받은 '전쟁과 군사력 건설, 군사력 운용에 대한 총적 견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군사 사상은 전쟁, 그리고 용병과 양병에 관련된 모든 군사문제에 대해 견지하고 있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국가의 군사 사상은 군사전략과 국방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⁴⁾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북한은 주체적 군사 사상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 『노동신문』

1) 박한식, "평화에 미치다," 『한겨레 신문』(2020. 2. 17).

2)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 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4), p. 159. 주체 군사사상의 개념에 관한 연구는 아래 논문을 참고. 유판덕, "북한의 혁명전쟁이론으로 본 북한 핵무력," 『접경지역통일연구』제2권 제1호(2018).

3) "조선노동당의 군사 노선: 조선노동당의 군사 노선의 확고부동한 기초는 김일성의 자위 사상이라는 데 대해서," 『조선 중앙 제2 방송』(1969년 5월 7일-5월 8일).

4) 박창희, 『한국의 군사 사상: 전통의 단절과 근대성의 왜곡』(서울: 플래닛미디어, 2020), p. 43.

사실에서 김정은이 ‘주체적인 군사 사상과 자위 노선’을 실현하여 국가방위력을 강화하였다고 하는가 하면,⁵⁾ 2021년 1월 20일 북한은 제8차 당 대회 결정서에서 김정은은 ‘주체적인 군사 사상’으로 북한을 ‘군사 강국’으로 변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⁶⁾ 그 이전에도 ‘주체적인 군사 사상’에 대한 언급은 적지 않았다. 2014년 7월 27일 『조선중앙통신』은 ‘조국 해방전쟁의 승리’는 ‘김일성의 주체적인 군사 사상’의 승리라고 주장하면서,⁷⁾ 김정일이 김일성의 ‘주체적인 군사 사상과 이론, 전법’을 연구 체득하여 체계화하였다는 점을 공식적으로도 밝혔다.⁸⁾ 최근에는 김정은이 핵무기와 전략무기를 고도화하면서 실질적 핵무장 국가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주체 군사 사상’을 연결하여 군사력 강화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주체 군사 사상은 주로 선전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서 구체적인 구성내용을 식별하기 어렵지만, 크게는 ‘자주’의 담론과 ‘수령중심의 전군 친위대화’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일성이 1930년대 항일유격대 활동과 1950~1953년 6·25전쟁을 토대로 하여 주체 군사 사상을 ‘창시’하였으며, 그 핵심 내용으로는 ‘자위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⁹⁾ ‘주체’의 개념이 암시하듯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소련과 중국의 외래 군사 사상을 수용하고 변용하는 과정에서 자체 역량과 의지를 중시하는 ‘자위 사상’을 토대로 북한 실정에 맞는 ‘독자적’ 군사 사상의 개발을 강조해왔다.¹⁰⁾ ‘주체’의 군사 사상은 아직 보편적 이론 수준

5)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축하문,” 『노동신문』 (2020년 10월 11일).

6)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서: 조선노동당 총비서 선거에 대하여(2021년 1월 10일),” 『조선신보』(2021년 1월 10일).

7) “주체적인 군사 사상의 빛나는 승리,” 『조선중앙통신』(2014년 7월 24일).

8) “비범한 군사적 예지,” <https://ournation-school.com/lecture> (검색일: 2021년 7월 1일).

9) 김정일, “수령님의 군사 사상은 혁명무력 건설의 유일한 지침이다.” 『김정일전집 5』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2013), p. 411.

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혁명전쟁관', '자위 사상', '주체 전법'과 같은 나름의 독자적인 이론체계를 가진 '실천적 군사지침'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수령 결사옹위'와 '군사적 천재'와 같이 수령 유일 지배체제를 지탱하는 '상징적 정치 논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주체 군사 사상이 북한의 정권 안보와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 것인지, 그리고 공세적 군사주의와는 어떤 관계성에 놓여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학문적 연구대상이었다. 주체 군사 사상이 북한의 체제수호에는 어떤 기여를 하는지, 그리고 '주체'에 내재한 '자주'와 '수령중심론' 중에서 어떤 요소가 공세성과 연계되는지 설득력 있는 해석이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 군사 사상이 본질적으로 '공세적'인 성향을 내재하고 있다는 주장은 한국 내에서는 큰 비판 없이 수용되어 왔다. 그것은 북한의 6·25 남침 이후 냉전기에 지속하여 온 군사도발과 테러, 탈냉전기의 국지도발 등 북한의 대남 군사침략 행위가 '사상'에 의해 지배되어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정책·학문공동체에서는 북한군의 '공격적 행태'와 '군사 사상' 간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여졌다.¹¹⁾

본 논문은 '주체 군사 사상'으로 불리는 북한의 '독자적' 군사 사상의 역사적 기원과 변화 과정을 '자주의 모색과 이념적 굴절'이라

10)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군사 사상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군사야영생들과 한 담화(1962년 10월 2일)," 『김정일전집 5』(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2013), p. 337.

11) 국방부,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0).;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국방정책연구』(2017).; 김기호, "김정일 최고사령관 시기 군사전략의 변화," 『국방연구』제57권(2014).; 김태환, "김일성의 군사 사상과 군사전략," 『국방논집』제8권(1989).; 이상택, "북한 군사전략의 역사적 고찰," 『군사』제11권(2019).; 허만, "북한의 군사전략에 관련 고찰: 김일성 군사 사상적 기초," 『국제정치논총』제24권(1984).; 민병천, "주체사상과 군사정책 및 전략," 『안보연구』제20호(1991).

는 관점으로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북한이 소련군의 기계적 모방에서 탈피하여 독자적 군사 사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수령중심의 정권 안보 논리와 공세적 모험주의가 배태하였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군사 사상은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 특색에 맞도록 창조적으로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자주’와 ‘독자성’을 화두로 한 ‘실천적 군사지침’으로서 태동하였다. 하지만, 북한 군사 사상은 1960년대 후반 김일성의 유일 지배체제 구축과 맞물리면서 ‘자위 사상’이라는 ‘실천적 지침’의 성격에서 벗어나 김일성 유일 지배를 강화하는 ‘정치 전략적 지침’으로 굴절되었다. 말하자면, 북한이 냉전기 소련과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과 의존성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자주’적 동기의 군사안보 차원의 발전전략은 김일성의 유일 지배체제와 맞물리면서 ‘군사적 천재’를 뒷받침하는 정치 논리로 굴절되었고, 이것은 또다시 김일성의 통치를 목숨으로 수호하자는 ‘수령 결사옹위’의 친위대화 논리로 변질되었다. 북한의 군사 사상이 ‘전군 친위대화’를 위한 정치 논리로 굴절되는 과정은 북한의 공세 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우상숭배를 위한 ‘상징 기계’로서 군사 사상은 김일성을 군사적 천재로 둔갑시키고, ‘무오류성’의 신적 위상을 가진 수령의 군사 사상은 ‘불패의 신화’를 창조해야 하는 확고부동한 군사지침이 되었다. 김일성의 ‘군사적 천재’라는 상징 장치는 북한군에는 전투에서 패전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명예’를 씌웠으며, 이러한 ‘승리의 군대’라는 페르소나(persona)는 북한군의 공세적 모험주의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¹²⁾

본 논문의 구성으로 2장에서는 북한 군사 사상의 기원으로서 항

12) 개인이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로 부터 비난받지 않기 위해 겉으로 드러내는, 자신의 본성과는 다른 태도나 성격, 사회의 규범과 관습을 내면화한 것임. 스위스 심리학자 융(Carl Jung)이 ‘가면’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persona를 처음 심리학에 소개함. <https://www.britannica.com/science/persona-psychology> (검색일: 2022. 8. 12).

일유격대 집단의 소련군 모방 과정과 한계를 분석하고, 3장에서는 북한의 독자적 군사 사상에 대한 노력을 분석한다. 소련군 모방기는 북한 정권 수립과 건군 과정으로부터 6·25전쟁까지를 분석범위로 하며, 독자 사상의 모색기는 6·25전쟁 이후부터 1970년대 초기까지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연계하여 군사 사상의 태동과 변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4장에서 다루는 이념적 굴절기는 1974년 이후 김일성의 유일 지배체제 공고화 과정과 연계하여 분석할 것이다.

2. 항일유격대 집단과 소련군 모방

가. '김일성 항일유격대 집단'의 정체성

해방 이후 북한 정권 수립과 건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일성 항일유격대 집단'의 정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집단은 1930년대 '만주' 일대에서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일본 관동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수행한 중국-한인 연합부대 중 김일성과 관련된 게릴라 세력들을 지칭한다.¹³⁾ 이들은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동북항일연군'과 같은 조선인과 중국인의 연합부대를 만들어 유격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면서 마오쩌둥의 혁명전쟁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군의 토벌과 추격으로 인해 대부분 소탕되었고, 일부가 1940년~1941년 소련 연해주로 도피하여 소련군 극동사령부 예하 경찰부대인 88여단에 흡수되었다.¹⁴⁾ 그들은 해방 전까지 소련

13) 김광운, 『북한정치사연구: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서울: 선인, 2003), p. 102.

14) 김학준, 『북한의 역사 제1권』(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p. 453.

군에 복무하면서 소련군의 제2차 세계대전 수행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으며, 해방 이후 북한 정권 수립의 주역이 되었다.

김일성 항일유격대의 군사적 정체성은 1930년대 만주 항일유격대의 ‘실패한 전투’라는 공동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훗날 북한 공식 역사기록은 1930년대 ‘항일유격대 전쟁’을 김일성의 영도하에 이룩한 ‘승리의 신화’로 가공하였지만, 실제로 그것은 승리한 전쟁도 아닐뿐더러 김일성이 주도한 전쟁도 아니었다. 그들의 집단 기억은 일본군에 쫓기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고난의 행군’을 함께 했다는 데 방점이 있다.¹⁵⁾ 그들에게 그 전쟁은 이기기 위한 전쟁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1930년대 김일성이 속했던 동북항일연군은 최고 지휘관이 사살되는 등 일본군 토벌로 인해 완전히 분해되었지만, 김일성 유격대는 겨우 죽음을 피해 도주할 수 있었다. 북한 역사에서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1938년 12월부터 1939년 3월 말까지 약 100일간 ‘겨울의 생사 갈림길’은 그들이 강자와 어떻게 싸워야 하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각인시킨 ‘생존 투쟁의 교과서’가 되었다.¹⁶⁾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만주 빨치산의 대서사시의 본질은 초강대국인 일본과의 절대전쟁(absolute war)에서 소멸하지 않고 생존했다는 데 있다.¹⁷⁾ 그 비결은 결전 회피와 도주, 기다림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 항일유격대는 ‘실용적 생존주의’와 ‘지구전(protracted war)’의 유전자를 공유하였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고도의 계산적 판단과 행동을 해야 했으며, ‘생존’을 위해서라면 수

15) 김학준, 앞의 책, pp. 467-468.

16) 김일성동지락전편찬위원회, 『김일성동지락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p. 238-239.

17) Carl v. Clausewitz, *On War*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실용적 판단을 최우선 가치로 여겼다. 김일성 항일유격대는 강자와 싸우기 위해 불리한 상황에서는 결전을 회피하고 도주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역량보존 이후에 결정적 기회를 탐색할 줄 아는 '현실적' 정세판단을 하는 집단이었다. 그들은 난관 속에서도 승리의 희망을 잃지 않는 '군사적 낙관주의'를 강조하면서, 선부른 판단으로 신중하지 못한 공세적 행동 때문에 자멸할 수 있는 '군사적 모험주의'를 경계하라고 경고하였다.¹⁸⁾ 그들은 힘센 상대를 만나서 '도망'갈 줄 아는 현실적인 역량계산에 능숙했다. 그리고 치고 빠지면서 상대를 괴롭히고, 지치게 만들어서 상대를 소진시키는 '지구전'에 익숙했다.¹⁹⁾ 상대의 역량이 결집되고 집중되어 자신이 사지로 몰리게 되면 사력을 다해서 도주하였으며, 추격하는 적보다 더 끈질기게 살아남으려는 생존의 의지를 보였다. 출구가 완전히 막히게 되자 그들은 '소련으로의 도피'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했다.

한편, 해방 이후 군 건설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공동의 기억과 경험은 1940년대 초반 연해주에서의 소련군 복무 경험이었다. 1930년대 만주 경험이 일본군이라는 '강자'를 상대로 한 '약자'의 게릴라전 학습장이었다면, 1940년대 연해주 경험은 독일군과 일본군을 차례대로 패퇴시킨 세계최강의 '소련군'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전쟁 학교'나 다름없었다. 첫 번째 '게릴라 투쟁'은 항일유격대의 붕괴로 막을 내렸지만, 소련군의 승리는 김일성에게 전율을 느끼게 한 승자의 역사였다. 1930년대 게릴라전의 실패와 좌절 → 고난의 행군 → 도주와 생존이라는 '유격전의 반면교사', 그리고

18) 조선노동당출판사, 『세기와의불어(계승본) 8: 김일성 동지회고록』(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19) Mao Tse-tung, "On Protracted War (May 1938)," in : 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https://www.marxists.org/reference/archive/mao/selected-works/volume-2/mswv2_09.htm (검색일: 2022년 3월 3일).

1940년대 소련군 복무 → 소련군의 2차 세계대전 승리라는 ‘정규전의 교본’을 받아든 김일성으로서는 후자에 대한 편향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초강대국 소련의 ‘위대한 전쟁’은 ‘초강대국의 괴력’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김일성이 간접적으로 체험한 ‘소련군’의 전쟁전략은 김일성에게 현대 정규군의 교본이 되었다.

이 두 개의 상반된 전쟁의 기억은 해방 직후 북한이 소련군을 일방적으로 복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게릴라전 경험 위주의 소부대 지휘경험을 가진 항일유격대 집단은 정규군 건설과 지휘경험이 없었다. 중공군의 지도하에 게릴라전만을 수행했던 그들에게 현대식 정규군의 조직, 운영, 작전, 전술은 완전히 ‘새로운 전쟁’의 영역이었다. 1958년 2월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창건 10주년 기념식에서 “전쟁 전에는 우리 군관들 속에 싸움을 해본 동무들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있었다면 유격투쟁 당시 일본 군대와 싸운 경험을 가진 간부들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일본 군대와 싸운 빨찌산의 전투 경험과 현대적인 큰 전쟁을 한 경험을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전쟁 전 평화적 건설 시기에 우리 군대는 전투 훈련이나 해보았을 뿐 실지 전투를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는 대포알이 어떻게 터지고 총알이 어떻게 나간다는 것을 실지 전투에서 경험하지 못한 군인들이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라고 회상한 것으로 볼 때,²⁰⁾ 북한군 창군의 원형은 소련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정규군 창설 : 소련군의 추종과 기계적 모방

북한의 ‘국가건설’(nation building)을 동행하는 핵심 행위자는

20) 김일성,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조선인민군 창건 10주년 기념식에서 조선인민군 제324군 부대 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 1958년 2월 8일),” 『김일성전집5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3), pp. 308-349.

‘군대’였다. 1945년 해방 이후 소련군이 점령한 북한 지역에서 공산주의자 권력투쟁에서 김일성이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군권 장악이었다. 국내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김일성이 자신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무력화할 수 있었던 것은 소련군의 지지 이외에도 실질적인 군권을 선점했기에 가능했다. 김일성은 1930년대 만주 항일투쟁 시기 마오쩌둥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가르침’을 1945년 이후 한반도의 ‘정치 대혼란’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었다.²¹⁾ 대혼란과 대격변의 시대에서 권력은 ‘선거 놀음’이 아니라 ‘무장’에서 나온다는 것을 김일성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²²⁾ 항일유격대 집단은 군사 집단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먼저 조직하고 이에 토대를 두고 ‘신국가 건설’ 운동을 진행하였다.²³⁾ 1945년 9월 북한 지역으로 들어온 김일성 항일유격대 집단은 정규군 건설에 직접 관여하고 지휘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소련군을 ‘스승’이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은 그의 ‘제자’임을 자처하였다. 북한과 소련의 관계, 그리고 김일성과 스탈린의 관계는 철저하게 주종관계에 놓여있었다. 건군 사업이 한창이던 1947년 10월 26일 김일성은 보안간부 1기 졸업식에서 “소련이 위대한 조국 전쟁에서 얻은 승리의 교훈을 심오하게 연구하여 전략

21) 마오쩌둥,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枪杆子里面出政权): 후베이(湖北) 한커우(汉口) 중국공산당 최고 회의(간급회의) 87회의(1927년 8월 7일),” [http://chinahumanitas.net/?bwl_kb=\(검색일: 2021년 12월 20일\)](http://chinahumanitas.net/?bwl_kb=(검색일: 2021년 12월 20일)).

22) 김일성, “김일성의 직접적인 영도하에 조직 전개된 조선 인민의 항일무장투쟁,” 『조선중앙연감』(1969), pp. 69-82. 김일성은 “무장을 들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다. 무장을 들지 않고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주권을 쥐려면 무장투쟁을 해야 하며 선거 놀음을 해가지고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라고 언급하였다.

23) 김광운, 『북한 정치사연구: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서울: 선인, 2003), p. 113. 해방 이전인 1945년 여름부터 이미 김일성은 하바롭스크 시기에 소련군과 접촉하였고, 88여단 지휘관들과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한 적도 있었다. 해방 이전부터 소련야영지에서 소련군 지휘부와 밀접접촉한 김일성은 북한은 입국하기 이전인 1945년 8월에 이미 조선공작단위원회의 책임자로서 한반도로 입성한 이후 항일유격대 집단을 중심으로 당, 정권기관,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고자 하였다.

전술상으로나 각종 군사 기술상으로 가장 우수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한다.”라면서 소련군을 철저하게 추종할 것을 강조하였다.²⁴⁾ 북한은 일관되게 ‘소련군을 따라 배우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소련군 교리와 제도를 모방하는 데 집중하였다.²⁵⁾ 김일성은 ‘자주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가 무색할 정도로 소련의 ‘하수인’임을 자처하고 나섰다. 북한은 ‘소련군대가 조선을 해방시켜 준 은공’과 ‘조선 인민의 독립과 민주 건설을 원조하여준 고귀한 업적’을 찬양하고, 스탈린을 ‘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스승’, 그리고 ‘조선 민족의 해방의 은인’이라고 숭배하였다.²⁶⁾ 김일성은 공식 연설에서 “해방자이신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치는가 하면,²⁷⁾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외무상이었던 박헌영은 1949년 1월 29일 조선 인민이 ‘위대한 소련의 무력에 의해 해방’되었다고 추양하였다.²⁸⁾

이처럼, 김일성이 지향했던 정규군의 원형은 후진적 중공군이 아니라 ‘독일과 일본’과 같은 거대한 파시스트를 물리친 초강대국 소련군이었다. 게릴라전에 대한 경험만 있을 뿐이지 정규군 건설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김일성 유격대 집단은 소련군의 군사 지원에 전적으로 의지하였다.²⁹⁾ 김일성은 조선인민군을 항일 유격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군대라고 규정하면서 군의 사상적 토대를 역사적

24) 김일성, 『김일성선집1』(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5), p. 485.

25)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서울: 한국발전연구원, 1991).

26) “위대한 소련군대의 철거,” 『조선중앙연감』(1950년), pp. 229-231.

27) 김일성, 『김일성선집2』(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4), p. 277.; 김일성, “조선인민군 창건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한 연설(1948년 2월 8일),” 『김일성선집1』(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4), pp. 535-546.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소련군대, 소련 인민, 위대한 영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쳤다.

28) 박헌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에 관하여(1949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2차 회의 회의록』(평양: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1949), pp. 203-228.

29) 김일성, “조선인민군 창건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한 연설(1948년 2월 8일),” 『김일성선집1』(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4), pp. 535-546.

으로 항일유격대와 연결하고자 했지만,³⁰⁾ 현실적으로는 정규군 건설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소련군의 이념과 체제를 모방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소련군을 원형으로 1946년부터 정규군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보안 간부 훈련대대부'를 만들고, 1947년 '북조선 인민 집단군 사령부'를 거쳐서 1948년 '조선인민군'을 공식 창건하였다.³¹⁾

남침 전쟁 준비를 본격화하던 1949년부터 소련군에 대한 김일성의 의존도는 더욱 심화하였다. 1949년 초부터 북한은 탱크와 자주포 등 주요 전투 장비들을 북한으로 도입하였고, 전차사단을 창설하는 등 '소련군식 전격전'을 구현하고자 했다. 1949년 38선 일대의 주요 분쟁상황과 한반도 정세는 스탈린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었고,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남침계획을 논의하면서 전쟁 모의를 비밀리에 진행했다. 김일성의 남침공격 계획은 소련군사고문단에 의해 기획되었고, 전쟁 수행 단계마다 소련의 지시와 협조하에 중요결정이 이루어졌다. 불리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도주할 줄 아는 현실감각'을 갖춘 항일유격대가 '조금의'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자 급진적인 군사적 '모험주의'로 기울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소련에 대한 과도한 심리적 의존과 과신이 '오판'을 촉진하여 군사적 모험주의로 흐르게 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³²⁾

김일성의 '스탈린 의존'은 거의 병적이었다. 김일성은 전쟁 중에도 소련군의 군사전략과 교리를 '선진적 군사이론과 기술'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군이 이러한 '선진 군사이론'을 '재훈련'해야 한다고

30) 김일성,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한 연설, 1948. 2. 8.," 중앙정보부, 『김일성군사논선』(1979. 10), p. 18.

31)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서울: 한국발전연구원, 1991).

32) "전투처럼 전쟁을 수행"하고자 했던 김일성의 전술편향의 사고방식이 희망적 사고에 기초한 군사적 모험주의와 개전의 '오판'을 촉진했던 현상을 '전략의 전술화(tacticization of strategy)'라고 분석한 연구를 참고. 김태현, "김일성의 6·25 전쟁 전략분석: 전략의 전술화," 『군사』제105호(2017. 12), p. 98.

강조하였다.³³⁾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1월 김일성은 조선노동당이 ‘레닌-스탈린 학설에 따라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당 사업의 기초를 ‘스탈린 동지의 지적’에 토대를 두고 방향을 잡아 나갔다.³⁴⁾ 1952년 12월 당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스탈린이 조선노동당을 ‘돌격대’라는 칭호를 부여한 데 대해서 ‘영광스럽게 보답’해야 한다고 하면서 ‘스탈린 동지의 말씀’을 성정처럼 인용하였다. 6·25전쟁이 끝난 1954년에도 김일성은 조선인민군 군정 간부 회의에서 북한군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혁명군대’이기 때문에 소수의 군대라도 우세한 적을 타승할 수 있다고 강조할 정도였다.³⁵⁾

다. 소련군 모방에 대한 ‘수정적’ 인식

북한의 ‘독자적’ 주체 군사 사상의 경험적 토대는 6·25전쟁이었다. 북한은 6·25전쟁의 교훈을 ‘금을 바꿀 수 없다’라며 ‘조국 해방전쟁’을 철저하게 연구할 것을 강조하였다.³⁶⁾ ‘정의의 전쟁’, ‘혁명전쟁’, ‘김일성의 승리한 전쟁’이라는 식의 정치적 선동을 견어내고 나면 6·25전쟁은 소련군의 맹목적인 모방에서 벗어나 북한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군사 사상’의 필요성에 눈을 뜨게 한 역사적 변곡점이 되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33) 김일성, “노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2년 12월 15일),” 『김일성 선집 제4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4), pp. 317-407.

34) 김일성, “당 단체들의 조직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결점들에 대하여(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1년 11월 1일),” 『김일성선집 3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4), pp. 349-396.

35) 김일성, “인민군대의 간부화와 군중, 병종의 발전전망에 대하여: 조선인민군 군정 간부 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발췌(1954. 12. 23.),” 중앙정보부, 앞의 책, 1979, p. 188.

36) 김일성, “인민군당 4기 4차 전원회의의 결론 연설(1969. 1. 6.-1. 14),” 중앙정보부, 『김일성군사논선』(1979), p. 40.

군사 전략적으로 6·25전쟁은 북한의 '소련군 따라 하기'의 움직임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소련군의 군사 지원으로 공격 장비를 갖춘 뒤 소련군 군사고문단의 작전 수립과 전쟁 지도를 받아 6·25전쟁 전반을 수행하게 되었지만, 계획과 실시간 치명적인 괴리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북한 1950년 6월 25일 기습공격으로 서울을 단시간에 점령하고 8월 말까지 낙동강 전선까지 전격적으로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김일성의 애초 기대만큼 전과를 올리지 못했다.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 보고서'와 '별오리 회의'로 알려진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1950년 6월 서부전선의 공격속도에 비해 동부전선 지역의 공격이 지연되는 등 소련군식 전격전이 한국지형에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강과 하천이 많은 지형에서 도하 장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 미군의 공중공습에 대한 방어준비가 잘 안 된 점, 한국의 산악지형에 맞는 산악전투의 필요성 등 한반도의 실정에 맞는 전쟁준비가 부족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³⁷⁾ 핵심적인 내용은 소련군식 전격전이 한반도에서 비판 없이 적용된 데 대한 반성과 한계점에 관한 것이었다.³⁸⁾

정치 전략적 차원에서도 6·25전쟁은 북한의 강대국에 대한 불신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검증대가 되었다. 남북 전쟁이 미소 간 대리전으로 변질하면서 김일성은 전쟁 수행의 주도권을 중국과 소련에 뺏긴 채 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전쟁의 목표와 방식이 조정되는 국제정치의 살벌한 현실을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1950년 9월

37) 김일성, “현정세와 당면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50년 12월 21일),” 『김일성선집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pp. 147-210.;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 전쟁 보고서 제1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 182-184.; 193-197.

38) 김일성, “인민군 당4기 4차 전원회의 시 김일성 결론 연설(1969년 1월 6일-14일),” 중앙정보부, 『북괴군사전략자료집』(1974), pp. 328-340

중순 이후 전세가 역전되어 북한이 궁지에 몰리던 국면, 1950년 10월 중공군 개입 이후 북·중·소간 전쟁 지도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과 소련이 자국의 이익에 집착하면서 북한의 이익을 무시하는 등 국제관계에서 작동하는 살벌한 ‘국가이성(Raison d’Etat)’의 현장을 분명히 목도하였다. 김일성은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중국과 소련의 개입과 간섭이 강화되고, 반대로 자신의 주도권은 약화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3년간의 전쟁은 북한-중국-소련 간의 주종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김일성은 ‘3년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 책임의 위기에 몰린 국내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권력투쟁에서의 ‘반전’을 꾀하는 데 성공했지만, 북한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왔던 중국과 소련의 입김은 더욱 강력해졌다. 김일성은 전쟁 초기 국면이 실패로 돌아가자 1950년 12월 새로 창설된 조중연합사령부의 중국사령관인 평더화이(彭德懷)에게 군사지휘권 일부를 중공군에 이양해야 했다.³⁹⁾ 북한은 김일성의 위신을 고려하여 공식적으로는 중국과 소련의 ‘지휘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1960년대를 지나면서 ‘대국주의의 간섭’에 대한 치열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⁴⁰⁾

이러한 배경에서 전쟁 후반기에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선진 혁명당의 경험’이라고 하면서도 소련군을 맹목적, 기계적으로 추종하는 데서 초래된 폐해를 지적하면서 북한 ‘실정’과 접목할 것을 주장하였다. 1952년 당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양 사업의 의미를 “우리나라 정세에 부합되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적용할 줄 알며,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군사, 정치, 경제 정세들을 분석할 줄 알며 그 분석에

39) 서상문, “중조연합사령부(中朝聯合司令部) 재론,” 『군사』제95호(2015년).

40) 김응서, “1960년대 중반 북한의 자주외교 노선 채택에 관한 연구,”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 이론』(서울: 논형, 2012), pp. 239-287.

기초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까지 예견할 줄 알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⁴¹⁾ 김일성은 해방 이후 정권 수립과 전쟁기를 지나면서 북한이 소련군을 기계적으로, 외피적으로 복사하려고 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엄중한 결점'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⁴²⁾

6·25전쟁 수행에서 소련 일변도 전략이 실패로 드러나자 북한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의 모순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절체절명의 위기 의식 속에 더욱더 스탈린과 소련군에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작동하는 가운데 무비판적 소련군 모방을 북한 현실에 맞게 변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소련군에 더욱 집착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소련군 의존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한다는 인지 부조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김일성의 오랜 생존본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살기 위해서 스탈린에 절대 복종해야 하지만, 또한 살기 위해서 '소련식'을 맹종해서 초래된 재앙적 결과를 수습해야 했다. 물론 '맹종'의 책임을 바로 그 자신이 아닌 다른 정적들에게 전가하였다. 그가 가장 소련식으로 앞장섰는데, 자신은 항일 유격대 집단이라는 정체성을 앞세워서 소련군 계열의 한인 출신들을 희생양으로 몰았다. 그렇다고 북한이 소련군 군사체제의 틀에서 완전히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일성은 전쟁이 끝난 후 중국과 소련과 연계된 내부 정적을 소탕하기 위해 '주체'를 이용하였을 뿐, 소련을 직접 비판하거나 스탈린을 직접 부정하지는 않았다.

41) 김일성, “노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2년 12월 15일),” 『김일성 선집 제4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4), pp. 317-407.

42) 김일성, “노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pp. 317-407.

3. 독자적 군사 사상의 모색과 형성

가. ‘주체’와 ‘자주’의 등장

소련과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자는 ‘독자화’의 모멘텀은 역설적이게도 소련과 중국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던 전쟁 수행 중에 발동되었다. 전쟁 지원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청구서는 전쟁 이후 김일성에게 권력을 위협하는 비수로 돌아왔다. 6·25전쟁을 계기로 ‘안보 지원’을 대가로 김일성의 순응과 복종을 요구하던 중국과 소련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해 김일성이 ‘자율성 확대’라는 카드로 맞서는 상황에서 ‘주체’가 등장하였다.⁴³⁾

6·25전쟁 직후 대내외 정치 상황은 김일성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1953년 스탈린 사후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면서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려 하자 세계 공산주의는 분열되었다. 김일성은 소련지도부를 ‘수정주의’ 노선으로 비판을 하고 스탈린주의 노선을 고수하면서 이를 북한의 현실에 독자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대내적으로 김일성은 6·25전쟁 이후 국내 소련파와 연안파의 영향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김일성’ 중심의 권력 확립을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했다. 김일성의 돌파 전략은 바로 ‘주체’였다. 1955년 ‘사상에서 주체 확립’을 언급하면서 김일성은 당내에서 ‘기계적으로 소련을 본뜨려고 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소화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째로 삼키고 있으며’,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싸우고 있다’라며 사대주의자와 교조주의자들을 비판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43) James Morrow,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November 1991), pp. 904-933.

‘우리나라의 구체적 조건, 우리의 민족적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⁴⁴⁾ 김일성은 소련파와 연안파의 대외 의존적 행태를 ‘주체’의 이름으로 비판하였다. 이 당시 ‘자주’와 ‘주체’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올가미였다.

김일성은 1956년 이후 전개된 긴박한 대내외적 정치적 도전을 북한의 국가적 자주성과 주체 확립을 위한 기회로 이용하였다.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에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과 ‘수정주의’ 노선을 둘러싼 중소 간 이념 분쟁 속에서 북한은 중립 입장을 취해야 하는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국내적으로 1956년 8월 종파사건은 김일성의 중국과 소련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1956년 8월 연안파와 소련파가 손을 잡고 김일성을 축출하려고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소련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으며, 김일성이 이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소련지도부가 개입하여 김일성을 제지하려 하였다. 이렇듯 중국과 소련이 엮여 있는 반김일성 세력을 축출하는 ‘반종파 투쟁’ 과정에서 ‘주체’는 권력 확립의 중요한 명분이 되었다. 이때부터 소련에 대한 대외적 자주성을 의미했던 ‘주체’의 개념은 사상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전략 전반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김일성은 ‘8월 종파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소련의 내정간섭을 겪은 이후 자주적 안보역량을 확보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다. 중소 이념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김일성이 어느 편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려면 군사적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었다. 김일성은 군사역량의 결핍이 소련과 중국 관계에서 위계적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인식했다. 무엇보다 김일성은 ‘대국주의’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을 없애기 위해 ‘국방에서의 주

44)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안보통일문제기본자료집 북한편』(서울: 동아일보사, 1972), p. 269.

체'를 강조하였다. 김일성은 최고의 정치자산이었던 항일유격대 경력을 또다시 전면에 내세우고 '항일 군사경력'을 무기로 정적들을 제거해나갔다. 이때까지는 아직 북한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소련과의 연계성'에 비중을 두면서 북한 군사 사상의 독자성을 전면에 부각하지는 않았다. 1958년 김일성은 인민군 창건 10주년 연설에서 인민군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지침으로 한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라고 하였는데,⁴⁵⁾ 여기서 김일성은 항일유격대 집단이 해방 직후 인민군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항일유격대가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무장되었다는 점을 힘주어 강조하였다.⁴⁶⁾

1960년대 들어서자 북한은 '국방에서 자위' 방침을 공식화하였다. 이 당시 국방에서 '주체'는 현실적인 당면 문제를 해소하는 '실천적 정책'의 문제였을 뿐 사상과 이론의 영역으로 심화하는 문제가 아니었다.⁴⁷⁾ 1960년대 초반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 소련의 '굴복적 행태'와 중공군 철수로 인해 강대국에 의한 방기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국방에서의 자위' 방침을 제기하면서 주체사상의 외연을 '국방 분야'로 확장하였다. 1962년 북한이 '주체사상'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공식 사용되기 시작하면서,⁴⁸⁾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의 군사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의미의 '발전전략'으로서 '군사 분야에서의 주체'를 강조하였다.⁴⁹⁾

45) 김일성,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 제324 군부대 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 1958. 2. 8." 중앙정보부, 앞의 책, p. 21.

46) 김일성,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조선인민군 창건 10주년 기념식에서 조선인민군 제324군 부대 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 1958년 2월 8일)," 『김일성선집5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3), pp. 308-349. 여기서 김일성은 '항일유격대 사상'이 곧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이라고 규정하였다.

47) "진정한 혁명의 군대 인민군대," 『노동신문』(1964년 2월 8일).

48)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159.

49) 곽승지, "주체사상의 이론체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사상과 역사 인식』(파주: 한울아카데미, 2006), p. 91.

1963년에는 김일성이 연설에서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이라는 당의 구호를 상기시키면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당의 방침으로 '자위의 방침'을 강조하였다. 그는 자위의 방침을 "자기가 자기를 보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위하여 줄 것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위라 하여 다른 나라의 원조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조를 준다면 받는다, 그러나 안 줄 때도 문제없다, 이런 원칙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⁵⁰⁾

196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북한은 '국방에서 자위' 원칙을 '주체사상의 군사 분야에서의 구현'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이 가장 독창적인 군사 사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일성은 자위적 군사방침을 강조하면서, 전군 간부화, 전국 요새화,全民 무장화를 우선적인 과업으로 제시하다가 1966년에는 '군대 현대화'를 추가하여 4대 군사 노선을 추진하였다. 김일성은 '전체 인민이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손에 낫과 망치를 들고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온 강토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¹⁾ 1965년 4월 김일성이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연설에서 주체 확립과 관련하여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주체사상에 대한 최초의 정식화가 이루어졌다. 1968년 1월 조선신보에서는 "자위라고 하여 국제적 지지원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조국의 결정적 요인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주체적 힘이며 따라서 자신이 자기를 보위하는 것이 확고한 원

50) 김일성,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군대로 만들며 국방에서 자위의 방침을 관철하자 (1963년 10월 5일)," 중앙정보부, 『북괴군사전략자료집』, p. 223.

51) 김일성,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강화할 데 대하여(1966년 10월 5일, 당대표자회의)," 중앙정보부, 『북괴군사전략자료집』, pp. 261-262.

칙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⁵²⁾

나. 유일 지배체제의 형성과 ‘김일성 장군’의 우상화

1967년은 김일성의 권력투쟁의 정점을 찍던 해였다. 1967년 주체 사상은 김일성의 ‘유일 지배체제’ 구축을 위한 통치 담론의 성격으로 변질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한 ‘보편적 사상이론’으로 발전되었다. 1967년 5월 당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유일사상체제 확립 문제를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의 범위를 넘어서 마오쩌둥 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경쟁하는 보편적 이론화의 시기를 거친다.⁵³⁾

군사 분야에서도 ‘김일성의 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독창적 군사 사상’을 정립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성숙하자 북한은 김일성 유격대의 1930년대 게릴라 투쟁을 분석하여 이를 현대 조선인민군의 군사 전통과 연계시키려는 작업을 본격화하였다. 북한은 ‘독자성’을 강조하려다 보니 김일성이 경험했던 ‘1930년대 만주 항일 무장 투쟁’과 ‘조국 해방전쟁’을 군사사상 정립을 위한 경험적 원형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전자가 주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경력을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국내정치적인 목적이 강하다면, 후자는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군사문제 전반에 대한 나름의 독자적 관점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군사 사상 정립의 토대로 다루고 있는 이 ‘두 개의 전쟁’에 대한 해석은 ‘김일성 우상숭배’에 초점을 둔 군사적 ‘영웅주의’와 낭만주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군사에서 ‘만주’ 북한의 정치 군사의 정신적

52) “우리 당의 군사 노선: 인민군 창건 20주년을 맞이하여,” 『조선신보』(1968년 1월 17일).

53) 이종석, 앞의 책, p. 129.

메카였다. '만주'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다. 북한은 김일성이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여 모진 난관을 헤치고 무장투쟁을 했다는 서사적인 군사적 낭만주의에 초점을 두고, '고통받은 민족해방 전사'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로 인해 김일성의 군사 행적은 진실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맞추어 왜곡 과장되었다.

김일성의 '군사적 영웅주의'에 초점을 맞춘 사상작업은 실천적 담론으로 태동하였던 '자위 국방 사상'의 발전에 심각한 변형을 유발했다. 김일성의 항일유격대는 사회과학적 분석 대상보다는 정치적 선전의 소재로 다루어져야 했다. '천재적인 군사사상가'라는 위상은 김일성의 유일 지배체제 확립뿐만 아니라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했던 만큼, 196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본격적으로 '사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⁵⁴⁾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군사 사상을 주요 군사 사상으로 인식하면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그것을 독창적으로 적용하려는 '실천적 방도'의 성격으로 풀이하기 시작했다. 1967년 4월 25일 조선중앙년감에 실린 '항일유격대 창건 35주년' 기념사에서 김일성은 "투쟁은 반드시 마르크스-레닌주의 전략 전술에 의하여 지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⁵⁵⁾ 항일 무장투쟁에서 '주체적 입장'에 따라 '자주적' 정치 노선과 '독창적' 전략 전술 방침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1960년대 후반이 되면서 북한은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인민군의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한다는 점,⁵⁶⁾ 그리고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노선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노선"이라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선전

54) 곽승지, 앞의 책, p. 97.

55) "항일유격대 창건 35주년(1968년)," 『조선중앙년감』(1968), pp. 89-92.

56) "조선인민군 창건 20주년을 높은 혁명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민주조선』(1968년 1월 16일).

하였다.⁵⁷⁾ 단적으로 196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20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은 6·25전쟁이 “김일성의 군사 사상과 군사예술, 그리고 군사 분야에서 수령의 주체사상의 승리”라고 설명하면서 주체사상이 ‘수령의 군사 사상과 군사예술의 혁명적 진수’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체적 군사 사상’의 초보적 개념으로서 북한은 ‘주체사상의 군사 분야에서 구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무장력 건설과 국방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⁵⁸⁾ 1969년 북한은 대내외 학술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김일성의 게릴라 투쟁을 분석하여 이론화하는 한편, 북한이 추진하던 국방에서의 자위, 자위적 군사 노선 및 4대 군사 노선을 정당화하는 데 집중하였다.⁵⁹⁾

‘김일성’과 ‘독자성’이 동의어로 굳어지면서 북한의 왜곡은 더욱 체계화되고 일상화되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과 차별화되는 ‘독자적’ 김일성의 군사 사상을 구축하고 싶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만주 항일투쟁이 마치 김일성이 ‘주도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었던 것처럼 조작하였다. 그러나 만주유격대의 군사 행적은 군사 전략적으로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김일성은 동북 항일연군 전체를 지도한 것이 아니며 일부 부대의 지휘관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전술적 차원의 의미 이상을 식별하기는 쉽지 않았다. 당시의 정치적 지도는 전적으로 중국공산당의 몫이었으며 군사 전략적 차원의 전쟁

57) “김일성의 직접적 영도하에 조직 전개된 조선 인민의 항일무장투쟁: 아바나문화대회에서 대회의 문헌으로 채택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 투쟁 시기의 전략 전술에 관한 문헌,” 『조선중앙연감』(1969), pp. 69-82.

58)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조선인민군: 인민군대가 걸어온 영광에 찬 승리의 행로,” 『조선중앙연감』(1969), pp. 180-184.

59) “김일성의 직접적 영도하에 조직 전개된 조선 인민의 항일무장투쟁,” pp. 69-82. 조선중앙연감에는 1969년 소왕청 유격근거지 방어 전투 35주년 논문, 동녕성 진공전투 35주년 기념 논문, 고난의 행군 30주년 기념 논문, 쿠바 아바나 학술논문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지도는 오롯이 중국 지휘관의 몫이었다.⁶⁰⁾ 김일성은 소규모 전투를 조직하고 지도하는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선전하는 것처럼 김일성이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도 크지 않았으며 김일성이 중심이 되는 무장투쟁이란 있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김일성의 만주유격대 경력은 해방 이후 부풀려져 과장해서 그 의미를 억지로 해석하는 '과잉 일반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김일성이 자신의 독자적인 유격전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중국의 마오쩌둥 군사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독자화하려는 시도는 소련의 마스-레닌주의를 북한의 실정과 현실에 맞게 변용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북한은 일찍부터 러시아 군사사상을 수용하면서도 중국의 현실에 맞게 특색있는 중국식 혁명전쟁 이론을 정립시킨 마오쩌둥 사상을 주목하였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소련군에 편향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마스-레닌주의를 중국식으로 변용한 마오쩌둥의 '인민 전쟁론'을 주목하였다. 북한이 1980년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군사분야에 적용시켜 '주체 군사사상'을 '사람 중심의 군사사상'이라고 이론화를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사람 중심 사상'이라는 것은 표현만 바뀌었을 뿐 본질에 있어서 마오쩌둥의 '인민전쟁 사상'과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⁶¹⁾ 북한은 건군 초기에는 소련식을 '복사'하듯이 과도하게 의존하다가, 독자화의 길을 모색하던 시기에는 오히려 '소련식'을 중국 특색의 군사사상으로 변용하던 중국의 접근방식에 착안하여 '북한식' 군사사상을 발전시키는 작업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60)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서울: 청계연구소, 1989).

61)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당 역사연구소, 『김정일 동지 약전』(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2009), p. 63. 김정일은 강대국의 '무기 중심 군사이론'을 비판하면서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김일성 군사 사상의 출발 원리이며, 이것이 김일성 군사 사상의 '근본 특성'이며 기존의 군사 사상에 비추어 '주체의 군사 사상의 우월성'이라고 강조했다. 장명순, 『북한군사연구』(서울: 팔복원, 1999), p. 98.

다. ‘주체적 군사 사상’의 등장과 군내 확산

북한에서는 1960년대 후반 ‘주체’와 ‘군사 사상’이 결합한 신조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군사 사상과 전략 전술’, ‘자위의 군사 사상’, ‘자위 사상’, ‘김일성의 군사 사상’이라는 개념들을 섞어 사용하면서 ‘자위적 군사 노선’을 ‘주체사상의 국방에서 구현’, ‘독창적인 군사전략 사상’, 혹은 ‘주체적 군사 노선’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주체적 군사 노선의 핵심적인 내용에는 항일유격투쟁과 ‘조국 해방전쟁’의 경험을 기초로 ‘자체의 실정’에 맞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⁶²⁾ 이 시기에 북한은 ‘자위적’ 군사노선을 ‘주체사상’을 연결하고 이것을 다시 당의 유일사상 확립과 연계시켰다.⁶³⁾ 선전매체의 주요 논점은 김일성이 항일유격투쟁 시기에 ‘독창적인 혁명무력 건설이론’과 ‘창조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했다는 점과 김일성이 위대한 ‘독창적 군사 사상가’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있었다.⁶⁴⁾

‘주체’와 ‘독창성’의 강조는 군사 분야에서 크게 두 가지의 구체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우선, 북한은 김일성의 위대성을 강조하며 인민군을 ‘김일성의 군대’로 만들자는 구호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1968년 6월 북한은 보천보 전투 승리 30주년 기념식에서 “김일성 동지

62) “우리 당의 군사 노선: 인민군 창건 20주년을 맞이하여,” 『조선신보』(1968년 1월 17일). 주체라는 개념은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해결’,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본 따거나 기성교리에 교조적으로 매달리지 않는 것’, ‘혁명전쟁의 풍부한 경험에 토대하여 철저히 자체의 실정에 맞게 나라의 국방건설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 자주적 노선’, ‘우리 혁명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제 방침과 방도’ 들이라는 표현으로 풀어서 설명하였다.

63) 최현, “우리당의 자주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체인민을 무장시켜 요새화하자 (1968년 1월 18일),” 『조선중앙방송』(1968년 1월 18일).

64) “김일성이 조직영도한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사상에 의해서 지도된 영광스러운 투쟁,” 『노동신문』(1968년 4월 25일).

의 사상 이외에는 그 어떠한 사상도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편단심 김일성 동지께 무한히 충성하여 그이의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유일 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자고 선언하였다.⁶⁵⁾ 1968년 2월 8일 민족보위성은 민족보위상 명령 제12호를 하달하여 “전체 인민군 장병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할 것을 지시하고 명령문의 말미에 ‘조선인민군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라고 끝을 맺었다.⁶⁶⁾ 이것은 1966년 민족보위상이 내린 명령에서 말미에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만세”의 구호와 비교할 때 김일성 찬양의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이다.⁶⁷⁾

한편, ‘주체적 군사사상’의 논조는 소련의 군사 사상을 밀어내고 부정하는 수준까지 위상이 격상되었다. 1969년 김일성은 인민군 전원회의에서 대놓고 ‘절대 소련 것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강조하면서 6·25전쟁 경험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⁸⁾ 1969년 2월 오진우 총참모장은 인민군 창건 21주년 기념사에서 김일성의 항일 유격투쟁과 6·25전쟁 수행을 찬양하면서 이것이 모두 ‘김일성의 위대한 마르크스-레닌주의

65) “보천보 전투승리 30주년(1968년 6월 4일),” 『조선중앙년감』(1968), pp. 92-94. 일제 강점기 김일성이 1937년 6월 4일 함경남도 보천보 지역(현 양강도)에서 경찰과 치른 전투로서, 보천보전투는 김일성의 이름을 국내에 알리고 광복 이후 북한 지역에서 김일성이 유력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부상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보천보전투로 대표되는 김일성의 항일유격투쟁 성과는 광복 이후 그가 귀국한 뒤 북한 지역에서 강력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올라서는 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당대 유명 작가였던 한설야는 1946년 김일성의 항일유격투쟁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웅 김일성 장군』을 출판하기도 했다.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305&menuId=NK_KNWLDG_DICARY (검색일: 2022. 8. 12).

66) 김창봉, “민족보위상 명령 제12호(1968년 2월 8일),” 중앙정보부, 『북괴군사전략자료집』, pp. 769-770.

67) 김창봉, “민족보위상 명령 제5호,” 중앙정보부, p. 768.

68) 김일성, “인민군 당4기 4차 전원회의 시 김일성 결론 연설(1969년 1월 6일~14일),” p. 340.

군사 사상'과 '천재적인 군사 전략 전술' 덕분이라고 강조하였다.⁶⁹⁾ 그러면서 김일성의 군사 사상은 “새로운 역사 조건에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 군사이론의 창조적 발전을 의미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더욱 풍부히 하는 데 공헌을 한다.”라고 하였다. 1969년 『조선중앙방송』에서는 “국방에서의 자위 노선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노선을 독자적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어디까지나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려는 혁명적이며, 창조적인 사상,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이 국방 분야에서 표현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국방건설과 혁명전쟁에 제반 요구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창조적 입장”이라고 설명하였다.⁷⁰⁾

주체사상이 ‘유일 지배’ 논리로 변질하면서 북한 군사에서 언급된 ‘독창성’이라는 구호는 ‘김일성’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1970년 11월 당 제5차 대회에서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이며 ‘주체사상은 지도 사상’으로 선언되자,⁷¹⁾ 군에서도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창조적, 독창적 군사사상·군사이론 등을 창시하였으며 혁명무력 건설을 천재적으로 밝히고 그것을 구현하여 인민 무력건설의 빛나는 전범을 창조”했다고 명문화했다.⁷²⁾ 이 시기부터 북한 내부에서는 김일성이 창시했다고 선전하는 ‘주체적 군사 사상’은 항일무장 투쟁 시기 경험을 바탕으로 ‘혁명무력 건설이론’과 독창적이 ‘전략 전술’을 창조했다는 내용으로 채워지는 한편, ‘조국 해방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실정에 맞는’ 전법, 무기개발,

69) 오진우, “인민군 창건 21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총참모장 대장 오진우 보고(1969년 2월 8일),” 중앙정보부, 『북괴군사전략자료집』, p. 352.

70) “조선노동당의 군사 노선: 조선노동당의 군사 노선의 확고부동한 기초는 김일성의 자위 사상이라는 데 대해서,” 『조선 중앙 제2방송』(1969년 5월 7일-5월 8일).

71) 김일성, “노동당 제5차 대회 폐회사,” 『조선중앙연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1), pp. 59-62.

72) “인민군 창건 23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민족보위부장 상장 한익수 보고(1971년 2월 8일),” 중앙정보부, 『북괴군사전략자료집』, p. 400.

훈련을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도배되었다. 1970년 김일성은 군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전법’을 개발하고 군사장비를 현대화하며, 전투 훈련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⁷³⁾ 1972년 김일성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사람 중심의 주체사상 개념을 제시하였고,⁷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을 지도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하였다.⁷⁵⁾ 이에 따라 1972년 4월 총정치국장 한익수는 ‘김일성 동지의 군사 사상’에 따라 북한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⁷⁶⁾

4. ‘전군 친위대화’의 논리로 굴절

가. 수령의 군대: ‘군사 천재론’과 ‘수령 결사옹위’

‘국방 분야에서 주체사상’은 소련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 차원에서 출발하였으나, 1970년 이후부터는 ‘김일성의 군대’라는 내적 명령체계 장악의 ‘이념적’ 도구로 변

73) 김일성,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김일성 보고: 전 인민적, 전 국가적 방위체계의 수립(1970년 11월 2일),” 중앙정보부, 『북괴군사전략자료집』, p. 389.

74) 이종석, 앞의 책, p. 166. 김일성은 그간 모호했던 ‘주체사상’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김일성은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주인다운 태도는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으로 표현”된다고 강조했다.

75)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4), p. 370.

76) 한익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4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상장 한익수 보고,” 중앙정보부, 『북괴군사전략자료집』, p. 454.

질되었다. 김정일은 1974년 이후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고 전군의 김일성주의화를 군 건설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여 군에 대한 유일 지배체계를 절대화하였다. 김정일은 이데올로기 해석권을 가지고 주체사상의 이론체계를 언급하기 시작하고,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발표하면서 ‘김일성 우상화’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1974년 김정일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제시하였고, 1976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간 차이를 언급하였다. 1970년대 중반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 단계를 넘어서 독창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사실상 통치 이데올로기로 규범화되고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주체사상 체계화에 나선 결과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 가서 결실을 거두었다.⁷⁷⁾

1970년대 ‘주체적 군사사상’은 수령의 ‘군사적 천재성’을 우상화하는 유일사상의 논리로, 다른 한편으로는 김일성을 목숨으로 수호하는 ‘수령 결사옹위’의 논리 등 두 갈래로 사용되었다. 1972년 『노동신문』에서 ‘김일성의 주체적인 군사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김일성이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자위의 군사 사상을 창시여 주체적 혁명무력 건설’ 방침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수령을 목숨으로 옹호 보위’하기 위한 ‘근위대, 결사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⁸⁾ 1970년대 중반으로 갈수록 ‘김일성 결사대’라는 구호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1973년 총정치국장 한익수는 ‘유일사상체계’로 뭉쳐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 ‘수령께 충성 다하는 근위대 결사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⁹⁾

77) 김정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2012년 4월 20일),” 『조선의 오늘』 (2012. 4. 20).

78) “우리 당의 불패의 혁명무력 조선인민군,” 『노동신문』(1972년 2월 8일).

79) 한익수, “조국 해방전쟁 승리 20주년 기념회 중앙보고 대회에서 한 인민군 총정치

1974년 총정치국은 더욱 노골적으로 '전당과 전군, 전민이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주체사상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 보위하고 수령님의 교시와 명령이라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 줄 아는 참된 근위대, 결사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라고 강조하였다.⁸⁰⁾ 한편, 북한 선전매체들도 일제히 김일성 우상화에 대대적으로 동원되었다. 대부분의 선전매체는 김일성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자 '천재적 군사전략가'로 선전하였다.⁸¹⁾

김일성의 '주체적 군사사상'을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은 점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은 1972년 김일성의 60세 생일을 맞아 김일성의 노작들을 수록한 『김일성 군사선집 제1권』(조선인민군 출판사)을 출판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군사선집 제1권』에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그의 구현인 자위적 군사 사상과 군사이론"을 담았으며, 항일무장투쟁과 혁명무력 건설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이 책에서는 무장투쟁과 무력건설에 관한 군사선집을 관통하는 근본 사상이 '위대한 주체사상'이라고 규정하였다.⁸²⁾ '주체 군사 사상'이라는 것은 결국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며 "무장투쟁과 무력건설 등 모든 문제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는 의미로 개념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1980년대 접어들자 주체적 군사 사상은 인민군을 김일성의 군대

국장 상장 한익수 보고(1973년 7월 27일),” 중앙정보부, 『북괴군사전략자료집』, p. 490.

80) 이용남, “인민군 창건 26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인민군 총정치국 국장 상장 이용남 보고(1974년 2월 8일),” 중앙정보부, 『북괴군사전략자료집』, p. 506.

81) 최시형, “탁월한 영도, 위대한 군사전략,” 『조국지』(1970년 6월호).

82) “항일 혁명전쟁의 탁월한 전략, 전술, 혁명무력 건설의 위대한 강령적 문헌: 김일성 군사논선 제1권 출판에 즈음하여,” 『노동신문』(1972년 4월 19일).

로 만들자는 논리로 귀결되었다. 1977년 김일성은 인민군 선동원 대회에서 “인민군대 내에서 주체사상 교양을 강화하여 지휘관으로부터 전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군인을 다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군인이 주체사상의 진리를 똑똑히 알고 그 요구대로 자주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⁸³⁾ 김일성은 여기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주체사상’과 ‘항일 혁명투쟁의 혁명전통’만 강조하였다. 1980년 4월 24일 『노동신문』은 “조선인민군은 조선노동당의 군대이자 김일성 동지의 군대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동지의 영명한 지휘하에 크게 발전하였다.”라고 강조하였고,⁸⁴⁾ 4월 25일에는 “항일혁명의 불꽃 속에서 태어난 조선인민군은 조선노동당의 군대이며 김일성 동지의 군대이다. 김일성 동지는 조선인민군을 항일 무장투쟁의 정통의 후계자이자 혁명군대라고 교시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⁸⁵⁾ 이것은 인민군이 사실상 ‘김일성의 사병’이라는 것을 노골화한 것으로 북한이 이제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전통적인 공산주의 군사 사상에서 벗어나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의 독재화된 군대로 성격이 굳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정일이 혁명적 수령관을 주체사상의 원리와 접합시키면서 주체사상은 초기의 문제의식으로부터 굴절된 형태로 재체계화되면서,⁸⁶⁾ 이에 부응하여 군사 분야에서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언급이 약화하고 ‘주체 군사사상’이 유일한 군사 지도지침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 구축과 주체사상이

83) 김일성, “정치사업을 잘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조선인민군 제7차 선동원 대회에서 한 연설(1977년 11월 30일),” 중앙정보부, 『김일성 군사 논선』 (1979), p. 238.

84) 『노동신문』(1980년 4월 24일).

85) 『노동신문』(1980년 4월 25일).

86) 이종석, 앞의 책, p. 170.

맞물리면서 군내의 '주체적 군사사상'은 '신화'적 색채가 더해졌다. 김일성 우상화의 핵심적인 소재는 항일무장투쟁에서 '민족해방 전사'의 서사와 6·25전쟁에서 '미 제국주의자'와 맞선 불굴의 영웅적 서사였다. 이 과정에서 군사 사상의 기반이 되는 역사적 사실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북한은 주체적인 군사 사상이 어떤 다른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역사인 항일유격투쟁과 6·25전쟁을 연구하여 그에 따른 이론을 도출한 것에 기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김일성은 이 두 전쟁에서 모두 실패한 지도자였으며, 중국공산당과 소련공산당의 지원과 지휘를 벗어난 독자적인 결심을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도 김일성은 명실공히 북한 내에서 '군사적 천재'라는 신화적인 영웅으로 신성시되었다. 이렇듯 주체적 군사사상은 김일성의 군사 행적과 경험을 과도하게 부풀린 역사적 왜곡, 그리고 거기서 기인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논리적 오류를 내재하게 되었다.

나. '전군 친위대화'의 영향과 공세 주의

성급한 일반화를 통해 군사 사상을 구축한다는 것은 신중함의 결핍을 의미한다. 북한은 김일성의 '천재적 혜안과 통찰력'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념화된 우상을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였다. 김일성의 천재성을 부정하는 것은 주체사상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유일 지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낙인찍혀 누구나 예외 없이 생존을 위협받는 구조로 북한체제가 변화하였다. '왜곡'과 우상화가 맞물리면서 북한이 내놓은 군사 사상은 '신화'와 현실이 혼재된 상태에 이르렀다. 거짓과 폭력이 일상화된 체제에서 김일성의 군사사상은 단순한 선전적 신화에서 현실 지침으로 변해갔다.

이렇듯 '수령 영도'와 '수령 결사옹위'의 논리로 굴절되는 과정에

서 북한의 군사 사상은 공세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 김일성이라는 불멸의 전사는 1960~1970년대를 지나면서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승리한 전쟁지도자로 둔갑하였고,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군을 물리치고 ‘조국 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끈 ‘천재적인 군사전략가’로 변신했다. ‘강철의 영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라는 수식어로 시작하는 선전매체와 교육자료가 나타내듯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의 지도자들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전략가로 우상화되었다. 대국 지도자의 위상을 자체적으로 조작한 김일성은 자신이 세계적 군사사상가의 입지를 확보한 것인 양 자신 있게 행동했다. 그는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 자신이 경험했던 ‘전투’를 분석하여 ‘북한식 전쟁 사상’을 끌어내려 하였고, 소련의 전략적 지도하에 수행했던 6·25전쟁의 교훈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북한식 군사사상’을 끌어내고자 했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 지도자를 의식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더 ‘과감한’ 지도자임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대담성’과 ‘배짱’을 과시하고자 했다.

이처럼 북한의 군사사상이 1930년대 항일유격대 활동의 ‘과대망상’과 왜곡된 역사적 사실에 토대를 두고 체계화되는 동안 북한군은 집단적 자폐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북한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의 올가미’에 갇혀 스스로를 기만하고 위안하는 상황으로 진입하였다. 문제는 그러한 허구가 ‘김일성의 카리스마’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누구나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집단적 기만과 최면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데 있다. 그 결과 북한은 수령의 신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약점이 노출될까 봐 진실을 지적하는 세력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북한의 군사사상이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북한군이 왜 ‘전투에서의 승리’ 그 자체를 인민군의 최대 목표로 지향하는지에 대해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공한

다. 북한은 어떤 이유와 경로를 통해 그 승리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보다 일단 개시된 분쟁과 전투에서의 '승리' 그 자체를 중요시한다. 북한에서 김씨 일가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전투에서의 패배는 용납되지 않는다. 김씨 일가의 유일 지배를 위해서는 '승리의 신화'라는 명분이 필요하다. 이것은 김일성 군사 사상을 받들고 있는 인민군이 전쟁과 전투에서 패배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실제, 북한군은 자신들이 사실상 패배한 듯한 국면에서도 대내적으로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선전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전군 친위대화와 공세주의는 북한의 위기극복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적어도 세 번의 정권 붕괴 위기를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공동의 위기극복 과정에서 북한 정권과 군대는 운명공동체적 관계를 강화해 나갔다. 우선, 전쟁 패배로 인해 절체절명의 궁지에 몰렸던 6·25전쟁에서의 붕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군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전쟁과 같은 '외부로 부터의 위협'을 극복하는 데 있어 군의 존재 가치는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나아가, 1990년대 초반 소련 붕괴와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던 1990년대 체제 위기는 6·25전쟁과 달리 '내부로부터의 도전'이었는데, 이것은 '역사의 종언'으로 평가받았던 사회주의에 대한 역사적 심판의 성격이 짙었다. 대부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서구 체제로 대전환을 모색하는 등 역동적 변화의 바람이 전 세계와 동아시아에 강타했지만, 북한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선군정치' 구호하에 군대를 앞세워 공세적으로 '북한식 생존전략'을 구사했다.⁸⁷⁾ 마지막으로, 1990년 중반과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18년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이

87) 선군사상은 평시 군사 사상의 역할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라는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김유석은 북한의 선군사상이 군사 사상의 범주 중에서 평시 국가안보지원(제4범주)과 평시 국가정책 지원수단으로서의 군사력 운용(제5범주)과 연계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김유석, 『군사사상 총론』(서울: 황금알, 2022), pp. 237-267.

대두될 때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군대’를 정권 수호의 전위대로 내세워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공세적 전략을 구사했다. 최근에도 군사적 천재로 둔갑한 ‘수령’의 대담함과 배짱을 내세우는 북한의 선전적 구호가 단순히 ‘홍보’ 차원의 성격에 머물지 않고 북한군의 모험주의와 공세성을 부추기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의 ‘주체 군사사상’은 탈냉전기의 역사적 전환기를 거치는 동안 각종 위기 속에서 수령 결사옹위와 수령 영도체제와 같은 요소들이 더욱 강조되고 가미되면서 수령중심의 공세 주의라는 관성을 내재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절체절명의 정권 붕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군사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만 체제 생존과 연명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면서,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고 천재적인 전략을 구상하는 수령의 지침에 따라 대내외 환경을 공세적으로 ‘돌파’해야만 ‘적’들이 함부로 체제 완전성을 침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의 군사사상에는 온갖 체제위기가 자신들을 앞잡아 보는 외부세력의 오만함과 포위 압살 전략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을 포함하여, 그러한 국제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이 ‘횡포’를 부릴수록 더욱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믿음이 스며들었다.

5. 결론

본 논문은 북한의 주체 군사 사상이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실천적 방침에서 ‘전군의 수령 친위대화’의 이념적 논리로 변질한 역사적 과정을 규명하는 데 주안을 두었다. ‘주체’, 혹은 ‘자주’라는 담론

이 북한 군사 사상의 핵심축을 이루었던 것은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아본 경험으로 인해 파생된 특이한 의식구조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전후 질서에서 초강국으로 부상한 소련에 의존해야 했던 북한은 6·25전쟁을 계기로 소련군 의존의 부작용을 탈피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노력의 결집체가 '국방 분야에서의 주체'라 불리는 '자위 사상'으로 수렴되었다. 그러나, '자위'라는 실천적 담론은 김일성의 대내적 유일 지배체제 논리와 맞물리면서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 초까지 짧은 시간에 '수령중심의 군사 사상'으로 굴절되어 전군의 친위대화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변질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주'와 '유일 지배체제' 논리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군사 사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식별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군사 사상은 김일성이 경험하고 인식했던 역사적 세계관에 토대를 두고 정립되었다.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6·25전쟁과 같은 굵직한 역사적 사건에 토대를 두고 김일성을 '독자적 군사사상가'의 지위로 격상시키려 하였다. 북한이 6·25 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전후 군사력 건설과 전략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이 완전히 허구일 수는 없다. 북한군은 정규군으로서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며, 종전을 이끌었던 경험을 가진 군대였다. 중국과 소련의 군사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쟁의 모든 결심의 정점에는 항상 김일성이 있었고, 전쟁의 승패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김일성의 몫이었다. 이러한 전쟁 수행의 경험은 북한군의 '독자적'인 군사 사상의 정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군사 사상의 이론적 모형으로 지목하는 1930년대 만주 항일 무장투쟁과 1950년 6·25전쟁이라는 두 개의 전쟁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김일성 우상화'에 초점을 둔 군사 사상으로 집대성하였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군사 사상은 조작된 신화적 강령에 기

초하여 체계화되었음에도 이것을 뒤집거나 부인할 수 없는 ‘집단적 기만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은 ‘김일성의 군사사상’을 독자적 군사사상의 원형이라고 여기며 불변의 진리로 인식하고 있다. 물론, 김일성의 군사사상이라고 북한이 내놓은 것들이 김일성 사후에 변화하는 전략환경에서도 모두 유효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은 ‘사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오류를 피하고자 김일성의 군사사상을 되도록 함축적, 추상적 언어로 서술하고 있다. 후세에 와서 재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한편 무오류의 수령의 체면을 보호하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의 서술은 북한 당국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지만, 북한 원전에서 주장하는 김일성 군사사상의 본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해석을 어렵게 만든다. 이 때문에 주체적 군사사상이라는 것이 ‘국방에서의 자위’를 제외하고 나면 김일성의 우상화와 ‘수령 결사옹위’라는 정치 전략적 선전 구호만 남는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것이다.

셋째,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 시대를 관통하는 생존전략의 하나로서 북한은 유독 ‘군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왔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보내면서 김정일의 최고 관심사는 체제 붕괴를 막는 데 있었는데, 그에게 ‘군대’는 체제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었다. 김정일은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정권의 몰락을 막지 못한 근본적인 요인이 군대의 가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내부의 위협 때문에 체제가 붕괴 위기에 처해있을 경우 군대가 정권 붕괴를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군대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체제위기를 촉진하는 내부 주민들의 시위와 봉기를 유혈적으로 진압한다면 체제위기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였다. 김정은 시대를 지나면서 북한체제는 ‘그럭저럭(muddle through)’ 버티면서 생존을 이어가는

가운데 군대는 여전히 정권 수호의 핵심 세력으로 기능하고 있다.

넷째, 북한이 '자위'를 강조하는 이면에는 강대국 군대의 영향력이 그만큼 절대적이었다는 의미도 함께 숨어 있다. 북한은 정권 수립 초기부터 소련군의 진보된 군사기술과 군사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 수행 경험이 많았던 소련군 전법은 북한에 현대전의 기준이 되었다. 북한은 소련군의 전략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한반도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적용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경험이 부족한 대부분 국가가 군사 강대국들의 경험을 받아들일 때 거치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현대식 정규군을 보유하고 운용했던 경험이 없는 신생국이 전쟁 경험이 풍부한 선진 군대를 모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모두 감추고 오로지 김일성의 '주체적 군사사상'이라는 구호로 군사사상의 형성과 변화의 전 과정을 포장해왔다. 북한에서 '자주'는 정치적 정통성에 관한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김일성의 주체적 군사사상은 '극단적 자주'라는 이념적 틀 내에서만 해석되어야 했다.

결론적으로, 자주라는 실천 담론으로 출발했던 북한의 군사 사상은 이제 '수령'의 신화적 강령을 중심으로 수령의 정치적 권위를 뒷받침하는 정치 논리로 변질되었다. 이처럼 북한 군사사상의 역사적 변화 경로로 볼 때 북한군의 군사사상에는 합리성으로 재단할 수 없는 신화적 요소가 내재하여 있음이 분명하게 식별된다. 물론, 김정은 시대의 북한군은 '김일성'이라는 '유령'이 아직도 자신과 함께 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믿음을 가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군사적 천재'의 영웅주의에 대한 '희망적 기대', 혹은 '향수'는 군사적 모험주의의 정신적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때, 군사적 천재로 내세우는 수령에 대한 북한군의 집단적 최면상태는 상대를 깔보고 자신을 높게 보는 상황인식의 오류를 촉진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군사적 오판과 모험주의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Clausewitz, Carl v. On War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 Mao, Tse-Tung, "On Protracted War (May 1938)," in : 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https://www.marxists.org/reference/archive/mao/selected-works/volume-2/mswv2_09.htm (검색일: 2022년 3월 3일).
- Morrow, James.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November 1991).
- 곽승지, "주체사상의 이론체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사상과 역사 인식』(파주: 한올아카데미, 2006).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1권』(서울: 군편, 2001).
- 국방부,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0).
- 김광운, 『북한 정치사연구I: 건당, 건국, 건군의 역사』(서울: 선인, 2003).
- 김기호, "김정일 최고사령관 시기 군사전략의 변화," 『국방연구』제57권 (2014).
- 김유석, 『군사사상 총론』(서울: 황금알, 2022).
- 김용서, "1960년대 중반 북한의 자주외교 노선 채택에 관한 연구,"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 이론』(서울: 논형, 2012).
- 김일성, "조선인민군 창건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한 연설 (1948년 2월 8일)," 『김일성 선집1』(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4).
- _____, "김일성의 직접적인 영도하에 조직 전개된 조선 인민의 항일 무장투쟁," 『조선중앙연감』(1969).
- _____, "노동당 제5차 대회 폐회사," 『조선중앙연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1).

- 김일성,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김일성 보고: 전 인민적, 전 국가적 방위체계의 수립(1970년 11월 2일),” 중앙정보부, 『북괴 군사전략자료집』(1974).
- _____, “노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2년 12월 15일),” 『김일성 선집 제4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4).
- _____, “당 단체들의 조직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결점들에 대하여(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1년 11월 1일),” 『김일성선집 3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54).
- _____,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안보통일문제 기본자료집 북한 편』(서울: 동아일보사, 1972).
- _____,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군대로 만들며 국방에서 자위의 방침을 관철하자(1963년 10월 5일),” 중앙정보부, 『북괴 군사전략자료집』(1974).
- _____, “인민군당 4기 4차 전원회의의 결론 연설(1969. 1. 6.-1. 14),” 중앙정보부, 『김일성 군사 논선』(서울: 중정, 1979).
- _____, “정치사업을 잘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조선인민군 제7차 선동원 대회에서 한 연설(1977년 11월 30일),” 중앙정보부, 『김일성 군사 논선』(1979).
- _____,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한 연설, 1948. 2. 8.,” 중앙정보부, 『김일성 군사 논선』(서울: 중정, 1979).
- _____,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조선인민군 창건 10주년 기념식에서 조선인민군 제324군 부대 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 1958년 2월 8일),” 『김일성 선집 제5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3).
- _____, “현 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강화할 데 대하여(1966년 10월 5일, 당대표자 회의),” 중앙정부, 『북괴 군사전략자료집』(1974).

- 김일성, “현정세와 당면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50년 12월 21일),” 『김일성선집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 _____, 『김일성선집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 _____, 『김일성선집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5).
- _____, 『김일성저작선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 김일성동지락전 편찬위원회, 『김일성동지락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 김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2012년 4월 20일),” 『조선의 오늘』(2012. 4. 20).
- 김정일, “수령님의 군사 사상은 혁명무력 건설의 유일한 지침이다.” 『김정일전집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 411.
- _____,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군사 사상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군사야영생들과 한 담화(1962년 10월 2일),” 『김정일전집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 김창봉, “민족보위상 명령 제12호(1968년 2월 8일),” 중앙정보부, 『북괴 군사전략자료집』(1974)..
-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국방정책연구』(2017).
<http://uci.or.kr//G704-001646.2017.33.1.005>
- _____, “김일성의 6·25전쟁전략 분석: 전략의 전술화,” 『군사』제105호 (2017. 12).
<http://doi.org//10.29212/mh.2017..105.95>
- 김태환, “김일성의 군사 사상과 군사전략,” 『국방논집』제8권(1989).
- 김학준, 『북한의 역사 제1권』(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마오쩌둥,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枪杆子里面出政权): 후베이(湖北) 한커우(汉口) 중국공산당 최고회의(긴급회의) 87회의(1927년 8월 7일),” http://chinahumanitas.net/?bwl_kb=(검색일: 2021년 12월 20일).

- 민병천, “주체사상과 군사정책 및 전략,” 『안보연구』제20호(1991).
- 박한식, “평화에 미치다,” 『한겨레 신문』(2020. 2. 17).
- 박헌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에 관하여(1949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2차 회의 회의록』(평양: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1949).
- 서상문, “중조연합사령부(中朝聯合司令部) 재론,” 『군사』제95호(2015년).
<http://doi.org/10.29212/mh.2015..95.1>
- 오진우, “인민군 창건 21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총참모장 대장 오진우 보고(1969년 2월 8일),” 중앙정보부, 『북괴 군사전략자료집』(1974).
- 유판덕, “북한의 혁명전쟁이론으로 본 북한 핵무력,” 『접경지역통일연구』제2권 제1호(2018).
- 이상택, “북한 군사전략의 역사적 고찰,” 『군사』제112호(2019).
<http://doi.org/10.29212/mh.2019..112.129>
- 이용남, “인민군 창건 26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인민군 총정치국 국장 상장 이용남 보고(1974년 2월 8일),” 중앙정보부, 『북괴 군사 전략자료집』(1974).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http://uci.or.kr//G701:C-00030335547>
- 장명순, 『북한군사연구』(서울: 팔복원, 1999).
<http://uci.or.kr//G901:A-0008446578>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서울: 한국발전연구원, 1991).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당 역사연구소, 『김정일 동지 약전』(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2009).
- 조선노동당출판사, 『세기와 더불어(계승본) 8: 김일성 동지회고록』(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최시형, “탁월한 영도, 위대한 군사전략,” 『조국지』(1970년 6월호).
- 최 현, “우리 당의 자주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체 인민을 무장시켜 요새화하자(1968년 1월 18일),” 『조선중앙방송』(1968년 1월 18일).

한익수, “조국 해방전쟁 승리 20주년 기념회 중앙보고 대회에서 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상장 한익수 보고(1973년 7월 27일),” 중앙정보부, 『북괴 군사전략자료집』(1974).

_____,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4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상장 한익수 보고,” 중앙정보부, 『북괴 군사전략자료집』(1974).

허만, “북한의 군사전략에 관련 고찰: 김일성 군사 사상적 기초,” 『국제정치논총』제24권(1984).

“김일성의 직접적 영도하에 조직 전개된 조선 인민의 항일무장투쟁: 아나문화대회에서 대회의 문헌으로 채택된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 시기의 전략 전술에 관한 문헌,” 『조선중앙연감』(1969).

“김일성이 조직 영도한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사상에 의해서 지도된 영광스러운 투쟁,” 『노동신문』(1968년 4월 25일).

“보천보 전투승리 30주년(1968년 6월 4일),” 『조선중앙연감』(1968).

“비범한 군사적 예지,” <https://ournation-school.com/lecture> (검색일: 2021년 7월 1일).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축하문,” 『노동신문』(2020년 10월 11일).

“우리 당의 군사 노선: 인민군 창건 20주년을 맞이하여,” 『조선신보』(1968년 1월 17일).

“우리 당의 불패의 혁명무력 조선인민군,” 『노동신문』(1972년 2월 8일).

“위대한 소련군대의 철거,” 『조선중앙연감』(1950년).

“인민군 창건 23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민족보위부상 상장 한익수 보고(1971년 2월 8일),” 중앙정보부, 『북괴 군사전략자료집』(1974).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결정서: 조선노동당 총비서 선거에 대하여(2021년 1월 10일),” 『조선신보』(2021년 1월 10일).

“조선노동당의 군사 노선: 조선노동당의 군사 노선의 확고부동한 기초는 김일성의 자위 사상이라는 데 대하여,” 『조선중앙 제2방송』(1969년 5월 7일-5월 8일).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조선인민군: 인민군대가 걸어온 영광에 찬 승리의 행로,” 『조선중앙연감』(1969).

“조선인민군 창건 20주년을 높은 혁명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민주조선』(1968년 1월 16일).

“주체적인 군사 사상의 빛나는 승리,” 『조선중앙통신』(2014년 7월 24일).

“진정한 혁명의 군대 인민군대,” 『노동신문』(1964년 2월 8일).

“항일 혁명전쟁의 탁월한 전략, 전술, 혁명무력 건설의 위대한 강령적 문헌: 김일성 군사논선 제1권 출판에 즈음하여,” 『노동신문』(1972년 4월 19일).

“항일유격대 창건 35주년(1968년),” 『조선중앙연감』(1968).



(Abstract)

The Historical Origin and Evolution of North Korea's 'Independent' Military Thought

Kim, Tae-hy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historical origin and evolution of North Korea's "independent" military though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rsuit of independence and the distortion of ideology," and to clarify that North Korean military ideology influenced the 'Su-Ryong(which means ringleader)-centered' regime security and offensive adventure strategy.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Max-Leninism to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creatively, North Korea's military ideology was initially conceived as a "practical military guideline" focused on self-reliance. However, North Korea's military thought, coupled with the establishment of Kim Il-sung's monolithic political system in the late 1960s, was deflected from the nature of the "practical guideline" of "self-defense" to strengthen Kim Il-sung's monolithic political power and control. Specifically, North Korea's strategy to break away from the military influence and dependence of the Soviet Union and China during the Cold War was deflected into the political logic of supporting Kim Il-sung's "military genius". This refracted into a political logic affecting North Korea's offensive nature of military thought. Military thought as a "symbolic mechanism" for idol worship turned into "Mu-o-ryu-seong"(which means flawless or perfectness)of 'Su-ryong', and then became an unwavering military guideline to create an "immortal myth." Kim Il-sung's symbolic device, a "military genius," put a kind of "persona" on the North Korean military that should not be defeated in battle, which affected North Korea's offensive adventurism.

Keywords : Juche military thought, persona, autonomy, self-defense,
anti-guerilla group, Kim Il-sung,
monolithic political system, aggressive militarism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4, pp.263-275
<https://doi.org/10.29212/mh.2022..124.26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조선과 명은 임진전쟁을 함께 극복했는가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김경록 지음),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 -

金康植*

본고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김경록)가 2022년에 발간한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에 대한 서평이다. 필자는 이 책에서 임진전쟁을 군사역사의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조선중기 한중관계사를 정리·평가하고, 새롭게 전개될 주변국과의 군사관계에 대처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1. 조선중기의 조명 관계를 담다

가. 내용 소개

올해는 임진전쟁이 발발한 지 430년이 되는 해다.¹⁾ 이를 기념하

*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1) 임진왜란의 명칭은 나라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다. 한국은 壬辰倭亂과 丁酉再亂, 중

고 기억하는 여러 학술행사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국가 사이의 전쟁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면 이보다 의미 있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정말로 시의성을 갖는다. 더욱이 동북아시아 3국인 조선, 명, 일본이 두 축으로 나뉘어 싸운 국가 사이의 전쟁에서, 대립의 한 축인 조선과 일본 관련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조선과 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성과이기 때문에²⁾ 더욱 주목받을 만한 연구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형식상 상권과 하권으로 분권되어 있지만, 상권이 445쪽, 하권이 780쪽으로 각각 끝나고 있어서 사실상 한 권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분량으로는 쉽게 내놓기 어려운 대작이다. 물론 서론과 결론도 있으며, 부록으로는 한중일 군사관계연표와 참고문헌이 붙어 있다.

한편 이 책은 이미 2017년 저자가 펴낸 『조선초기 한중군사관계사』에 연이은 연구서인데, 차후에 『조선후기 한중군사관계사』도 조만간 세상에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본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설정한 조선중기는 언제를 말하는가. 저자는 조선시대를 정치·외교사적 관점에서 구분하였는데, 건국에서 연산군대까지 14세기 말~15세기는 조선과 명이 건국되고 급변하는 원명 교체기의 국제정세에서 대내

국에서는 壬辰倭禍, 萬曆遠征, 援朝抗倭, 萬曆東援之役, 萬曆朝鮮役, 萬曆日本役이라 부르면서 조선을 원조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일본에서는 高麗陣, 朝鮮陣, 豐太合朝鮮役, 朝鮮征伐, 文祿・慶長の役이라고 부른다. 본고에서는 임진왜란이 국제전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임진전쟁으로 사용하였다.

- 2) 조선과 명의 군사와 외교 관계를 다룬 연구 가운데서 대표적인 저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주제로 보는 조선시대 한중관계사』, 동북아역사재단, 2020;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조선시대 한중관계사』, 동북아역사재단, 2018;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조선 편』, 동북아역사재단, 2018; 계승범,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 푸른역사, 2011;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김한규, 『한중관계사』Ⅱ, 아르케, 1999.

외적으로 군사와 정치의 다양한 충돌, 통합과 정립의 역사이자 시대로 보고 조선초기라고 구분하였다. 반면에 본서에서 다루는 조선중기는 16세기~17세기 초의 중종대에서 광해군 초반까지로 설정했다. 엄밀하게는 임진왜란과 그 전후 여파가 미치는 시기까지를 조선중기로 설정하였다.³⁾ 그래서 비평자는 이 시기를 임진전쟁으로 묶어서 사용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여섯 장의 목차를 중심으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권

제1장 명 중심 국제질서의 동요와 국제정세

제2장 변화와 갈등의 16세기 한중 군사관계

제3장 임진왜란의 배경과 한중 군사관계

제4장 임진왜란과 한중 군사관계의 변화

하권

제5장 임진왜란의 전개와 명군의 참전

제6장 충돌과 모색의 16~17세기 한중 군사관계

책의 목차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이 책은 저자가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를 전쟁, 군사제도, 군례, 군사외교, 군율, 군역체계, 무기체계, 군사문헌 등 다양한 군사 분야를 통해서 정리를 시도한 결과물을 세상에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전체 구성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6장 체제이다. 각 장의 내용은 저자가 제시한 군사사를 넘어서 군사관계사라는 시각

3) 조선시대의 시대구분과 관련하여 사회성격과 관련해서는 중세사회와 근세사회로 보는 입장이 있다. 조선시대 자체의 변화는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보는 입장, 전기·중기·후기로 나누어 보는 입장이 있다(김성우, 「사회경제사의 측면에서 본 朝鮮 中期」 『大丘史學』 46, 대구사학회, 1993). 이 밖에도 정치사에서는 봉당 정치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세분하기도 한다.

에서 정리되어 있다. 우선 각 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권의 제1장에서는 임진전쟁 이전의 명의 군사제도와 군사상황을 정리하였다. 16세기 명 중심 국제질서가 이완되면서 나타나는 국제정세 변화를 군사 측면에서 다루었다. 명의 전통적인 군사제도와 군사환경, 명의 군사지휘체계 특징을 황제 중심의 일원적인 체제에서 찾고, 명의 국방체계를 수도방어 중심과 변방방어 중심으로 살펴봤다. 단지 이러한 체제가 가진 문제점으로는 긴급한 군사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정세 및 명의 군사제도와 군사 환경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조선의 군사상황 변화를 중종대부터 선조대까지를 다루고 있다. 조선시대 첫 반정反正으로 기록되는 중종반정을 통한 조선과 명 사이의 반정 승인, 중종 책봉을 둘러싸고 벌어진 치열한 군사관계를 정리했는데, 승습承襲 외교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아울러 명종과 선조 초반까지 조선의 정세변화와 여진의 흥기에 따른 조선의 대명 군사외교를 살펴보고, 선조의 즉위 이후 최대 난제였던 종계변무宗系辨誣를 해결하여 정통성을 확립하려던 선조의 통치구상과 조명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임진왜란의 배경과 한중 군사관계사를 다루고 있다. 임진전쟁 발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였던 군량 수송 및 조달에 주목하고, 임진전쟁 직전까지 조선의 국방정책 변화와 전쟁 대비를 살피고 있다.

제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임진전쟁이 발발하여 전황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이에 따른 조선의 군사대응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다루고 있다. 전쟁 과정과 전황을 부산진전투 등 주요 사례로 들어 개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국왕 선조의 전쟁 지도를 살펴보고 있다. 이어서 임진전쟁 발발 이후 조선의 대명 군사외교 전개 과정과 명

의 대응을 정리하고 있다.

하권의 제5장에서는 임진전쟁이 국제전쟁으로서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조선의 대명 군사관계에서 핵심내용이라 할 명군의 참전 배경, 정책 결정 과정, 파병 과정, 전황 변화, 파병 지휘체계, 명의 임진전쟁에 대한 인식변화, 명군의 군사전략 변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황제의 군대로서 군사력을 보존하여 승리했다는 결과를 가지고 개선하고자 하였던 명의 군사적 의도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임진전쟁 당시 참전을 결정하게 된 주요 군사적 원인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임진전쟁 이후 조명 군사관계를 다루고 있다. 조일 국교재개로 인한 조선의 대명 외교체계 변화를 사행使行의 변화과정 중심으로 정리하고, 전후 조선의 전쟁 기억을 최현崔暉의 『조선 일록朝天日錄』을 사례로 살펴보고 있다.

위에 소개한 바와 같이 이 책에서 주목하여 밝힌 내용은 임진전쟁이라는 동북아의 국제전쟁을 중심에 두고, 전쟁을 포괄적이면서도 복합적으로 조망해 낸 것이다. 즉 임진전쟁이라는 전쟁의 배경으로 전쟁 이전 상황을 조선과 명 중심으로 살펴보고, 전쟁의 전개로 전쟁의 발발에서 전황의 전개, 명군의 참전, 조명 연합, 전쟁기간의 군사외교를 정리하고, 전쟁의 결과로 조명 군사관계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히 임진전쟁 시기의 한중 군사관계사에 대한 백과사전이라고 부를 만하다.

나. 연구 시각

임진전쟁은 동북아시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전쟁이었다. 국제전쟁이었던 임진전쟁이 전개되자 조선에 일본뿐만 아니라 사대외교의 종주국 명이 직접 개입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

라 국가 사이에는 전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각국의 대응이 다양한 방면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이 대작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를 보다 구체화시켜서 저자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군사관계사라는 종합적인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임진전쟁 연구에서 군사와 외교 문제를 동일한 시각으로 함께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직접 저자는 전제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군사관계사라는 새로운 범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지금까지의 군사관계사가 전쟁사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에 전쟁사는 전쟁의 역사이고, 군사관계사는 군사 관계 전반에 관련된 역사라고 규정하고 본 연구를 풀어나갔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군사관계사를 전쟁사의 한계를 넘어 군사외교, 군사의례, 무기체계, 전략과 전술, 병법서의 영향, 군제의 변화, 국방정책 등으로 확대하여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에 따라서 국가의 대외관계는 직접적·간접적으로 군사관계라고 규정하였다. 조선이 명과 대외관계를 맺은 목표는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것이었다. 때문에 전쟁으로 조선이 어려움에 놓이자 황제국 명의 참전은 필연적이었다. 그런데 참전이라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배태하는 많은 문제를 군사관계사의 시각에서 짚어내려고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책은 역사 연구의 실용적인 면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 한국 근현대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조선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다양한 역사 경험을 공유한 시대였다. 그래서 조선시대를 주목한 연구성과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한편으로 지금 한국이 처한 시대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대중국 관계를 바라고 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시의성과 교훈성을 모두 갖고 있다.

역사 속에서 대중국 관계가 안정된 시기가 언제였던가. 저자는

조선시대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조선은 원·명 교체기에 친명 정책을 통해 명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형성했다. 한마디로 명을 중심으로 한 계서적階序的인 관계였다. 계서적인 조명 관계는 명의 다양한 정치적·외교적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조선은 시대상황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명의 요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명 관계를 실용적으로 전개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이 위기에 빠진 임진전쟁 때 명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종주국이자 황제국인 명은 조선의 전장터에 직접 나와 위엄을 보여야 했다. 그것은 바로 참전(參戰)이었다. 참전하는 명의 군대는 당연히 조선의 군권을 행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행된 군사의례 등을 주목하여 살피고자 했다. 아울러 명나라의 행정조직, 군사제도, 군사계급과 직책, 군사체계를 구체화시켜서 소개하면서 도표로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전쟁에서 발생하는 군수 문제를 주목하여 전쟁사의 시각을 넓히고 있다. 임진전쟁에서 주목되는 문제는 타국의 군대가 조선의 영토에 오랜 기간 주둔한 점이었다. 이에 따라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사실 조선은 건국 이후 처음으로 명나라 군대의 장기간 국내 진주를 경험하였다. 외국 군대의 국내 진입이란 상황은 내정간섭을 받으면서 주둔국 명군의 군수 지원체계를 담당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었다.

사실 운송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했던 전근대의 전쟁에서 군수문제는 전쟁의 승패를 가름 짓는 중요한 문제였다. 임진전쟁 때 명의 만력제萬曆帝는 칙서를 통해 명군의 동원과 군량에 관련된 모든 전쟁 비용을 황제의 군대가 맡는다고 천명했지만, 참전한 명군은 현실적인 군량 문제에 직면하자 철저히 조선에 군량 조달을 전가시키고 외교적·군사적 압력까지 가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 황제 군대

의 임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였지만, 조선은 군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문제를 명의 자체 조달과 조선의 지원 과정으로 연계해서 이해하고 있는 점은 군수 문제의 실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진전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2. 임진전쟁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다

이제 임진전쟁 연구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저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보충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이 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임진전쟁에 대한 연구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는 방향을 보완 내지 보충하는 입장에서 비평자의 입장을 덧붙이고자 한다. 이것은 임진전쟁 연구에 대한 연구자들 개인의 공통된 시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첫째, 임진전쟁 같은 국제전쟁을 올바르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융합하여 구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각 나라의 군역체계를 이해하고, 사회경제적인 상황과 향촌사회의 신분제적 갈등상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임진전쟁 때 각국의 병력 동원이 결국은 국내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 문제는 군사 동원 체계뿐만 아니라 군수체계, 군량체계 등 전쟁사 연구와 관련된 모든 문제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말하는 통합적 시각의 연구는 전쟁사, 전투사 측면에서도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이 책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둘째, 전근대 동아시아의 대규모 국제전쟁이었다는 점에서 임진전쟁은 단순 전쟁사가 아닌 정치외교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임진전쟁은 명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경계인으로 존재하던 일본이 전국통일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의 개인적 요인, 감합무역勘合貿易의 필요성, 통일과정의 군사적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으킨 국제전쟁이었다. 때문에 임진왜란을 국제전쟁으로서 접근할 필요성 및 대외 관계사와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지만 이에 덧붙여 임진전쟁 전후의 왜구의 활동과 변화, 포르투갈과 스페인 상인의 아시아 진출과 활동이 더해져야만 국제전쟁으로서의 임진전쟁의 발발 요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명나라 군사에 포함되었던 다양한 군사의 존재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임진전쟁에 명의 참전에 따라 주목해야 할 부분이 군사의례 문제이다. 조선시대에 조선과 명의 의제儀制는 빈국례賓國禮에 해당하지만, 빈국례에 규정된 의제가 없을 때는 왕국례王國禮를 준용했다. 평상시와 달리 전쟁 시기에 명군이 파견되자 명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의례가 시행되었다. 전쟁 중에 이루어지는 명군 지휘관을 맞이하고 전송하는 의례는 빈례이자 군례의 성격을 동시에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제시되었다면, 전쟁 중의 단순한 사신 접대를 넘어서 외교관계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며, 조선과 명의 실체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전쟁사와 의병사의 한계를 넘어 국제관계 속에서 임진전쟁을 조망하는 성과를 기대한다. 국제전쟁으로 임진왜란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국사 중심의 연구경향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자국사 중심의 연구는 민족주의적 경향을 띠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임진전쟁은 조선, 명, 일 등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여

벌어진 역사사건이었다. 이처럼 임진전쟁은 관계사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내재되므로 일국사와 자국사 중심의 연구는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임진전쟁은 국제전쟁이었기 때문에 참전국 명나라의 정치제도, 군사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저자의 연구로 구체적으로 밝혀진 점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임진전쟁의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상대방 국가의 사료에 대한 세밀한 번역과 분석이 전제되어야 더욱 의미 있는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요청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래야만 자국사와 민족사의 입장을 극복하고 객관적인 임진전쟁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중국학계의 임진전쟁에 대한 연구경향을 소개한 의미도 크다. 이 부분은 임진전쟁에 대한 연구자가 많지 않아서 국내에 중국의 임진전쟁 연구경향이 제대로 소개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저자는 중국학계의 임진전쟁 연구가 1950~60년대, 1970~80년대 이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진전쟁에 대한 중국학계의 본격적인 연구는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중국학계의 임진전쟁 연구경향은 전쟁 원인, 진행과정과 주요 전투연구, 인물 연구, 명군 파병의 배경과 원인 및 활동, 역할에 대한 평가, 명 주도로 진행된 강화교섭, 파병의 결과로 재조지는再造之恩 문제와 전후처리 문제, 요동과 제주 등지의 전쟁 영향, 봉공封貢 외교 및 명과 일본 사이의 협상과정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전쟁의 세부사항으로 연구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아직도 중국학계의 임진전쟁 연구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려는 국내 연구자의 노력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비평자의 입장에서 이 책에서 느끼는 부족하거나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물론 이 부분은 필자가 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 진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어 본다.

먼저 군사관계사라는 용어와 연구 범위 문제이다. 이 부분은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임진전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관계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잡히지 않는다. 저자가 말한 임진전쟁 연구에서 군사와 외교 문제를 동일한 시각으로 함께 다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말한 점을 전제한다면, 군사관계사는 군사와 외교사를 합하여 부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책에서 다루고 있는 군사관계사는 군사외교, 군사의례, 무기 체계, 전략과 전술, 병법서의 영향, 군제의 변화, 국방정책 등이다. 더 엄밀하게 정의한다면 군사관계사는 군사사 문제에 전쟁 수행과 연관된 직접적인 외교 문제를 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때문에 군사와 외교라는 영역으로 구분하여 책을 서술했다면 독자들이 쉽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각 시기 안에서도 군사제도, 전투, 군수 등의 주제별로 묶어서 시대별로 서술했다면 흐름과 이해에 한층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둘째, 임진전쟁을 전쟁사라는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도 쉽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 분야의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책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자체는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연구들이다. 하지만 전쟁사, 특히 군사관계사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전쟁에 동원된 시기별 조선과 명군의 전체 군사수, 이에 따른 무기와 군량의 수 등이 총론 형식으로라도 서술되었다면, 전쟁 자체에 대한 이해가 쉽게 다가올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당시의 군사수 등을 정확하게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연구를 검토해서라도 제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에서의 전투 수행에 대한 서술 부분은 다소 일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비평자의 욕심인지 몰라도, 저자가 군사와 외교 문제를 동시에 아우르려고 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특정한 의병장의 활동 중심의 서술이라든지, 특정 지역의 전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점은 조선에서 있었던 임진전쟁 전체 전투사라는 시각의 서술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이 부분은 책 전체 내용에서 구체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의 공존으로 존재해 전체적으로는 책의 무게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서론 부분의 분량이 너무 많아 지루해지면서 책의 논점에 접근하기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내의 임진전쟁에 대한 연구성과를 정리·언급한 부분은 오히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족蛇足으로 여겨진다. 굳이 소개해야 한다면 명나라와 관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간단하게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점은 책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다소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진전쟁과 관련된 조선에서의 전투나 전쟁 상황에 대한 서술 등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서술이 되다 보니, 다른 구체적 연구성과와 대비되면서 다소 부정적인 모습으로 책에 담겨 있다.

책의 뒷부분에서 임진전쟁 이후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와 조·중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선조 말엽, 광해군대, 인조대로 왕조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변화에 대해서는 명에서 청으로 왕조의 교체라는 추이 속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편이 정치외교사 측면에서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해 큰 방향에서 임진왜란에서 병자호란으로의 변화를 주목하는 편이 조선 후기 한중군사관계사의 시작과 연계되면서 좋지 않을까 한다.

끝으로 이 분야를 전공하는 연구자로서 조선중기의 한중관계사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와 일반인들에게 양국의 군사와 역사 문제를 체계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저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작성한 조선중기 한중관계사 연표는 임진전쟁 전후의 조선과 명의 군사외교의 중요 사건을 시대순으로 정리하고 있어서 한눈에 양국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리고 요소요소에 제시된 그림들은 전쟁 상황에 대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면서 대작을 읽는 과정에서 오는 지루함을 이기도록 해준다. 다만 그림의 크기가 작게 배치된 점은 재고를 요하는 부분이다.

또한 제1장, 5장만 전체 내용을 소개하는 글이 각 장의 앞쪽에 간략하게 적혀 있다. 사실 분량이 많은 내용을 독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이런 작은 배려가 모든 장의 앞에 서술되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제4장 임진왜란과 한중 군사관계의 변화는 장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장을 나누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아무쪼록 비평자는 저자의 다음 연구성과가 하루라도 빨리 세상에 나와서 저자 자신의 바람일 조선시대 전체에 대한 한중 군사관계사 연구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한중 관계가 요청되고 있기에, 그 시기가 하루라도 앞당겨지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4, pp. 277-288
<https://doi.org/10.29212/mh.2022..124.27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냉전시대 북한과 베트남 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도미엔 지음, 『붉은 혈맹 :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

이신재*

이 글은 베트남 외교아카데미에 재직 중인 도미엔 박사가 2022년 4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을 통해 출간한 『붉은 혈맹 : 평양, 하노이 그리고 베트남전쟁』에 대한 서평이다. 필자는 이 책에서 1950~1975년 까지 25년간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 형성과 변화에 대해 베트남 학자의 시각에서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1. 북한과 베트남, 그리고 베트남전쟁

2019년 2월 미국과 북한의 제2차 정상회담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회담 이후 8개월 만이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발표되면서 언론

* 군사편찬연구소 조사연구부장

의 주목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개최 장소였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가 정상회담 장소로 선정된 배경을 놓고 언론에서는 베트남전쟁과 북한의 참전 사실을 연관지어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한때는 ‘비밀의 영역’에 놓여 있었다. 북한과 베트남 그 어느 쪽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개하거나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화의 기류가 나타났다. 비록 단편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북한과 베트남이 이를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본 평자(評者) 또한 2017년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관한 연구서를 발표한 바 있다.¹⁾ 당시 이 연구는 주월한국군의 전투 사료와 노획문서, 미국, 일본, 북한, 베트남 그리고 동남아시아 제3국의 자료까지 수집해 확인과 검토를 거쳐야 하는 지난(至難)한 작업이었다. 그 결과 이 주제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 연구’라는 과분한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도 있었다.²⁾

그 아쉬움은 베트남과 북한 사료의 부족에서 오는 연구의 한계 때문이었다. 직접적인 참전의 당사자인 두 나라가 이에 대해 공식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기에 연구의 공백 또한 남겨져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평(評)하고자 하는 책은 베트남 학자가 이 주제에 관해 집필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전쟁 시기 북한·베트남 관계에 대한 베트남 연구자의 연구가 있기는 했지만, 국내에서 한국어로 된 단행본을 출간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인 도미엔(Do Thanh Thao Mien) 박사는 국내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각종 학술지에 연구성과를 여러

1) 이신재,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7).

2) 이한우, 「북한의 베트남 참전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연구」, 『군사』 제104호, 2017.

편 발표한 바 있다.³⁾ 그리고 이 책은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이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연구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2. 책의 구성과 내용

저자는 북한과 베트남 간 ‘붉은 동맹’의 관계를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북베트남 관계, 북한의 베트남전쟁 지원, 베트남전쟁이 남북한 관계에 미친 영향이다. 저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입체적으로 이해되어야 북한과 베트남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6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4개 장을 1950년부터 1975년까지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 변화를 시기 순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제2장은 1950년대 북한과 북베트남의 외교관계 시작과 전개에 대한 내용이다. 사회주의, 반제국주의, 반미 등을 기반으로 한 양국의 연대 형성과 문화, 경제,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다루고 있다.

제3장은 1960년~1967년 시기로 베트남전쟁의 확산과 북한과 북베트남의 연대성 강화에 대한 부분이다. 이 시기 베트남의 게릴라전 개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베트남전 확대와 북한의 국내 정치, 그리고 북한의 북베트남에 대한 지원이 담겨 있다.

제4장은 1968년~1974년 시기로 북한과 북베트남 관계가 이완되

3) 도미엔, 「1975년 베트남전 종전과 북한 정부의 대응: 베트남 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제48집, 2014; 「베트남 학계의 남·북한 연구 동향 및 쟁점: 베트남전쟁 시기(1954-1975년)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제50집, 2015; 「베트남 소재 남북한 관련 자료, 베트남전쟁 시기(1954-1975년)를 중심으로」, 『군사』 제96호, 2015; 「1960년대 북한의 베트남전 지원과 공군·심리전 전문가 파병-새로 발굴한 베트남 자료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59집, 2019.

는 과정을 다룬다. 1968년 한반도의 안보위기, 북베트남에 대한 북한의 지원 감소, 통일 방식에 대한 양국의 견해 차이, 양국 관계에서 중국 변수 등을 다루고 있다.

제5장은 1975년 베트남 통일과 북한의 반응을 다루면서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요구, 주한미군 철수, 후계체제 강화 등을 기술하고 있다.

북한과 베트남 관계에 관한 역사적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국내 학계에서 각 장의 내용이 독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각 시기 별로 저자가 새롭게 발굴한 풍부한 베트남 사료는 이 책의 강점이자 가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베트남전쟁 시기 북한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전쟁 당시 북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베트남 학자가 어떻게 풀어냈고, 새롭게 발굴한 자료는 무엇일까 하는 궁금함이 크기 때문이다.

3. 베트남 사료로 확인된 북한의 참전

북한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관한 사항은 이미 여러 차례 다루어져 왔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과 북한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국내에서는 앞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7년에 북한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단행본이 출간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우드로 윌슨 센터(Woodrow Wilson Center)에서 추진 중인 국제 냉전사 연구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특히 CIA의 베트남 전문가 출신인 프리브나우(Merely Pribbenow)는 베트남 내부 사료를 발굴해 소개하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그 밖에 버뮤데즈(Joseph S. Bermudez Jr.),

쥔왈트(James G. Zumwalt), 일본의 미야모토 사토루(宮本悟) 등이 관련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북한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김일성전집』과 언론 보도, 그리고 김일성 일대기를 소재로 한 『불멸의 력사』 시리즈의 하나로 자신들의 참전 사실을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에서도 응우옌티마이화(Nguyen Thi Mai Hoa) 같은 연구자들이 베트남의 국방부 사료를 토대로 발표했고, 일부 항미(抗美)전쟁 관련 공간사에도 단편적 수준으로 소개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도미엔 박사의 이번 저서가 완전히 새롭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학자가 발굴한 베트남의 공식 사료를 활용해 국내에 저서를 출간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충분히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저자가 베트남 사료에서 새롭게 발굴했거나 기존에 제기된 연구를 확인시켜준 대표적인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북한 심리전 전문가의 참전과 훈장 수여

베트남전쟁 당시 북한의 심리전 부대가 파병되었던 점은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68년 5월 주월한국군 백마부대 작전에서 다수의 문서를 노획한 바도 있다.

도미엔 박사는 이 사항을 베트남 사료를 통해 확인해 주고 있다. 우선 전쟁 당시 북베트남의 저명한 장군이었던 반띠엔중(Ban Tien Dung)을 인용해 북한이 1968년 12월까지 심리전과 방송전문가 35명을 파견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전쟁 당시 북베트남 방송 담당자(대령)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북조선 전문가의 도움으로 방송 내용이 더 다양해지고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내용도 밝히고 있다(181쪽). 북한 심리전 전문가들이 남베트남의 한국군 주둔

지역에도 파견되어 활동했고, 베트남인으로 구성된 심리전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영어 교육을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182쪽).

이런 사항은 기존 한국군이 노획한 북한군 문서 등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지만, 이것이 베트남 사료를 통해서 재확인된 것이다. 무엇보다 북베트남도 북한 심리전 전문가들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182쪽).

그러나, 반떠옌중이 언급한 심리전 부대 파견 인원이 35명이라는 점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주월한국군이 노획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심리전 부대는 1966년 6월 1진 4명이 남베트남 지역에 도착한 이후 조직을 보강해 1967년 12월에 총 35명 규모로 편성되었다. 전체 부대 규모가 35명이었다는 의미이며, 교대 인원 등을 고려하면 전체 심리전 부대 파병 인원은 증가할 것이다.

한편, 당시 주월한국군으로 파병 중 실종되었던 수도사단 박성렬 병장에 관한 사항도 소개하고 있다. 전쟁 당시 북베트남의 ‘인민군 대신문(1967.4.25)’에 박성렬을 베트남주재 북한대사관에 인계했다는 보도내용이다(185쪽). 현재 박성렬은 이동외과병원 소속의 안학수 하사와 함께 베트남전쟁 국군포로로 인정된 상태이다. 전쟁 당시 평양에서 환영대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북베트남이 이들을 북한에 인계했다는 내용이 베트남 공식 문헌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

나. 북한의 무상지원 협정과 공병부대 파병

1965년 7월 16일 평양에서 북한과 북베트남 간에 체결된 무상지원 협정의 구체적 내용도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내용일 것이다. 총 7개 조항과 부록의 내용은 전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북베트남에

대한 북한의 지원사항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166~168쪽).

협정 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북한의 지원이 ‘무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4조는 북한이 북베트남에 조선소와 방공토굴 건설을 위해 설비와 설계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자를 파견하며 북베트남은 이에 필요한 작업조건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제5조에서는 설비와 물자의 인도에 대해 철도를 이용할 경우 북·중 국경까지는 북한이 담당하고 이후에는 베트남이 담당하며, 해상운송은 북한의 항구에서 인도한다는 사항이 담겨 있다.

협정의 부록에는 다양한 품목의 지원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주요한 내용은 1965~66년 자동차 200대, 1966년 말 트랙터 300대, 10만 루블의 약품과 의료기 등이다. 건축물 원조에서는 2개의 방공토굴을 1965~66년 말에, 1개의 지하공장을 1966~67년 말에 인도하며, 이에 대한 설비, 설계, 기술자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이 ‘방공토굴’과 ‘지하공장’에 관한 것이다. 협정문에는 추가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것은 북한의 공병부대 파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위 탈북자에 따르면 북한은 북베트남의 토굴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400~500명 규모의 공병부대를 파병했다.

이에 대해 도미엔 박사는 이것이 베트남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1965년 협정을 토대로 이들을 ‘방공토굴’ 건설을 위한 ‘기술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였다(165쪽).

도미엔의 지적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술자가 곧 북한의 공병이었다는 점은 사실로 보인다. 그 근거로 『김일성 전집』에는 김일성이 ‘갱도 건설을 위해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2000년 재일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서도 보도한 바 있다. 전 CIA의 베트남 분석관이던 프리브나우는 베트남 공병부대의 부대

사(部隊史)를 인용해 1965년도부터 북한이 ‘공병연대’를 파병했고, 이들이 북베트남의 지하 지휘 시설과 비행장 건설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⁴⁾

다. 북한의 북베트남 경제지원 현황

북한의 북베트남에 대한 경제지원과 관련하여 베트남 국립자료센터에서 발굴한 자료도 수록되어 있다. 자료에 따르면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북한의 무상지원 규모는 총 4,180만 루블 가량이었다.

북한의 지원은 1965~68년 동안 3,000만 루블이었지만, 1969~73년은 1,180만 루블로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이에 대해 1973년 북베트남의 팜반동 수상이 김일성에게 재정지원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지원을 늘리는 대신 1974년 이후 중단시켰다(204~206쪽).

1970년대 초반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이 감소한 배경에 대한 북베트남의 해석도 흥미롭다. 북베트남 당국은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문제를 지원 감소의 이유로 꼽았다. 북한이 1968년부터 시작된 베트남전 휴전협상을 보면서 베트남의 투쟁과 통일방식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206~212쪽). 저자는 이것을 ‘통일방식의 상호 견해차’라고 평가하였다.

이 자료는 1960~70년대 북한의 대외 경제지원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담고 있다.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북한의 대외 경제연구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는 언급이 부족하지만, 북한과 북베트남의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시기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제3국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기존의 북베트남 경제지원에서 더

4) Merle Pribbenow, *North Korean Military Engineer Regiment Helped Build Secret Underground Headquarters Complex during the Vietnam War* (January 22, 2019).

나아가 경제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일종의 베트남 전후 경제 복구에 참여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1974년 베트남에서 유전이 발굴되자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발굴도 기대해 본다.

4. 여전히 남겨진 물음들

가. 북한 공군의 구체적 활동

북한이 베트남전쟁에 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포함한 공군부대를 파병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북한과 베트남 두 당사국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하노이 북동쪽 외곽에 북한군 전사자 묘지도 존재한다.

북한 공군의 참전은 전투부대의 참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후 중동전쟁 파병을 거쳐 현재의 북한 공군 전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북한 공군의 베트남 파병은 1966년 10월 무렵부터 시작되었고, 30대의 미그(MiG) 전투기를 운용하였다. 이것은 베트남과 북한의 자료로 확인된다. 참가 규모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데, 베트남 국방부 자료는 96명의 전투기 조종사를 포함해 384명이라고 밝히고 있다(169쪽). 북한은 ‘1개 비행연대’, ‘윤번식 파병’ 등의 기록만 공개할 뿐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⁵⁾ 1983년 귀순한 북한 공군 조종사 이웅평은 203명의 조종사가 파병되었다고 하고,

5) 김일성, 「월남 인민의 투쟁을 지원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된다(조선인민군 제203부대 군인들과 한 담화, 1966년 10월 19일)」, 『김일성 전집』 제37권, 2001, 373~384쪽. 북한은 베트남(월남)을 ‘월남’으로 쓰고 있음.

1996년 귀순한 이철수는 ‘연인원(延人員)’ 개념을 사용해 800명 정도를 제시하고, 최대 7회를 다녀온 조종사도 있다고 했다. 자료마다 파병 규모가 차이 나는 것은 자료 부족과 함께 산출 방식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되는 물음은 파병 규모나 시기 이외에 북한 공군의 전투 활동에 관한 사항이다. 과연 북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전투 역량은 어떠했고,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김일성전집』에는 1967년 5월 30일자 김일성의 축하문이 수록되어 있다.⁶⁾ 북한이 베트남에 파병한 공군 제203부대에서 5월 20일 미군 항공기 10여 대를 격추한 것에 대한 김일성의 축하가 담겨 있다. 한 북한 귀순 조종사는 이때 사건을 기념해 북한 공군에 새로운 이름의 비행대대가 창설되었다고 했다. 또 북한 공군은 베트남 파병 당시 자신들이 촬영한 공중전 영상을 조종사 양성교육에서 활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북한 공군 제203부대의 구체적인 작전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나. 고사포부대와 특수전 부대의 참전 여부

북한이 베트남에 파병한 부대 중 고사포부대와 특수전 부대에 대한 사항도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역사소설 『운명』에는 북한 공군이 파병될 당시 고사포부대 선발대도 함께 갔다고 되어 있다.⁷⁾ 북한 스스로 고사포부대 파병을 인정한 것이다. 전 북한군 총정치국 정치군관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하노이에서의 경험이 평양의 대공방어망 구축에 중요한 참고가 되었다고 한다.

6) 김일성, 「축하문-조선인민군 제203부대 전투원들에게(1967년 5월 30일)」, 『김일성전집』 제38권, 2001, 462~465쪽.

7) 정기중, 『운명』(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2).

특수전 부대의 파병에 관한 부분도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베트남전쟁 시기 주월한국군의 자료에는 북한군 특수전 부대의 출현에 관한 ‘정보’들이 제법 많이 확인된다. 당시 언론 보도에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동남아시아 제3국의 자료에는 그 규모와 역할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까지 공군, 심리전, 공병부대의 파병 등은 베트남 사료에서도 확인되지만, 고사포나 특수전 부대에 관해서는 확인 또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더 확인해 볼 부분인 셈이다. 더불어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 미군 무기의 북한 인계를 놓고 양국 간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는 일부 알려졌다지만, 이 역시 앞으로 베트남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5. 글을 나가며

베트남전쟁을 통해 맺어진 북한과 베트남의 ‘붉은 혈맹’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부터 2000년대 이전까지 북한과 베트남 관계는 냉각기에 놓여 있었다.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의 외교관계 수립은 이러한 관계를 지속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과 베트남은 고위급 방문을 재개하면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베트남전쟁 당시 군대 파병을 비롯해 북한의 북베트남 지원이 공개되기 시작한 시점도 바로 이 무렵이다. 북한과 베트남 양측에서 전쟁 당시의 기록을 단편적이긴 하나 공식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의 기억을 호명(呼名)한 것이었다.

오늘날 베트남은 한국과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한국기

업의 주요 해외 거점이자 한국인들의 최대 해외 관광지 중 하나가 베트남인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그렇지만 북한과 베트남은 여전히 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을 통한 이념적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과 베트남 사이에 맺어진 ‘붉은 혈맹’이 적어도 이념적 측면에서는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저명한 냉전사학자 개디스(John Lewis Gaddis)는 역사가를 역사라는 풍경화를 그리는 사람에 비유했다. 개디스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냉전사 연구는 역사라는 풍경화 속에 미처 그리지 못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사료를 통해 그림이 완성될수록 그 시절 상대에 대한 이해도 함께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냉전사 연구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 책의 저자인 도미엔 박사는 베트남 사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제약받는 상황에서 1960~70년대 한반도와 베트남의 냉전사 연구를 더 풍성히 하는 데 기여한 학자이다. 이번의 저서 또한 냉전시대 북한과 베트남 관계를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현재 도미엔 박사는 귀국해 베트남 외교아카데미에서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한다. 앞으로도 도미엔 박사가 새로운 사료 발굴을 통해 냉전사 연구와 더불어 한국과 베트남 관계 발전에도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연구소 동정

1. 대외교류 및 주요 활동

○ 조사연구 발전 세미나

- 일자/장소: 2022. 7. 21.(목) / 전쟁기념관 대회의실
- 참석: 군 및 대외기관 60여 명(외교부, 국방부, KOICA 등)
- 세부진행

* 사회 : 홍규덕 교수(숙명여대)

시 간	내 용
13:30~13:45	국민의례, 참가자 소개, 환영사
13:48~13:55	동영상 시청 (작전명 미라클, 아프간의 기적, 7분)
13:55~14:35 (40분)	#1 MIRACLE : 다 함께 만들어낸 기적에 대하여 • 발표 : 박민호 (국방부 다자안보정책과장) • 토론 : 김일웅 (前 주아프간 공사참사관) 이신재 (군사편찬연구소 조사연구부장)
14:35~15:05 (30분)	#2 비전투원 아프가니스탄 소개 • 발표 : 이근욱 (서강대 교수) • 토론 : 조은일 (KIDA 선임연구원)
15:20~15:45 (25분)	#3 한국대사관의 재외국민 철수계획과 발전 방안 • 발표 : 이정규 (前 주스웨덴 한국대사)
15:45~16:10 (25분)	#4 코이카 해외 비상대피업무 소개 • 발표 : 김상철 (KOICA 글로벌안전센터장)
16:10~16:35 (25분)	#5 국제법적 시각에서 바라본 분쟁지역에서의 민간인 후송(소개) 작전 • 발표 : 김석현 (단국대 교수)
16:35~17:05 (30분)	# 자유·종합토론 • 한승범 (국방부 국제평화협력과) • 이창훈 (국제적십자위원회 군 전문관) • 서원주 (전쟁기념사업회 전시유물부장) • 이원석 (국방홍보원 제작팀장)
17:05	기념사진 촬영 (전 참석자)



〈 조사연구 발전 세미나 〉

○ 학술교류협약 체결식

－ 일자/체결기관: 2022. 7. 26.(화) / 국방어학원



〈 학술교류협약 체결식 : 군사편찬연구소-국방어학원 〉

- 국방부 차관(신범철) 부대방문
 - 일자/장소: 2022. 7. 28.(목) / 군사편찬연구소
 - 참석: 차관 등 2명, 연구소 직원 전원
 - 내용: 환담, 업무보고, 내부시설 확인



〈 국방부 차관 부대방문 〉

2. 인 사

○ 퇴 직

- 국방사부 박균용 : '22.6. 30.부(계약만료)
- 지휘부 최혜경 : '22.6. 30.부(정년퇴직)

○ 전 출

- 기획운영실 권태형 : '22. 7. 4.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
- 기획운영실 이행자 : '22. 7. 1.부(국군복지단)
- 기획운영실 김강호 : '22. 7. 11.부(국방통합데이터센터)
- 기획운영실 김선희 : '22. 6. 13.부(국군재정관리단)



〈 퇴직 신고 〉

○ 임 용

- 기획운영실 김상아 : '22.6.7.부
- 정보자료실 이서하 : '22.7.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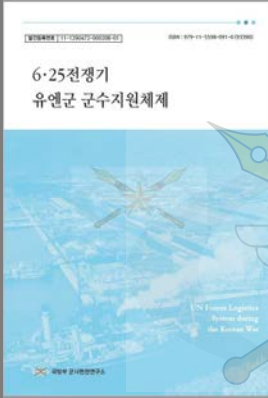
○ 전 입

- 기획운영실 이상호 : '22.6.27.부
- 기획운영실 이영애 : '22.7.1.부
- 기획운영실 이정하 : '22.7.1.부



〈 임용 및 전입 신고 〉

신간 도서 소개

구 분	내 용
	본 저서는 6·25전쟁기 유엔군의 군수지원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1부에서는 6·25전쟁의 발발과 유엔군 사령부 및 전쟁기 군수지원을 담당하던 실제 기구인 부산군수사령부, 일본군수사령부, 제2군수사령부, 제3군수사령부, 한국병참지대의 창설과 운영을 소개하였다. 제2부에서는 유엔군 군수지원 실태와 현황을 군수물자 제1종에서부터 제5종까지 각종 주요 물자별로 정리하였으며, 특수물자지원은 각각의 기술병과 부대별로 설명하였다. 또한 유엔군 군수지원의 실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 공간된 사례담의 해당 내용을 발췌 수록하여 이해를 돕도록 구성하였다. 유엔군 산하 군수지원에 관한 각 사령부의 창설과 운영에 대한 내용은 처음 소개되는 것으로 앞으로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기대된다.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제 • 전쟁사부 • 4×6배판(양장) • 2022. 7. 29.	

구 분	내 용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 [상권]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 • 군사사부 • 4×6배판(양장) • 2022. 4. 30.	조선시대 한중군사관계사 연구의 두 번째 성과물로서 상하 2권, 총 6장으로 구성하였다. 조선 중종대에서 광해군대까지 조선과 명의 군사관계를 군사외교, 군사정보, 군사편제, 임진왜란의 참전 및 전쟁전략 측면에서 종합 연구분석하고, 국제전쟁으로 임진왜란의 성격을 정리한 연구서적이다. 국제질서, 외교관계, 국방정책, 전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조선중기 군사관계의 개념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임진왜란의 국제전쟁으로서의 성격을 군사역사의 측면에서 조망함으로써 장차 새롭게 전개될 주변국과의 군사관계를 풀어가는 데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자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48-0946, 0947
(군) 900-0946, 0947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 / 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 인터넷 군사사료관

- 주 소 : Archives.imhc.mil.kr
- 주요내용 : 미 기록물관리청(NARA)의 6·25 전쟁관련 기록,
1970년 이후 연구소 발간물의 원문 제공 서비스

『軍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 / 전략 · 군사제도 · 전쟁 / 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유관한 정치사 · 외교사 · 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 · 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소개, 서평(102호부터 신설, 별도 이메일 접수), 연구동향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마.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명시.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바. 참고문헌은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적용

사. 참고문헌 중 전자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및 발행호수(발행연도) : 페이지수, DOI 또는 UCI 표기

예1 : UC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uci.or.kr /G704-001528.2017..103.010

예2 : DO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doi.org/10.12345 / mh.2017.105..103.

※ DOI 정보는 해당논문에서 식별할 수 있으나 UCI 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식별정보(KCI)에서 식별할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지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최초 투고시 저자 이름 삭제(파일명 포함), 이후 수정논문 탑재시 저자이름을 포함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4. 원고 심사 및 고료

-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
(기념품)을 지급함.

-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연락처

-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85(김태헌)
- FAX : 02-748-1638
- E-mail : imhc2@mnd.go.kr

-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신간안내, 회원모집,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 DB검색 등)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 1.
 부분개정 2009. 11. 1.
 부분개정 2017. 8. 1.
 일부개정 2022. 2.18.



제1조(목적)	303
제2조(적용대상)	303
제3조(적용범위)	303
제4조(용어의 정의)	303
제5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304

제2장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 윤리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305
제7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306
제7조의 2 (연구의 진실성)	307
제7조의 3 (인용방법 원칙)	307

제7조의 4 (중복게재)	308
제7조의 5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308
제7조의 6 (공동연구)	309
제7조의 7 (저자결정 기준)	309
제7조의 8 (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	309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309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310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310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311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311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311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312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312
제16조(판정)	313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313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314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314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314
부 칙	3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연구 원자료”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지식 재산을 말한다.

제 5 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 윤리

제 6 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한다.
-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한다.
-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

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⑨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 7 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예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⑥ 연구소는 교육부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 2 (연구의 진실성)

-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
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 ③ 모든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 3 (인용방법 원칙)

-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
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번안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
지, 출간연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
할 수 있다.
- ③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
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
야 한다.
-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고, 공개되
지 아니한 학술 자료의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한다.

제7조의 4 (중복게재)

-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가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들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③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여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7조의 5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원저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번역출판은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 6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의 7 (저자결정 기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의를 표하는 각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7조의 8 (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10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0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 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연구편찬분야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군사사(軍事史)분야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

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① 최종보고서는 소장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질의/응답〉

Q) 학위논문이 심사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출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이때 게재가 될 경우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A)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위논문이 최종 인쇄되기 전에 학위논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에 투고하면서 출처를 밝혔고 편집인이 논문게재를 승인하였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전 저작물에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고 이를 이후 저작물을 출판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최종적으로 게재여부 판단을 받는 것이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8. 7. 17. 개정)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항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청렴이 세상

유능한 안보
본뜬 한국방

부정청탁의 손길 나라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편집위원장

정형아(군사편찬연구소)

📖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세찬(국방대학교)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박걸순(충북대학교)	박상철(전남대학교)
박태균(서울대학교)	신명호(부경대학교)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김주용(원광대학교)
윤경진(경상대학교)	이한우(서강대학교)
홍석률(성신여자대학교)	
박종상(군사편찬연구소)	이미숙(군사편찬연구소)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최정준(군사편찬연구소)

📖 편집간사

김태현(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22/9(第124號)

2022년 9월 8일 印刷

2022년 9월 15일 發行

發行處 _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02-748-1685 FAX : 02-748-1638

印刷處 _ 국방출판지원단 (M22080548)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Military History

Vol. 124. 2022. 9.

- | | |
|-----------------|---|
| Lee, Sang-ho |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rmed Forces Associate University just after the Korean War |
| Kang, Seok-hwa | A Study on the Progress for the Jungju Castle Battle occurred in 1812 and the Comparison of the Capabilities of the Government Forces with the Rebel Armies |
| Hong, Min-ho | The Characteristics and its Affects of the Battle of Cheoin Castle(處仁城) in the Period of Goryeo-Mongol War |
| Choi, Jin-yeoul | The Estimating Number of Soldiers Mobilized during the period of Tang Taizong's Aggression of Goguryo
- The Number and its Implications of Tang's Forces based on the amount of Army Provisions for the Forces - |
| Choi, Kwon-ho | The Operation of Regional Strongholds in the 9th Century during the Three Kingdom Period of Korean Peninsular
- A Case of Maro Mountain Fortress located in Gwangyang - |
| Kim, Tae-hyun | The Historical Origin and Evolution of North Korea's 'Independent' Military Thought |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